

제1차 인천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2018~2022)

2018. 9.

본 보고서는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인천광역시로부터 정책과제로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인천광역시의 공식적 입장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참여연구진

연구 책임	• 한 경 현 /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팀장
공동 연구	• 이 동 옥 / 홍익대학교 초빙교수 • 최 민 정 /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 연구위원 • 최 나 리 / 젠더로 다시 여는 연구소 선임연구원 • 김 효 영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외래교수 • 정 현 지 / 인천성별영향평가센터 전담연구원 • 권 문 영 / 젠더로 다시 여는 연구소 선임연구원 • 김 현 진 / 인천여성가족재단 연구원

목 차

I. 수립 배경 및 개요	1
1. 수립 배경 및 목적	3
2. 수립 범위	4
3. 수립 방법 및 절차	5
II. 수립 여건 및 정책 환경	7
1.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특징	9
2. 인천시 정책 추진체계 분석	15
3. 인천시 정책 환경 분석	18
III. 인천시민 수요조사 분석	47
1. 설문 문항 구성	49
2. 조사 개요	56
3. 성인 조사 결과	61
4. 청소년 조사 결과	93
IV. 인천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구조	107
1. 인천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의 수립 방향	109
2. 인천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의 구조	111
3. 비전 및 정책목표	112
4. 영역별 정책과제, 세부과제	113
V. 영역별 정책과제	127
1. 성평등 의식 및 문화의 확산	129
2.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 보장	149
3.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기반 강화	177
4.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197
5. 여성폭력 근절 및 여성건강권 증진	219
6. 성주류화 정책 추진기반 강화	275
VI. 과제별 추진체계	297
1. 성평등 의식 및 문화의 확산	299
2.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 보장	301
3.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기반 강화	303
4. 일-생활 균형 사회 기반 조성	305
5. 여성폭력 근절 및 여성 건강권 증진	307
6. 성주류화 정책 추진 기반 강화	311
참고문헌	313
부록	315

표 목 차

<표 II-1> 제2차 양성평등기본계획(2018~2022) 정책과제	11
<표 II-2> 제2차 양성평등기본계획(2018~2022) 주요 핵심과제	14
<표 II-3> 인천시 여성가족국 예산 현황	17
<표 II-4> 인천시 인구 추이	18
<표 II-5> 인천시 구·군별 인구 현황(2018년 5월)	19
<표 II-6> 인천시 장애인 인구 추이	19
<표 II-7> 인천시 외국인 인구 추이	20
<표 II-8> 인천시 인구 전망	21
<표 II-9> 인천시 성별 경제활동 인구(2018년 4월)	22
<표 II-10> 인천시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22
<표 II-11> 인천시 여성 실업률 추이	23
<표 II-12> 인천시 산업별 취업자 분포(2017년)	24
<표 II-13> 인천시 직업별 취업자 분포(2017년)	25
<표 II-14> 인천시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분포(2017년)	26
<표 II-15> 인천시 평균 초혼 연령 추이	27
<표 II-16> 인천시 혼인수 및 조혼인율 추이	27
<표 II-17> 인천시 이혼수 및 조이혼율 추이	28
<표 II-18> 인천시 다문화 혼인 추이	29
<표 II-19> 인천시 합계출산율 추이	29
<표 II-20> 인천시 출생아 수 및 출생성비 추이	30
<표 II-21> 인천시 가구주 추이	30
<표 II-22> 인천시 성별 가구주 전망	31
<표 II-23> 인천시 가구원수별 가구주 전망	32
<표 II-24> 인천시 한부모가구 추이	33
<표 II-25> 인천시 어린이집 현황	33
<표 II-26> 인천시 여성의원 현황	34
<표 II-27> 인천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현황	35
<표 II-28> 인천시 여성단체 현황(2017년)	36
<표 II-29> 인천시 여성 취업 관련 기관 현황(2017년)	36
<표 II-30> 인천시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현황	37

<표 II-31> 인천시 가족 지원 시설 현황(2017년)	37
<표 II-32> 지역 성평등 지수의 지표 체계	38
<표 III-1> 「양성평등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의 설문조사 실시 규정	49
<표 III-2> 2016년 양성평등정책 실태조사 내용	50
<표 III-3> 제4차 인천여성정책 기본계획(2013~2017)의 조사 내용	53
<표 III-4> 인천시 성평등 수준 및 성평등 의식 조사 내용	53
<표 III-5> 인천시 양성평등 실태조사 설문 내용	55
<표 III-6> 제1차 인천시 양성평등정책 실태조사 개요	56
<표 III-7> 응답자의 특성(성인)	58
<표 III-8> 응답자의 특성(청소년)	60
<표 III-9> 인천시민 양성평등 의식 조사	62
<표 III-10> 여성과 남성의 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64
<표 III-11> 양성평등 문화 확산 공간에 대한 인식	66
<표 III-12> 응답자의 경제활동 상태	67
<표 III-13> 직장 내 양성평등 문화	69
<표 III-14> 직장 내 일-가정 양립 제도 운영 여부	70
<표 III-15> 일-가정 양립 제도를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	71
<표 III-16> 일-가정 양립 지원센터 인지도, 필요성, 향후 이용의향	73
<표 III-17> 직장을 그만 둔 경험과 이유(상위 8순위)	74
<표 III-18> 지역사회 활동 참여 경험 및 참여 의향	75
<표 III-19> 누구나 평등한 정치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향후 5년의 인천시 정책 ..	76
<표 III-20> 가정 내 가사분담	78
<표 III-21> 가사분담 및 자녀돌봄 분담의 만족도 및 공평도	79
<표 III-22> 자녀돌봄 지원을 위한 향후 5년의 인천시 정책	80
<표 III-23> 가족돌봄 주체, 비용, 장소에 대한 인식	81
<표 III-24> 시간 활용 및 조정에 대한 인식	82
<표 III-25>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83
<표 III-26> 젠더폭력 처벌에 인식	84
<표 III-27> 젠더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향후 5년간 인천시 정책	86
<표 III-28> 나의 건강에 대한 인식	87
<표 III-29> 외모 중요도에 대한 인식	88
<표 III-30> 인천시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관심	89

<표 III-31> 인천시에 대한 평가	90
<표 II-32> 인천시 양성평등 정책의 성과와 과제 분야	92
<표 II-33> 인천시 청소년 양성평등 의식 조사	93
<표 III-34> 인천시 청소년이 생각하는 한국사회와 인천시의 평등 수준	95
<표 III-35> 인천시 청소년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 공간에 대한 인식	96
<표 III-36> 직업에 대한 성별 이미지	97
<표 III-37> 지난 2주 동안 한 집안일(모두 선택)	98
<표 III-38> 인권에 대한 인식	99
<표 III-39> 젠더폭력 처벌에 대한 인식	100
<표 III-40> 성폭력에 대한 인식	101
<표 III-41> 외모 중요 여부	101
<표 III-42> 지난 1년간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유용성, 필요성 및 확대 여부 ...	103
<표 III-43> 양성평등 및 여성가족 정책에 대한 관심	104
<표 III-44> 인천시에 대한 평가	105
<표 V-1>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유형	131
<표 V-2> 직업에 대한 성별이미지(청소년)	132
<표 V-3> 교사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관한 표현	132
<표 V-4> 대중매체에서 성차별적 표현의 심각성	133
<표 V-5> 커뮤니티, SNS에서 여성혐오 발언의 심각성	133
<표 V-6> 방송 및 일상에서의 여성외모 비하 표현의 심각성	134
<표 V-7> 인천시 여가 문화, 체육시설이 잘 갖춰졌다는 인식	135
<표 V-8> 성평등 전시의 필요성	135
<표 V-9> 특별한 사건을 기록한 기록 보관 장소에 대한 필요성	135
<표 V-10> 인천시 경제활동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6년 기준)	151
<표 V-11> 인천시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 지표 (2014-2016)	152
<표 V-12> 인천시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세부지표별 변화추이 (2014-2016)	153
<표 V-13> 인천시 산업별, 직업별 월평균 임금 및 성별임금격차	157
<표 V-14>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대표성(5~7회/인천, 전국 비교)	179
<표 V-15> 5~6회 지방선거의 성별/연령별 투표율 비교(전국/인천)	181
<표 V-16> 시도별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현황	183
<표 V-17> 지역 성평등 지수 중 관리자 비율 성비 변화 추이(인천시)	184
<표 V-18> 가족생활 분담정도	201

<표 V-19> 직장에서 일-가정 양립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	203
<표 V-20> 일-가정 양립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	204
<표 V-21> 휴가와 퇴근	204
<표 V-22> 최근 3개년간 성폭력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인천시)	221
<표 V-23> 사회안전에 대한 시민 인식도(인천시)	221
<표 V-24> 최근 5개년간 디지털 성범죄 수사 및 검거 현황	222
<표 V-25> 여성에 대한 신체적 폭력에 대한 생각	223
<표 V-26> 부부폭력 및 데이트폭력 처벌에 대한 생각	224
<표 V-27> 여성폭력 도움 기관 인지도	224
<표 V-28> 여성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해 향후 5년간 인천시가 해야 할 정책 (중복응답)	226
<표 V-29> 성별·연령별 건강보험 보장률(2012)	228
<표 V-30> 연애에 있어 외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청소년)	228

그림 목 차

<그림 I-1> 인천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수립 절차	6
<그림 II-1> 인천시 여성정책 담당 기구	16
<그림 II-2> 인천시 분야별 성평등 수준	39
<그림 II-3> 인천시 경제활동 분야의 2014년~2016년 세부지표 값	40
<그림 II-4> 인천시 의사결정 분야의 2014년~2016년 세부지표 값	41
<그림 II-5> 인천시 교육·직업 훈련 분야의 2014년~2016년 세부지표 값	41
<그림 II-6> 인천시 복지 분야의 2014년~2016년 세부지표 값	42
<그림 II-7> 인천시 보건 분야의 2014년~2016년 세부지표 값	43
<그림 II-8> 인천시 안전 분야의 2014년~2016년 세부지표 값	43
<그림 II-9> 인천시 가족 분야의 2014년~2016년 세부지표 값	44
<그림 II-10> 인천시 문화·정보 분야의 2014년~2016년 세부지표 값	45
<그림 III-1> 인천시민 양성평등 의식 조사	61
<그림 III-2> 인천시의 남성과 여성의 평등 수준	63
<그림 III-3> 양성평등 문화 확산 공간에 대한 인식	65
<그림 III-4> 직장 내 양성평등 문화	68
<그림 III-5> 일-가정 양립 제도를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복수응답)	70
<그림 III-6> 일-가정양립지원센터 인지도, 필요성, 향후 이용의향	72
<그림 III-7> 직장을 그만 둔 경험과 이유	73
<그림 III-8> 누구나 평등한 정치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향후 5년의 인천시 정책	75
<그림 III-9> 자녀돌봄 지원을 위한 향후 인천시 정책	79
<그림 III-10> 젠더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한 5년간 인천시 정책	85
<그림 III-11> 인천시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관심	88
<그림 III-12> 향후 양성평등한 인천시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분야	91
<그림 III-13> 인천시 청소년이 생각하는 인천시의 평등 수준	94
<그림 III-14> 지난 2주 동안 한 집안 일	97
<그림 III-15> 성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 필요성 및 확대 여부	102
<그림 III-16>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관심	103

<그림 IV-1> 인천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의 수립 방향	110
<그림 IV-2> 제1차 인천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의 구조	111
<그림 V-1> 인천시 대학/대학원 진학률(2017년)	153
<그림 V-2> 인천시 성별 고용률 추이(2000~2027)	154
<그림 V-3> 연령별 경력단절여성 비율(전국)	154
<그림 V-4> 다니던 일을 그만 둔 경험과 이유(인천시 성인 / 상위 5순위)	155
<그림 V-5> 인천지역 취업희망자 및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자 규모	156
<그림 V-6> 최근 주요선거에서의 투표율 비교(7회 지선, 19대 대선)	180
<그림 V-7> 선거인의 연령별 분포(6회 지선, 인천시)	182
<그림 V-8> 향후 5년간 정치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	185
<그림 V-9> 일-생활 균형에 대한 생각(%)	200
<그림 V-10> 일-생활 균형 관련 시간 사용	200
<그림 V-11> 일-생활 균형 관련 시간 조정에 대한 욕구(%)	201
<그림 V-12> 자녀돌봄 지원을 위한 향후 5년간 인천시에 가장 필요한 정책	203
<그림 V-13> 인천시의 남성과 여성의 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277
<그림 V-14>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천시민의 관심도	278



I. 수립 배경 및 개요



1 수립 배경 및 목적

-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2014. 5.국회 통과, 2015. 7.시행)됨에 따라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었음
 -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에 근거하여 기존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13~2017)』을 수정·보완한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에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였음
- 인천시 또한 중앙 정부의 법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전부개정(2016. 2.)하였으며, 같은 법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제4차 인천시 여성정책 기본계획(2013~2017)』이 종료된 시점에서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5조(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6조(연도별 추진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인천시 양성평등 정책을 이끌어 갈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제1차 인천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2018~2022)』에서는
 - 인천시 양성평등정책 추진 여건을 분석하고
 - 인천시민의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 인천시 양성평등정책의 지향점이 될 비전 및 목표의 제시와 더불어
 - 영역별 세부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수립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8~2022년 (5개년)
-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 내용적 범위
 - 인천시 양성평등정책 현황 및 여건 분석
 - 인천시민 양성평등 실태 및 수요 조사
 - 인천시 양성평등정책의 비전 및 정책목표 제시
 - 인천시 영역별 양성평등정책 정책과제, 세부과제 및 사업 제시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5조(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인천광역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정책의 추진목표
 - 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나. 여성의 복지 및 권익증진
 - 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

3. 주요여성정책
4. 여성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운영
5. 성차별 예방 및 개선방안
6. 양성평등 촉진 및 문화 확산 방안
7.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
8.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 시책
9.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자원조달 방법

②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군수·구청장의 의견 및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종합계획과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구,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수립 방법 및 절차

- 착수보고 및 연구수행계획서 작성(2017. 10.)
- 여성가족부 및 타 시도 기본계획 검토(2017. 11. ~ 12.)
- 인천시 양성평등정책 현황 및 여건 분석(2018. 1. ~ 2.)
-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인천시민 양성평등 실태 및 수요 조사(2018. 3.~ 5.)
 - 설문조사 설계 및 설문지 개발(2018. 3.)
 - 인천시 거주 만 19세 이상 인천시민 2,000명 대상 면접 설문조사 실시
 - 인천시 거주 만 15~18세 청소년 500명 대상 면접 설문조사 실시
-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진 구성 및 초안 작성
 - 공동연구진 회의 개최(2018. 2. ~ 8.)
- 종합계획(안) 작성(2018. 5. ~ 6.)
- 종합계획(안)에 대한 영역별 자문회의 실시(2018. 6.~ 7.)
 - 인천시의원, 인천시 여성단체, 여성정책전문가(교수, 연구자), 유관기관 종사자, 담당공무원 등 총 44명
 - 자문회의 결과 반영 수정(2018. 7.)
- 제1차 인천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공청회 개최(2018. 8. 9.)
 - 공청회 결과 반영 수정(2018. 8.)
- 제1차 인천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시민토론회 개최(2018. 8. 28.)
 - 시민토론회 결과 반영 수정(2018. 9.)

<그림 1-1> 인천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수립 절차





Ⅱ. 수립 여건 및 정책 환경



1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특징

1. 추진배경 및 방향

- 2014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및 전부 개정되고 201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여성정책에서 양성평등정책으로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을 수정·보완하여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이 수립·추진되었고, 2017년 만료됨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에 의거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이 수립됨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은 다음과 같은 정책 환경을 토대로 함
 - 첫째, 젠더폭력을 용인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정도는 높아졌으나, 강력범죄 피해자 가운데 여성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 여성 안전의 취약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둘째, 성별 고정관념에 기인한 성차별적 문화가 여전하여 성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성평등한 인식 및 문화가 확산되어야 함
 - 셋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비정규직의 여성화,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관리직에서의 저조한 여성 비율 등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은 쉽게 해소되지 않아 다양한 정책이 요청되고 있음
 - 넷째,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과 함께 장시간 노동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마음 편히 쓸 수 없는 분위기에서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직장문화의 정착이 필요함
- 이상에서 살펴본 정책 환경을 토대로 수립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8~202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젠더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실에 적합한 정책을 마련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신종 폭력 관련 대응을 강화함과 동시에 성인지적 관점의 보건의료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함
- 둘째, 대중매체와 온라인 상의 성차별적 문화를 개선하고 남성이 함께하는 성평등한 문화 확산을 위한 과제를 강화함. 이에 사회적 파급력이 큰 업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성평등 교육을 실시함
- 셋째, 다양한 분야의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고 돌봄 노동자 등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직종의 근로환경을 개선함. 또한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기업의 성평등한 경영을 지원하여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과제를 보완함
- 넷째, 남성의 가사와 육아 참여를 강조하고 근로자의 모·부성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일·생활 균형을 도모함
- 다섯째, 양성평등위원회 위상 제고와 부처별 성평등 목표 실현 등 정책 추진 기반을 대폭 강화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평화·통일을 위한 활동을 활성화 함

2. 정책과제 구성 및 특징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은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라는 비전 아래 ①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②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③ 일과 생활의 균형, ④ 여성 안전과 건강 증진이라는 네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표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개의 대과제와 22개의 중과제, 그리고 70개의 소과제를 마련함

<표 II-1> 제2차 양성평등기본계획(2018~2022) 정책과제

대과제(6개)	중과제(22개)	소과제(70개)
1.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성차별 실태 모니터링
		성차별 개선 심의기반 마련
	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강화	교육과정에서의 양성평등 제고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교육
		교원·학부모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가족문화 확산
		생활 속 성차별 언어 및 표현 개선
		여성 문화유산 계승과 보존
성평등 실천 문화 확산		
양성평등 시민교육의 실효성 제고	분야별 전문인력에 대한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 제작·활용 활성화	
	양성평등 교육 제공기관의 확대 및 역량 강화	
2.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고용 기회의 평등성 제고	다양한 분야의 여성 일자리 확대
		성별직업분리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고용 현장의 성차별 개선	고용 상 성차별 해소 추진기반 정비
		고용 상 성차별 감독 및 구제 강화
	노동시장 내 여성의 지위 개선	성별임금격차 해소
		여성 집중 직종의 근로환경 개선
	여성의 경력유지·개발 지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 강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창업 지원
경력단절여성 지원 인프라 확충		
3. 여성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정치·공공분야 여성대표성 제고	정치 분야 여성대표성 제고
		정부·공공기관에서의 적극적 조치
		군인·경찰 등 특수직에서 적극적 조치 및 처우개선
		교육 분야 양성평등 임용 확대

대과제(6개)	중과제(22개)	소과제(70개)
4.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민간기업 등의 여성대표성 제고	기업의 양성평등 경영 지원
		기업 내 여성임원 비율의 확대
		전문직 직능단체 등의 여성 지위 강화
	여성 리더십 역량 강화	차세대 여성 정치 리더 양성
		여성관리자 양성 지원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돌봄 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
		돌봄자에 대한 지원 확대
		돌봄 공동체 활성화 및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근로자의 모·부성권 보장	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법정근로시간 준수
		유연한 근무형태 및 근로자의 휴가 활성화
5.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	남성 가사육아 참여 권리 보장
		가족친화인증제 활성화
		기업에 대한 일·생활 균형 지원 및 지도 강화
	여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기반 강화	일·생활 균형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인식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다양한 여성폭력 대응력 제고	여성폭력 수사·사법적 대응의 실효성 제고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환경 조성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 피해 대응 강화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대응 강화
		조직 내 여성폭력 대응 강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연계·협업 강화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피해자 중심의 지원 및 인식 제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 및 기념사업 활성화

대과제(6개)	중과제(22개)	소과제(70개)
6.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성인지적 건강증진 기반 강화	성인지적 보건 의료 정책 기반 마련
		성인지적 건강증진을 위한 인식 개선
		청소년의 건강증진 지원
		안전한 피임과 임신·출산에서의 건강권 보장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성주류화 정책 추진기반 정비	성주류화를 위한 법적·조직적 기반 마련
		정부 부처 양성평등정책 책무성 강화
		성차별 실태조사 및 성인지적 통계 관리
		성인지적 정책 분석·평가 제도의 효과성 제고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공무원 성인지 교육 내실화
		지방자치단체 양성평등정책 역량 강화
		양성평등정책 전문 인력 체계적 양성·관리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	양성평등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시민사회 참여 보장
		다각적 협력체계를 통한 성평등 의식 확산
	평화통일 활동 및 국제협력 증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활동 활성화
		국제협약 이행 내실화 및 협력사업 활성화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은 제1차 양성평등 실태조사와 대국민 양성평등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성평등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가사·육아에의 남성 참여, 성별임금격차 해소, 대중매체에서의 성차별적 표현 개선을 신규과제에 반영하는 등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였고, 성불평등 해소를 위해 성평등한 문화 확산에 초점을 두면서 성별 격차 없는 고용과 사회참여를 위해 사회·구조적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또한 양성평등위원회 위상 제고와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 수립을 통해 모든 부처의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특징이 있음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의 70개 정책과제 가운데 이와

같은 특징을 반영한 주요 핵심과제는 아래의 <표 II-2>에 제시되어 있음

<표 II-2> 제2차 양성평등기본계획(2018~2022) 주요 핵심과제

대과제	주요 핵심과제
1.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상담을 위한 교원 교육 강화
	온라인 이용자사업자에 대한 성평등 가이드라인 제공, 성차별 모니터링 강화
	언론·미디어 종사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
2.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전 지방공기업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적용 대상 확대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AA 부진 사업장에 성별임금격차 현황 제출 의무화
	경력단절여성 대상 사례관리 등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
3. 여성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민간기업의 여성임원 비율 공개 및 양성평등 경영 지원
	여성 고위공무원 목표제 및 공공기관 여성임원 목표제 도입 및 실시
	지방공기업 여성관리자 목표제 도입 및 단계적 확대 (17년) 500인 이상, (18년) 300인 이상, (19년) 전체 확대
4.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돌봄 지원 확대, 지역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및 급여 확대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 단계적 확대
5.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 사각지대 해소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온라인 성범죄·스토킹 등 처벌 및 피해 자 보호 근거 마련
	공공기관 성희롱에 대한 ‘부·처·청’ 관리·감독 강화 및 사업장 내 예방·대응장치 강화
6.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및 연구소 설치 등 기념사업 추진
	여성건강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국민건강증진계획에 성별 지표 적용
	양성평등위원회 위상 제고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 수립 및 추진 실적 평가체계 마련

2 인천시 정책 추진체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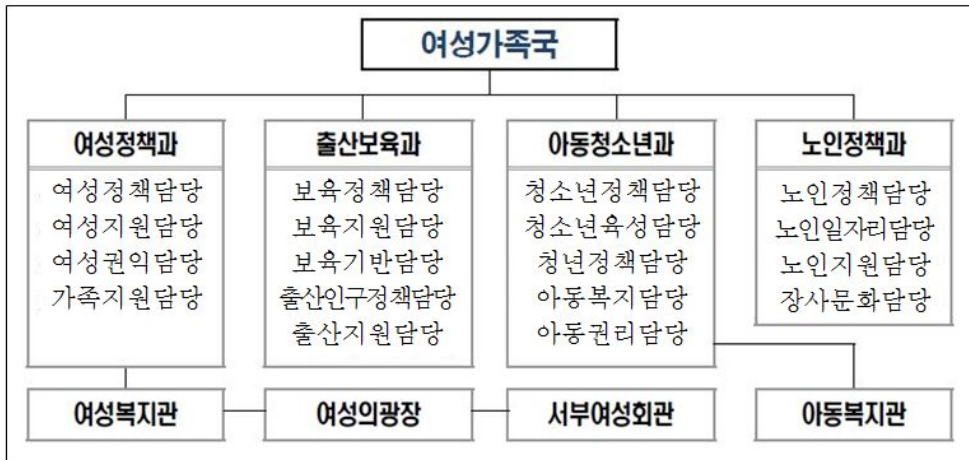
1. 법적 체계

-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인천시 자치법규로는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건강가정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이 있음
- 인천시의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는 2004년에 제정되어 2013년까지 다섯 차례 일부 개정되었고, 2016년에는 전부개정되었음
- 제정된 이후에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친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는 제1장 총칙, 제2장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제3장 여성정책참여위원회, 제4장 양성평등기금, 제5장 인천광역시여성상, 제6장 여성단체의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성평등 정의, 시장 등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의무,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제반 사항, 성주류화 전략 관련 제도, 여성인적자원 개발, 젠더폭력 관련 예방 교육, 여성정책참여위원회 구성과 기능, 성평등 기금 등이 포함되어 있음

2. 행정 추진 체계

- 인천시 여성정책 담당 기구는 아래의 <그림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가족국이 있음. 여성가족국은 여성정책과, 출산보육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정책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정책과에는 여성정책담당, 여성지원담당, 여성권익담당, 가족지원담당이 있음. 또한 4개의 사업소도 운영되고 있음

<그림 II-1> 인천시 여성정책 담당 기구



출처 : 인천시 홈페이지 조직도(<http://www.incheon.go.kr/app/organize-www>)

- 여성정책담당은 양성평등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양성평등기금 관리 및 추진,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 성주류화 관련 제도 추진,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 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여성지원담당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 여성정책 자문위원회 운영 및 여성단체 지원 사업을 추진함
- 여성권익담당은 아이돌봄사업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등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방지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가족지원담당은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등 건강가정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가족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 인천시 여성가족국 예산은 2018년을 기준으로 2017년에 비해 188,939백만원 증가하여 1,509,104백만원으로 나타남. 이는 2018년을 기준으로 인천시 본 예산의 전체 예산인 8,933,618백만원의 16.9%를 차지하고 있음
- 2018년을 기준으로 여성가족국 전체 예산 가운데 여성정책과 예산은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 대비 증가 비율 또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3> 인천시 여성가족국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증감
합계	1,320,165	1,509,104	188,939
여성정책과	31,507	33,773	2,266
출산보육과	566,832	609,363	42,531
아동청소년과	66,439	116,605	50,166
노인정책과	642,823	736,397	93,574
사 업 소	12,564	12,966	402

출처 : 인천시(2018), 2018 여성가족국 주요업무계획

3 인천시 정책 환경 분석

1. 인구학적 변화 및 전망

- 인천시 전체 인구에서 여성 비율은 2005년 49.7%, 2010년 49.9%, 2015년 49.8%로 큰 폭의 변화를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2018년 5월을 기준으로 49.8%를 유지하고 있음. 인천시의 여성 인구 비율은 전국의 여성 인구 비율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음

<표 II-4> 인천시 인구 추이

(단위 : 천명, %)

연도	인천시				전국			
	계	남성	여성	여성 비율	계	남성	여성	여성 비율
2005	2,531	1,273	1,258	49.7	47,278	23,623	23,654	50.0
2010	2,662	1,334	1,327	49.9	48,580	24,167	24,413	50.3
2015	2,822	1,414	1,407	49.8	49,705	24,819	24,885	50.0
2018. 5	2,953	1,481	1,471	49.8	51,796	25,859	25,936	50.0

출처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인구총조사', 각년도

주: 2018년 5월 자료는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활용함

- 인천시 군구별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인구 가운데 여성 비율은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가 50.0%를 넘어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 옹진군의 여성 인구 비율은 43.3%로 가장 낮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구가 47.9%로 전체 인구 가운데 여성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현저히 낮음

<표 II-5> 인천시 구·군별 인구 현황(2018년 5월)

(단위 : 명, %)

	계	남성	여성	여성비율
합계	2,953,255	1,481,506	1,471,749	49.8
중구	118,860	61,828	57,032	47.9
동구	67,586	34,089	33,497	49.5
미추홀구	419,285	211,549	207,736	49.5
연수구	339,395	168,892	170,503	50.2
남동구	538,568	268,194	270,374	50.2
부평구	531,827	263,958	267,869	50.3
계양구	317,502	158,546	158,956	50.0
서구	530,274	267,927	262,347	49.4
강화군	68,723	34,501	34,222	49.7
옹진군	21,235	12,022	9,213	43.3

출처 : 행정안전부(2018), 주민등록 인구통계

- 다음으로 인천시 전체 장애인 가운데 여성 비율은 2005년 33.9%에서 2010년 39.1%로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에 2017년 39.7%에 이르렀으나 전국의 여성 장애인 비율보다는 항상 낮게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2005년 이래 인천시 전체 장애인 가운데 여성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여성 장애인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표 II-6> 인천시 장애인 인구 추이

(단위 : 명, %)

연도	인천시				전국			
	계	남성	여성	여성 비율	계	남성	여성	여성 비율
2005	93,869	62,075	31,794	33.9	1,789,443	1,138,641	650,802	36.4
2010	131,815	80,311	51,504	39.1	2,517,312	1,468,333	1,048,979	41.7
2015	134,191	81,324	52,867	39.3	2,490,406	1,446,943	1,043,463	41.8
2017	138,304	83,337	54,967	39.7	2,545,637	1,475,550	1,070,087	42.0

출처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장애인 현황', 각년도

- 인천시 전체 외국인 인구 가운데 여성 비율은 2005년 33.5%에서 2017년 42.2%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017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외국인 여성 비율인 42.8%보다는 조금 낮은 편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 여성 가운데 인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 비율이 2010년부터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향후 전국의 외국인 인구 가운데 여성 비율과 비슷한 수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표 II-7> 인천시 외국인 인구 추이

(단위 : 명, %)

연도	인천시				전국				전국 대비 인천 여성 비율
	계	남성	여성	여성 비율	계	남성	여성	여성 비율	
2005	31,683	21,071	10,612	33.5	485,477	283,998	201,479	41.5	5.3
2010	49,992	31,083	18,909	37.8	918,917	514,956	403,961	44.0	4.7
2015	67,850	40,224	27,626	40.7	1,363,712	788,663	575,049	42.1	4.8
2017	79,170	45,773	33,397	42.2	1,479,247	845,663	633,584	42.8	5.3

출처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인구총조사', 각년도

- 인천시 향후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다 2045년에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는 2040년부터 인천시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이처럼 인천시 전체 인구나 여성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전체 인구 가운데 여성 비율은 2018년 5월 기준으로 49.8%에서 조금씩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표 II-8> 인천시 인구 전망

(단위 : 천명, %)

연도	인천시				전국			
	계	남성	여성	여성 비율	계	남성	여성	여성 비율
2020	2,783	1,400	1,382	49.7	49,325	24,679	24,645	50.0
2025	2,827	1,417	1,410	49.9	49,107	24,505	24,602	50.1
2030	2,853	1,423	1,430	50.1	48,643	24,190	24,444	50.3
2035	3,186	1,593	1,592	49.9	52,833	26,437	26,395	49.9
2040	3,180	1,586	1,593	50.0	52,197	26,092	26,105	50.0
2045	3,136	1,561	1,574	50.1	51,051	25,492	25,559	50.0

출처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장래인구추계', 각년도

2. 경제학적 변화 및 전망

- 2018년 4월 기준으로 인천시 1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는 2,498천명으로, 여성이 1,266천명, 남성이 1,233천명으로 여성이 약간 많음. 그러나 비경제 활동인구는 여성이 565천명, 남성이 291천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경향은 전국의 현황과 유사함
- 인천시 경제활동인구는 총 1,642천명으로 생산 가능 인구의 65.7%가 경제 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나 성별로는 남성의 76.4%, 여성의 55.4% 정도가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인천시 생산 가능 인구 가운데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과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은 <표 II-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에 비해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그런데 인천시 실업률은 전국보다 높고 특히나 여성 실업률이 5.4%로 전국의 여성 실업률인 4.0%와 큰 차이를 보여 여성의 실업률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음

<표 II-9> 인천시 성별 경제활동 인구(2018년 4월)

(단위 : 천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 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전국	계	44,122	28,029	26,868	1,161	16,093	63.5	60.9	4.1
	여성	22,458	11,956	11,477	479	10,503	53.2	51.1	4.0
	남성	21,664	16,073	15,391	682	5,591	74.2	71.0	4.2
인천	계	2,498	1,642	1,562	80	856	65.7	62.5	4.9
	여성	1,266	701	663	38	565	55.4	52.4	5.4
	남성	1,233	942	899	43	291	76.4	72.9	4.5

출처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경제활동인구조사'

- 인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표 II-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였지만, 2013년 52.5%에서 조금씩 증가하여 2018년 4월 기준으로 55.4%에 이르고 있음
- 또한 인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보다 매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현황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인천시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비해 전체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II-10> 인천시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단위 : 천명,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4
전국	계	61.7	62.7	62.8	62.9	63.2	63.5
	여성	50.3	51.5	51.9	52.2	52.7	53.2
	남성	73.5	74.4	74.1	74.0	74.1	74.2
인천시	계	63.9	64.3	64.4	64.9	64.7	65.7
	여성	52.5	53.3	53.1	53.5	53.3	55.4
	남성	75.6	75.5	75.9	76.7	76.4	76.4

출처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표 II-11>은 인천시 여성 실업률 추이로, 2017년에 큰 폭으로 감소하는 변화를 보이긴 하였지만, 2013년 3.8%에서 2018년 4월 기준으로 5.4%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전국의 여성 실업률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나 2014년과 2018년에 인천시 여성 실업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II-11> 인천시 여성 실업률 추이

(단위 :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4
전국	2.8	3.5	3.5	3.6	3.5	4.0
인천시	3.8	5.1	4.8	4.5	3.8	5.4

출처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인천시 산업별 취업자 분포에 따르면, 여성 취업자가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분야로 여성 취업자 가운데 299천명(45.2%)이 종사하고 있음
- 인천시 여성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는 전국 여성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와 대체적으로 유사하나 농림·어업 분야에서는 전국보다 다소 낮고 광공업 분야에서는 전국보다 조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인천시 남성 취업자의 경우에는 239천명(26.9%)이 제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 산업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여성 취업자가 가장 많았던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분야에도 26.0%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조업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음

<표 II-12> 인천시 산업별 취업자 분포(2017년)

(단위 : 천명, %)

분야	인천시 전체		인천시 남성		인천시 여성		전국 여성	
	취업자 수	구성비	취업자 수	구성비	취업자 수	구성비	취업자 수	구성비
전체	1,550	100.0	887	100.0	662	100.0	11,456	100.0
농림·어업	4	0.3	3	0.3	1	0.2	517	4.5
광공업	353	22.8	240	27.0	113	17.0	1,377	12.0
제조업	353	22.8	239	26.9	113	17.0	1,373	11.9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192	76.9	644	72.7	548	82.8	9,562	83.5
건설업	132	8.4	122	13.8	10	1.5	192	1.7
도소매· 음식숙박업	347	22.4	162	18.3	184	27.8	3,172	27.7
전기·운수· 통신·금융	184	11.9	129	14.6	55	8.3	820	7.1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및 기타	530	34.2	231	26.0	299	45.2	5,379	47.0

출처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17 경제활동인구연보'

- 인천시 직업별 취업자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 취업자 가운데 21.1%가 사무 종사자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다음으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20.7%로 나타남. 전국 직업별 여성 취업자 분포에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이 사무종사자로 나타나 전국 현황과는 1순위와 2순위가 바뀐 것을 알 수 있음
- 인천시 남성 취업자는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21.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성별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표 II-13> 인천시 직업별 취업자 분포(2017년)

(단위 : 천명, %)

분야	인천시 전체		인천시 남성		인천시 여성		전국 여성	
	취업자 수	구성비	취업자 수	구성비	취업자 수	구성비	취업자 수	구성비
전체	1,550	100.0	887	100.0	662	100.0	11,456	100.0
관리자	6	0.4	4	0.4	2	0.3	40	0.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94	19.0	157	17.7	137	20.7	2,677	23.4
사무종사자	287	18.5	148	16.7	140	21.1	2,232	19.5
서비스 종사자	169	10.9	54	6.1	116	17.5	1,939	16.9
판매종사자	183	11.8	88	9.9	95	14.3	1,550	13.5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6	0.4	5	0.5	1	0.1	447	3.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58	10.2	138	15.6	20	3.0	335	2.9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16	13.9	186	21.0	30	4.5	398	3.5
단순노무 종사자	231	14.9	107	12.1	123	18.5	1,838	16.0

출처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17 경제활동인구연보'

- 인천시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분포를 보면, 여성 취업자 가운데 임금근로자가 8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자영업주가 13.7%, 무급가족 종사자가 4.3%로 나타났음. 이는 전국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현황과 동일함
- 인천시 남성 취업자 가운데 임금근로자는 80.0%로 여성과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자영업주는 19.5%, 무급가족 종사자는 0.5%로 여성 분포와 다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남성 임금근로자는 상용직이 55.9%, 임시직이 17.6%인데 반해, 여성 임금근로자는 상용직이 46.1%, 임시직이 30.2%로 여성의 근로형태가 불안정함을 알 수 있음

<표 II-14> 인천시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분포(2017년)

(단위 : 천명, %)

분야	인천시 전체		인천시 남성		인천시 여성		전국 여성	
	취업자 수	구성비	취업자 수	구성비	취업자 수	구성비	취업자 수	구성비
전체	1,550	100.0	887	100.0	662	100.0	26,604	100.0
자영업주	264	17.0	173	19.5	91	13.7	5,590	21.0
무급가족 종사자	33	2.1	4	0.5	29	4.3	997	3.7
임금근로자	1,253	80.9	710	80.0	543	82.0	20,018	75.3
상용직	801	51.7	496	55.9	305	46.1	13,600	51.2
임시직	357	23.0	156	17.6	200	30.2	4,928	18.5
일용직	96	6.2	58	6.5	38	5.7	1,489	5.6

출처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17 경제활동인구연보'

3. 사회·문화적 변화 및 전망

- 우선 인천시의 사회·문화적 변화 및 전망을 가구 및 가족에 관한 현황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함
- 2017년을 기준으로 인천시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0.19세로 전국의 여성 평균 초혼 연령인 30.24세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또한 2005년 이래로 전국의 여성 평균 초혼 연령 상승과 유사하게 인천시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표 II-15> 인천시 평균 초혼 연령 추이

(단위 : 세)

연도	인천시		전국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05	30.71	27.65	30.87	27.72
2010	31.70	29.03	31.84	28.91
2015	32.46	29.85	32.57	29.96
2017	32.80	30.19	32.94	30.24

출처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 인천시 혼인수는 2005년 16,515건에서 2010년 17,407건으로 증가하였다가 2015년 17,118건, 2017년 15,235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인천시 조혼인율은 2005년과 2010년에는 6.4%로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나, 2015년 5.9%, 2017년 5.2%로 감소하고 있음
- 인천시의 조인혼율 비율은 전국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국 대비 인천시 혼인 비율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

<표 II-16> 인천시 혼인수 및 조혼인율 추이

(단위 : 건, %)

연도	인천시		전국		전국 대비 인천시 혼인 비율
	혼인수	조혼인율	혼인수	조혼인율	
2005	16,515	6.4	314,304	6.5	5.3
2010	17,407	6.4	326,104	6.5	5.3
2015	17,118	5.9	302,828	5.9	5.7
2017	15,235	5.2	264,455	5.2	5.8

출처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 인천시 이혼수는 2005년 8,646건, 2010년 7,354건, 2015년 7,116건, 2017년 6,988건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로 보이고 있음. 그러나 전국 대비 인천시 이혼 비율은 2005년 6.8%에서 2010년 6.3%로 감소하였다가 2015년 6.5%, 2017년 6.6%로 다시 상승하고 있어 이혼수 감소 추세가 인천시보다 전국이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인천시 조이혼율 또한 2005년 3.3%, 2010년 2.7%, 2015년 2.5%, 2017년 2.4%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그러나 전국 조이혼율보다는 항상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인천시 조이혼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혼으로 인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피해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좀 더 크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혼 여성에 대한 정책적 방안 마련이 요구됨

<표 II-17> 인천시 이혼수 및 조이혼율 추이

(단위 : 건, %)

연도	인천시		전국		전국 대비 인천시 이혼 비율
	이혼수	조이혼율	이혼수	조이혼율	
2005	8,646	3.3	128,035	2.6	6.8
2010	7,354	2.7	116,858	2.3	6.3
2015	7,116	2.5	109,153	2.1	6.5
2017	6,988	2.4	106,032	2.1	6.6

출처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 인천시 다문화 혼인 건수는 2010년 1,890건에서 2015년 1,155건으로 다소 감소하다가 2016년 1,232건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음. 이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전국의 다문화 혼인 건수와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전체 혼인 건수 가운데 다문화 혼인 비중은 전국과 유사함

<표 II-18> 인천시 다문화 혼인 추이

(단위 : 건, %)

연도	인천시		전국	
	다문화 혼인 건수	다문화 혼인 비중	다문화 혼인 건수	다문화 혼인 비중
2010	1,890	10.7	35,098	10.8
2015	1,155	6.6	22,462	7.4
2016	1,232	7.5	21,709	7.7

출처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 인천시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75명에서 2010년 1.214명, 2015년 1.216명으로 증가하다 2017년 1.007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음. 이러한 인천시 합계출산율 추이는 전국의 합계출산율 추이와 유사하여 인천시만의 특징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출산율의 저하는 일·생활 균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함

<표 II-19> 인천시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 명)

연도	인천시	전국
2005	1.075	1.085
2010	1.214	1.226
2015	1.216	1.239
2017	1.007	1.052

출처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 인천시 출생아 수는 2005년 22,825명에서 2010년 25,752명으로 다소 증가하였다가 2015년 25,491명, 2017년 20,445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인천시 출생성비는 2005년 106.4명에서 2015년 107.3명에 이르기까지 꾸준

하계 증가하다가 2017년 107.2명으로 다소 감소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출생아 가운데 남아가 여아보다 많은 상태는 유지되고 있음

<표 II-20> 인천시 출생아 수 및 출생성비 추이

(단위 : 명)

연도	인천시				전국			
	계	남아	여아	출생성비	계	남아	여아	출생성비
2005	22,825	11,768	11,057	106.4	435,031	225,685	209,346	107.8
2010	25,752	13,295	12,457	106.7	470,171	242,901	227,270	106.9
2015	25,491	13,193	12,298	107.3	438,420	224,906	213,514	105.3
2017	20,445	10,578	9,867	107.2	357,771	184,308	173,463	106.3

출처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 인천시 가구주 가운데 여성은 2005년 163,755가구에서 2017년 316,979가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전국의 여성 가구주 비율에 비해서는 항상 낮게 나타나고 있음

<표 II-21> 인천시 가구주 추이

(단위 : 가구, %)

연도	인천시				전국			
	계	남성	여성	여성비율	계	남성	여성	여성비율
2005	823,023	659,268	163,755	19.9	15,887,128	12,401,908	3,485,220	21.9
2010	918,850	690,369	228,481	24.9	17,339,422	12,841,928	4,497,494	25.9
2015	1,045,417	750,090	295,327	28.2	19,111,030	13,460,593	5,650,437	29.6
2017	1,080,285	763,306	316,979	29.3	19,673,875	13,658,562	6,015,313	30.6

출처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인구총조사', 각년도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천시 여성 가구주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2045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남성 가구주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2045년을 기준으로 남성 가구주는 조금 감소하는데 반해 여성 가구주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인천시 가구주 가운데 여성 비율은 전국의 여성 가구주 비율보다 조금씩 낮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2045년에는 비슷할 것으로 예상됨. 인천시 여성 가구주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지역적 분석과 함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표 II-22> 인천시 성별 가구주 전망

(단위 : 가구, %)

연도	인천시				전국			
	계	남성	여성	여성 비율	계	남성	여성	여성 비율
2020	1,114,816	774,531	340,285	30.5	20,174,317	13,802,732	6,371,585	31.6
2025	1,190,537	801,914	388,623	32.6	21,013,656	14,000,154	7,013,502	33.4
2030	1,251,505	822,229	429,276	34.3	21,640,586	14,116,676	7,523,910	34.8
2035	1,297,687	834,854	462,833	35.7	22,067,468	14,133,291	7,934,177	36.0
2040	1,330,060	839,134	490,926	36.9	22,306,364	14,035,602	8,270,762	37.1
2045	1,345,554	833,121	512,433	38.1	22,317,526	13,790,386	8,527,140	38.2

출처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인구총조사', 각년도

- 인천시 가구원수별 가구수를 살펴보면, 『제1차 인천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이 추진되는 2018년을 기준으로 2인 가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1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이상 가구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20년 이후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는 꾸준히 증가하지만,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이상 가구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이에 인천시의 정책이 결혼과 출산을 통해 구성되는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를 기준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표 II-23> 인천시 가구원수별 가구수 전망

(단위 : 천가구)

연도	구분	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2018	전국	19,751	5,738	5,411	4,212	3,321	822	244
	인천시	1,085	272	292	252	204	49	13
2020	전국	20,174	6,067	5,712	4,282	3,141	748	220
	인천시	1,115	291	313	258	193	45	12
2030	전국	21,640	7,196	6,967	4,473	2,383	482	137
	인천시	1,251	378	405	277	150	31	8
2040	전국	22,306	7,953	7,632	4,432	1,860	336	91
	인천시	1,330	447	457	278	118	22	5

출처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인구총조사', 각년도

- 인천시 한부모가구는 2005년 81,898가구에서 2010년 100,156가구, 2015년 127,258가구, 2017년 124,582가구로 증가하는 추세임. 한부모가구 가운데 모자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77.3%에서 2010년 76.6%, 2015년 74.1%, 2017년 74.6%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부자가구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2018년 인천시 한부모가구 가운데 모자가구 비율은 전국의 한부모가구 가운데 모자가구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한부모가구에 대한 정책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모자가구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II-24> 인천시 한부모가구 추이

(단위 : 가구, %)

연도	인천시			전국		
	계	부자가구	모자가구	계	부자가구	모자가구
2005	81,898	18,614	63,284 (77.3)	1,369,943	286,923	1,083,020 (79.0)
2010	100,156	23,449	76,707 (76.6)	1,594,138	347,448	1,246,690 (78.2)
2015	127,258	32,947	94,311 (74.1)	2,060,162	537,608	1,522,554 (73.9)
2017	124,582	31,583	92,999 (74.6)	2,005,930	518,191	1,487,739 (74.2)

출처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인구총조사', 각년도

- 인천시 어린이집은 2015년 2,278개소, 2016년 2,231개소, 2017년 2,186개소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출생아 수의 점차적인 감소 경향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음
-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정 어린이집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순으로 나타남.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 수가 감소하거나 유지되는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이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일·생활 균형을 위해 기업과 국가가 함께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 할 수 있음

<표 II-25> 인천시 어린이집 현황

(단위 : 개소)

년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2015	2,278	140	11	20	814	1,236	6	51
2016	2,231	150	11	19	808	1,181	6	56
2017	2,186	155	11	17	800	1,132	6	65

출처 : 여성여성가족재단, 『2018 인천 성 인지 통계』

- 다음으로 인천시의 사회·문화적 변화와 전망을 여성의 정치 및 사회 참여에 관한 현황을 토대로 고찰해 보면, 인천시 여성의원 현황에서, 광역 의원 가운데 여성 비율은 2006년 9.1%에서 2010년 15.2%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2014년 8.6%로 다시 감소하였음
- 전국적으로도 제7차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성 당선인의 비율이 19.4%인데 비해 인천시 여성의원은 8.1%에 불과함. 이에 여성의 정치 참여 활성화와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요청되고 있음
- 인천시 기초의회에서의 여성 비율은 2006년 15.2%, 2010년 26.8%, 2014년 25.9%로 2014년에 다소 감소하였지만, 제7차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당선인 가운데 여성 비율이 39.8%로 나타나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음. 인천시에서는 광역의회에서의 여성대표성 문제가 대두된 데 비해 기초의회에서는 여성의 정치 참여가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표 II-26> 인천시 여성의원 현황

(단위 : 명, %)

구분		광역의회			기초의회		
		계	여성	비율	계	여성	비율
2006	전국	733	89	12.1	2,888	437	15.0
	인천시	33	3	9.1	112	17	15.2
2010	전국	761	113	14.8	2,888	626	21.7
	인천시	33	5	15.2	112	30	26.8
2014	전국	789	113	14.3	2,898	732	25.3
	인천시	35	3	8.6	116	30	25.9
2018	전국	824	160	19.4	2926	900	30.8
	인천시	37	3	8.1	118	47	39.8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DB

* 2018년은 당선인 통계 기준

- 2016년을 기준으로 인천시 공무원 가운데 여성은 4,786명으로 34.9%이고 5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여성은 166명으로 13.0%로 나타남. 5급 이상인 관리직 가운데 여성 비율은 2014년 12.5%, 2015년 12.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공무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것은 의사결정 분야에서의 여성의 낮은 대표성을 의미하므로 앞서 여성의원 현황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함
- 인천시의 여성공무원 비율과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행정조직에 여성의 경험과 이해가 반영되어 성평등한 방향으로 정책 및 사업이 기획·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성공무원의 증가, 특히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확대가 절실함

<표 II-27> 인천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현황

(단위 : 명, %)

구분		지방자치단체 전체 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계	여성	비율	계	여성	비율
2014	전국	289,914	94,346	32.5	21,805	2,527	11.6
	인천시	13,301	4,474	33.6	1,261	157	12.5
2015	전국	296,273	99,865	33.7	21,787	2,535	11.6
	인천시	13,585	4,599	33.9	1,258	156	12.4
2016	전국	303,401	106,012	34.9	22,083	2,775	12.6
	인천시	13,721	4,786	34.9	1,275	166	13.0

출처 : 행정안전부, '행정자치통계연보', 각년도

- 인천시 여성단체 현황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여성단체협의회 21개, 인천여성연대 7개로 총 28개의 여성단체가 있음. 여성단체에 가입된 회원 수는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53,532명, 인천여성연대 5,797명으로 총 59,329명임

<표 II-28> 인천시 여성단체 현황(2017년)

(단위 : 개, 명)

구분	여성단체협의회	인천여성연대	계
단체 수	21	7	28
회원 수	53,532	5,797	59,329

출처 : 인천시, '2017년도 여성정책추진계획'

- 마지막으로 인천시의 사회·문화적 변화 및 전망을 여성의 권익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 현황 중심으로 살펴보면, 인천시에서 여성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은 아래의 <표 II-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년을 기준으로 총 11개가 있음. 여성 취업 관련 기관 가운데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2012년 6개소에서 2017년 7개소로 증가해 가장 많음. 이는 여성의 일·생활 균형을 보장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흐름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음
- 인천시에 3개소가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취·창업 교육과 상담, 그리고 취업연계를 주로 지원하고 있음

<표 II-29> 인천시 여성 취업 관련 기관 현황(2017년)

(단위 : 개소)

구분	여성새일센터	광역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2012	6	0	3
2017	7	1	3

출처 : 인천시, '여성정책추진계획', 각년도

- 인천시에 젠더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2017년 기준으로 23개소가 있음. 상담소 가운데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설이 7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3개소,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2개소가 있음

- 젠더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208개의 쉼터 가운데 인천시에는 6개소가 있음. 이는 전체 가운데 2.9%에 불과하여 젠더폭력 피해자의 접근성이 제한적이지 않은지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젠더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연도별 추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상담소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고, 쉼터는 유지되는 반면, 여성긴급전화 1366은 전국적인 증가 추세에 맞추어 인천시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다양한 젠더폭력 피해로부터의 긴급한 구조·보호 및 상담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여성긴급전화 1366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표 II-30> 인천시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상담소			여성폭력 보호시설 여성쉼터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남동겨레 하나센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2015	전국	187	171	91	141	18	10
	인천시	8 (4.3)	5 (2.9)	2 (2.2)	6 (4.3)	1 (5.6)	1 (10.0)
2016	전국	103	100	36	197	51	10
	인천시	7 (6.8)	4 (4)	2 (5.6)	6 (3)	4 (7.8)	1 (10.0)
2017	전국	203	159	38	208	54	10
	인천시	7 (3.4)	3 (1.9)	2 (5.3)	6 (2.9)	4 (7.4)	1 (10.0)

출처 : 인천시, '주요업무계획', 각년도

<표 II-31> 인천시 가족 지원 시설 현황(2017년)

(단위 : 개소, %)

구분	건강가정 지원센터	한부모 가족시설	모자가족 복지시설	부자가족 지원시설	미혼모자 시설	일시지원 복지
전국	151	126	48	4	59	11
인천시	9 (3.3)	10 (8.1)	3 (6.3)	2 (50.0)	4 (6.8)	1 (9.0)

출처 : 인천시, '2017년도 여성정책추진계획'

4. 지역 성평등 지수 변화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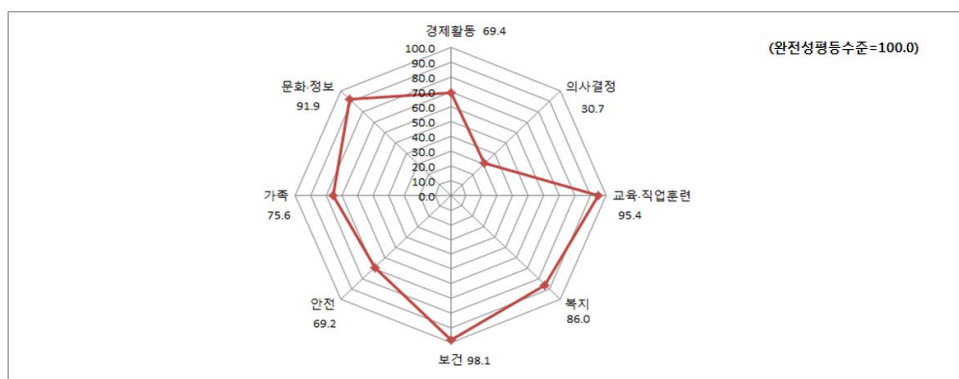
- 지역 성평등 지수는 시·도별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여 성평등한 지방자치단체 조성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다양한 영역에서의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에 의해 2017년을 기준으로 아래의 <표 II-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개의 정책영역을 8개 분야와 23개 지표로 구분하여 구성됨

<표 II-32> 지역 성평등 지수의 지표 체계

정책 영역	분야	지표
성평등한 사회참여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성별임금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의사결정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직 비율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교육·직업 훈련	평균 교육년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여성의 인권·복지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보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안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평등 의식·문화	가족	강력범죄(홍악법) 피해자
		가사노동시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문화 정보	육아휴직자
		여가시간
		여가 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 지역 성평등 지수를 통해 도출된 각 시·도별 성평등 수준에 따라 성평등 상위 지역(Level-1), 중상위 지역(Level-2), 중하위 지역(Level-3), 하위지역(Level-4)으로 구분되며 각 수준별로 4개의 시·도가 포함됨
- 2017년 지역 성평등 지수는 2016년 통계를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2016년을 기준으로 인천시는 성평등 중하위 지역(Level-3)에 속해 있음. 인천시는 ‘제4차 인천여성정책 기본계획(2013~2017)’이 추진 중이던 2013년과 2014년에는 성평등 중상위 지역(Level-2)에 속해 있었으나, 2015년에 성평등 수준이 중하위 지역(Level-3)으로 하락한 뒤 계속 머무르고 있음
- 인천시의 8개 분야에 대한 성평등 수준은 <그림 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건 분야, 교육·직업 훈련 분야, 문화·정보 분야에서는 완전평등수준인 100.0에 가까워 성평등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경제활동 분야와 의사결정 분야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 성평등 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인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정치 및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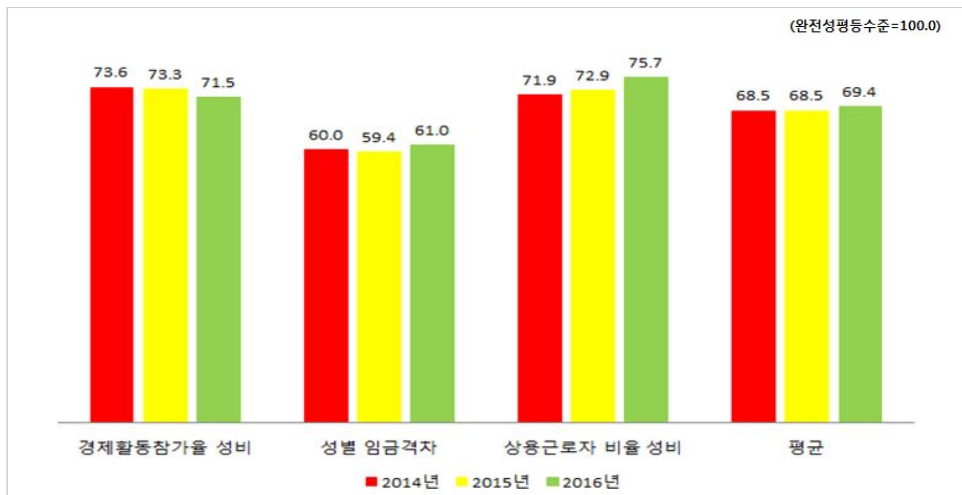
<그림 II-2> 인천시 분야별 성평등 수준



- 인천시 성평등 수준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분야별 추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그림 II-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활동 참가율 성비를 제외한 지표에서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경제활동 분야의 전체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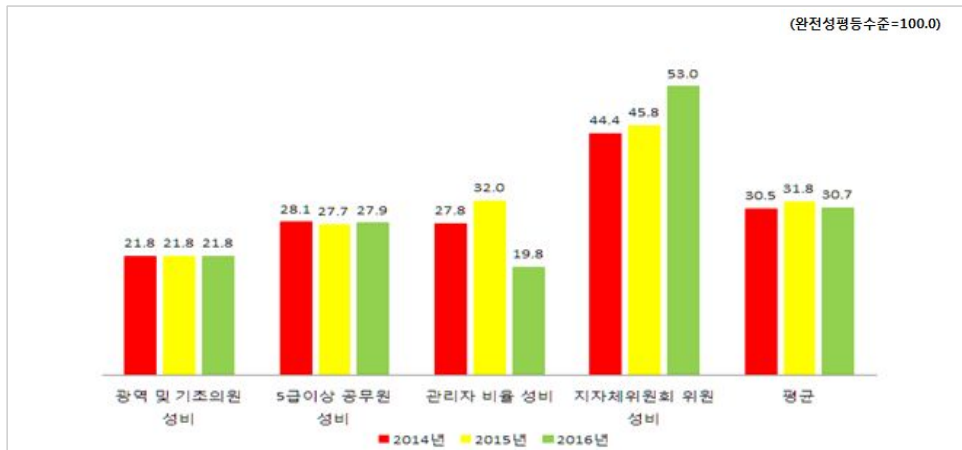
성평등 수준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2016년을 기준으로 경제활동 참가율 성비와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가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는 등 경제활동 분야의 평균 점수가 전국 평균 점수인 71.1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II-3> 인천시 경제활동 분야의 2014년~2016년 세부지표 값



- <그림 II-4>는 의사결정 분야의 세부지표인데, 지자체위원회 위원 성비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다른 세부지표는 동일하게 유지되거나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의사결정 분야의 전체적인 성평등 수준은 2015년에 다소 높아졌다가 2016년에 2014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음. 2016년을 기준으로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가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의사결정 분야의 평균 점수가 전국 평균 점수인 28.2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II-4> 인천시 의사결정 분야의 2014년~2016년 세부지표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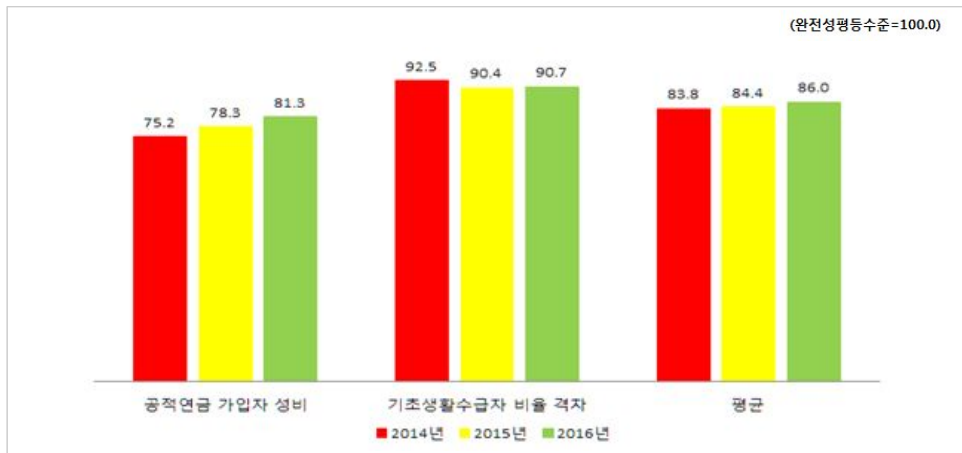
-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세부지표는 <그림 II-5>와 같음.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는 매년 완전평등수준을 보이고 있고, 평균 교육년수 성비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전체적인 성평등 수준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또한 2016년을 기준으로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평균 점수가 전국 평균 점수인 89.3보다 높게 나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성평등 수준이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II-5> 인천시 교육·직업 훈련 분야의 2014년~2016년 세부지표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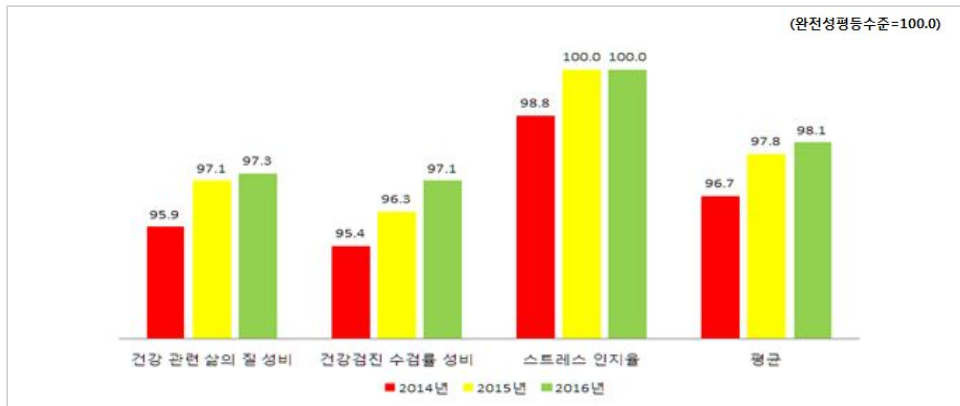
- 복지 분야의 세부지표는 <그림 II-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격차는 2015년에 다소 낮아졌다가 2016년에는 다시 높아지고 있어 복지 분야의 전체적인 성평등 수준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2016년을 기준으로 복지 분야의 두 가지 세부지표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아 결과적으로 복지 분야의 평균 점수가 전국 평균 점수인 87.3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II-6> 인천시 복지 분야의 2014년~2016년 세부지표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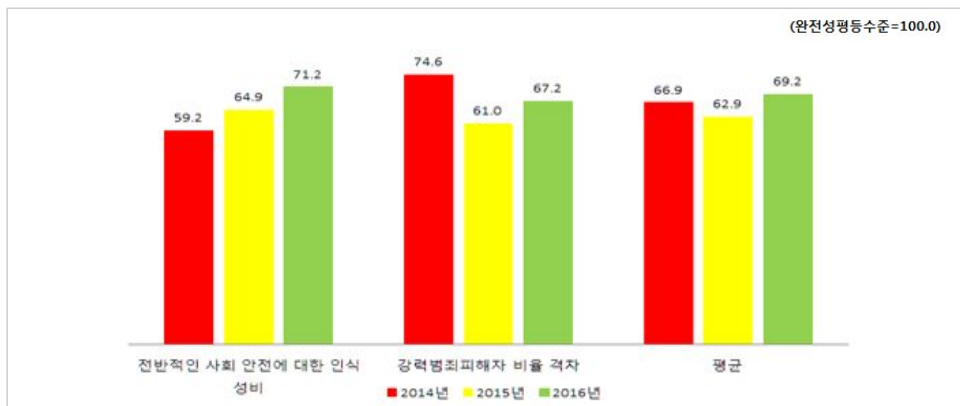
- 보건 분야는 <그림 II-7>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스트레스 인지율은 2015년부터 완전평등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다른 두 가지 세부지표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 교육·직업훈련 분야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성평등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또한 2016년을 기준으로 전국 평균 점수인 96.5보다 높게 나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성평등 수준이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II-7> 인천시 보건 분야의 2014년~2016년 세부지표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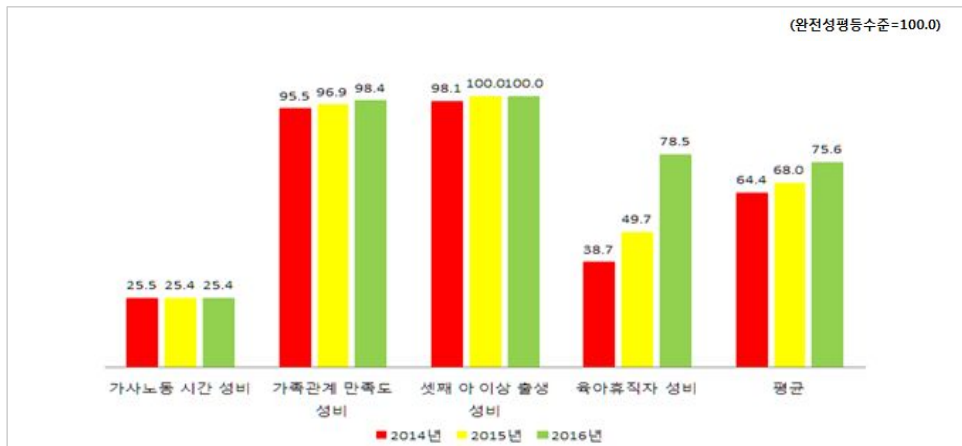
- <그림 II-8>은 안전 분야의 세부지표인데,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비를 격차는 2015년에 큰 폭으로 낮아진 이후에 2016년에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2014년의 성평등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음. 또한 2016년을 기준으로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는 전국 평균 점수인 66.7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해당 분야의 1위 지역 점수인 100.0과는 다소 큰 차이가 있음.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 격차 또한 전국 평균은 74.9인데 반해 인천은 67.2로 나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성평등 수준이 다소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II-8> 인천시 안전 분야의 2014년~2016년 세부지표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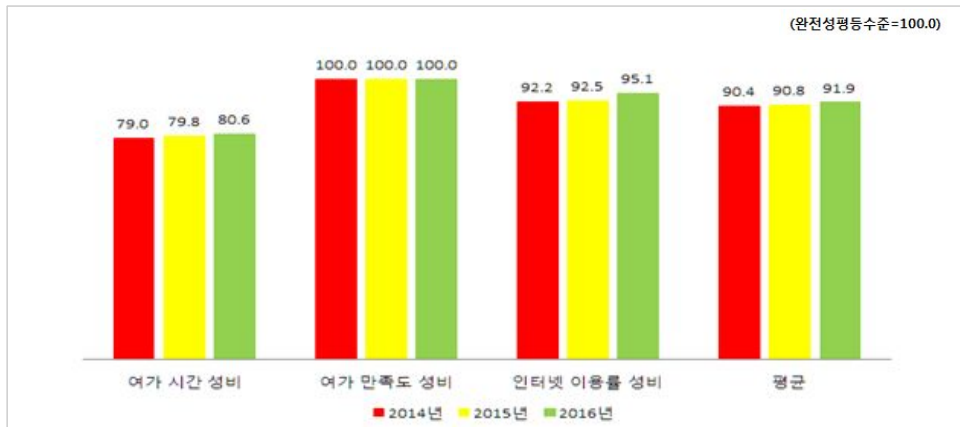
- 가족 분야의 세부지표는 <그림 II-9>과 같음.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가사노동 시간 성비는 해마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셋째 아 이상 출생 성비는 2015년부터 완전평등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또한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조금씩, 육아휴직자 성비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체적인 성평등 수준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2016년을 기준으로 전국 평균 점수인 78.0보다 낮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성평등 수준이 높다고 할 수는 없음

<그림 II-9> 인천시 가족 분야의 2014년~2016년 세부지표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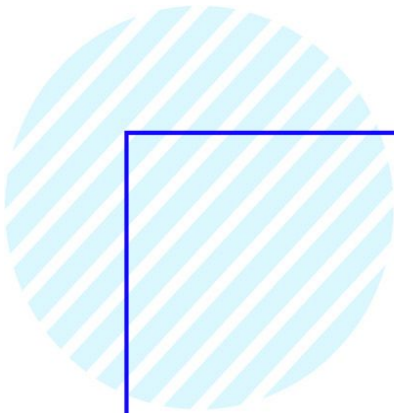
- 문화·정보 분야의 세부지표는 <그림 II-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가 만족도 성비는 2014년 이후 완전평등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다른 세부지표는 모두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문화·정보 분야의 전체적인 성평등 수준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또한 2016년을 기준으로 문화·정보 분야의 모든 세부지표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II-10> 인천시 문화·정보 분야의 2014년~2016년 세부지표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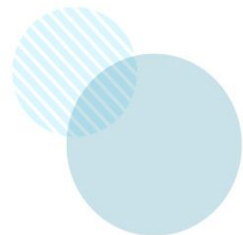


- 인천시의 성평등 수준을 분야별, 세부지표별로 검토한 것을 토대로, 2016년을 기준으로 인천시의 성평등 수준을 <표 II-32>에 제시된 정책 영역별로 살펴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과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중상위 지역(Level-2)에,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중하위 지역(Level-3)에 위치하고 있음
- 정책 영역별 과제로, 우선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성별에 따른 고용 형태에서의 차별을 해소하는 등의 노력과 관리자 가운데 여성 비율이 상승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고용 정책을 추진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음
- 두 번째로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에서는 국민연금제도에 현재보다는 더 많은 여성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인천시에 소재한 당연적용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홍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취약 계층의 여성 가구주에 대한 지원 정책 및 사업을 점검해야 함.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 발생 비율이 점차 감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여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인천시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마지막으로 성평등 의식·문화 정책 영역에서는 남성의 가사 및 돌봄 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가족 내에서의 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 등의 홍보 사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Ⅲ. 인천시민 수요조사 분석



1 설문 문항 구성

1. 설문 문항 구성의 근거

1) 「양성평등기본법」 참고

- 「양성평등기본법」 제10조에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의 공표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는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 실태조사에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정책 수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는 실태조사 실시와 관련된 조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음. 제5조에는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제시되어 있어 설문문항 구성 시 참고하였음

<표 III-1> 「양성평등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의 설문조사 실시 규정

법령	조항 내용
「양성평등기본법」 제10조(양성평등 실태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6조(양성평등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 등)	① 여성가족부 장관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나이, 학력, 거주지역, 혼인 및 취업상태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수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성평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2016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참고

-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2016년 처음으로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실시함.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통해 한국 남성과 여성의 일과 돌봄, 의사결정 과정 등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한 삶의 영역에서의 생활여건의 차이와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성 고정적 역할에 대한 신념과 양성평등한 삶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가치 지향 및 태도 등을 종합 분석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여성가족부, 2016:4). 또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함
- 2016년 양성평등 실태조사는 성역할 및 양성평등에 대한 태도, 경제 활동, 돌봄, 시간 활용, 정치·사회활동, 사회관계, 인권과 폭력 및 안전 분야로 구분되어 주요 내용이 구성되었으며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함
 - 성인 조사(1997년 이전 출생자)는 성역할과 양성평등에 대한 태도, 시간활용, 배우자 관계, 돌봄, 인권 및 폭력에 대한 태도, 건강, 경제활동, 사회관계, 정치활동 등 76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총 34문항은 성 및 성역할과 양성평등에 대한 태도, 인권 및 폭력에 대한 태도, 직업에 대한 성 고정관념, 학교생활 등으로 구성되었음

<표 III-2> 2016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내용

구분	성인 조사 내용	청소년 조사 내용
성역할 태도	남성 생계부양과 여성 돌봄 관계에서 주도성 직업에서 직종 분리	
성 고정관념		남성과 여성에 대한 편견
평일 시간 활용	태도 : 생리활동, 일, 학습 및 자기개발, 가사, 돌봄, 여가시간 양에 대한 희망 사항	
인권 감수성	태도 : 직장, 가족, 학교 내 상하 관계 폭력 허용에 대한 평가 태도 : 부부폭력, 데이트, 폭력, 성희롱, 성매매에 대한 평가	태도 : 직장, 가족, 학교 내 상하 관계 폭력 허용에 대한 평가 태도 : 부부폭력, 데이트폭력, 성희롱, 성매매에 대한 평가

구분		성인 조사 내용	청소년 조사 내용
폭력		태도 : 한국 여성폭력 심각성 태도 : 성추행, 가정폭력 목격시 행동 태도 : 매체의 여성 비하(인터넷 광고, TV 오락프로그램, 온라인), 매체의 남성 희화화(TV 오락프로그램)	경험 : 성관련 정보 획득처 태도 : 성추행, 가정폭력 목격 시 행동 태도 : 매체의 여성 비하(인터넷 광고, TV 오락프로그램, 온라인), 매체의 남성 희화화(TV 오락프로그램)
안전		경험 : 두려운 상황 경험 : 성추행이나 위협 경험	경험 : 두려운 상황 경험 : 성추행이나 위협 경험
건강		태도 :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 경험 : 스트레스, 우울 빈도 경험 : 고민되는 문제	
외모		경험 : 외모 불이익 경험 경험 : 다이어트 경험 태도 : 본인의 체형 및 외모 견해 태도 : 성별 주요 상황(연대, 결혼, 취업, 대인관계) 외모 중요성	경험 : 외모 불이익 경험 경험 : 다이어트 경험 태도 : 본인의 체형 및 외모 견해 태도 : 성별 주요 상황(연대, 결혼, 취업, 대인관계) 외모 중요성
사회관계		태도 : 경제적 도움 받을 사람 다양성, 우선 도움 받을 사람 태도 : 정서적 도움 받을 사람 다양성, 우선 도움 받을 사람	
정치·사회활동		경험 : 행정 연계활동 경험 태도 : 행정 연계활동 참여 의향 경험 : 정치활동(기부, 선거, 시위) 경험 태도 : 정치활동(기부, 선거, 시위) 참여 의향	
학교			경험 : 교사 성 고정관념 경험 : 성 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 현황(시간, 방법, 교육 주제) 태도 : 졸업 후 진로 계획(남녀공학 재학생) 경험 : 복장지도 성별 차이, 체육시간 운영 현황, 탈의실 여부 태도 : 남녀 공통 체육 수업 견해
직업			태도 :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 태도 : 적합한 직업
경제 여건		경험 : 취업 경험자 이직 사유 경험 : 공적 연금 가입 여부 태도 : 노후 생활비 수급 방법	
경제 활동 (취업자)	전체	경험 : 직장규모, 직업 산업, 주당 근로 시간 경험 : 일의 특성(신체적 어려움, 감정노동, 노동강도, 영향력) 태도 : 선호하는 은퇴시기	

구분		성인 조사 내용	청소년 조사 내용
	임금 근로	경험 : 직장 종류 경험 : 직업 훈련 경험 : 일·가정 양립 제도(출산, 육아휴직, 시간 단축)시행 및 편이성 경험 : 직장 내 성차별	
	비임금 근로	경험 : 사업처, 일·가정 양립 어려움 태도 : 취업 의향, 창업 의향	
	자영업자	태도 : 이전 직업, 사업체 경제적 여건 전망 경험 : 어려움(자금 조달, 개발, 인력, 행정 절차)	
(미취업자)	구직 활동자	경험 : 구직 정보 획득처, 국고지원 직능 훈련 여부 태도 : 취업 의향	
배우자 선택과 관계		태도 : 경제적·사회적 조건 태도 : 데이트, 주택, 혼수, 예단 비용에 대한 성별 부담	
<유배우자>		경험 : 배우자 간 수업 수준, 수업 관리 경험 : 자기 지출 경험 : 가사 분담	
가구 구성원 돌봄 태도		태도 : 구성원별 돌보는 사람, 돌봄 비용, 돌보는 사람에 대한 선호	
<미성년 유자녀>		경험 : 돌봄 활동 빈도(실내외 놀이, 학습, 동행, 부모참여 활동) 태도 : 돌봄 태도	경험 : 가사일 및 가사 학습 경험(부엌일, 요리, 집수리, 세탁, 돌봄)
양성평등 태도		태도 : 현재와 5년 후의 성별 불평등 처우 수준 평가 태도 : 불평등 문제 개선 순위	태도 : 현재와 5년 후의 성별 불평등 처우 수준 평가

3) 인천시 주요 실태조사 참고

- 『제4차 인천여성정책 기본계획(2013~2017)』 수립을 위하여 2012년에 실시한 실태조사 문항을 참고하였음. 인천 여성정책을 위한 시민 수요조사는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6개영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는 여성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수요를 중심으로 한 문항으로 이뤄졌음

<표 III-3> 제4차 인천여성정책 기본계획(2013~2017)의 조사 내용

영역	조사내용
여성정책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의 성평등 정도와 여성정책에 관한 만족도 • 인천시의 여성친화적 생활환경에 관한 만족도 • 여성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
경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 • 직업훈련 및 창업 관련 정책 수요조사 • 경제활동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출산 및 자녀양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보육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 출산 및 자녀양육 실태 • 보육시설 이용 현황 • 인천시 출산 지원 관련 사업 정책에 대한 의견
다양한 가족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생활 실태 및 만족도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인지도 및 가족생활 관련 정책 의견 • 가족 돌봄노동, 1인가구 실태 •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여성 권익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 여성(노인 및 장애인)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 • 여성인권 지원기관 인지도 및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 •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관한 지원 정책 의견 수렴 • 여성건강 실태 파악 및 관련 정책수요 파악
성평등 추진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활동 참여 현황 및 성과 파악 • 정치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필요 정책 •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수요 파악 • 생활문화시설 인지도 및 프로그램 수요 조사

- 『인천시 성평등 수준 및 성평등 의식에 관한 연구』(2014년)의 설문 문항을 참고함. 본 설문은 인천시민의 주관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한국형 성평등 의식 검사문항, 한국형 다면성별의식 검사 문항, 성별지위에 대한 인식, 성평등 정책에 대한 태도 문항, 차별경험 및 사회의식으로 구성되었음

<표 III-4> 인천시 성평등 수준 및 성평등 의식 조사 내용

영역	조사내용
개인생활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경제 상황, 일, 건강, 외모,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등에 대한 만족도
인천 지역환경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 기회, 의료환경, 복지환경, 여가 및 문화환경, 주거환경, 안전환경 만족도

영역	조사내용
성평등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생활, 교육, 직장 및 사회문화 영역에서의 성평등 인식
다면성별의식검사 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대적 성차별주의 및 온정적 성차별주의
성별 지위 및 정체성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월적 지위 및 주도권, 평등 대우, 차별 시 차별 당위성에 대한 문항 성별 정체성에 대한 문항 주요 성평등 현실 지표에 대한 주관적 평가
성평등 정책에 대한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가산점, 기업고위직 여성 비율, 여교수 채용목표제 등 성평등 정책에 대한 태도
차별경험 및 사회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장생활, 가정 내 성장과정, 학교생활 등에서의 차별 경험 사회참여 여부 및 사회적 가치관에 대한 문항

2. ‘인천시 양성평등 실태조사’ 설문 문항 구성

- 인천시 양성평등 실태조사의 설문 문항은 제1차 인천시 양성평등정책 종합 계획 수립의 실질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음. 「양성평등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 여성가족부의 2016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및 인천시에서 실시한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구성하였음
-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총 7개의 영역으로 구성됨. 제1영역인 ‘양성평등 인식 및 문화’영역에서는 현재 생활 만족도 및 남녀 평등수준, 양성평등 문화공간 관련 문항이 담겨져 있으며, 제2영역인 ‘경제활동’은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양성평등 의식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으로 이루어짐. 제3영역은 ‘지역사회 활동 및 사회관계’를 주제로 곤란할 시 의지하는 사람, 이웃과의 교류, 개별 지역사회 참여활동과 관련하여 구성되었으며, 제4영역인 ‘가사·가족돌봄 및 시간 활용’은 배우자와의 가사 분담, 자녀 양육 관련 가사 분담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문항이었음, 제5영역은 ‘인권 및 건강’으로 우리사회의 인권의식과 젠더폭력 대처방법 등을 질문함. 제6영역은 기타 인천시 주요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수요로 구성되었음

- 청소년 또한 7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성인과 조사내용에 차이가 있음. 제1영역은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로서 현재 생활 만족도와 남녀 평등수준, 양성평등 문화공간 관련으로 구성하였으며, 제2영역은 ‘향후 직업과 일’을 주제로 경제적 자립 및 직업 관련 양성평등 의식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문항으로 이루어짐. 제3영역은 ‘집안일’을 주제로 질문하였으며, 제4영역은 ‘인권 및 건강’으로 우리사회 인권의식 및 젠더폭력 대처방법 등으로 구성됨. 제5영역인 ‘학교생활’은 성교육 이수경험 및 확대 필요성, 양성평등 교육 경험 등을 조사하였고, 제6영역은 ‘기타 인천시 주요 양성평등 정책’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음

<표 III-5> 인천시 양성평등 실태조사 설문 내용

인천시민 설문조사	청소년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생활 만족도 / 남녀 평등수준 등 - 양성평등 문화공간 관련 ▪ 경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자 양성평등 의식 - 미취업자 양성평등 의식 ▪ 지역사회 활동 및 사회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곤란시 의지하는 사람 - 이웃과의 교류 - 개별 지역사회 참여활동 관련 ▪ 가사가족돌봄 및 시간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와의 가사 분담 - 자녀 양육 관련 가사 분담 ▪ 인권 및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사회 인권의식 - 젠더폭력 대처방법 등 ▪ 기타 인천시 주요 양성평등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생활 만족도 / 남녀 평등수준 등 - 양성평등 문화공간 관련 ▪ 향후 직업과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자립 및 직업 관련 - 양성평등 의식 ▪ 집안 일 ▪ 인권 및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사회 인권의식 - 젠더폭력 대처방법 등 ▪ 학교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교육 이수경험 및 확대 필요성 - 양성평등 교육 경험 등 ▪ 기타 인천시 주요 양성평등 정책

2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 인천시민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실태 및 향후 수요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제1차 인천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2018~2022)』의 비전 제시 및 정책과제 도출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조사대상 및 범위

- 인천시 양성평등 실태조사는 인천시에 거주하는 성인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 인천시민(성인)은 성·연령·지역별로 비례할당추출법을 사용하여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2,000명 대상으로 하였으며, 청소년은 성·학력·지역별로 비례할당추출법을 사용하여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5~18세 남녀 청소년 500명에 대하여 조사하였음
- 설문조사는 2018년 4월~5월에 실시하였으며 일대일 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형태로 조사를 진행됨

<표 III-6> 제1차 인천시 양성평등정책 실태조사 개요

	인천시민 설문조사	청소년 설문조사
조사대상	인천시 거주 만19세 이상 남녀 2,000명	인천시 거주 만15~18세 남녀 청소년 500명
조사방법	일대일 면접조사 (Face to face Interview)	일대일 면접조사 (Face to face Interview)
조사시기	2018년 4월~5월	2018년 4월~5월
표본추출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추출	성·학력·지역별 비례할당추출

3. 응답자 특성

1) 성인 응답자 특성

- 인천시 양성평등 실태조사에 참여한 성인 응답자 2,000명 중 ‘남성’은 995명(49.8%), ‘여성’은 1,005명(50.3%)으로 성별 비율이 유사하였으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447명(22.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40대’ 423명(21.2%), ‘50대’ 422명(21.1%), ‘30대’ 365명(18.3%), ‘20대’ 343명(17.2%) 순으로 나타남
- 인천시 내 참여자가 가장 많은 지역 3순위는 ‘부평구’ 368명(18.4%), ‘남동구’ 361명(18.1%), ‘서구’ 344명(17.2%)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 ‘미추홀구’ 293명(14.7%), ‘연수구’ 221명(11.1%), ‘계양구’ 219명(11.0%), ‘중구’ 80명(4.0%), ‘강화군’ 50명(2.5%), ‘동구’ 48명(2.4%), ‘옹진군’ 16명(0.8%) 순으로 나타남
- 가구주와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가구주’인 경우가 882명(44.1%)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구주의 배우자’가 656명(32.8%), ‘자녀’는 424명(21.2%), ‘그 외 가족 및 동거인’은 38명(1.9%)이었음
- 학력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이 820명(41.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4년제 대학 졸업’ 562명(28.1%), ‘전문대 졸업’ 346명(17.3%), ‘중학교 졸업 이하’ 225명(11.3%), ‘대학원 재학 이상’ 44명(2.2%), ‘무응답’ 3명(0.2%) 순으로 나타남
- 결혼상태의 경우 ‘사실혼을 포함한 유배우자’가 1,309명으로 65.5%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미혼’은 527명(26.4%), ‘사별’은 107명(5.4%), ‘이혼, 별거’는 57명(2.9%)이었음
- 참여자 중 절반이 넘는 1,141명(57.1%)은 ‘아파트, 주상복합’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빌라, 연립과 같은 다세대주택’거주자는 503명(25.2%), ‘단독주택’

거주자는 297명(14.9%), ‘오피스텔과 원룸’ 거주자는 50명(2.5%), ‘기타’ 응답자는 9명(0.5%)으로 나타남

- 월 평균 가구소득을 조사한 결과, ‘300~399만원’ 소득자가 493명(24.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200~299만원’ 394명(19.7%), ‘400~499만원’ 367명(18.4%), ‘500~599만원’ 232명(11.6%), ‘100~199만원’ 225명(11.3%), ‘100만원 이하’ 109명(5.5%), ‘700만원 이상’ 79명(4.0%), ‘600~699만원’ 76명(3.8%) 순으로 나타났으며, 무응답자는 25명(1.3%)이었음

<표 III-7> 응답자의 특성(성인)

구 분		응답자수(명)	백분비(%)
전 체		2,000	100.0
성별	남성	995	49.8
	여성	1005	50.3
연령	20대	343	17.2
	30대	365	18.3
	40대	423	21.2
	50대	422	21.1
	60세 이상	447	22.4
지역	중구	80	4.0
	동구	48	2.4
	미추홀구	293	14.7
	연수구	221	11.1
	남동구	361	18.1
	부평구	368	18.4
	계양구	219	11.0
	서구	344	17.2
	강화군	50	2.5
	옹진군	16	0.8

구 분		응답자수(명)	백분비(%)
가구주와 관계	가구주	882	44.1
	가구주의 배우자	656	32.8
	자녀	424	21.2
	그 외 가족 및 동거인	38	1.9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25	11.3
	고등학교 졸업	820	41.0
	전문대 졸업	346	17.3
	4년대 대학 졸업	562	28.1
	대학원 재학 이상	44	2.2
	무응답	3	0.2
결혼상태	미혼	527	26.4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309	65.5
	이혼, 별거	57	2.9
	사별	107	5.4
주거 형태	아파트, 주상복합	1141	57.1
	다세대주택(빌라, 연립)	503	25.2
	단독주택	297	14.9
	오피스텔, 원룸	50	2.5
	기타	9	0.5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09	5.5
	100~199만원	225	11.3
	200~299만원	394	19.7
	300~399만원	493	24.7
	400~499만원	367	18.4
	500~599만원	232	11.6
	600~699만원	76	3.8
	700만원 이상	79	4.0
	무응답	25	1.3

2) 청소년 응답자 특성

- 청소년 응답자 500명 중 ‘남학생’과 ‘여학생’은 각각 250명으로 50대 50의 비율로 조사되었으며, 학년별로는 ‘고등학교 2학년’이 134명(26.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고등학교 3학년’ 133명(26.6%), ‘고등학교 1학년’ 123명(24.6%), ‘중학교 3학년’ 110명(22.0%)이었음
- 인천시 내 청소년 응답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남동구’로 111명(22.2%)의 청소년이 참여하였으며, 그 다음 ‘계양구’ 86명(17.2%), ‘서구’ 79명(15.8%), ‘부평구’ 71명(14.2%), ‘연수구’ 56명(11.2%), ‘미추홀구’ 51명(10.2%), ‘강화군’ 20명(4.0%), ‘동구’ 14명(2.8%), ‘중구’ 12명(2.4%) 순으로 나타남

<표 III-8> 응답자의 특성(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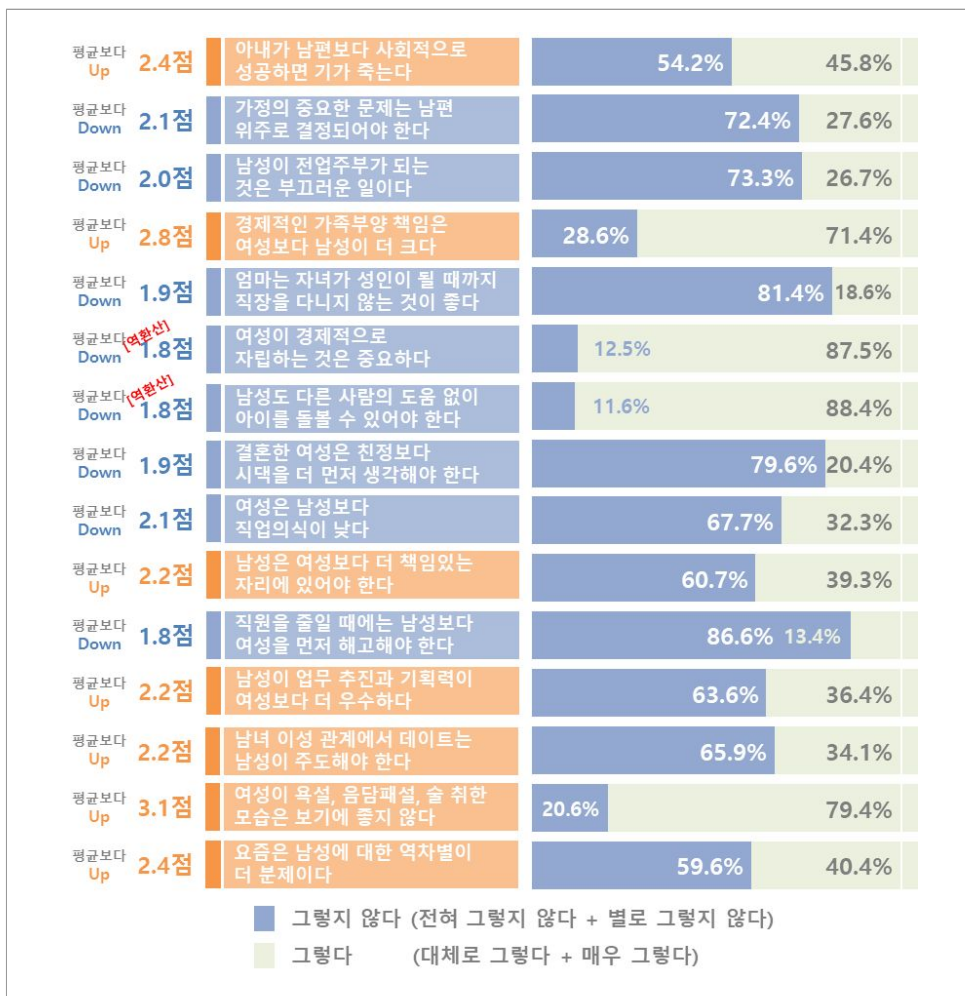
구 분		응답자수(명)	백분비(%)
전 체		500	100.0
성별	남학생	250	50.0
	여학생	250	50.0
학년	중학교 3학년	110	22.0
	고등학교 1학년	123	24.6
	고등학교 2학년	134	26.8
	고등학교 3학년	133	26.6
거주지역	중구	12	2.4
	동구	14	2.8
	미추홀구	51	10.2
	연수구	56	11.2
	남동구	111	22.2
	부평구	71	14.2
	계양구	86	17.2
	서구	79	15.8
	강화군	20	4.0

3 성인 조사 결과

1.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 양성평등 의식 조사

<그림 III-1> 인천시민 양성평등 의식 조사



- 양성불평등한 상황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가장 많은 문항은 ‘직원을 줄일 때에는 남성보다 여성을 먼저 해고해야 한다(86.6%)’로 나타났고, 그 뒤로 ‘엄마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직장을 다니지 않는 것이 좋다(81.4%)’, ‘결혼한 여성은 친정보다 시댁을 더 먼저 생각해야 한다(79.6%)’ 순으로 나타남. 위 문항들 모두 20대가 90%대의 높은 비율을 보임
- 양성평등한 상황에 대한 긍정 의견이 많은 문항 순서는 ‘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88.5%)’,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은 중요하다(87.6%)’로 나타났으며, 두 문항 모두 여성이 90%대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주로 2~30대는 긍정하는 응답자가 많은 반면, 60세 이상은 타 연령대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임
- 남성과 여성의 시각차가 가장 큰 문항은 ‘남녀 이성 관계에서 데이트는 남성이 주도해야 한다’로 14.7%p만큼 차이가 났으며, 그 뒤로 ‘남성이 업무 추진과 기획력이 여성보다 더 우수하다(12.3%p)’, ‘경제적인 가족부양 책임은 여성 보다는 남성이 더 크다(11.1%p)’순으로 나타남

<표 III-9> 인천시민 양성평등 의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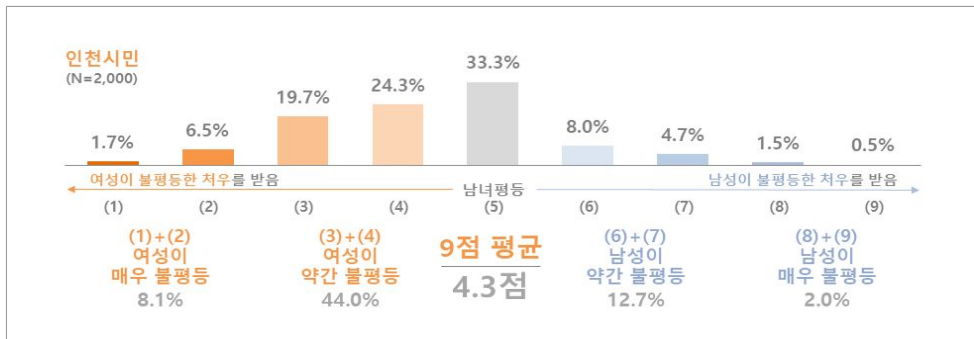
(단위 : 명, %)

	부정(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전체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2,000)	(995)	(1,005)	(343)	(365)	(423)	(422)	(447)
1) 아내가 남편보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남편은 기가 죽는다	54.2	57.2	51.2	76.1	69.0	57.2	43.1	32.9
2) 가정의 중요한 문제는 남편(아버지)위주로 결정되어야 한다	72.4	71.5	73.2	89.8	84.9	74.0	68.7	50.6
3) 남성이 전업주부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73.3	70.1	76.4	84.5	81.9	75.7	69.9	58.4
4) 경제적인 가족부양 책임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크다	28.6	23.0	34.1	50.7	29.0	25.5	23.0	19.5
5) 엄마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직장을 다니지 않는 것이 좋다	81.4	79.2	83.6	90.7	85.5	83.2	78.0	72.5
6) 결혼한 여성은 친정보다 시댁을 더 먼저 생각해야 한다	79.6	79.3	79.9	92.1	89.3	85.8	77.5	58.2

	부정(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전체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2,000)	(995)	(1,005)	(343)	(365)	(423)	(422)	(447)
7) 여성은 남성보다 직업의식이 낮다	67.7	66.1	69.3	84.8	76.7	71.4	60.2	50.8
8) 남성은 여성보다 더 책임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60.7	58.5	62.9	77.6	74.8	65.5	54.3	37.8
9) 직원을 줄일 때에는 남성보다 여성을 먼저 해고해야 한다	86.6	84.7	88.5	93.9	90.7	88.4	86.0	76.5
10) 남성이 업무 추진과 기획력이 여성보다 더 우수하다	63.6	57.4	69.7	79.6	74.2	66.4	57.1	45.9
11) 남녀 이성 관계에서 데이트는 남성이 주도해야 한다	65.9	58.5	73.2	78.4	73.4	74.5	62.1	45.6
12) 여성이 욕설, 음담패설, 술 취한 모습은 보기에 좋지 않다	20.6	17.3	23.9	46.1	31.8	17.7	10.2	4.5
13) 요즘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더 문제이다	59.6	52.2	67.0	59.2	60.0	61.0	62.1	55.9
	긍정(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전체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2,000)	(995)	(1,005)	(343)	(365)	(423)	(422)	(447)
1)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은 중요하다	87.6	82.9	92.1	89.8	90.1	87.2	86.0	85.5
2) 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88.5	85.9	90.9	94.2	91.2	91.7	86.7	80.3

□ 한국사회와 인천시의 평등 수준에 대한 남녀 인식

<그림 III-2> 인천시의 남성과 여성의 평등 수준



- 응답자의 33.3%가 인천시는 남녀가 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한국사회 전체에 대한 남녀 평등수준(31.5%)보다 높게 나타남
- ‘여성(한국 27.7%, 인천 30.0%)’은 ‘남성(한국 35.4%, 인천 36.5%)’에 비해 남녀가 평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더 낮았으며, 연령별로 분석했을 시 ‘40대(한국 24.8%, 인천 26.7%)’가 남녀가 평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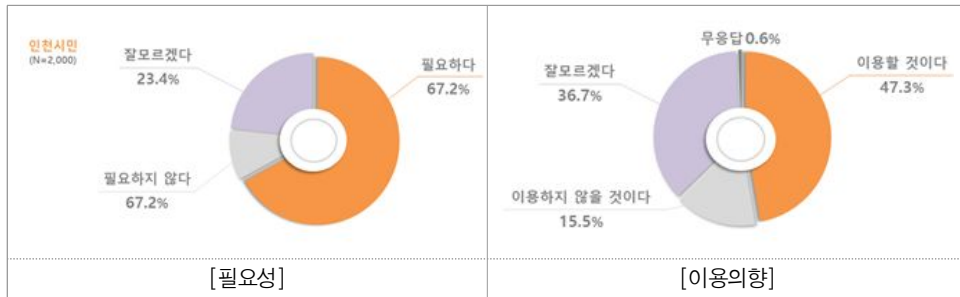
<표 III-10> 여성과 남성의 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단위 : %)

		사례수 (명)	여성이 불평등 (1)	(2)	(3)	(4)	남녀 평등 (5)	(6)	(7)	(8)	남성이 불평등 (9)
한국사회	전체	(2,000)	1.9	7.6	20.9	23.9	31.5	8.0	4.5	1.3	0.6
	남성	(995)	1.2	4.5	17.2	22.5	35.4	10.4	6.4	1.4	1.0
	여성	(1,005)	2.6	10.5	24.6	25.3	27.7	5.6	2.5	1.1	0.2
	20대	(343)	3.8	8.5	15.7	27.1	27.7	9.3	4.7	1.2	2.0
	30대	(365)	2.2	10.4	17.5	27.9	27.7	6.8	5.2	1.4	0.8
	40대	(423)	2.4	7.6	25.8	26.2	24.8	7.3	4.5	0.9	0.5
	50대	(422)	1.4	8.1	22.3	24.9	31.5	7.3	3.1	1.4	0.0
	60세 이상	(447)	0.2	4.0	21.7	15.0	43.8	8.9	4.9	1.3	0.0
인천시	전체	(2,000)	1.7	6.5	19.7	24.3	33.3	8.0	4.7	1.5	0.5
	남성	(995)	0.9	4.1	16.0	22.4	36.5	10.5	6.8	1.8	1.0
	여성	(1,005)	2.4	8.8	23.4	26.2	30.0	5.5	2.6	1.2	0.0
	20대	(343)	2.0	6.4	16.3	25.4	33.8	8.2	4.7	1.7	1.5
	30대	(365)	2.2	8.2	18.9	26.8	30.1	6.6	5.2	1.4	0.5
	40대	(423)	1.9	7.3	22.9	27.9	26.7	6.4	5.2	0.9	0.7
	50대	(422)	2.1	6.9	20.4	25.4	32.7	7.8	3.1	1.7	0.0
	60세 이상	(447)	0.2	3.8	19.2	17.0	42.1	10.5	5.4	1.8	0.0

□ 양성평등 문화 확산 공간에 대한 인식

<그림 III-3> 양성평등 문화 확산 공간에 대한 인식



- 전체 응답자 중 28.8%가 양성평등 문화 확산 공간에 대해 ‘알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 비율은 남성(25.7%)에 비해 여성(31.8%)이 더 높았고 연령별로는 30대(32.1%)와 40대(32.2%)가 높게 나타남
- 양성평등 문화 확산 공간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7.2%인 가운데 여성은 73.3%, 남성은 61.0%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40대(74.7%)가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함
- 향후 이용의향에 대해서는 전체 47.3%가 ‘이용할 것이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가운데 여성(55.9%)이 남성(38.5%)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40대가 57.0%로 타 연령대보다 더 높았음

<표 III-11> 양성평등 문화 확산 공간에 대한 인식

(단위 : %)

	사례수 (명)	인지도		필요성			향후 이용의향		
		알거나 들어본 적 없음	알거나 들어본 적 있음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잘 모르겠다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용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전체	(2,000)	71.2	28.8	9.5	67.2	23.4	15.5	47.3	36.7
남성	(995)	74.3	25.7	13.0	61.0	26.0	20.4	38.5	40.7
여성	(1,005)	68.2	31.8	6.0	73.3	20.7	10.6	55.9	32.7
20대	(343)	72.6	27.4	9.0	62.1	28.9	14.6	42.3	42.9
30대	(365)	67.9	32.1	8.5	70.4	21.1	11.0	53.7	34.8
40대	(423)	67.8	32.2	7.3	74.7	18.0	11.8	57.0	30.5
50대	(422)	68.7	31.3	9.7	72.5	17.8	15.6	50.7	33.4
60세이상	(447)	78.3	21.7	12.3	56.4	31.3	23.3	33.3	42.5

주: '향후 이용의향' 중 무응답은 제외

2. 경제활동

□ 응답자의 경제활동 상태

- 응답자의 44.0%는 '상용근로자'였으며 그 중 남성(48.0%)이 여성(38.3%)에 비해 더 많은 반면,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 여성(19.6%)이 남성(14.2%)에 비해 더 많았음
- 직장 유형의 경우 여성과 남성 모두 '개인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여성 60.3%, 남성 47.3%로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소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직장 지역의 경우 '인천시(83.5%)'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여성(87.4%)이 남성(80.8%)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인천시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도’와 ‘서울시’는 남성 비율이 더 높았음

- 연령별로는 30대(60.5%)가 ‘상용근로자’로 일하는 비율이, 20대(24.8%)와 60세 이상(25.7%)은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율이 타 연령대에 비해 더 높았으며, 직장유형의 경우 ‘소기업’에는 20대(24.1%)가, ‘중소기업’에는 30대(18.1%)가, ‘개인 사업체’에는 60세 이상(73.2%)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음

<표 III-12> 응답자의 경제활동 상태

(단위 : %)

	사례수 (명)	종사상의 위치 (상위 3순위)			직장 유형 (상위 3순위)			직장 지역 (상위 3순위)		
		상용 근로자	단독 자영 업자	임시 및 일용 근로자	개인 사업체	소기업	중소 기업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전체	(1,182)	44.0	28.8	16.4	52.7	20.0	10.9	83.5	9.0	6.6
남성	(691)	48.0	29.1	14.2	47.3	22.4	12.3	80.8	10.3	7.5
여성	(491)	38.3	28.3	19.6	60.3	16.5	9.0	87.4	7.1	5.3
20대	(133)	59.4	8.3	24.8	39.8	24.1	11.3	76.7	9.8	13.5
30대	(248)	60.5	18.1	13.3	36.7	21.8	18.1	75.8	12.5	10.5
40대	(309)	49.5	26.9	11.3	51.8	21.7	11.3	82.5	11.3	5.5
50대	(309)	35.9	39.2	14.9	59.9	17.5	9.4	87.1	6.8	4.5
60세 이상	(183)	14.8	43.7	25.7	73.2	15.8	2.7	94.5	3.3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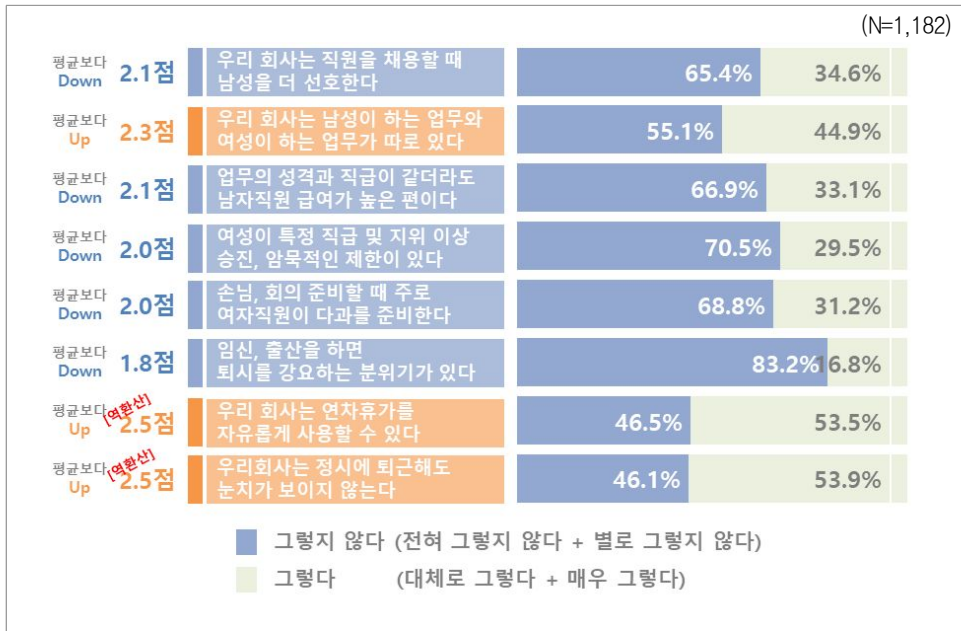
주 1) 종사상의 위치 : 전체 기준, 상위 3순위 외 고용주(5.4%), 무급가족종사자(2.7%), 기타종사자(2.7%)임

2) 직장 유형 : 전체 기준, 상위 3순위 외 공무원(6.0%), 공공기관(5.2%), 대기업(4.2%), 정부출연기관(0.5%), 기타(0.5%)임

3) 직장 지역 : 전체 기준, 상위 3순위 외 기타(0.9%)임

□ 직장 내 양성평등 문화

<그림 III-4> 직장 내 양성평등 문화



- 직장 내 문화 중 양성불평등한 상황에 대한 긍정(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많은 것은 ‘회사에 남성이 하는 업무와 여성이 하는 업무가 따로 있다(44.9%)’로 나타남
- 직장 내 문화 중 양성평등한 상황에 대한 긍정 응답이 가장 많은 문항은 ‘우리 회사는 정시에 퇴근해도 눈치가 보이지 않는다’로 전체 응답자의 53.9%를 차지하였으며, 그 뒤로 ‘우리 회사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53.5%)’로 나타남

<표 III-13> 직장 내 양성평등 문화

(N=1,182 / 단위 :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긍정	4점 평균
1) 우리 회사는 직원을 채용할 때 남성을 더 선호한다	31.0	34.3	26.9	7.7	65.4	34.6	2.1
2) 우리 회사는 남성이 하는 업무와 여성이 하는 업무가 따로 있다	27.6	27.5	35.8	9.1	55.1	44.9	2.3
3) 우리 회사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직급이 같더라도 남자 직원의 급여가 여자 직원에 비해 높은 편이다	33.9	33.0	26.6	6.4	66.9	33.1	2.1
4) 우리 회사에서 여성이 특정 직급 및 지위 이상으로 승진하는데 암묵적인 제한이 있다	35.4	35.1	23.9	5.7	70.5	29.5	2.0
5) 우리 회사는 외부에서 손님이 오거나 회의를 준비할 때 주로 여자직원이 다과를 준비한다	35.6	33.2	26.7	4.5	68.8	31.2	2.0
6) 우리 회사는 임신, 출산을 하면 퇴사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다	41.7	41.5	13.5	3.2	83.2	16.8	1.8
7) 우리 회사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19.9	26.6	40.4	13.1	46.5	53.5	2.5
8) 우리 회사는 정시에 퇴근해도 눈치가 보이지 않는다	19.5	26.6	38.4	15.5	46.1	53.9	2.5

□ 직장 내 일-가정 양립 제도 운영 여부

- 전체 응답자 중 직장 내 일-가정 양립 제도 4가지 모두 ‘운영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출산전후휴가 58.2%, 육아휴직 62.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66.5%, 유연근무제 66.4%
- ‘공무원’의 경우 4가지 제도 모두 운영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타 직장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개인사업체’ 및 ‘소기업’의 경우 운영한다는 비율이 4가지 제도 모두 낮았음
- ‘인천시’에 소재지를 둔 직장은 ‘서울시’ 및 ‘경기도’ 내 직장보다 비교해 일-가정 양립 제도 4가지 모두 운영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남

<표 III-14> 직장 내 일-가정 양립 제도 운영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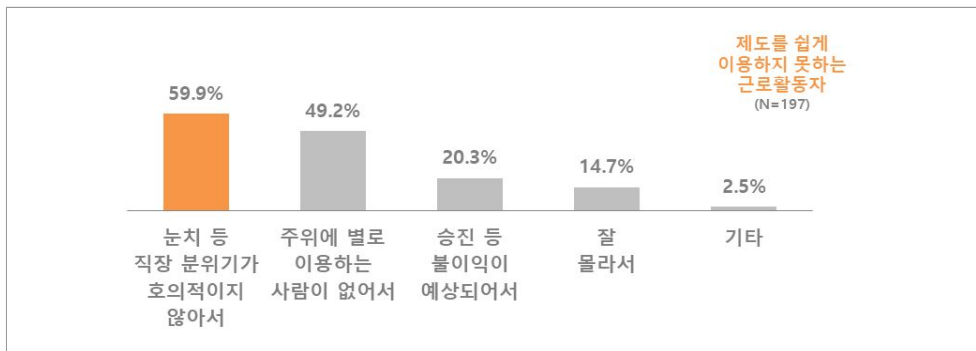
		사례수 (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한다	하지 않는 다	모르 겠다	한다	하지 않는 다	모르 겠다	한다	하지 않는 다	모르 겠다	한다	하지 않는 다	모르 겠다
전체		(1,182)	31.7	58.2	10.1	27.2	62.3	10.6	17.3	66.5	16.2	18.8	66.4	14.8
직장 유형	공무원	(71)	94.4	2.8	2.8	94.4	2.8	2.8	76.1	4.2	19.7	81.7	5.6	12.7
	공공기관	(61)	82.0	6.6	11.5	80.3	6.6	13.1	60.7	11.5	27.9	57.4	13.1	29.5
	대기업	(50)	88.0	6.0	6.0	84.0	8.0	8.0	48.0	22.0	30.0	50.0	28.0	22.0
	중소기업	(129)	66.7	22.5	10.9	55.0	33.3	11.6	27.9	45.7	26.4	34.9	46.5	18.6
	소기업	(236)	33.9	52.1	14.0	23.3	61.4	15.3	12.3	67.4	20.3	14.0	66.1	19.9
	개인사업체	(623)	6.7	84.1	9.1	5.0	85.9	9.1	3.0	87.2	9.8	3.5	86.4	10.1
직장 지역	인천시	(987)	28.5	61.6	9.9	24.3	65.0	10.6	15.8	68.4	15.8	17.1	68.4	14.5
	서울시	(78)	44.9	41.0	14.1	42.3	44.9	12.8	21.8	59.0	19.2	25.6	59.0	15.4
	경기도	(106)	51.9	39.6	8.5	44.3	47.2	8.5	27.4	53.8	18.9	30.2	52.8	17.0

주 1) 직장 유형 중 사례 수가 적은 '정부투자출연기관'(6명), '기타'(6명)는 제외

2) 직장 지역 중 사례 수가 적은 '그 외 지역'(11명)은 제외

□ 일-가정 양립 제도를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

<그림 III-5> 일-가정 양립 제도를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복수응답)



- 일-가정 양립 제도를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응답은 ‘눈치 등 직장분위기가 호의적이지 않아서(59.9%)’로 나타났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주위에 별로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68.8%)’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 타 직장유형과 상이하게 나타남
- ‘승진 등 불이익이 예상되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직장유형은 ‘중소기업(28.1%)’으로 나타났으며, ‘잘 몰라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직장유형은 ‘개인사업체(29.4%)’로 나타남
- 인천시의 경우 ‘호의적이지 않은 직장분위기(57.0%)’와 ‘주위에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50.7%)’는 이유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III-15> 일-가정 양립 제도를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

(단위 : %)

		사례수 (명)	승진 등 불이익이 예상되어서	눈치 등 직장분위기가 호의적이지 않아서	주위에 별로 이용하는 사람이없어서	잘 몰라서	기타
전체		(197)	20.3	59.9	49.2	14.7	2.5
직장 유형	공무원	(21)	19.0	47.6	33.3	14.3	4.8
	공공기관	(16)	12.5	37.5	68.8	6.3	0.0
	대기업	(21)	14.3	52.4	33.3	23.8	0.0
	중소기업	(57)	28.1	64.9	52.6	8.8	3.5
	소기업	(63)	15.9	66.7	54.0	15.9	3.2
	개인사업체	(17)	17.6	58.8	35.3	29.4	0.0
종사상 지위	상용	(171)	19.9	59.6	49.1	14.6	2.9
	임시및일용	(16)	18.8	56.3	50.0	12.5	0.0
직장 지역	인천시	(142)	17.6	57.0	50.7	14.8	2.8
	서울시	(20)	25.0	60.0	30.0	20.0	5.0
	경기도	(32)	31.3	71.9	53.1	12.5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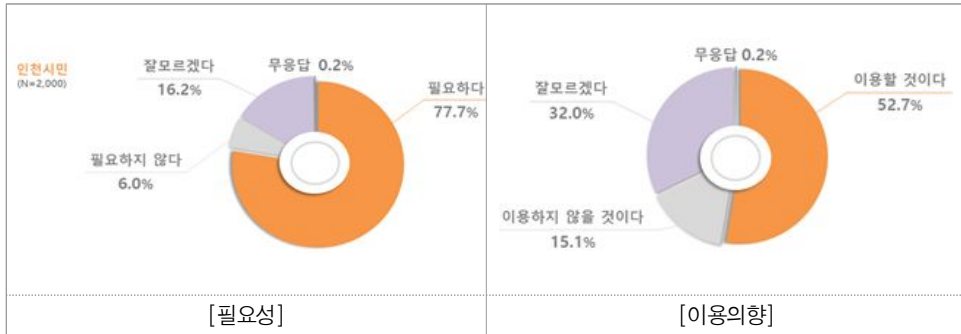
주 1) 직장 유형 중 사례 수가 적은 ‘정부투자출연기관’(1명), ‘기타’(1명)는 제외

2) 종사상의 지위 중 사례 수가 적은 ‘고용주’(6명), ‘단독 자영업자’(2명), ‘기타 종사자’(2명) 제외

3) 직장 지역 중 사례 수가 적은 ‘그 외 지역’(3명)은 제외

□ 일-가정양립지원센터 인지도, 필요성, 향후 이용의향

<그림 III-6> 일-가정양립지원센터 인지도, 필요성, 향후 이용의향



- 일-가정양립지원센터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28.8%로 나타났으며, 일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비율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가정양립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묻는 문항에 전체 응답자 중 77.7%는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남성의 경우 일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68.8%)에 비해 일하고 있는 응답자(72.5%)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 일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85.4%)와 일하고 있는 응답자(82.5%) 모두 높은 비율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 향후 이용의향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52.7%가 ‘이용할 것이다’라고 답했으며, 이는 일하고 있는 남성(49.9%), 여성(62.1%) 모두 일하고 있지 않은 남성(37.5%), 여성(56.4%)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III-16> 일-가정 양립 지원센터 인지도, 필요성, 향후 이용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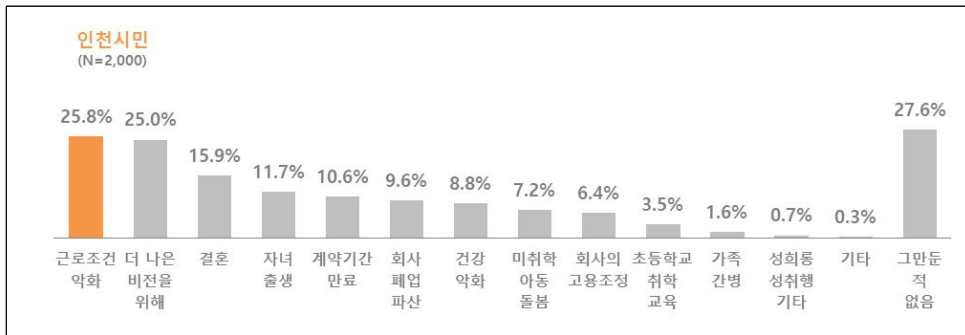
(단위 : %)

		사례수 (명)	인지도		필요성			향후 이용의향		
			알거나 들어본 적 없음	알거나 들어본 적 있음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잘 모르겠다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용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전체		(2,000)	71.3	28.8	6.0	77.7	16.2	15.1	52.7	32.0
일하고 있음	남성	(691)	70.2	29.8	9.0	72.5	18.4	16.5	49.9	33.3
	여성	(491)	64.6	35.4	3.1	82.5	14.3	9.8	62.1	27.9
일하고 있지 않음	남성	(304)	82.6	17.4	8.2	68.8	22.7	21.4	37.5	40.8
	여성	(514)	72.4	27.6	3.5	85.4	11.1	14.6	56.4	29.0

주: '필요성'과 '향후 이용의향' 중 무응답은 제외

□ 직장(하던 일)을 그만 둔 경험과 이유

<그림 III-7> 직장을 그만 둔 경험과 이유



-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그 이유의 1순위는 '근로조건 악화 (25.8%)'였으며, 2순위는 '더 나은 비전을 위해(25.0%)'로 나타남
- 여성의 경우 '결혼(30.7%)'과 '자녀 출생(22.6%)'이 직장을 그만둔 이유의 1, 2순위로 나타나 남성과 상이하게 나타남
- 연령별로 20대는 '그만둔 적이 없다(63.6%)'고 응답한 사람이 과반수를 차지

했으며, 30대(27.7%)와 40대(32.9%)의 경우 ‘더 나은 비전을 위해’, 50대(29.9%)의 경우 ‘근로조건 악화’를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남

<표 III-17> 직장을 그만 둔 경험과 이유(상위 8순위)

(단위 : %)

	사례수 (명)	그만둔 적 없음	근로조건 악화	더 나은 비전을 위해	결혼	자녀 출생	계약기간 만료	회사 폐업 파산	건강 악화
전체	(2,000)	27.6	25.8	25.0	15.9	11.7	10.6	9.6	8.8
남성	(995)	34.4	29.2	31.2	0.9	0.7	13.0	12.3	8.1
여성	(1,005)	20.8	22.4	18.9	30.7	22.6	8.3	7.0	9.5
20대	(343)	63.6	19.8	19.0	0.6	1.2	7.6	2.3	4.1
30대	(365)	28.5	27.4	27.7	14.5	20.8	9.0	6.0	6.6
40대	(423)	18.0	25.5	32.9	23.2	18.4	4.0	12.5	7.8
50대	(422)	20.1	29.9	27.0	21.8	11.6	8.3	11.4	9.7
60세 이상	(447)	15.2	25.5	18.1	16.3	6.0	22.6	13.6	14.3

3. 지역사회 활동 및 사회 관계

□ 지역사회 활동 참여 경험 및 참여 의향

- 지역사회 활동 중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사회활동 경험(28.5%)’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 비교했을 시 여성은 사회활동(29.4%)과 정치활동(8.9%) 경험이 남성(각각 27.6%, 8.4%)에 비해 높았으며, 남성은 지방자치 참여 활동(7.0%) 경험이 여성(6.1%)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참여 의향의 경우 ‘사회활동(42.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사회활동(44.4%)과 지방자치 참여 활동(19.4%)에 참여할 의향이 남성(각각 39.6%, 17.2%)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은 정치활동 참여 의향

(15.2%)이 여성(15.1%)에 비해 근소하게 높았음

- 지방자치 참여 활동과 정치활동의 경우 참여 경험은 ‘50대(각각 9.2%, 13.3%)’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참여의향은 ‘20대(각각 26.5%, 23.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활동의 경우 ‘20대’가 참여경험(37.3%) 및 참여 의향(54.2%)이 모두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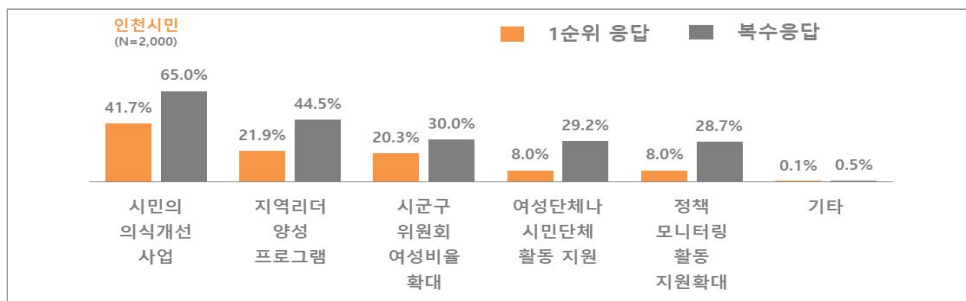
<표 III-18> 지역사회 활동 참여 경험 및 참여 의향

(단위 : %)

	사례수 (명)	지방자치 참여 활동		사회 활동		정치 활동	
		경험 有	의향 有	경험 有	의향 有	경험 有	의향 有
전체	(2,000)	6.6	18.3	28.5	42.0	8.7	15.2
남성	(995)	7.0	17.2	27.6	39.6	8.4	15.2
여성	(1,005)	6.1	19.4	29.4	44.4	8.9	15.1
20대	(343)	3.2	26.5	37.3	54.2	11.1	23.3
30대	(365)	2.5	18.1	22.2	44.4	4.4	14.5
40대	(423)	8.0	19.9	28.6	44.9	8.5	17.5
50대	(422)	9.2	19.0	30.6	42.9	13.3	16.4
60세 이상	(447)	8.5	10.1	24.8	27.1	6.0	6.0

□ 지역사회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향후 인천시 정책

<그림 III-8> 누구나 평등한 정치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향후 5년의 인천시 정책



- 지역사회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향후 인천시 정책 1순위로 전체 응답자 중 41.7%가 ‘시민의 의식개선 사업’을 꼽았으며, 1+2순위로도 ‘시민의 의식개선 사업(65.0%)’에 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여성의 경우 1순위로 ‘시군구 위원회의 여성비율 확대(22.7%)’와 ‘여성단체나 시민단체 활동 지원(11.2%)’을 남성에 비해 높은 비율로 선택하였으며, 1+2순위 또한 동일함
- 1순위로 뽑은 정책 중 ‘시군구 위원회의 여성비율 확대’ 및 ‘지역리더 양성 프로그램 제공’에는 60세 이상 응답자(각각 26.4%, 25.1%)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시민의 의식개선 사업’에는 40대(47.3%)가, ‘여성단체나 시민단체 활동 지원’에는 30대(10.1%)가, ‘정책모니터링 활동 지원 확대’에는 20대(12.5%)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 1+2순위로 정책을 분석한 결과 ‘시군구 위원회의 여성비율 확대’ 및 ‘지역리더 양성 프로그램 제공’ 정책에는 60세 이상 응답자(각각 34.7%, 49.9%)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여성단체나 시민단체 활동 지원’에는 40대(32.2%)가, ‘정책모니터링 활동 지원 확대’에는 20대(36.7%)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표 III-19> 누구나 평등한 정치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향후 5년의 인천시 정책

(단위 : %)

		사례수 (명)	시군구 위원회의 여성비율 확대	지역리더 양성 프로그램 제공	시민의 의식개선 사업	여성단체나 시민단체 활동 지원	정책 모니터링 활동 지원확대
1순위	전체	(2,000)	20.3	21.9	41.7	8.0	8.0
	남성	(995)	17.9	22.9	46.2	4.7	8.2
	여성	(1,005)	22.7	20.9	37.2	11.2	7.8
	20대	(343)	19.8	20.4	40.8	6.4	12.5
	30대	(365)	15.9	22.5	42.5	10.1	9.0
	40대	(423)	17.0	18.9	47.3	8.0	8.7
	50대	(422)	21.3	22.3	42.2	7.1	6.6
	60세 이상	(447)	26.4	25.1	36.0	8.3	4.3

		사례수 (명)	시군구 위원회의 여성비율 확대	지역리더 양성 프로그램 제공	시민의 의식개선 사업	여성단체나 시민단체 활동 지원	정책 모니터링 활동 지원확대
1순위 + 2순위	전체	(2,000)	30.0	44.5	65.0	29.2	28.7
	남성	(995)	26.0	45.9	69.3	22.4	33.4
	여성	(1,005)	33.8	43.1	60.7	35.9	24.1
	20대	(343)	26.8	43.1	67.1	25.4	36.7
	30대	(365)	25.8	44.4	64.7	29.9	33.2
	40대	(423)	27.9	40.9	67.1	32.2	30.0
	50대	(422)	33.2	43.6	64.0	27.7	27.7
	60세 이상	(447)	34.7	49.9	62.6	30.2	18.6

주: 기타 제외

4. 가사, 가족돌봄 및 시간 활용

□ 가정 내 가사분담 및 돌봄분담

- 가사노동 4종류 모두 남성에 비해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식사준비(82.4%)’였고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쓰레기 버리기(42.6%)’로 나타남
- 자녀 돌봄 또한 5종류 모두 ‘여성’이 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그 중 ‘유치원, 학교 부모 참여 활동에 참여하기’가 72.0%로 가장 높았으며 ‘함께 놀아주기’는 31.0%로 가장 낮았음
- ‘쓰레기 버리기’를 제외한 가사노동, 자녀돌봄 모두 남성의 참여가 10% 미만으로 저조하였음

<표 III-20> 가정 내 가사분담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가사노동_“대체로 본인”				
		식사준비	설거지	집안청소	쓰레기 버리기	
전체	(1,309)	44.4	42.4	42.4	34.5	
남성	(637)	4.2	9.4	9.4	25.9	
여성	(672)	82.4	73.7	73.7	42.6	
구분	사례수 (명)	만 12세 미만 자녀돌봄_“대체로 본인”				
		밥 먹고 옷 입는 것 도와주기	아플 때 돌봐주기, 병원 데려가기	숙제나 공부 돌봐주기	유치원, 학교 부모 참여 활동에 참여하기	함께 놀아주기
전체	(481)	40.7	40.7	41.2	41.6	20.6
남성	(213)	4.2	6.1	4.2	3.3	7.5
여성	(268)	69.8	68.3	70.5	72.0	31.0

□ 가사분담 및 자녀돌봄 분담의 만족도 및 공평도

- 가사분담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남성(89.8%)에 비해 여성(60.4%)이 만족하는 비율이 낮았으며, 공평도 또한 여성(49.1%)이 남성(82.4%)에 비해 크게 낮게 나타남
- 가사분담 만족도는 20대(84.6%)가 가장 높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만족한다는 비율이 낮아지다가 60세 이상에서 다시 증가하였으며, 가사분담이 공평하다 생각하는 비율 또한 20대(76.9%)가 가장 높았음
- 자녀돌봄 만족도 또한 만족한다는 비율이 남성(82.2%)에 비해 여성(54.5%)이 낮게 나타났으며, 공평도의 경우에도 여성(43.3%)이 남성(73.7%)에 비해 크게 낮았음
- 자녀돌봄에 만족하는 비율은 2, 30대(각각 100.0%, 70.9%)가 높게 나타났으며, 공평하다 생각하는 비율은 20대(83.3%)와 50대(58.3%)가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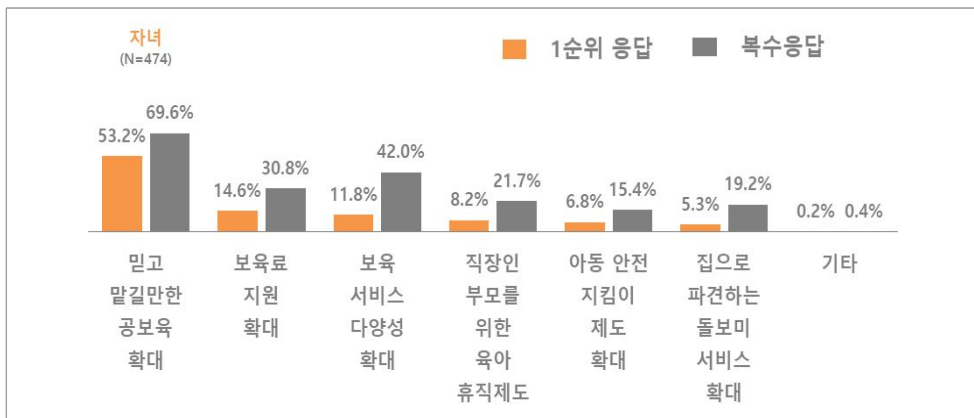
<표 III-21> 가사분담 및 자녀돌봄 분담의 만족도 및 공평도

(단위 : %)

	사례수 (명)	가사분담 긍정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사례수 (명)	자녀돌봄 긍정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만족도	공평도		만족도	공평도
전체	(1,309)	74.7	65.3	(481)	66.7	56.8
남성	(637)	89.8	82.4	(213)	82.2	73.7
여성	(672)	60.4	49.1	(268)	54.5	43.3
20대	(13)	84.6	76.9	(6)	100.0	83.3
30대	(222)	76.1	63.1	(179)	70.9	56.4
40대	(366)	75.1	65.0	(272)	63.2	56.3
50대	(381)	72.2	64.6	(24)	66.7	58.3
60세 이상	(327)	75.8	67.6	(0)	-	-

□ 자녀돌봄 지원을 위한 향후 인천시 정책

<그림 III-9> 자녀돌봄 지원을 위한 향후 인천시 정책



- 자녀돌봄 지원을 위한 향후 인천시 정책 1순위로 ‘믿고 맡길만한 공보육 확대 (53.2%)’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보육료 지원 확대(14.6%)’,

‘보육서비스 다양성 확대(11.8%)’로 나타남

- 남녀 모두 과반수가 1순위 정책으로 ‘믿고 맡길만한 공보육 확대’를 꼽았으며, 남녀 간 의견 차이가 가장 큰 정책은 ‘직장인 부모를 위한 육아 휴직제도 확대’로 3.5%p만큼 여성이 더 선호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2순위로는 ‘믿고 맡길만한 공보육 확대(69.6%)’가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보육서비스 다양성 확대(42.0%)’, ‘보육료 지원 확대(30.8%)’로 나타남
- 1+2순위에서 남녀 간 의견 차이가 가장 큰 정책은 ‘직장인 부모를 위한 육아 휴직 제도 확대(7.0%p)’와 ‘아동 안전 지킴이 제도 확대(6.9%p)’로 두 정책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비율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I-22> 자녀돌봄 지원을 위한 향후 5년의 인천시 정책

(단위 : %)

		사례수 (명)	믿고 맡길만한 공보육 확대	보육 서비스 다양성 확대	집으로 파견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보육료 지원 확대	아동안전 지킴이 제도 확대	직장인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 제도 확대
1순위	전체	(474)	53.2	11.8	5.3	14.6	6.8	8.2
	남성	(208)	53.8	11.5	7.7	14.9	5.8	6.3
	여성	(266)	52.6	12.0	3.4	14.3	7.5	9.8
	20대	(6)	66.7	33.3	0.0	0.0	0.0	0.0
	30대	(176)	54.5	8.5	6.8	15.9	5.1	9.1
	40대	(268)	52.2	13.1	4.5	14.6	7.8	7.5
	50대	(24)	50.0	16.7	4.2	8.3	8.3	12.5
	60세 이상	(0)	-	-	-	-	-	-
1순위 + 2순위	전체	(474)	69.6	42.0	19.2	30.8	15.4	21.7
	남성	(208)	73.1	42.3	21.6	33.2	11.5	17.8
	여성	(266)	66.9	41.7	17.3	28.9	18.4	24.8
	20대	(6)	66.7	66.7	16.7	50.0	0.0	0.0
	30대	(176)	70.5	38.1	23.9	33.0	13.1	21.0
	40대	(268)	69.4	44.4	17.2	29.1	16.8	22.0
	50대	(24)	66.7	37.5	8.3	29.2	20.8	29.2
	60세 이상	(0)	-	-	-	-	-	-

주: 기타 제외

□ 가족돌봄 주제, 비용, 장소에 대한 인식

- 자녀돌봄의 경우 비용 부담은 영·유아, 초등 저학년 모두 ‘가족이 주로 돌보고 정부 일부’ 부담이 가장 많은 반면, 돌보는 사람은 영·유아의 경우 ‘가족이 전적’으로, 특히 영아의 경우 돌봄 장소는 ‘집에서 전적’으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가족 돌봄의 경우 비용 부담은 아동, 성인, 치매가족 모두 ‘정부가 주로 가족이 조금’이 가장 많았으며, 아동을 제외하면 외부인 혹은 외부기관이 주 돌봄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노인 돌봄의 경우 비용부담은 ‘정부가 주로 가족이 조금’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돌봄 주체와 장소는 외부가 주(主)인 경우가 가장 많았음

<표 III-23> 가족돌봄 주제, 비용, 장소에 대한 인식

(N=2,000)

		돌보는 사람(비율)	돌봄 비용 부담(비율)	돌보는 장소(비율)
자녀 돌봄	1) 영아(만 0~2세)	가족이 전적 (82.7)	가족이 주로 돌보고 정부 일부 (42.1)	집에서 전적 (75.3)
	2) 유아(만 3~5세)	가족이 전적 (50.8)	가족이 주로 돌보고 정부 일부 (54.0)	집에서 주로 돌보고 외부기관 일부 (51.2)
	3) 초등 저학년 방과후	가족이 주로 돌보고 외부인 일부 (54.5)	가족이 주로 돌보고 정부 일부 (54.4)	집에서 주로 돌보고 외부기관 일부 (56.4)
장애가족 돌봄	4) 장애아동	가족이 주로 돌보고 외부인 일부 (49.3)	정부가 주로 돌보고 가족이 조금 (44.7)	집에서 주로 돌보고 외부기관 일부 (44.3)
	5) 장애가 있는 성인	외부인이 주로 돌보고 가족이 조금 (41.8)	정부가 주로 돌보고 가족이 조금 (50.1)	외부기관 주로 돌보고 집에서 일부 (55.9)
	6) 치매 가족	외부인이 주로 돌보고 가족이 조금 (48.9)	정부가 주로 돌보고 가족이 조금 (48.6)	외부기관에서 전적 (45.9)
노인 돌봄	7) 거동이 불편한 노인	외부인이 주로 돌보고 가족이 조금 (38.2)	정부가 주로 돌보고 가족이 조금 (46.5)	외부기관 주로 돌보고 집에서 일부 (40.3)

□ 시간 활용 및 조정에 대한 인식

- 여성의 경우 생리적 시간(16.8%) 및 일하는 시간(12.9%)을 늘리고 싶다는 응답이 남성(각각 13.1%, 12.4%)보다 많았으며, 가사 시간(22.5%)과 돌봄 시간(9.1%)은 줄이고 싶다는 응답이 남성(각각 5.5%, 2.0%)에 비해 훨씬 많았음
- 남성의 경우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싶다는 응답(30.2%)이 여성(20.9%)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남녀 모두 학습 및 자기개발시간(남 33.9%, 여 33.4%)과 여가시간(남 27.5%, 여 28.4%)은 늘리고 싶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생리적 시간 및 가사시간, 돌봄시간, 여가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한 반면, 남성은 일하는 시간과 학습 및 자기개발 시간을 여성과 비교해 더 많이 소비함

<표 III-24> 시간 활용 및 조정에 대한 인식

(단위 : %)

		사례수 (명)	줄이고 싶다	적정하다	늘리고 싶다	무응답	평균 (시간)
생리적 시간	남성	(995)	5.2	81.7	13.1	0.0	8.3
	여성	(1,005)	5.2	78.0	16.8	0.0	8.5
일하는 시간	남성	(995)	30.2	57.3	12.4	0.2	7.1
	여성	(1,005)	20.9	64.0	12.9	2.2	4.4
학습 및 자기개발 시간	남성	(995)	3.2	58.5	33.9	4.4	1.8
	여성	(1,005)	2.1	60.9	33.4	3.6	1.6
가사 시간	남성	(995)	5.5	87.3	5.0	2.1	1.0
	여성	(1,005)	22.5	74.6	2.2	0.7	2.6
돌봄 시간	남성	(995)	2.0	84.6	6.6	6.7	0.5
	여성	(1,005)	9.1	82.5	4.0	4.5	1.4
여가 시간	남성	(995)	9.2	62.9	27.5	0.3	4.7
	여성	(1,005)	9.3	62.2	28.4	0.2	4.9

5. 인권 및 건강

□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 여성에 대한 신체적 폭력이 심각하다는 것에 동의한 응답자는 76.5%로 나타났다으며, 여성(84.2%)이 남성(68.7%)에 비해, 20대(83.1%)와 30대(81.4%)가 타 연령대 응답자에 비해 더 많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커뮤니티, SNS에서의 여성 혐오 발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77.7%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여성(84.1%)이 남성(71.2%)보다, 20대와 40대(각각 81.6%)가 타 연령대보다 더 높은 비율로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방송 및 일상에서의 여성외모 비하 표현은 응답자 중 67.1%가 심각하다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여성(76.6%)이 남성(57.4%)보다, 20대(72.0%)와 40대(70.0%)가 타 연령대보다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표 III-25>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구분	동의 (대체로 심각하다 + 매우 심각하다)							
	전체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2,000)	(995)	(1,005)	(343)	(365)	(423)	(422)	(447)
1) 여성에 대한 신체적 폭력	76.5	68.7	84.2	83.1	81.4	79.0	72.0	69.4
2) 커뮤니티, SNS에서의 여성 혐오 발언	77.7	71.2	84.1	81.6	80.5	81.6	73.2	72.7
3) 방송 및 일상에서의 여성외모 비하 표현	67.1	57.4	76.6	72.0	66.8	70.0	65.6	62.0

□ 젠더폭력 처벌에 대한 인식

- 부부폭력 처벌에 대해서 ‘용인될 수 없으며 어떤 경우라도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녀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그 비율은 남성(72.4%)보다 여성(81.8%)이 더 높았으며, ‘용인될 수 없으나 법에 의해서 처벌 사안은 아니다’와 ‘상황에 따라 용인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18.2%)보다 남성(27.7%)이 더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데이트폭력, 직장 내 성희롱, 성매매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음. 그 중 성매매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용인될 수 없으나 법에 의해서 처벌 사안은 아니다’와 ‘상황에 따라 용인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은 21.3%, 여성은 8.3%로 13.0%p만큼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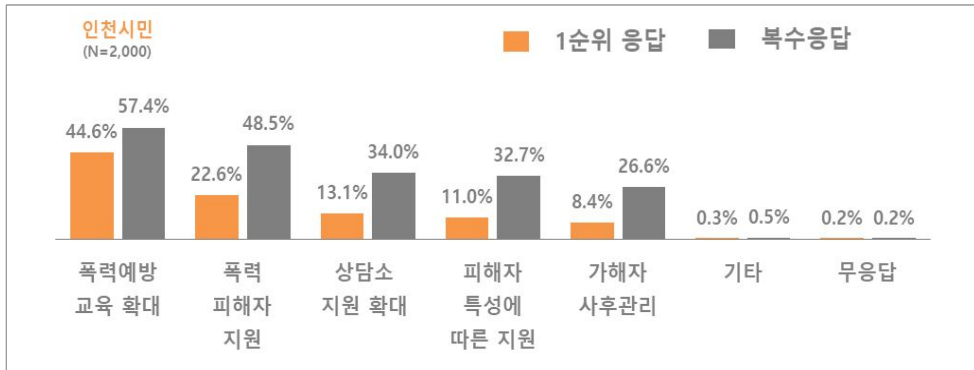
<표 III-26> 젠더폭력 처벌에 인식

(단위 : %)

		사례수 (명)	용인될 수 없으며 어떤 경우라도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	용인될 수 없으나, 법에 의해서 처벌 사안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용인될 수 있다
부부폭력	남성	(995)	72.4	16.2	11.5
	여성	(1,005)	81.8	10.7	7.5
데이트폭력	남성	(995)	87.4	8.5	4.0
	여성	(1,005)	90.6	6.1	3.3
직장 내 성희롱	남성	(995)	80.1	13.8	6.1
	여성	(1,005)	88.0	8.8	3.3
성매매	남성	(995)	78.7	14.6	6.7
	여성	(1,005)	91.7	5.0	3.3

□ 젠더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한 5년간 인천시 정책

<그림 III-10> 젠더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한 5년간 인천시 정책



- 젠더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향후 인천시 정책 1순위로 ‘폭력예방 교육 확대(44.6%)’를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뒤로 ‘폭력 피해자 지원 (22.6%)’, ‘상담소 지원 확대(13.1%)’ 순으로 나타났으며, 1+2순위 또한 동일한 순서로 나타남
- 여성은 남성에 비해 1순위로 ‘폭력 피해자 지원’ 및 ‘피해자 특성에 따른 지원’을 더 많이 꼽았으며 1+2순위에서 남성은 여성과 비교해 ‘폭력예방 교육 확대’를, 여성은 ‘폭력 피해자 지원’을 더 많이 선택함
- 1순위로 꼽힌 정책 중 ‘폭력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 사후관리’는 20대(각각 29.4%, 14.0%)가, ‘폭력예방 교육 확대’는 40대(49.6%)가, ‘상담소 지원 확대’는 60세 이상 응답자(15.9%)가 타 연령대와 비교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함

<표 III-27> 젠더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향후 5년간 인천시 정책

(단위 : %)

		사례수 (명)	폭력예방 교육 확대	상담소 지원 확대	폭력 피해자 지원	피해자 특성에 따른 지원	가해자 사후관리
1순위	전체	(2,000)	44.6	13.1	22.6	11.0	8.4
	남성	(995)	46.6	12.9	21.4	9.4	8.8
	여성	(1,005)	42.5	13.2	23.7	12.4	8.0
	20대	(343)	30.6	14.9	29.4	10.2	14.0
	30대	(365)	42.2	11.0	24.4	12.3	9.3
	40대	(423)	49.6	11.3	19.6	12.3	6.4
	50대	(422)	48.6	12.1	20.9	12.3	6.2
	60세 이상	(447)	48.5	15.9	20.1	7.8	7.4
1순위 + 2순위	전체	(2,000)	57.4	34.0	48.5	32.7	26.6
	남성	(995)	60.5	32.7	46.7	32.5	26.3
	여성	(1,005)	54.3	35.2	50.1	32.8	26.9
	20대	(343)	43.1	34.7	56.6	31.2	32.1
	30대	(365)	51.5	27.9	50.4	38.1	30.7
	40대	(423)	61.7	31.9	45.9	33.1	26.5
	50대	(422)	63.5	33.9	45.0	31.8	25.8
	60세 이상	(447)	63.3	40.3	46.3	29.8	19.9

주: 기타 제외

□ 나의 건강에 대한 인식

- 동일 연령대와 비교한 나의 건강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24.3%는 ‘건강이 좋지 않다’에 긍정(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하였으며, 여성(27.0%)이 남성(21.6%)보다, 60세 이상(30.9%)이 타 연령대보다 더 높은 비율로 긍정함
- 현재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에 대한 물음에 전체 응답자 중 50.9%가 긍정하였으며, 남성(51.8%)이 여성(50.0%)보다, 40대(57.9%)가 타 연령대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응답함

- 한 가지 이상의 만성병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32.8%가 그렇다(약간 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성(34.2%)이 남성(31.4%)보다, 60세 이상(59.3%)이 타 연령대보다 더 많이 긍정하였음
- 현재 우울감을 느끼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23.3%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여성(26.0%)이 남성(20.6%)에 비해, 20대(28.3%)가 타 연령대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함

<표 III-28> 나의 건강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구분	긍정 (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							
	전체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2,000)	(995)	(1,005)	(343)	(365)	(423)	(422)	(447)
1) 나는 동일 연령대와 비교하여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24.3	21.6	27.0	21.3	23.3	21.5	23.5	30.9
2) 나는 현재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50.9	51.8	50.0	55.7	56.7	57.9	50.9	35.6
3) 나는 한 가지 이상의 만성병을 가지고 있다	32.8	31.4	34.2	22.2	18.6	26.2	32.2	59.3
4) 나는 현재 우울감을 느낀다	23.3	20.6	26.0	28.3	22.7	20.8	19.9	25.5

□ 외모 중요도에 대한 인식

- 남녀 외모의 중요도를 분야별로 조사한 결과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외모가 중요하다(대체로 중요하다 +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는 비율은 응답자 남녀 할 것 없이 남성의 외모 중요도보다 더 높게 나타남
- 여성의 외모가 중요하다는 인식은 ‘연애’ 분야에서 7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의 외모가 중요하다는 인식은 ‘취업’ 분야에서 68.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여성 응답자는 남성 응답자보다 더 높은 비율로 남성, 여성 모두 외모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표 III-29> 외모 중요도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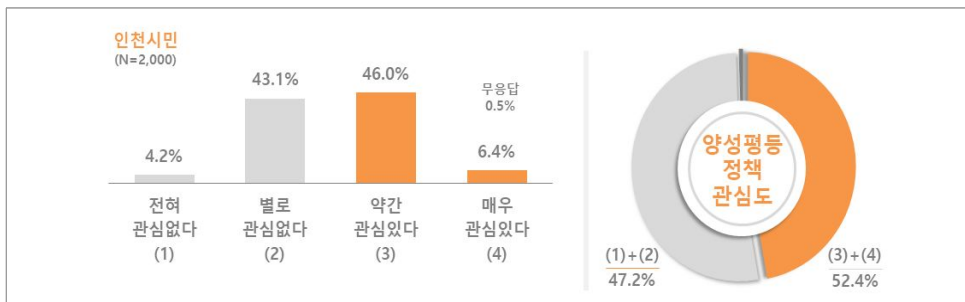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여성에게 외모의 중요도 (대체로 중요하다 + 매우 중요하다)			
		연애	결혼	취업	대인관계
전체	(2,000)	76.5	63.0	75.0	57.3
남성	(995)	75.0	61.2	71.0	53.8
여성	(1,005)	77.9	64.8	78.9	60.7
구분	사례수 (명)	남성에게 외모의 중요도 (대체로 중요하다 + 매우 중요하다)			
		연애	결혼	취업	대인관계
전체	(2,000)	63.4	52.0	68.9	51.9
남성	(995)	62.8	50.9	66.8	50.2
여성	(1,005)	63.9	53.1	70.8	53.6

6. 양성평등 정책

□ 인천시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관심

<그림 III-11> 인천시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관심



- 전체 응답자 중 52.4%는 인천시 양성평등 정책에 대해 관심이 있다(약간 관심 있다 + 매우 관심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가운데 여성은 62.6%, 남성은 42.0%가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여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은 비율로 양성평등 정책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연령별로는 2~30대보다 4~50대에서 양성평등 정책에 관심 가지는 비율이 더 많았으며, 60세 이상 응답자는 그 비율이 타 연령대보다 현저히 낮았음

<표 III-30> 인천시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관심

(단위 : %)

		사례수 (명)	전혀 관심 없다	별로 관심 없다	약간 관심 있다	매우 관심 있다	부정	긍정
전체		(2,000)	4.2	43.1	46.0	6.4	47.2	52.4
성별	남성	(995)	6.3	51.3	38.3	3.7	57.6	42.0
	여성	(1,005)	2.0	34.9	53.5	9.1	36.9	62.6
연령별	20대	(343)	7.0	43.7	43.1	5.8	50.7	49.0
	30대	(365)	5.2	44.7	44.4	5.8	49.9	50.1
	40대	(423)	3.3	34.8	54.6	7.1	38.1	61.7
	50대	(422)	2.8	40.0	48.8	7.6	42.9	56.4
	60세 이상	(447)	3.1	51.9	38.5	5.6	55.0	44.1

주 : 무응답 제외

□ 인천시에 대한 평가

- 인천시 평가 중 긍정적인 비율이 가장 높은 1순위는 ‘인천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이다(79.6%)’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 ‘인천은 살기 좋은 도시이다(72.5%)’, ‘인천은 여가·문화, 체육시설이 잘 갖추어진 도시이다(70.4%)’ 순으로 나타남
- 인천시 평가 중 긍정적인 비율이 가장 낮은 분야는 범죄로부터의 안전성(39.4%)이었으며, 남성(43.7%)보다 여성(35.1%)의 비율이 더 낮았고, 3~50

대에서 낮은 비율을 보임

- ‘인천은 양성평등한 도시이다’에 대한 물음에 60세 이상의 경우 61.5%로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40대 응답자는 39.7%로 나타나 연령 간 견해가 상이하게 나타남
- 3~40대의 경우 양육과 노동이 활발한 시기이나 ‘인천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이다’와 ‘인천은 여성이 일하기 좋은 도시이다’의 긍정 비율이 타 연령대에 비해 낮게 나타남
- 60세 이상의 경우 ‘인천은 장애인, 노인 등이 생활하기에 좋은 도시이다’에 67.3%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타 연령대보다 더 높은 비율로 긍정적으로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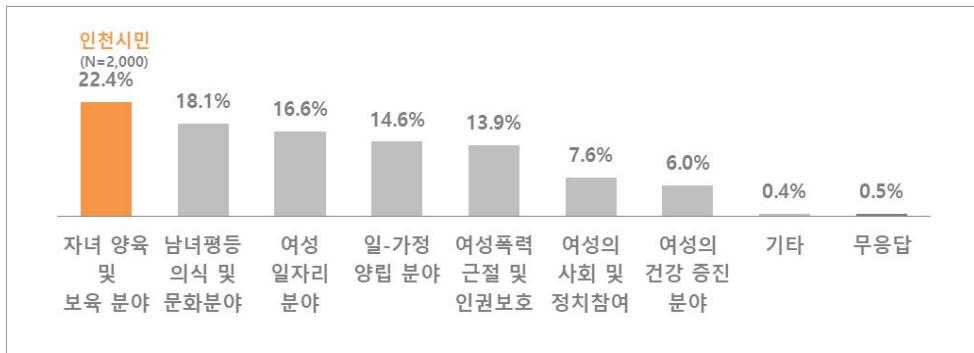
<표 III-31> 인천시에 대한 평가

(단위 : 명, %)

구분	긍정 (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							
	전체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2,000)	(995)	(1,005)	(343)	(365)	(423)	(422)	(447)
1) 인천은 양성평등한 도시이다	48.8	48.7	48.9	51.6	44.7	39.7	45.7	61.5
2) 인천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이다	55.9	56.2	55.5	56.6	46.3	52.2	55.5	66.9
3) 인천은 여성이 일하기 좋은 도시이다	51.8	55.3	48.3	56.0	43.3	44.4	51.4	62.6
4) 인천은 다문화, 한부모가족 등이 생활하기에 좋은 도시이다	54.2	52.5	55.8	56.6	49.9	53.4	51.2	59.3
5) 인천은 장애인, 노인 등이 생활하기에 좋은 도시이다	56.3	54.1	58.4	56.6	49.1	52.5	54.3	67.3
6) 인천은 여가 문화, 체육시설이 잘 갖추어진 도시이다	70.4	69.2	71.4	74.9	61.1	65.7	69.4	79.6
7) 인천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이다	39.4	43.7	35.1	44.0	36.2	35.7	35.3	45.9
8) 인천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이다	79.6	77.9	81.3	77.3	80.0	77.5	75.8	86.6
9) 인천은 사회참여나 정치참여가 활발한 도시이다	47.3	47.4	47.1	45.5	40.8	44.2	48.1	55.9
10) 인천은 살기 좋은 도시이다	72.5	72.2	72.7	76.7	64.7	68.1	68.5	83.4

□ 인천시 양성평등 정책의 성과와 과제 분야

<그림 III-12> 향후 양성평등한 인천시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분야



- 인천시 양성평등 정책 중 가장 성과가 많은 분야에 대한 물음에 16.5%가 ‘자녀 양육 및 보육 분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그 뒤로 ‘남녀평등 의식 및 문화 분야(15.9%)’로 꼽혔으나 향후 5년간 가장 노력해야 할 분야에서도 각각 22.4%, 18.1%로 가장 많이 언급됨
- 남성의 경우 ‘남녀평등 의식 및 문화 분야(18.0%)’를 성과로서, ‘자녀 양육 및 보육 분야(26.1%)’를 과제로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여성의 경우 ‘자녀 양육 및 보육 분야(16.4%)’를 성과로서, ‘여성 일자리 분야(22.7%)’를 과제로 가장 많이 응답하여 성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
- 인천시의 향후 과제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20대(29.4%)는 ‘남녀평등 의식 및 문화 분야’, 30대(30.4%) 및 40대(24.8%), 60세 이상(24.2%)은 ‘자녀 양육 및 보육 분야’, 50대(20.4%)는 ‘여성 일자리 분야’를 가장 많이 꼽아 연령 별로 정책에 대한 수요가 다른 것으로 드러남

<표 III-32> 인천시 양성평등 정책의 성과와 과제 분야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남녀평등 의식 및 문화분야	여성의 사회 및 정치참여	일-가정 양립 분야	여성폭력 근절 및 인권보호	여성 일자리 분야	여성의 건강증진 분야	자녀양육 및 보육분야
5년간 성과	전체	(2,000)	15.9	12.3	6.4	11.5	12.7	7.6	16.5
	남성	(995)	18.0	12.8	6.0	12.1	11.5	6.3	16.5
	여성	(1,005)	13.7	11.8	6.7	10.8	13.8	8.8	16.4
	20대	(343)	20.4	8.7	7.3	7.9	14.3	4.7	16.9
	30대	(365)	18.4	11.8	4.9	12.3	12.1	5.2	15.6
	40대	(423)	14.2	15.6	9.0	10.6	9.9	5.7	20.1
	50대	(422)	11.1	12.8	6.4	13.0	13.0	8.8	16.1
	60세 이상	(447)	16.3	11.9	4.3	12.8	14.1	12.3	13.6
향후 5년 과제	전체	(2,000)	18.1	7.6	14.6	13.9	16.6	6.0	22.4
	남성	(995)	23.2	7.8	13.7	13.5	10.4	3.9	26.1
	여성	(1,005)	13.0	7.4	15.5	14.3	22.7	8.1	18.6
	20대	(343)	29.4	9.9	13.1	18.1	11.7	1.7	14.0
	30대	(365)	17.8	4.1	18.9	10.7	15.1	2.2	30.4
	40대	(423)	15.4	8.5	14.9	16.3	15.6	3.5	24.8
	50대	(422)	18.2	7.8	16.4	12.1	20.4	7.1	17.8
	60세 이상	(447)	12.1	7.6	10.3	12.8	18.8	13.6	24.2

주 : '없다', '기타', 무응답 제외

4 청소년 조사 결과

1.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 인천시 청소년 양성평등 의식 조사

- 양성불평등한 상황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가장 많은 문항은 ‘반장이나 학생회 간부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적합하다(97.0%)’로 나타났고, 그 뒤로 ‘남성이 전업주부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96.0%)’, ‘여학생은 치마 교복을 입는 것이 당연하다(92.4%)’ 순이었으며, ‘남자는 여자보다 수학과 과학을 더 잘한다’ 문항을 제외한 모든 질문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양성평등한 상황에 대해 묻는 ‘남성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0.6%가 긍정하였고, 남학생(79.2%)보다 여학생(82.0%)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남성과 여성의 시각차가 가장 큰 문항은 ‘경제적인 가족부양 책임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크다’로 20.8%p만큼 차이가 났으며, 그 뒤로 ‘여성이 욕설, 음담패설, 술 취한 모습은 보기에 좋지 않다(17.6%p)’, ‘남자는 여자보다 운동을 더 잘한다(14.0%p)’순으로 나타남

<표 III-33> 인천시 청소년 양성평등 의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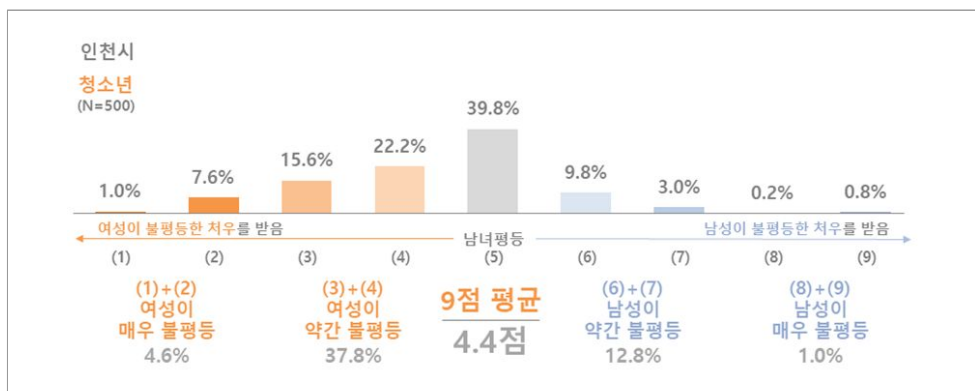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부정(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전체 (500)	남학생 (250)	여학생 (250)
1) 아내가 남편보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남편은 기가 죽는다	88.8	84.8	92.8
2) 남성이 전업주부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96.0	93.2	98.8

구분	부정(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전체	남학생	여학생
	(500)	(250)	(250)
3) 경제적인 가족부양 책임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크다	65.2	54.8	75.6
4) 남녀 이성 관계에서 데이트는 남성이 주도해야 한다	87.4	80.8	94.0
5) 여성이 욕설, 음담패설, 술 취한 모습은 보기에 좋지 않다	55.2	46.4	64.0
6) 남자는 여자보다 수학과 과학을 더 잘 한다	78.4	78.4	78.4
7) 여자는 남자보다 국어와 영어를 더 잘 한다	81.2	78.0	84.4
8) 남자는 여자보다 운동을 더 잘 한다	48.2	41.2	55.2
9) 여학생은 치마 교복을 입는 것이 당연하다	92.4	88.0	96.8
10) 반장이나 학생회 간부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적합하다	97.0	94.4	99.6
구분	긍정(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전체	남학생	여학생
	(500)	(250)	(250)
1) 남성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80.6	79.2	82.0

□ 인천시 청소년이 생각하는 한국사회와 인천시의 평등 수준

<그림 III-13> 인천시 청소년이 생각하는 인천시의 평등 수준



- 한국사회가 남녀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33.8%로 나타났으며, 인천시의 경우 39.8%가 남녀평등하다고 생각해 한국사회보다 인천시가 남녀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비교했을 때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한국사회 및 인천시가 남녀평등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낮았으며, 특히 여학생의 6.8%가 한국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여 그 비율이 남학생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남

<표 III-34> 인천시 청소년이 생각하는 한국사회와 인천시의 평등 수준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여성이 불평등 (1)	(2)	(3)	(4)	남녀 평등 (5)	(6)	(7)	(8)	남성이 불평등 (9)
한국사회	전체	(500)	3.4	8.8	17.8	20.8	33.8	10.6	3.8	0.2	0.8
	남학생	(250)	0.0	2.8	12.0	15.2	43.6	18.0	6.8	0.4	1.2
	여학생	(250)	6.8	14.8	23.6	26.4	24.0	3.2	0.8	0.0	0.4
인천시	전체	(500)	1.0	7.6	15.6	22.2	39.8	9.8	3.0	0.2	0.8
	남학생	(250)	0.0	1.6	10.0	15.2	49.6	16.0	6.0	0.4	1.2
	여학생	(250)	2.0	13.6	21.2	29.2	30.0	3.6	0.0	0.0	0.4

□ 인천시 청소년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 공간에 대한 인식

- ‘인천시 양성평등 문화 확산 공간에 대해 알거나 들어본 적 있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31.4%로 나타났으며, 여학생(30.0%)보다 남학생(32.8%) 중에 인지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남
- 양성평등 문화 확산 공간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중 63.2%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남학생(50.4%)보다 여학생(76.0%) 중에 필요하다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음

- 양성평등 문화 확산 공간의 향후 이용의향에 대한 물음에 전체의 39.8%가 이용할 것이다 응답하였으며, 이는 남학생(30.4%)보다 여학생(49.2%)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표 III-35> 인천시 청소년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 공간에 대한 인식

(단위 : %)

	사례수 (명)	인지도		필요성			향후 이용의향		
		알거나 들어본 적 없다	알거나 들어본 적 있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잘 모르겠다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용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전체	(500)	68.6	31.4	5.8	63.2	31.0	9.8	39.8	50.4
남학생	(250)	67.2	32.8	10.0	50.4	39.6	15.2	30.4	54.4
여학생	(250)	70.0	30.0	1.6	76.0	22.4	4.4	49.2	46.4

2. 향후 직업과 일

□ 직업에 대한 성별 이미지

- 직업에 대한 성별 이미지에 대한 청소년의 생각을 물어본 결과, 모든 직업에서 과반수가 ‘남녀 차이없다’고 응답함
- ‘남성에게 어울린다’라고 많이 꼽힌 직업 1순위는 ‘공구, 기계를 다루는 일(38.4%)’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 ‘분석적인 사고, 활용을 요하는 일(21.0%)’, ‘개인이나 조직을 위해 지도하는 일(10.2%)’ 순인 반면, ‘여학생에게 어울린다’라고 많이 언급된 직업 1순위는 ‘다른 사람의 복지와 관련된 일(23.0%)’이었으며, 그 뒤로 ‘학생을 지도하는 일(13.6%)’, ‘가사 일과 관련된 일(11.0%)’ 순으로 나타남
-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보다 성별 이미지 구분이 뚜렷하였는데 여학생의 24.8%가 ‘공구, 기계를 다루는 일’이 남성에게 어울린다고 응답한 반면 남학생은 과반이 넘

는 52.0%가 응답하였고, 그 외 직업에 대해서도 여학생보다 높은 비율로 직업에 대한 성별 이미지를 구분 짓는 것으로 드러남

<표 III-36> 직업에 대한 성별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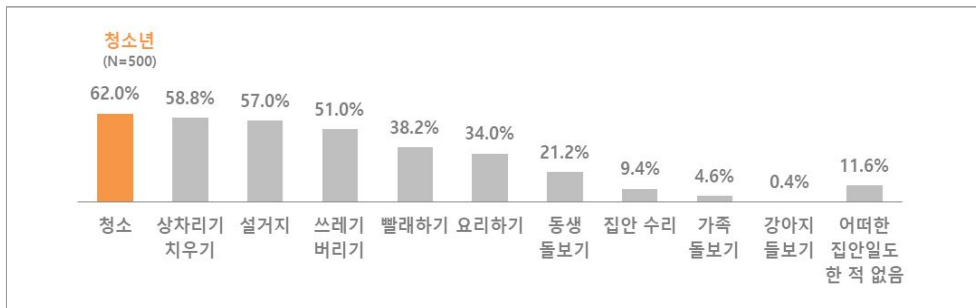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전체(500)			남학생(250)			여학생(250)		
	남성에게 어울린다	여성에게 어울린다	남녀차이 없다	남성에게 어울린다	여성에게 어울린다	남녀차이 없다	남성에게 어울린다	여성에게 어울린다	남녀차이 없다
1) 공구, 기계를 다루는 일	38.4	0.8	60.8	52.0	1.6	46.4	24.8	0.0	75.2
2) 분석적인 사고, 활용을 요하는 일	21.0	2.2	76.8	28.4	4.0	67.6	13.6	0.4	86.0
3) 예술, 문학, 음악 작품을 창작하고 표현하는 일	1.4	10.8	87.8	2.4	14.0	83.6	0.4	7.6	92.0
4) 다른 사람의 복지와 관련된 일	0.6	23.0	76.4	1.2	29.6	69.2	0.0	16.4	83.6
5) 학생을 지도하는 일	0.6	13.6	85.8	0.8	17.6	81.6	0.4	9.6	90.0
6) 개인이나 조직을 위해 지도하는 일	10.2	1.0	88.8	15.6	1.6	82.8	4.8	0.4	94.8
7) 가사 일과 관련된 일	2.6	11.0	86.4	4.0	14.0	82.0	1.2	8.0	90.8

3. 집안 일

□ 지난 2주 동안 한 집안 일

<그림 III-14> 지난 2주 동안 한 집안 일



- 집안일 중 청소년이 가장 많이 하는 것 1순위는 ‘청소(62.0%)’였으며, 그 뒤로 ‘상 차리거나 치우기(58.8%)’, ‘설거지(57.0%)’순으로 나타났고, ‘어떠한 집안일도 한 적 없음’은 전체 응답자 중 11.6%로 나타남
- 여학생의 경우 ‘쓰레기 버리기’, ‘집안 수리’를 제외한 나머지 집안일들을 수행한 비율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어떠한 집안일도 한 적 없음’은 여학생(10.4%)보다 남학생(12.8%)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남

<표 III-37> 지난 2주 동안 한 집안일(모두 선택)

(단위 : %)

구분	사례 수 (명)	상차리 거나 치우기	설거지	요리 하기	청소	빨래 하기	쓰레기 버리기	집안 수리	동생 돌보기	가족 돌보기	강아지 돌보기	어떠한 집안일 도 한 적 없음
전체	(500)	58.8	57.0	34.0	62.0	38.2	51.0	9.4	21.2	4.6	0.4	11.6
남학생	(250)	52.4	48.8	30.0	60.4	34.8	53.6	12.4	21.2	4.0	0.4	12.8
여학생	(250)	65.2	65.2	38.0	63.6	41.6	48.4	6.4	21.2	5.2	0.4	10.4

4. 인권 및 건강

□ 인권에 대한 인식

- 여성에 대한 신체적 폭력에 대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86.0%로 나타났으며, 이는 남학생(76.0%)보다는 여학생(96.0%)에게서 더 잘 드러남
- 커뮤니티, SNS 여성혐오 발언에 대해서 전체의 87.0%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가운데 여학생의 94.8%, 남학생의 79.2%가 동의하여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그 심각성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방송, 일상에서의 여성외모 비하 표현에 대해서는 전체의 78.0%가 심각하다 응답하였으며, 여학생(90.8%)은 남학생(65.2%)보다 더 높은 비율로 심각성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남

<표 III-38> 인권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구분	긍정 (대체로 심각하다 + 매우 심각하다)								
	전체(500)			남학생(250)			여학생(250)		
	긍정	대체로 심각 하다	매우 심각 하다	긍정	대체로 심각 하다	매우 심각 하다	긍정	대체로 심각 하다	매우 심각 하다
1) 여성에 대한 신체적 폭력	86.0	41.2	44.8	76.0	46.8	29.2	96.0	35.6	60.4
2) 커뮤니티, SNS 여성혐오 발언	87.0	35.2	51.8	79.2	42.8	36.4	94.8	27.6	67.2
3) 방송, 일상에서의 여성외모 비하 표현	78.0	38.8	39.2	65.2	40.4	24.8	90.8	37.2	53.6

□ 젠더폭력 처벌에 대한 인식

- 부부폭력 처벌에 대해서 ‘용인될 수 없으며 어떤 경우라도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녀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그 비율은 남성(79.2%)보다 여성(92.4%)이 더 높았으며, ‘용인될 수 없으나 법에 의해서 처벌 사안은 아니다’와 ‘상황에 따라 용인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7.6%)보다 남학생(20.8%)이 더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데이트폭력, 직장 내 성희롱, 성매매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음
- 그 중 성매매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용인될 수 없으나 법에 의해서 처벌 사안은 아니다’와 ‘상황에 따라 용인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은 17.6%, 여성은 2.8%로 14.8%p 만큼 차이를 보임

<표 III-39> 젠더폭력 처벌에 대한 인식

(단위 : %)

		사례수 (명)	용인될 수 없으며 어떤 경우라도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	용인될 수 없으나, 법에 의해서 처벌 사안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용인될 수 있다
부부폭력	남학생	(250)	79.2	5.6	15.2
	여학생	(250)	92.4	3.2	4.4
데이트폭력	남학생	(250)	81.6	6.4	12.0
	여학생	(250)	94.8	2.4	2.8
직장 내 성희롱	남학생	(250)	85.6	6.4	8.0
	여학생	(250)	97.2	2.4	0.4
성매매	남학생	(250)	82.4	7.6	10.0
	여학생	(250)	97.2	1.2	1.6

□ 성폭력에 대한 인식

- ‘남성이 성적인 호기심을 보이는 것은 괜찮지만 여성은 좋지 않다’는 문항에 전체 응답자의 92.6%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그 비율은 남학생(88.4%)보다 여학생(96.8%)이 더 높았음
- ‘남성의 성충동은 생물학적인 것이어서 해소해야만 한다’에 대해서 응답자의 83.4%가 부정적으로 응답했고, 이 또한 남학생(74.4%)보다 여학생(92.4%)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여성들만 조심하면 성폭력은 줄일 수 있다’는 질문에 전체의 93.0%가 부정했으며, 여학생의 98.8%, 남학생의 87.2%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표 III-40> 성폭력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전체(500)			남학생(250)			여학생(250)		
	부정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부정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부정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1) 남성이 성적인 호기심을 보이는 것은 괜찮지만 여성은 좋지 않다	92.6	71.8	20.8	88.4	58.8	29.6	96.8	84.8	12.0
2) 남성의 성충동은 생물학적인 것이라서 해소해야만 한다	83.4	58.8	24.6	74.4	42.8	31.6	92.4	74.8	17.6
3) 여성들만 조심하면 성폭력은 줄일 수 있다	93.0	74.6	18.4	87.2	60.0	27.2	98.8	89.2	9.6

□ 외모 중요 여부

-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남녀 외모의 중요도를 분야별로 조사한 결과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외모가 중요하다(대체로 중요하다 +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남성의 외모 중요도보다 더 높게 나타남
- 외모가 중요하다는 인식은 남녀 모두 ‘연애’분야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은 전체 응답자의 61.6%, 남성은 전체 응답자의 56.0%가 연애에서 외모가 중요하다고 응답함
- 여학생은 남학생과 비교해 외모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더 낮았으며, 여성의 대인관계 분야에서만 남학생(49.6%)보다 더 높은 비율(51.6%)을 보임

<표 III-41> 외모 중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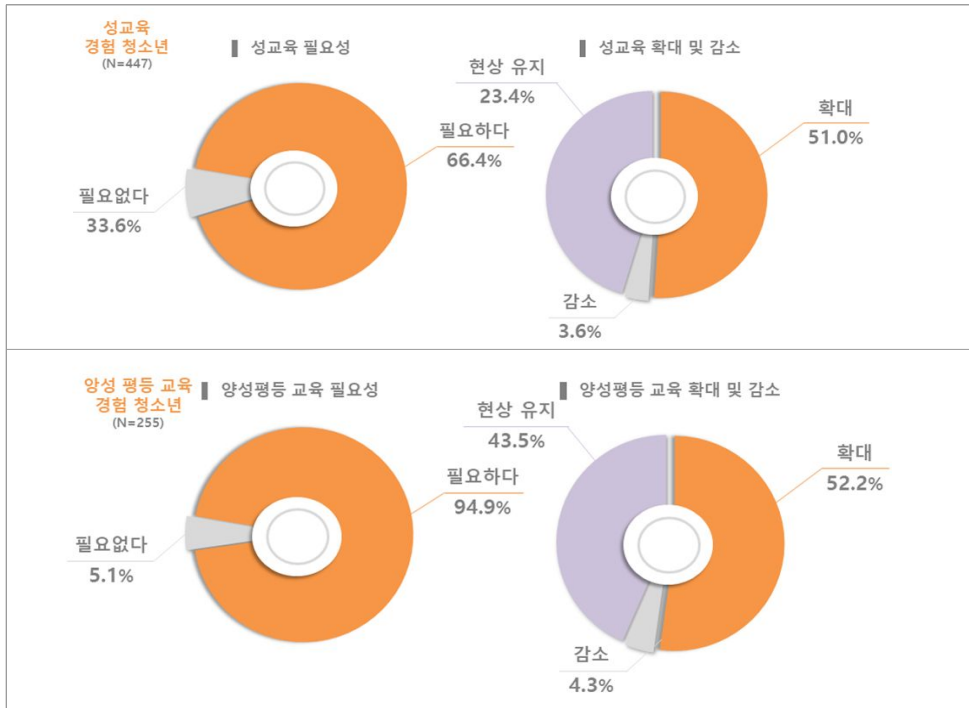
(단위 : %)

		사례수 (명)	여성에게 외모의 중요도 (대체로 중요하다 + 매우 중요하다)			
			연애	결혼	취업	대인관계
전체		(500)	61.6	46.6	55.4	50.6
성별	남학생	(250)	64.8	51.2	55.6	49.6
	여학생	(250)	58.4	42.0	55.2	51.6
		사례수 (명)	남성에게 외모의 중요도 (대체로 중요하다 + 매우 중요하다)			
			연애	결혼	취업	대인관계
전체		(500)	56.0	46.2	51.2	45.8
성별	남학생	(250)	60.8	52.0	54.8	48.0
	여학생	(250)	51.2	40.4	47.6	43.6

5. 학교 생활

□ 성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 유용성, 필요성 및 확대 여부

<그림 III-15> 성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 필요성 및 확대 여부



- 성교육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유용하다’는 학생은 전체의 66.4%였으며, 이는 여학생(62.2%)보다 남학생(70.7%)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2.4%가 긍정하였으며, 51.0%는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함
- 양성평등 교육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4%가 유용하다 답했으며, 남학생 (70.7%)이 여학생(62.2%)보다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남. 전체 응답자의 94.9%는 양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교육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52.2%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 III-42> 지난 1년간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유용성, 필요성 및 확대 여부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성교육						
		유용성		필요성		확대 여부		
		유용하다	유용하지 않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확대	감소	현상유지
전체	(477)	66.4	33.6	92.4	7.6	51.0	3.6	45.4
남학생	(222)	70.7	29.3	89.2	10.8	41.0	5.0	54.1
여학생	(225)	62.2	37.8	95.6	4.4	60.9	2.2	36.9
구분	사례수 (명)	양성평등 교육						
		유용성		필요성		확대 여부		
		유용하다	유용하지 않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확대	감소	현상유지
전체	(255)	66.4	33.6	94.9	5.1	52.2	4.3	43.5
남학생	(129)	70.7	29.3	93.8	6.2	41.9	4.7	53.5
여학생	(126)	62.2	37.8	96.0	4.0	62.7	4.0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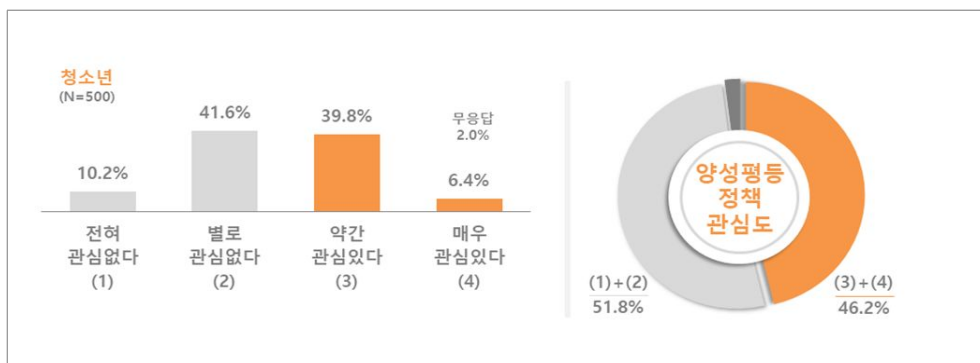
주 1) 500명 중 지난 1년간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답변은 89.4%, 없다는 응답은 10.6%였음

2) 500명 중 지난 1년간 양성평등 교육을 받은 학생은 51.0%, 받은 경험이 없는 학생은 49.0%임

6. 양성평등 정책

□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관심

<그림 III-16>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관심



- 양성평등 및 여성가족 정책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46.2%가 관심 있다(약간 관심 있다 + 매우 관심 있다)고 답했으며, 남학생(34.0%)보다 여학생(58.4%)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양성평등 및 여성가족 정책에 대해 ‘전혀 관심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이 14.4%, 여학생이 6.0%로 큰 차이를 보임

<표 III-43> 양성평등 및 여성가족 정책에 대한 관심

(단위 : %)

	사례수 (명)	전혀 관심 없다	별로 관심 없다	약간 관심 있다	매우 관심 있다	부정	긍정
전체	(500)	10.2	41.6	39.8	6.4	51.8	46.2
남학생	(250)	14.4	50.0	31.2	2.8	64.4	34.0
여학생	(250)	6.0	33.2	48.4	10.0	39.2	58.4

주 : 무응답 제외

□ 인천시에 대한 평가

- 인천시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가장 많은 1순위는 ‘인천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이다(83.8%)’였으며, 그 뒤로 ‘인천은 여가·문화, 체육시설이 잘 갖추어진 도시이다(80.0%)’, ‘인천은 살기 좋은 도시이다(76.2%)’ 순으로 나타남
- 가장 긍정적인 평가가 낮은 분야는 ‘인천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이다(41.6%)’로 나타났으며 남학생(51.6%)보다 여학생(31.6%)의 비율이 크게 낮은 것으로 드러남
- ‘인천은 여가·문화, 체육시설이 잘 갖추어진 도시이다’를 제외하고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높은 비율로 긍정적인 평가를 냄

<표 III-44> 인천시에 대한 평가

(단위 : 명, %)

	긍정 (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		
	전체(500)	남학생(250)	여학생(250)
1) 인천은 양성평등한 도시이다	56.6	62.0	51.2
2) 인천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이다	60.0	63.6	56.4
3) 인천은 여성이 일하기 좋은 도시이다	63.2	72.0	54.4
4) 인천은 다문화, 한부모 등이 생활하기에 좋은 도시이다	69.6	72.8	66.4
5) 인천은 장애인, 노인 등이 생활하기에 좋은 도시이다	71.6	75.2	68.0
6) 인천은 여가 문화, 체육시설이 잘 갖추어진 도시이다	80.0	78.8	81.2
7) 인천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이다	41.6	51.6	31.6
8) 인천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이다	83.8	84.8	82.8
9) 인천은 사회참여나 정치참여가 활발한 도시이다	61.8	64.4	59.2
10) 인천은 살기 좋은 도시이다	76.2	81.2	71.2



IV. 인천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구조



1

인천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의 수립 방향

- 향후 5년간 인천시 양성평등정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제1차 인천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2018~2022)』은 다음과 같은 6가지의 주요 사항을 반영하여 수립함
- 첫째, 여성가족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함. 기본계획의 추진기관은 26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그 정책적 범위는 인천지역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서 도출된 과제를 반영함으로써 중앙정부와의 정책적 방향성을 공유하고 실행력을 제고시키고자 함
- 둘째, 지역 성평등 지수를 비교·분석하여 인천시가 취약한 분야를 파악하고 해당 분야의 정책과제를 발굴함. 인천시의 지역 성평등 지수(2016년 기준/2017년 자료)는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8개 분야 중 특히 ‘경제활동’(69.4점/12순위), ‘복지’(86.0점/11순위), ‘안전’(69.2점/10순위), ‘가족’(75.6점/12순위)분야에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또한 ‘의사결정’의 경우 타시도와 비해 비교적 높은 순위인 5위에 위치해 있으나, 성평등 지수는 30.7점에 불과해 ‘의사결정’에서의 성평등 수준 제고 방안도 모색함
- 셋째, 인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의 연계를 도모함. 인천시 여성가족국에서는 여성취업 지원, 안전, 가족친화, 보육, 공무원 성인지 교육,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를 분석하여 지속 및 확대가 요구되는 사업을 종합계획에 포함함
- 넷째, 인천시민(만 19세이상) 2,000명과 청소년(만 15~18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양성평등 인식 및 수요조사(2018.3.~ 5.)의 주요 결과 내용을 감안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함
- 다섯째, 영역별 자문회의, 공청회, 시민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인천시민, 여성단체 회원, 인천시 관련위원회 위원, 관련 학과 교수 및 연구원, 유관기관

종사자, 인천시의원, 인천시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함

○ 여섯째, 인천시 민선 7기 공약사업을 포함함

<그림 IV-1> 인천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의 수립 방향



2 인천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의 구조

- 제1차 인천시 양성평등정책의 종합계획은 ‘변화하고 참여하는 성평등 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하여, 6개 영역, 24개 정책과제, 65개 세부과제를 도출하였음

<그림 IV-2> 제1차 인천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의 구조



3 비전 및 정책목표

1. 비전 : 변화하고 참여하는 성평등 도시, 인천

- 비전은 『제1차 인천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2018~2022)』을 통해 2022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중장기적 목표와 지침의 역할을 수행함
-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이념은 “실질적인 양성평등의 실현”임
 -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의 해소’ 및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의미함

「양성평등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 이에 비전의 키워드를 “참여”와 “변화”로 설정함
 - 참여 :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변화 : 사회 전반에서 드러나는 차별을 해소하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로의 변화를 추구함
- ➔ 동등한 참여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사회로의 변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성평등한 인천시를 구현하고자 함

2. 정책 목표

-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목표는 (1)‘일상의 차별 해소’, (2)‘동등한 참여’, (3)‘젠더거버넌스 강화’, (4)‘일-생활 균형’, (5)‘젠더폭력 근절’임

4 영역별 정책과제, 세부과제

1영역 : 성평등 의식 및 문화의 확산

진단 및 과제 수립 방향

- ☐ 일상 속 성별 고정관념과 차별이 여전
- ☐ 대중매체, 디지털 공간에서의 여성비하, 성차별적 표현이 심각
- ☐ 교사, 학생의 성평등 의식 고양 및 성평등한 학교 환경 조성 필요
- ☐ 인천 여성사 발굴 및 지역 여성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 요구

- **일상에서의 성평등 의식 제고**
- **지역여성문화 확산**
- **지역여성예술인 지원**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

정책과제	세부과제
1.1.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1.1.1. 양성평등주간 행사의 다양화
	1.1.2. 인천여성영화제 개최 지원
	1.1.3. 성차별적 언어 및 표현 개선
	1.1.4. 학교에서의 성평등 교육 강화
1.2. 지역대중매체, 디지털 공간에서의 성차별 개선	1.2.1. 지역신문, 방송, 소셜미디어,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1.2.2. 정보화 교육과정에서의 성평등 교육 강화
1.3. 지역여성문화의 활성화	1.3.1. 지역여성사 발굴 및 확산
	1.3.2. 지역여성문화 공간 조성
	1.3.3. 지역여성문화 예술인 지원

2영역 :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 보장

진단 및 과제 수립 방향

- ☐ 인천시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 지수는 하위권
- ☐ 노동시장으로의 여성 진입은 여전히 열악함
- ☐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은 여전하며 불안정한 고용상태는 지속되고 있음
- ☐ 여성의 고용 상 성차별적 해소 정책이 필요

- 
- **여성고용을 증가 정책**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정책**
 - **고용 상 성차별 요인 해소 정책**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

정책과제	세부과제
2.1. 고용 기회의 평등성 제고	2.1.1. 성별 직종분리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2.1.2.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여성의 역량 강화
2.2. 고용현장의 성차별 개선	2.2.1. 고용 상 성차별 해소 추진기반 정비
	2.2.2. 사회서비스 부문 여성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2.2.3. 직장 내 성희롱 근절
2.3.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반 조성	2.3.1.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유지 지원
	2.3.2. 취업지원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내실화
	2.3.3. 청년여성 고용정책 지원
2.4. 여성일자리 확대	2.4.1. 여성일자리 창출
	2.4.2.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 확대

3영역 :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기반 강화

진단 및 과제 수립 방향

- 정치, 행정 분야에서의 여성의 대표성 수준은 상당히 낮음
- 사회전반에 나타나는 견고한 유리천장은 민간기업에서 더욱 심각함
- 그러나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음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3조)
 - 중앙정부는 2018년을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실행의 원년으로 삼고 추진 로드맵 마련

- **정치, 행정, 민간기업에서의 여성대표성 제고**
-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지역의 여성 인재 양성**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

정책과제	세부과제
3.1. 정치분야 여성대표성 제고	3.1.1. 동등한 정치 참여 지원
	3.1.2. 성인지적 의정 활동 지원
3.2. 공공행정분야 여성대표성 제고	3.2.1. 행정분야 여성의 의사결정권 강화
	3.2.2. 공공기관의 여성대표성 제고
3.3. 민간기업에서의 여성대표성 제고 기반 마련	3.3.1. 기업의 양성평등 경영 지원
	3.3.2. 민간기업의 여성관리자 확대 여건 조성
3.4. 젠더리더십 역량 강화	3.4.1. 지역 여성정치 리더십 증진
	3.4.2. 지역 여성인재 발굴 및 육성

4영역 : 일-생활 균형 사회 기반 조성

진단 및 과제 수립 방향

- “모”의 노동권, “부”의 가족생활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정책 필요
- 일-가정 양립제도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접근 요구

- **지역에서의 일-생활 균형 확대**
- **공보육 강화**
- **가족친화 경영 확대**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

정책과제	세부과제
4.1. 일-생활 균형 지역환경 개선	4.1.1. 일-생활 균형 운영체계 구축
	4.1.2. 일-생활 균형 지역문화 조성
4.2. 돌봄서비스의 강화	4.2.1. 공보육 인프라 확충
	4.2.2.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
	4.2.3. 남성의 가사, 육아 참여 권리 확대
4.3. 가족친화 경영 확산	4.3.1. 가족친화제도 정착
	4.3.2.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4.4. 다양한 가구의 일-생활 균형 지원	4.4.1. 다양한 가구의 맞춤형 일-생활 균형 정책 강화

5영역 : 여성폭력 근절 및 여성 건강권 증진

진단 및 과제 수립 방향

- ☐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 요구
- ☐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폭력 등 새로운 형태의 여성 대상 폭력이 심각
- ☐ 여성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이 취약함

- 
- **젠더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정책**
 - **피해자 중심의 지원 강화**
 - **폭력 취약 계층 지원**
 - **여성의 건강권 보장**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


정책과제	세부과제
5.1. 여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5.1.1. 제도적 기반 마련
	5.1.2. 폭력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5.1.3. 수요자 맞춤형 여성폭력 예방교육
	5.1.4. 인천형 여성안심마을 조성
5.2. 새로운 여성폭력 이슈에 대한 대응력 강화	5.2.1.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
	5.2.2.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
	5.2.3.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
5.3. 여성폭력피해 지원 서비스 강화	5.3.1. 피해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5.3.2. 지원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지원기관 역량 강화

5.4. 폭력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5.4.1. 청소년대상 폭력가해 예방교육 및 성매매 근절 활동 추진
	5.4.2. 가정방문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의 폭력 대응 능력 강화
	5.4.3. 여성장애인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
	5.4.4. 이주여성의 여성폭력 관련 정보 공유 강화
5.5. 여성건강권 증진 기반 강화	5.5.1. 제도적 기반 마련
	5.5.2. 보건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5.5.3. 정서적 지지기반 강화
5.6. 계층 간 건강형평성 향상	5.6.1. 청소년 건강 증진
	5.6.2. 모성보호의 다각화
	5.6.3. 성인여성 건강 증진
	5.6.4.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6영역 : 성주류화 정책 추진 기반 강화

진단 및 과제 수립 방향

- ☐ 실태조사에 응한 인천시민 10명 중 약 6명은 인천시가 불평등하다고 인식
- ☐ 성평등 및 성주류화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정비 필요

- 
- **성주류화 정책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 **민관 협력체계 구축**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

정책과제	세부과제
6.1. 성주류화 정책 추진환경 정비	6.1.1. 성주류화 정책 결정기구의 내실화
	6.1.2. 성주류화를 위한 추진체계의 강화
	6.1.3. 성주류화를 위한 실행 계획 수립
	6.1.4. 여성친화도시 조성 확산
6.2. 성주류화 조치의 체계화 및 운영 내실화	6.2.1. 성별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6.2.2.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내실화
	6.2.3. 성인지 통계 구축 확대
	6.2.4. 성인지 교육 체계 정비
6.3. 성주류화 정책 민관협력체계 구축	6.3.1. 젠더거버넌스 기반 조성
	6.3.2. 지역 시민사회의 참여 활성화



V. 영역별 정책과제



1. 성평등 의식 및 문화의 확산

1.1.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 1.1.1. 양성평등주간 행사의 다양화
- 1.1.2. 인천여성영화제 개최 지원
- 1.1.3. 성차별적 언어 및 표현 개선
- 1.1.4. 학교에서의 성평등 교육 강화

1.2. 지역대중매체, 디지털 공간 에서의 성차별 개선

- 1.2.1. 지역신문, 방송, 소셜 미디어,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 1.2.2. 정보화 교육과정에서의 성평등 교육 강화

1.3. 지역여성문화의 활성화

- 1.3.1. 지역여성사 발굴 및 확산
- 1.3.2. 지역여성문화 공간 조성
- 1.3.3. 지역여성문화 예술인 지원

1영역 현황 및 수요

- 인천시민의 상당 수는 ‘인천시가 성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성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
 - 『인천시 양성평등 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여성 30.0%, 남성 36.5%만이 평등하다고 생각했고, 여성의 60.7%, 남성의 43.4%는 여성이 불평등하다고 생각함
- 청소년의 성평등 교육을 통해 성역할 고정관념을 시정, 성평등한 의식을 고양시킬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부(2017)의 『제1차 양성평등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진로 선택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남. 여학생은 ‘타인을 돌보거나 돕는 일’, ‘문학·예술 분야의 일을 선호’하는 반면, 남학생은 ‘공구나 기계를 다루는 일’, ‘분석적 사고를 통해 원리를 이해, 활용하는 일’을 선호함

<표 V-1>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유형

(단위 : %)

항목	전체	여성	남성
도구 또는 공구나 기계를 다루는 일	18.1	4.6	30.5
분석적 사고를 통해 복잡한 원리나 방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일	20.0	15.8	23.9
미술·문학·음악작품 등을 창작하거나 자신을 표현하는 일	20.9	30.4	12.1
다른 사람들의 복지증진, 교육, 치료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일	17.6	31.9	4.5
개인이나 조직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을 지도하거나 설득하는 일	10.8	7.1	14.2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 2016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분석 연구

- 인천시의 청소년들은 ‘요리, 예술, 분석적인 일에 대해 성별 구분이 없다’고 생각한 반면, ‘공구, 엔지니어’는 남성의 일, ‘사회복지, 상담’은 여성의 일로 인식하고 있음

- 청소년 38.4%(여성 24.8%, 남성 52%)가 ‘공구, 엔지니어의 일’을 남성의 일이라고 생각했고, 23%(여성 16.4%, 남성 29.6%)가 ‘복지 관련 사회복지사, 상담 등’은 여성의 일이라고 생각함. 이는 남성청소년이 여성청소년보다 직업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갖고 있음을 보여 줌

<표 V-2> 직업에 대한 성별이미지(청소년)

(단위 : %)

	구 분	사례수 (명)	남성에게 어울린다	여성에게 어울린다	남녀 간 차이가 없다
공구, 엔지니어	전체	(500)	38.4	0.8	60.8
	남학생	(250)	52.0	1.6	46.4
	여학생	(250)	24.8	0.0	75.2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	전체	(500)	0.6	23.0	76.4
	남학생	(250)	1.2	29.6	69.2
	여학생	(250)	0.0	16.4	83.6

출처 : 인천여성가족재단(2018), 인천시 양성평등 실태조사

- 교사들은 수업 및 학생 지도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에 근거해서 성차별적인 태도를 보여 줌. 이에 성평등 교육을 통해 교사들의 성평등 의식을 고양, 성평등한 학교 환경을 조성해야 함
- 교사들이 “남자가...”, “여자가 ...” 등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관한 표현을 한다고 청소년의 35.6%(여성 42%, 남성 29.2%)가 응답함

<표 V-3> 교사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관한 표현

(단위 : %)

구 분	사례수 (명)	전혀 하지 않는다	거의 하지 않는다	자주하는 편이다	매우 자주한다	부정	긍정
전체	(500)	15.8	48.6	30.0	5.6	64.4	35.6
남학생	(250)	20.8	50.0	23.6	5.6	70.8	29.2
여학생	(250)	10.8	47.2	36.4	5.6	58.0	42.0

출처 : 인천여성가족재단(2018), 인천시 양성평등 실태조사

- 신문, 방송, 소셜 미디어, 광고 등에서 이상적인 미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여성의 외모에 대한 평가, 성적 대상화, 상품화 등으로 여성의 외모 관리를 추동하고 있음. 여성의 외모에 대한 평가를 지양, 성차별적 인식의 개선이 필요함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의 『제1차 양성평등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비하 표현, 인터넷 광고의 선정성, 외모를 희화화하는 표현은 전반적으로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표 V-4> 대중매체에서 성차별적 표현의 심각성

(단위 : %)

구 분	온라인상 여성비하 표현	인터넷 배너 광고의 선정성	여성의 외모를 희화화하는 TV오락프로	남성의 외모를 희화화하는 TV오락프로
전체	78.2	77.3	64.4	60.7
여성	86.1	85.6	72.7	68.2
남성	70.1	69.0	56.1	53.2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 2016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분석 연구

- － 『인천시 양성평등 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인천시의 커뮤니티, 소셜 미디어에서 여성혐오 발언은 성인 77.7%(여성 84.1%, 남성 71.2%), 청소년 87%(여성 94.8%, 남성 79.2%)가 심각하다고 느낌

<표 V-5> 커뮤니티, SNS에서 여성혐오 발언의 심각성

(단위 : %)

구 분	사례수 (명)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대체로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부정	긍정	4점 평균
성인	전체 (2,000)	1.9	20.5	46.3	31.4	22.4	77.7	3.1
	남성 (995)	2.7	26.1	46.1	25.0	28.8	71.2	2.9
	여성 (1,005)	1.0	14.9	46.4	37.7	15.9	84.1	3.2
청소년	전체 (500)	2.2	10.8	35.2	51.8	13.0	87.0	3.4
	남학생 (250)	4.0	16.8	42.8	36.4	20.8	79.2	3.1
	여학생 (250)	0.4	4.8	27.6	67.2	5.2	94.8	3.6

출처 : 인천여성가족재단(2018), 인천시 양성평등 실태조사

- 여성의 외모에 관한 비하 표현이 성인의 67.1%(여성 76.6%, 남성 57.4%), 청소년의 78%(여성 90.8%, 남성 65.2%)가 심각하다고 느낌. 남성보다는 여성이 외모비하 표현이 더욱 심각하다고 느낌

<표 V-6> 방송 및 일상에서의 여성외모 비하 표현의 심각성

(단위 : %)

구 분		사례수 (명)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대체로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부정	긍정	4점 평균
성인	전체	(2,000)	3.2	29.8	47.4	19.7	33.0	67.1	2.8
	남성	(995)	4.5	38.1	44.7	12.7	42.6	57.4	2.7
	여성	(1,005)	1.8	21.6	50.0	26.7	23.4	76.6	3.0
청소년	전체	(500)	3.2	18.8	38.8	39.2	22.0	78.0	3.1
	남학생	(250)	5.6	29.2	40.4	24.8	34.8	65.2	2.8
	여학생	(250)	0.8	8.4	37.2	53.6	9.2	90.8	3.4

출처 : 인천여성가족재단(2018), 인천시 양성평등 실태조사

- 대중매체, 디지털 공간에서 여성 외모에 관한 비하 표현, 여성혐오와 성차별에 관한 발언을 감시, 비판하기 위한 모니터링 실시, 해당 매체에 시정을 요구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 인천시민들은 시의 문화시설에 만족하지만, 여성문화시설이나 성평등 전시에 관한 요구가 있음. 따라서 지역 문화와 역사에 관한 성평등한 정책이 필요함
 - 성인 66.2%(여성 71.3%, 남성 61.0%), 청소년 72.4%(여성 82.8%, 남성 62%)가 성평등을 위한 전시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성인의 71.6%, 청소년의 75%가 성평등에 관한 사건에 대해 “기록보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 문화와 여성사에 대한 발굴, 전시, 교육에 관한 요구가 높음

<표 V-7> 인천시 여가 문화, 체육시설이 잘 갖춰졌다는 인식

(단위 : %)

구 분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긍정	4점 평균
성인	전체	(2,000)	3.0	26.7	53.0	17.4	29.7	70.4	2.8
	남성	(995)	3.4	27.3	50.6	18.7	30.8	69.2	2.8
	여성	(1,005)	2.6	26.0	55.3	16.1	28.6	71.4	2.8
청소년	전체	(500)	2.8	17.2	57.2	22.8	20.0	80.0	3.0
	남학생	(250)	2.8	18.4	49.6	29.2	21.2	78.8	3.1
	여학생	(250)	2.8	16.0	64.8	16.4	18.8	81.2	2.9

출처 : 인천여성가족재단(2018), 인천시 양성평등 실태조사

<표 V-8> 성평등 전시의 필요성

(단위 : %)

구 분		사례수 (명)	전혀 필요없다	별로 필요없다	대체로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부정	긍정	4점 평균
성인	전체	(2,000)	3.6	30.2	57.7	8.6	33.8	66.2	2.7
	남성	(995)	4.6	34.4	54.3	6.7	39.0	61.0	2.6
	여성	(1,005)	2.6	26.1	61.0	10.3	28.7	71.3	2.8
청소년	전체	(500)	4.0	23.6	58.6	13.8	27.6	72.4	2.8
	남학생	(250)	6.0	32.0	55.2	6.8	38.0	62.0	2.6
	여학생	(250)	2.0	15.2	62.0	20.8	17.2	82.8	3.0

출처 : 인천여성가족재단(2018), 인천시 양성평등 실태조사

<표 V-9> 특별한 사건을 기록한 기록 보관 장소에 대한 필요성

(단위 : %)

구 분		사례수 (명)	전혀 필요없다	별로 필요없다	대체로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부정	긍정	4점 평균
성인	전체	(2,000)	2.7	25.8	56.8	14.8	28.5	71.6	2.8
	남성	(995)	3.7	29.0	54.1	13.2	32.8	67.2	2.8
	여성	(1,005)	1.6	22.6	59.4	16.4	24.2	75.8	2.9
청소년	전체	(500)	3.6	21.4	51.4	23.6	25.0	75.0	3.0
	남학생	(250)	5.6	28.8	49.2	16.4	34.4	65.6	2.8
	여학생	(250)	1.6	14.0	53.6	30.8	15.6	84.4	3.1

출처 : 인천여성가족재단(2018), 인천시 양성평등 실태조사

1영역

정책과제

1.1.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1.1.1. 양성평등주간 행사의 다양화

□ 목적

- 다양한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운영함으로써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
- 시민과 함께 하는 행사를 기획, 성평등에 대한 관심 제고

□ 사업 내용

- 여성상, 평등부부상, 다양한 가족상 등 시상 확대
- 양성평등 기념행사 전시, 기획 지원
 - 인천시민, 여성단체 공모 등을 통한 전시, 공연 등 기념행사의 다양화
 - 양성평등 기념행사의 홍보 강화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인천시 군구청, 주민자치센터, 유관기관, 시민단체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여성상, 평등부부상, 다양한 가족상 시상	시행	지속	지속	지속	지속
② 다양한 양성평등 기념행사(전시, 공연) 기획 및 운영	시행	지속	지속	지속	지속

□ 추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제38조(양성평등주간)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20조(양성평등주간), 제46조(인천광역시 여성상)

1.1.2. 인천여성영화제 개최 지원

□ 목적

- 영화를 통한 성차별, 여성인권에 대한 감수성 고양
- 일상생활에서 성평등의 가치를 확산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여성영화인의 창작 지원과 네트워킹 지원

□ 사업 내용

- 인천여성영화제에 대한 재정적 지원
- 인천여성영화제의 운영 지원
 - － 성평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영화 선정, 상영
 - － 감독과의 대화
 - － 성평등에 관한 포럼 개최

※ '인천여성영화제'는 2005년 시작되어 매년 꾸준히 성장해서 2018년에는 제14회 인천여성영화제를 개최했음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문화예술과, 인천여성영화제 조직위원회, 시민단체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인천여성영화제의 재정적 지원	검토	지원	지속	지속	지속
② 인천여성영화제의 운영 지원	검토	지원	지속	지속	지속

□ 추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52조(여성단체에 대한 지원)

1.1.3. 성차별적 언어 및 표현 개선

□ 목적

- 사회 전반적으로 성차별적 언어 및 표현의 확산이 성평등한 관계와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 이를 시정함으로써 성평등한 문화 확산

□ 사업 내용

- 성차별적 언어와 표현에 관한 매뉴얼 작성, 배포
- 성평등한 언어와 표현에 관한 캠페인
- 인천시 홍보물, 발간물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공익 광고 제작 및 방송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인천여성가족재단)
- 협력부서 및 기관 :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과, 시민단체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성차별적 언어와 표현에 관한 매뉴얼 작성, 배포	검토	계획/실시	지속	지속	지속
② 성평등한 언어와 표현에 관한 캠페인	검토	계획/실시	지속	지속	지속
③ 인천시 홍보물, 발간물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검토	계획/실시	점검	점검	점검
④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공익 광고 제작 및 방송	검토	계획/실시	실시	실시	실시

□ 추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9조(성차별의 금지),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1.1.4. 학교에서의 성평등 교육 강화

□ 목적

- 교사의 성평등 교육을 통해 교과 수업과 학생 지도에서 성차별적 언어와 태도 개선, 성인지 감수성 고양
- 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시정, 성평등한 의식 고양
- 학부모의 성평등 교육을 통한 성역할 고정관념 시정, 성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교사 간, 학생 간의 성평등한 관계 지향

□ 사업 내용

-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성평등 교육 확대 및 운영의 내실화
 - 249개의 초등학교 5학년 27,9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
 - 134개의 중학교 2학년 25,7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
 - 고등학교 실시 계획 수립
 - 성평등 교육 전문 강사 초빙 지원
 - 성평등 교육 매뉴얼과 내용의 검토와 질적 개선
 - 교육 이후 설문조사 실시, 피드백 반영
- 교사의 성평등 교육 강화
 - 교사연수 프로그램에 성평등 교육 포함
 - 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초빙 지원
- 학부모의 성평등 교육 및 지원
 - 전문강사 초빙 특강 기획 : 학부모회와 연계
 - 학부모회의 성평등 소모임 구성 및 운영 지원
- 성평등 교육 내용의 연구와 강사 지원
 - 대상별 성평등 교육 교재 개발
 - 성평등 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역량강화 지원

[인천시 학교 현황]

	학교수(개교)	교원수(명)	학생수(명)
초등학교	249	9,983	156,470
중학교	134	5,582	78,826
고등학교	125	7,764	92,195

출처 : 인천시 교육청(2017), 교육통계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인천시 교육청
- 협력부서 및 기관 : 여성정책과, 관내 초·중·고등학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인천여성가족재단, 시민단체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초·중·고등 학생의 성평등 교육	검토	실시	지속	지속	지속
② 교사의 성평등 교육 강화	검토	실시	지속	지속	지속
③ 학부모의 성평등 교육 및 지원	검토	실시	지속	지속	지속
④ 성평등 교육 내용의 연구와 강사 지원	검토	실시	지속	지속	지속

□ 추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 교육), 제36조(양성평등 교육)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1조(성인지 교육), 제17조(성차별의 금지 및 성희롱 예방 교육)

1.2. 지역대중매체, 디지털 공간에서의 성차별 개선

1.2.1. 지역신문, 방송, 소셜 미디어,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 목적

- 지역신문, 방송, 소셜 미디어, 광고 등 대중매체와 디지털 공간에서 공유, 유통되는 성차별, 성폭력의 내용을 시정해서 성평등한 문화 조성
- 미디어의 성폭력, 성차별적 표현, 외모차별에 대한 비판과 제재를 통해 여성 인권 보호
- 시민의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성평등 감수성, 의식 강화

□ 사업 내용

- 시민 모니터링단의 교육과 활동 지원
 - － 지역신문, 방송, 지하철 및 버스 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 시민 모니터링단의 교육 및 활동 지원 : 교육 및 활동비 지원
 - － 디지털 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 전문가 모니터링단의 연구와 활동 지원
- 청소년 모니터링단의 교육과 활동 지원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인천여성가족재단)
- 협력부서 및 기관 : 문화예술과, 문화컨텐츠과, 인천시 언론기관(방송사 및 신문사), 시민단체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시민 모니터링단의 교육과 활동 지원	검토	구성, 활동	지속	지속	지속
② 전문가 모니터링단의 연구와 활동 지원	검토	구성, 활동	지속	지속	지속
③ 청소년 모니터링단의 교육과 활동 지원	검토	구성, 활동	지속	지속	지속

□ 추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9조(성차별 금지),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1.2.2. 정보화 교육과정에서의 성평등 교육 강화

□ 목적

- 정보화 기술의 이용 능력뿐 아니라 디지털 공간의 성폭력과 성차별에 대해 비판 의식을 지닌 시민 양성

□ 사업 내용

- 성평등의 관점에서의 디지털 시민성 교육 실시
 - － 정보화 교육 과정에서 성차별, 성폭력, 여성인권에 관한 ‘성평등과 디지털 시민성’교육 실시
- 시민대상의 사이버 교육프로그램 ‘성평등과 디지털 시민성’개설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정보화담당관실, 인재개발원
- 협력부서 및 기관 : 여성정책과, 인천사이버시민교육센터, 주민센터, 시민단체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정보화교육 과정에 '성평등과 디지털 시민성' 교육	검토	실시	지속	지속	지속
② 사이버 교육프로그램 '성평등과 디지털 시민성' 교육	검토	실시	지속	지속	지속

□ 추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제36조(양성평등 교육)

1.3. 지역여성문화의 활성화

1.3.1. 지역여성사 발굴 및 확산

□ 목적

- 여성의 경험을 반영해서 여성사를 발굴, 복원함으로써 지역여성의 정체성 구성에 기여
- 역사 속에서 지역 발전에 기여한 여성 인물을 발굴, 역할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여성의 위상 제고
- 성평등의 관점에서 지역여성사와 여성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교육을 통한 성평등 의식 고양

□ 사업 내용

- 지역여성사 및 여성인물 발굴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수행
 - 인천시 관련 기관, 단체와의 TFT 구성하여 공동연구 추진
- 지역여성사, 여성인물사에 관한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박물관에서 지역여성사, 여성인물사에 관한 전시
 - 도서관에 지역여성사, 여성인물사에 관한 도서 비치
 - 도서관, 박물관, 문화센터에서 지역여성사, 여성인물사강좌 운영 지원
 - 지역 여성사, 인천여성 인물사 강좌에서 전문가 초빙 지원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과정에서의 여성사 교육 실시
 - “여성사의 전반적인 이해”와 “인천여성사 및 여성인물사” 교육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 관광진흥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문화예술과, 인천시 군구청, 인천시 역사자료관, 인천 문화재단, 시민단체, 인천여성가족재단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지역여성사 및 여성인물 발굴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수행	검토	연구,조사	-	-	-
② 지역여성사, 여성인물사에 관한 전시 및 교육	-	-	실시	지속	지속
③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과정에서 여성사 교육	-	-	실시	지속	지속

□ 추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제50조(여성사박물관의 설립·운영)

1.3.2. 지역여성문화 공간 조성

□ 목적

- 시민들이 성평등의 가치를 일상에서 체험하고 접할 수 있는 전시 공간 마련
- 성평등 정책과 자료, 연구, 여성운동, 여성사에 관한 기록물 보존과 이용을 위한 아카이브 구축

□ 사업 내용

- (가칭)인천시 성평등 자료실 설립 및 운영의 타당성 연구 수행
- (가칭)인천시 성평등 자료실 설립 및 운영
 - TFT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실질적인 운영(안) 모색
 - (가칭)인천시 성평등 자료실 공간 확정 및 공간 조성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인천여성가족재단), 관광진흥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문화예술과, 문화컨텐츠과, 예산담당관, 유관기관, 시민 단체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가칭) 성평등 자료실 설립 및 운영의 타당성 연구	기초연구	심화연구	-	-	-
② (가칭) 성평등 자료실 설립, 운영	-	-	설립계획 수립	추진	추진

□ 추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제50조(여성사박물관의 설립·운영)

1.3.3. 지역여성문화 예술인 지원

□ 목적

- 인천의 여성문화예술인들의 생계 지원

- 인천의 여성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
- 인천의 여성문화예술인들의 교류 및 네트워킹 지원
- 인천의 여성문화예술인들의 성차별, 성폭력 피해에 관한 상담, 지원

□ 사업 내용

- 인천의 여성문화예술인 실태 및 수요조사 실시
 -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계
- 인천의 여성문화예술인 지원방안 마련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문화예술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여성정책과,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예술인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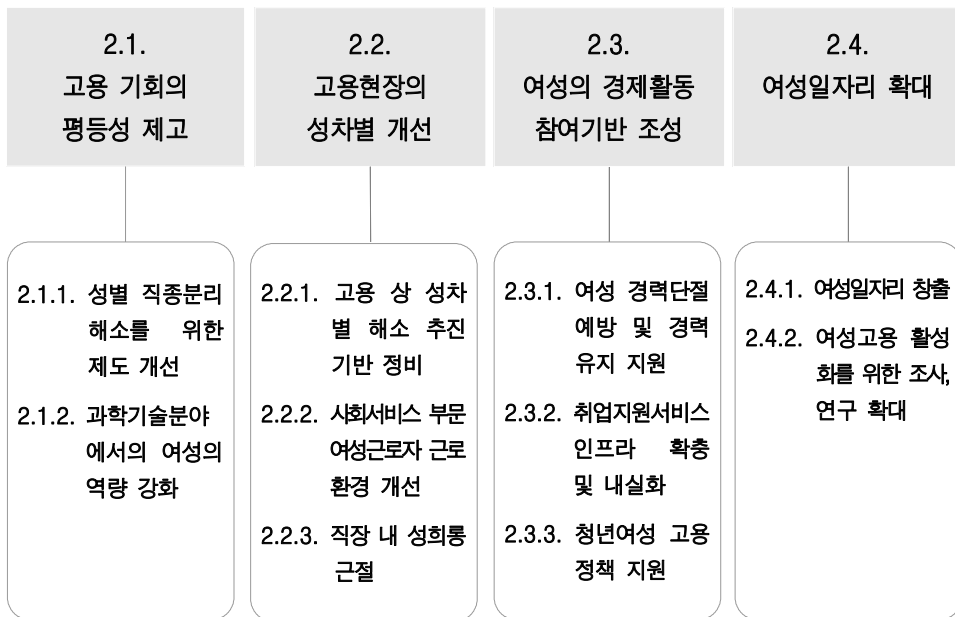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지역여성문화예술인 실태 및 수요조사 실시	검토	실시	-	-	-
② 지역여성문화예술인 지원방안 마련	-	-	방안 마련	지속	지속

□ 추진 근거

- 「예술인 복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4조의2(실태조사)
-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사업), 제6조(실태조사)

2.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 보장



2영역

현황 및 수요

- 2016년 인천시 ‘경제활동 분야’ 성평등 지수는 69.4임. 이는 16개 지역 중 12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경제활동의 양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참가율 성비’와 고용의 질을 보여주는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성별 임금격차’ 모두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 ‘경제활동 분야’는 전국 평균보다 1.7p 낮고 전국 1위 지역보다는 8.1p 낮음
 - ‘경제활동 분야’의 세부지표별 수준을 보면,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71.5으로 전국 평균보다 2.6p 낮고 해당 지표 1위 점수보다는 14.6p 낮았음. ‘성별 임금격차’의 경우 61.0으로 전국 평균보다 1.1p 높지만 해당 지표 1위 점수보다는 2.3p 낮았음.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지표는 75.7으로 전국 평균보다 3.5p 낮고 해당 지표 1위 점수보다는 11.2p 낮아 경제활동 관련 지표 내 세부 지표 중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을 보였음

<표 V-10> 인천시 경제활동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6년 기준)

(단위 : 원전평등수준=100.0)

구분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평균 점수
인천시	71.5	61.0	75.7	69.4
분야 1위 지역점수	86.1	62.0	84.2	77.5
지표별 1위 점수	86.1	63.3	86.9	78.8
전국 평균	74.1	59.9	79.2	71.1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7), 2017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 인천지역 경제활동 분야의 2014년~2016년 간 세부지표별 추이를 보면,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2014년 73.6에서 2016년 71.5으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임. 다음으로 ‘성별 임금격차’는 2014년 60.0에서 2016년 61.0으로

1p 상승하였으나 3개년도 추이를 보면 등락양상이 나타남.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지표의 경우 2014년 71.9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75.7으로 3개 지표 가운데 가장 급격한 증가 추이를 보여 개선 정도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음. 3개 지표 평균 점수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4년 68.5에서 2016년 69.4으로 0.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표 V-11> 인천시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 지표 (2014~2016)

(단위 : 완전평등수준=100.0)

연도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평균 점수
2014	73.6	60.0	71.9	68.5
2015	73.3	59.4	72.9	68.5
2016	71.5	61.0	75.7	69.4

출처 : 여성가족부(2017), 2017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 2016년 인천시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 지수는 95.4로 전국 평균(94.6)보다 0.8p 높고, 해당 분야 1위 지역(서울 96.1) 점수보다는 0.6p 낮았으나 이 분야의 경우 지역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 인천시의 교육·직업훈련 분야 세부지표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평균 교육연수 성비’는 2014년 90.3에서 2016년 90.8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는 3개년 100.0으로 완전 성평등한 수준임. 결과적으로 3개년 동안 인천지역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4년 평균 95.2에서 2016년 95.4으로 매년 0.1p씩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V-12> 인천시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세부지표별 변화추이 (2014-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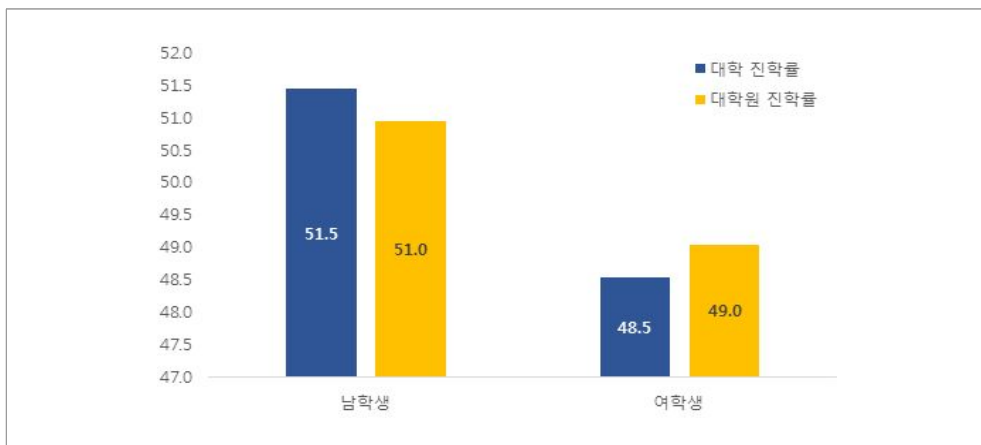
(단위 : 완전평등수준=100.0)

연도	평균 교육년수 격차(성비)	고등교육기관진학률 성비	평균 점수
2014	90.3	100.0	95.2
2015	90.6	100.0	95.3
2016	90.8	100.0	95.4

출처 : 여성가족부(2017), 2017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 인천시 남학생, 여학생의 2017년도 대학 및 대학원 진학률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51.5%, 여학생 48.5%로 남학생이 다소 높았으며, 대학원 진학률의 경우 남학생이 51.0%, 여학생 49.0%로 남학생이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V-1> 인천시 대학/대학원 진학률(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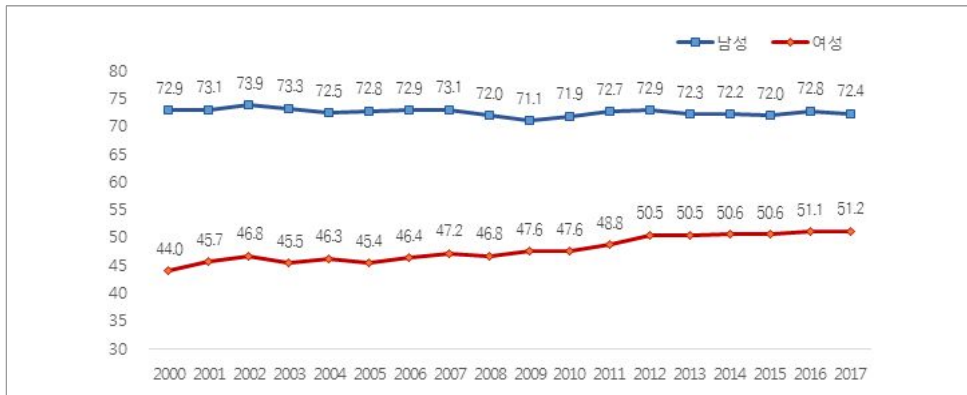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2017), 교육통계연보

- 아울러 고용률의 경우 성별 간 격차가 존재하여 성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2017년 기준 남성 고용률이 72.4%인 반면, 여성의 고용률은 51.2%로 남성 고용률에 비해 약 21.2%p 낮은 수준임. 다만, 2012년 이후로 인천지역

여성의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남성의 고용률 격차가 다소 좁혀지는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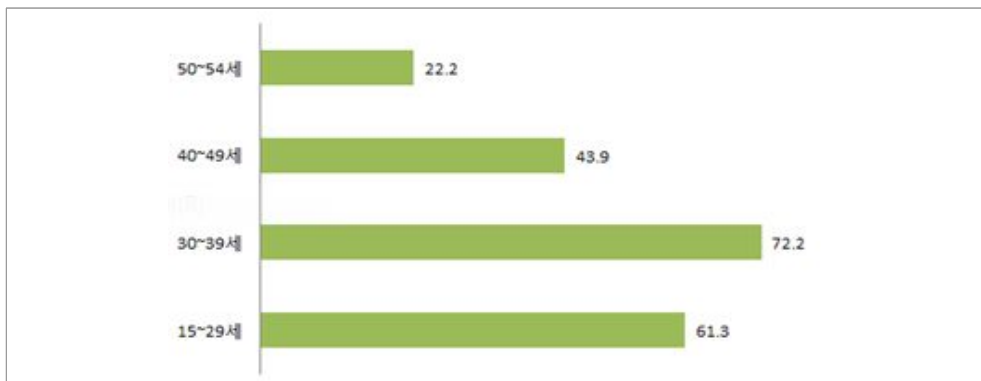
<그림 V-2> 인천시 성별 고용률 추이(2000~2017)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 비취업 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전국)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30~39세가 72.2%로 가장 높았으며, 15~29세가 61.3%로 그 뒤를 이었음. 인천시의 경우 비취업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은 45.4%인데, 이는 전국 평균 51.2%보다는 다소 낮은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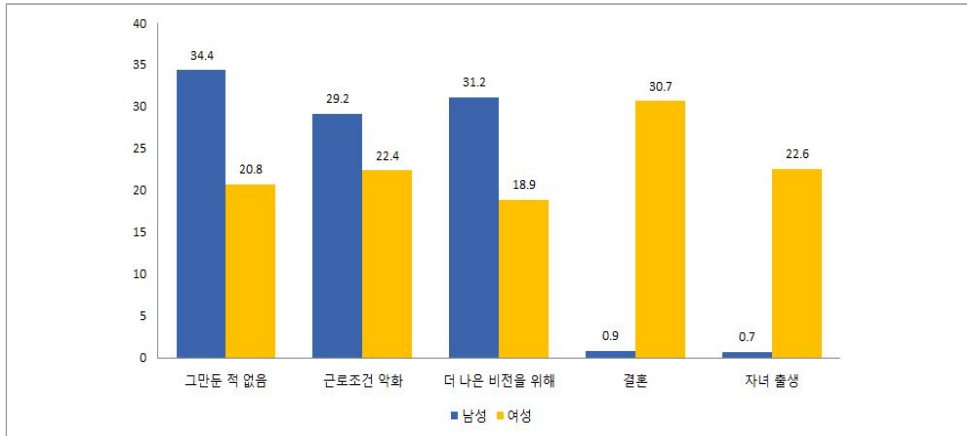
<그림 V-3> 연령별 경력단절여성 비율(전국)



출처 : 통계청(2017), 지역별 고용조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양성평등 실태조사』(2018)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결혼, 자녀출생, 자녀돌봄¹⁾등이 여전히 여성이 일을 그만두게 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림 V-4> 다니던 일을 그만 둔 경험과 이유(인천시 성인 / 상위 5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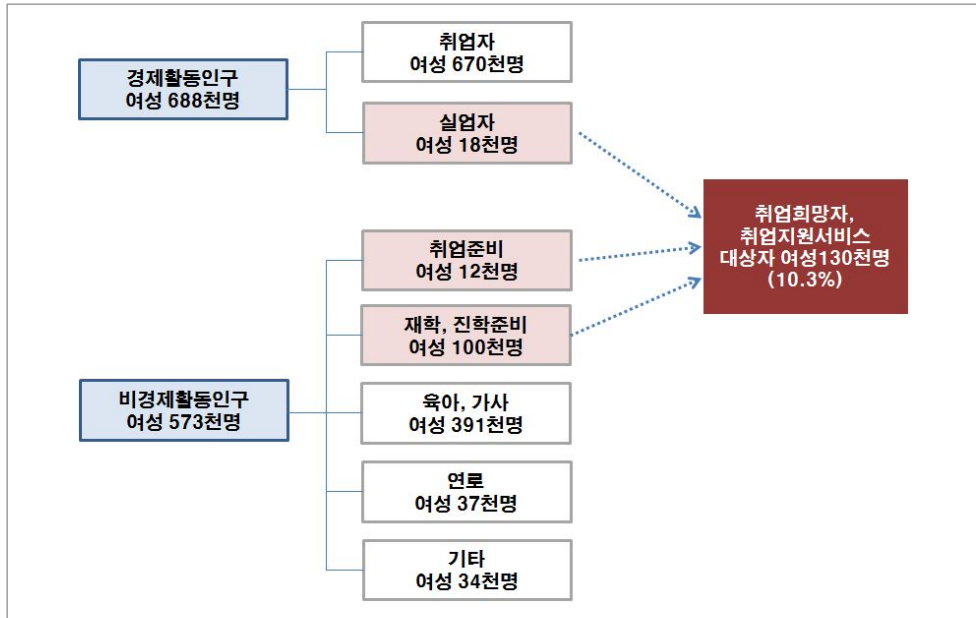


출처: 인천여성가족재단(2018), 인천시 양성평등 실태조사

- 인천시 15세 이상 59세 미만 여성의 경제활동 상태를 보면, 경제활동 인구(688천명) 중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573천명) 중 취업희망자 및 잠재취업가능자는 해당 연령 전체 인구 중 10.3% 가량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됨. 즉, 10.3%의 여성은 취업을 희망하거나 취업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여성으로 고용서비스 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남

1) 인천시 양성평등정책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니던 일을 그만 둔 이유'로 '미취학 아동 돌봄'을 꼽은 남성의 비율은 0.3%인데 비해 여성은 13.9%를 차지했으며 '초등학교 취학 교육'은 남성 0.3%, 여성 6.7%의 비율을 보였음

<그림 V-5> 인천지역 취업희망자 및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자 규모



출처 : 통계청(2017), 지역별고용조사. 2017 2/2 원자료 분석

주 1)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여성의 합(574천명)과 비경제활동인구 여성인 573천명이 상이한 것은 단위가 천명으로 천명이하 반올림에 따른 차이로 추정됨

2) '재학, 진학준비'는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진학준비 포함임

3) '취업준비'는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 취업 준비 포함임

- 현재 인천시에는 경력단절여성 대상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8개소가 5개구에서 운영되고 있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력단절여성의 규모와 실업자 및 취업희망자 등 향후 취업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인구 규모는 더 큰 상황인 것으로 추정됨.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30대 여성의 경우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해 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의 확충과 연계, 질적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즉, 경력단절여성의 핵심 연령대인 30대 여성에게 필요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여성취업지원 인프라 확충과 이들 기관의 사업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한편,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가 큰 상황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6시간 미만 근무할 경우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산업 부문은 제조업으로 남성임금이 여성임금보다 117만원 더 높았으며, 36시간 이상의 경우 제조업에서의 성별 임금격차는 더욱 커져서 134만원 가량 차이를 보임. 직업별로는 36시간 미만의 경우 관리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172만원 가량 임금수준이 더 높았고, 36시간 이상의 경우 전문가 직종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132만원 가량 임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V-13> 인천시 산업별, 직업별 월평균 임금 및 성별임금격차

(단위 : 만원)

	월 평균 임금			
	36시간 미만		36시간 이상	
	성별 임금격차 (남성임금-여성임금)	성별 임금비율 (100*여성/남성)	성별 임금격차 (남성임금-여성임금)	성별 임금비율 (100*여성/남성)
산업별				
제조업	117	41.5	134	55.3
건설업	30	77.8	73	70.6
도소매, 음식숙박업	9	89.0	90	63.0
전기, 운수, 통신, 금융	48	74.7	84	73.0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29	71.0	99	66.4
직업별				
관리자	172	65.3	117	77.7
전문가, 관련종사자	81	59.5	132	63.3
사무종사자	41	73.2	122	63.6

출처 : 통계청(2016), 지역별 고용조사. 2015년 하반기 원자료 분석

- 이러한 가운데 인천지역에서 여성의 고용률이 높은 분야는 사회서비스 분야로 나타남. 서비스 분야는 각종 강사과정과 조리사, 보육 및 요양보호사 관련 과정 등이 집중 분포되어 있으며, 이들 일자리의 경우 대부분 4대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임. 다만, 30대 육아를 병행하고 있는 고학력 여성의 경우 학력, 전공과 연계한 강사과정을 선호하나 이들 강사과정은 고용안정성이 취약하다는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음
-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여성의 경력유지 지원과 함께 성별 직종 분리 현상을 완화하는 것이 급선무임. 이를 위해서는 여성 진출 직종에 대한 고용의 질 제고 노력이 요구됨. 특히, 지속가능한 여성 직종 발굴, 보급을 통해 여성의 경력 유지 및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향후 미래 전망과 일자리 질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2영역

정책과제

2.1. 고용기회의 평등성 제고

2.1.1. 성별 직종분리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 목적

- 고용정책 및 일자리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확대·실시함으로써 성인지적 관점 제고 및 양성평등한 고용정책 입안 및 집행
- 고용정책에 대한 성인지 예산제도를 적극 시행하여 성별요구를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 집행함으로써 고용정책의 성평등 실현

□ 사업 내용

- 고용정책 및 일자리사업 담당자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
 - － 고용정책 및 일자리사업 담당자 대상 성인지 교육 과정 개발
 - － 고용정책 및 일자리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 교육 확대 실시
 - － 성인지 교육 사업 성과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 보완시책 마련
- 고용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확대
 - － 인천광역시 고용영향평가제도 운영 시, 성별영향평가 실시
 - － 고용정책수립 시 성인지 예산서 첨부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인천시의회,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성별영향평가센터, 재정기획관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고용정책 및 일자리 담당자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	검토	교육과정 개발	실시	실시	실시
② 고용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확대	-	검토	실시	실시	실시

□ 추진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고용영향평가)
-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성인지 예산), 제18조(성인지 교육)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0조(성인지 예산), 제11조(성인지 교육)

2.1.2.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여성의 역량 강화

□ 목적

- 남성 위주 훈련 직종에 여성들이 참여함으로써 성별 분업에 기반한 일자리 진입 장벽 완화
- 과거에 시행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 제고
- 인천지역 고등학생들에게 공학계열의 각 전공에 대한 다각적인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체적·주체적인 진로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
- 인천지역 우수 이공계 인력 양성을 통한 전문직 여성인재 양성

□ 사업 내용

- 남성 집중 직종 교육훈련과정에 여성의 참여율 제고
 - 남성 집중 직종 교육에 여성비율 확대 : 남성 집중 직종 교육훈련과정에 여성비율 확대 추진
 - 기계, 장비, 금속 등 남성 위주 훈련 직종에 여성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비율과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숙련된 여성인력 양성
- 과학기술분야 여성 진출 활성화를 위한 이공계 여학생 역량 강화 지원
 - 인천지역 고등학교 대상, 공학전공 체험 프로그램 실시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일자리경제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인천관내 고등학교·대학교,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남성 집중 직종 교육훈련과정의 여성 참여율 제고	검토	실시	실시	실시	실시
② 이공계 여학생 역량강화 지원	검토	프로그램 개발	실시	실시	실시

□ 추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경제활동 참여), 제27조(여성인적자원의 개발)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5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제53조(경제활동 지원 등)

2.2. 고용 현장의 성차별 개선

2.2.1. 고용 상 성차별 해소 추진기반 정비

□ 목적

-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제’를 실시함으로써 인천시 소재 기업의 근로자가 일과 삶을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고용주 및 근로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직장 내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성차별적 요인을 개선함으로써 성평등한 직장문화 확산
-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모색하여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실현

□ 사업 내용

-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및 확대
 -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모델 개발 연구 실시
 -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추진 계획 수립
 - 시범 실시 및 확대
- 성인지적 인사고과 모델 개발
 -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성인지적 인사고과모델을 개발하여 기업에 배포, 기업 스스로 양성평등적 인사고과를 실시하고 있는지 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구성, 배포
- 직장 내 성차별 실태 모니터링 및 개선
 - 직장 내 성차별 개선 안내서 발간 및 보급 : 분리직군 운영이 성차별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사업주들의 유의사항에 관한 안내서 발간, 보급
 - 인천시 직장 내 성차별 현황 점검

- 인천시 직장 내 성차별 현황 및 개선방안 도출
- 임금공시제를 통한 성별임금격차 완화기반 조성
 - 인천시 직장 내 성별 임금격차 현황 점검
 - 인천시 직장 대상으로 임금공시제 설명 및 도입 안내
 - 개별 노동자가 임금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임금공시제에 대한 교육 실시
 - 사업장의 경우 피고용인의 임금 체계를 정기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자가점검리스트 개발 및 보급
- 공공부문 비정규직 여성의 정규직 단계적 전환
 - 비정규직 여성의 실태 및 현황 조사
 - 인천시 및 공공기관 비정규직 여성의 정규직 전환 추진
 - 정규직 전환 추진 일정 등 로드맵 마련
 -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기간제 근로자)와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 (간접고용 근로자) 등 전환 결정기구 운영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일자리경제과, 여성정책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검토	모델개발	시범실시	확대	확대
② 성인직적 인사사고 모델 개발	검토	개발	배포	배포	배포
③ 직장 내 성차별 실태 모니터링	검토	조사	모니터링	개선	개선
④ 직장 내 임금격차 현황 점검 및 임금공시제 도입	검토	임금격차 현황조사	계획수립	시범실시	확대
⑤ 공공부문 비정규직 여성의 정규직 단계적 전환	계획수립	전환	지속	지속	지속

□ 추진 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가족친화인증기업 등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제10조(교육·배치등 승진)
-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경제활동 참여), 제29조(성차별의 금지)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53조(경제활동 지원 등)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 인천시 민선 7기 공약

2.2.2. 사회서비스 부문 여성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 목적

- 돌봄노동자 현황 및 근로환경을 파악함으로써 적절한 인력수급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지원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 감정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고충상담, 교육 등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감정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권익 증진

□ 사업 내용

- 돌봄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지원
 - － 돌봄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사업
 - － 돌봄노동자 여성노동자 규모 추정 및 근로실태 파악
 - － 돌봄노동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 훈련 및 보수교육 실시, 연계

- 돌봄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특화 사업 추진(기업환경개선사업과 연계)
- 감정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지원
 - 여성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 실시
 - 여성 감정노동자 규모 추정 및 근로실태 파악
 - 여성 감정노동자 치유 지원 강화
 - 여성 감정노동자 노무 및 심리상담 서비스 사업 추진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일자리경제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여성정책과,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돌봄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지원	고용보험 가입 촉진사업	검토	계획수립	시범사업	확대 실시	확대 실시
	규모 추정 및 근로실태 파악	검토	계획수립	실시	-	-
	직업교육훈련 및 보수교육 실시,연계	검토	계획수립	실시	실시	실시
	근로환경 개선 특화 사업 추진	검토	계획수립	시범사업	확대 실시	확대 실시
② 감정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지원	권리보장 교육 실시	검토	계획수립	실시	실시	실시
	규모 추정 및 근로실태 파악	검토	계획수립	실시	-	-
	치유를 위한 노무, 심리상담서비스	검토	계획수립	시범사업	확대 실시	확대 실시

□ 추진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2.2.3. 직장 내 성희롱 근절

□ 목적

- 성희롱 예방교육은 개인의 인격이 존중되고 차별 없이 상호 신뢰하며 어우러져 일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실질적인 직장 문화를 변화할 수 있도록 교육의 내실화 추구
- 인천지역 근로자 성희롱 실태를 파악하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예방사업에 대한 검토 및 점검
- 사업장에서 수시로 성희롱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자가진단 도구를 개발, 보급하여 성희롱 예방 도모

□ 사업 내용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실화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확대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매뉴얼 개발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전문가 양성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모니터링
- 직장 내 성희롱 실태 점검
 - －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
 - － 직장 내 성희롱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개발, 보급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인천여성가족재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시민단체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	예방 교육 확대	계획수립	실시	실시	실시	실시
	교육 매뉴얼 개발	검토	계획수립	제작	보급	보급
	전문가 양성	검토	계획수립	실시	실시	실시
	모니터링	검토	실시	실시	실시	실시
② 직장 내 성희롱 실태점검	실태조사	계획수립	실태조사	-	-	-
	자기점검 체크리스트개발,보급	검토	계획수립	제작	보급	보급

□ 추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제32조(성희롱 실태조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7조(성차별의 금지 및 성희롱 예방교육)

2.3.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반 조성

2.3.1.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유지 지원

□ 목적

- 경력단절여성에게 교육, 취업연계, 사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경제활동 참여 확대
- 여성경력단절 예방 사업의 확대를 통해 여성의 지속적인 근로 및 일·생활 균형 지원

□ 사업 내용

-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및 사후관리
 - － 인천지역의 구인, 구직 수요조사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설
 - － 취업자 및 채용기업 사후관리 추진
- 경력단절여성 예방 지원사업 내실화
 - － 여성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한 상담지원 확대
 - － 사업주 및 근로자 일·생활 균형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설명회 개최
- 경력단절위기 여성근로자 상담서비스 확대
 - － 여성근로자 고충 상담지원 확대
 - － 직장 내 고충(노무), 커리어 코칭, 심리 상담, 부모 코칭 실시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일자리경제과,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사후관리	검토	교육실시 사후관리	지속	지속	지속
② 여성근로자 상담지원 확대 (고용유지 및 고충상담)	검토	계획수립	실시	실시	실시
③ 사업주 및 근로자 대상 인식개선 교육 및 설명회	검토	검토	실시	실시	점검

□ 추진 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9조(유망직종 선정, 지원), 제10조(직업교육훈련), 제11조(인턴취업지원), 제12조(경력단절 예방)
-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경제활동 참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 지원)
-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등)

2.3.2. 취업지원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내실화

□ 목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의 맞춤형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주요 사업별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인천시 내 유사사업 수행기관과의 차별성 도모 및 기능 강화
- 기업에서 원하는 직무분야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기업맞춤형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양성된 훈련인력을 기업에 연계함으로써 교육 효과성 제고

□ 사업 내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충
 - 중구 영종지역의 수요증대에 따른 추가 설치(8개소 → 9개소)

[인천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현황]

광역(1개소)	인천광역새일센터
기초체(7개소)	부평새일센터, 남구(미추홀구)새일센터, 남동구새일센터, 남동산단새일센터, 인천새일센터, 서구 새일센터, 계양새일센터
출처 :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2018),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지침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수요 조사
 - 새일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 새일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및 프로그램의 단계적 운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능 강화 및 전문 역량제고 지원
 - 인천지역 새일센터 공동 사업 추진 : 직업훈련과정에 대한 공동 홍보, 유관 협회 네트워크 보강 등
 - 새일센터별 인턴연계사업장 등,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공동 추진 : 여성 고용우수기업 연계
- 인력 및 기술 수요파악에 기초한 직업교육훈련 지원
 - 인천지역 기업대상 여성인력수요 파악
 - 기업맞춤형 여성인력 직업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기업맞춤형 여성인력 취업 연계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충	검토	확충계획 수립	1개소 추가	-	-
② 새일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검토	프로그램 개발	실시	실시	점검
③ 새일센터 공동사업 발굴 / 수행	검토	공동사업 발굴	시범사업	운영	운영
④ 인력 및 기술수요파악에 기초한 직업교육훈련 지원	검토	수요파악	프로그램 개발	보급	-

□ 추진 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 사업 등)
- 인천시 민선 7기 공약

2.3.3. 청년여성 고용정책 지원

□ 목적

-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에게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사회진출 지원
- 인천시 청년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특화 고용정책 마련

□ 사업 내용

- 청년여성 경력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지역산업과 연계된 취업유망 직종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 인문, 이과, 예술계열 미취업 대졸 여성 대상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

사업 추진

- 청년 여성 특화 경력개발 프로그램 신설, 운영
- 대학 내 일자리센터와 연계한 청년여성 대상 경력개발 프로그램 지원
- 인천지역 강소기업 청년여성 채용지원 사업 추진
 - 여성고용우수기업, 강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대상 여성인력 수요 파악
 - 청년 여성 전문인력 채용 업체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 연계사업 수행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창업지원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여성정책과,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청년여성 경력개발 프로그램 신설, 운영	검토	사업계획	시범운영	확대	운영
② 청년여성 채용 지원 사업 추진	검토	수요파악	사업계획	시범운영	확대

□ 추진 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인천광역시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청년고용 확대 및 지원)

2.4. 여성일자리 확대

2.4.1. 여성일자리 창출

□ 목적

- 공공형 일자리 창출을 통한 여성의 고용 확대
- 여성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력 제고 및 양질의 일자리 확충

□ 사업 내용

- 공공형 여성일자리 창출
 - 여성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형 일자리 현황 진단 및 수요 파악
 -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설치 가능성 진단 및 검토
 -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교사 양성 과정 추진
- 여성 창업 지원 강화
 - 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요 파악
 - 여성 창업 확대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수요 맞춤형 지역공동체형 창업 활성화 지원
 - 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공동체 수요 파악
 - 여성 창업 확대를 위한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일자리경제과, 여성정책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사회적경제과,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공공형 여성일자리 창출	검토	진단 및 수요조사	실시	실시	점검
② 여성 창업 지원	검토	사업계획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운영	운영 지속
③ 지역공동체형 창업 활성화 지원	검토	수요파악	지원	지원	지원

□ 추진 근거

-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4.2.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 확대

□ 목적

- 여성 특화 일자리 정책과 고용정책 추진 시 여성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미취업 여성의 경우 취업 지원이나 재교육, 취업알선 중심의 여성 일자리 정책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기취업 여성에 대한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여성 일자리 정책의 양적 범위 확대 및 질적 제고

□ 사업 내용

- 인천지역 여성인력 수요조사 및 취업여성 근무환경 실태조사 수행
 - 정기적 실태 및 수요조사 실시 : 취업, 미취업 여성의 종단적인 현황 및 정책적 수요 자료 구축
- 생애주기별 여성근로자 지원사업 개발 및 시행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일자리경제과,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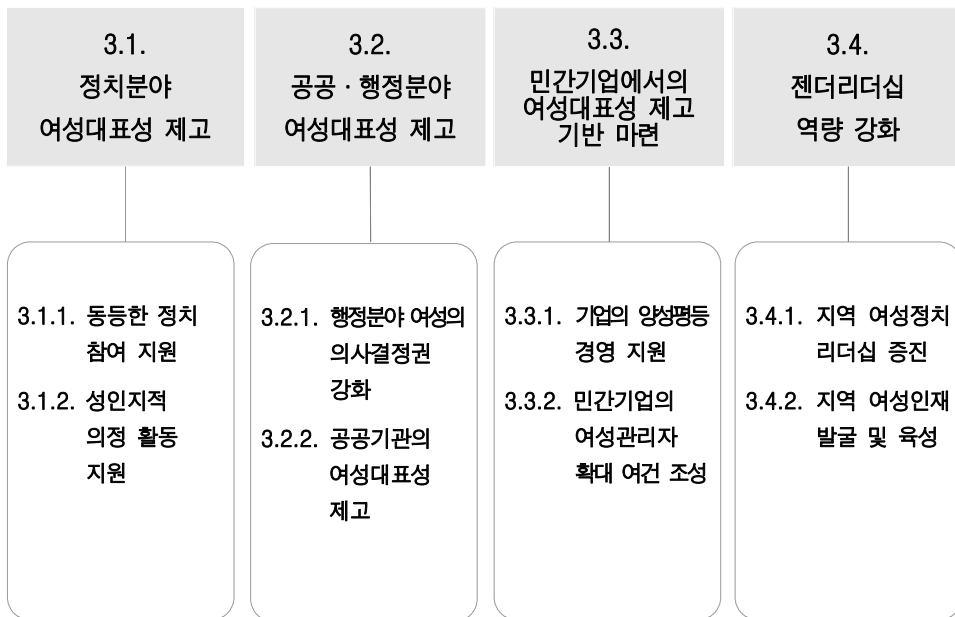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여성취업자 및 미취업자 대상 정책요구 및 실태조사	검토	미취업자 조사	취업자 조사	미취업자 조사	취업자 조사
② 생애주기별 취업여성 지원 사업 개발 및 시행	검토	개발	시행	시행	시행

□ 추진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실태조사 실시)
-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실태조사)

3.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기반 강화



3영역

현황 및 수요

-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난 몇십 년간 지속되었음에 불구하고 여성의 정치 권력화는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양성평등기본법」(2015)에 명시된 남녀 동수 정치 참여²⁾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정치의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임
 - 2004년 「정당법」이 개정되어 비례대표 후보 중 여성 50%이상 추천을 의무화 한 후 여성의원의 비율을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지역구 의원의 진입장벽은 여전히 높음
- 특히, 지난 10년간 지방선거에서 인천의 여성대표성은 오히려 불안정하거나 하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7회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8명의 여성 구시군의 장이 당선된 가운데 인천시에서는 한명의 여성당선인을 배출하지 못했음
 - 전국 시도위원의 여성당선율은 5회 14.8%에서 7회 19.4%으로 증가하였으나, 인천의 경우 같은 기간 15.2%에서 8.1%로 감소하였으며, 여성 시의회 3명은 비례대표로 선출되어 여전히 여성의 시의회 진입 규모와 경로가 제한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 V-14>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대표성(5~7회/인천, 전국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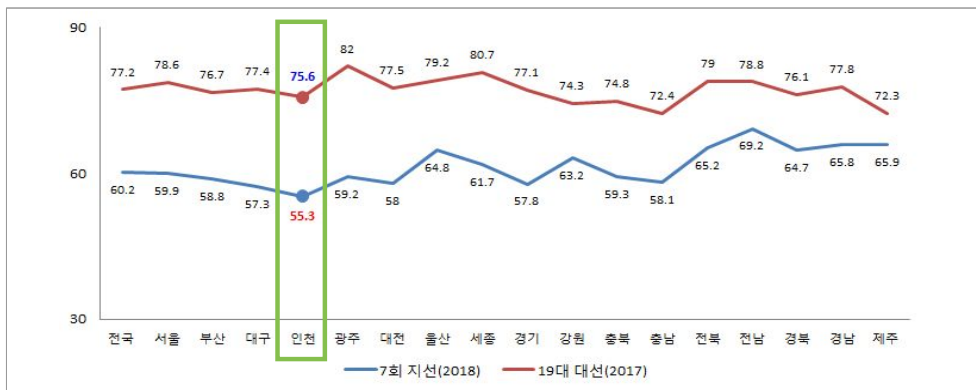
	5회 지방선거(2010)		6회 지방선거(2014)		7회 지방선거(2018)	
	인천	전국	인천	전국	인천	전국
시도지사	0.0	0.0	0.0	0.0	0.0	0.0
구시군의 장	10.0	2.6	10.0	4.0	0.0	3.5
시도의원	15.2	14.8	8.6	14.3	8.1	19.4
구시군의원	26.8	21.7	25.9	25.3	39.8	30.8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2010), pp326-332,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2014), pp367-373,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재구성.

2)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의하였으나,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시도별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는 지역 성평등 지수³⁾에서도 여실히 드러남. ‘의사결정’분야의 세부지표인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의 2016년 점수는 21.8으로 17개 시도 중 10위에 머물고 있음
- 따라서 정치분야에서의 젠더 불평등을 해소하고 여성의 과소 대표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권뿐만 아니라 시민, 단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노력이 요구됨
-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또 다른 여성의 대표성은 선거권 행사임. 그러나 인천시는 매년 주요 선거에서 전국 평균보다 저조한 투표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대선이나 총선보다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음
 - 최근 5년간 모든 주요선거에서 인천시의 투표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음
 - 지방선거에서는 그러한 특징이 더욱 두드러지는데, 6회 지방선거(2014년)의 인천시 투표율은 53.7%로 대구(52.3%), 경기(53.3%)에 전국에서 3번째로 낮았으며, 7회 지방선거(2018년)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4.9p 낮은 55.3%의 투표율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도시로 기록되었음

<그림 V-6> 최근 주요선거에서의 투표율 비교(7회 지선, 19대 대선)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시스템 <http://info.nec.go.kr> 재구성.

주 : 실제 투표율임

3) 시도별 성평등 지수를 측정하고 취약 영역의 성평등을 개선할 목적으로 산정함. 이는 지역의 성평등 수준과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 양성평등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가능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수단이기도 함(주재선, 2017, p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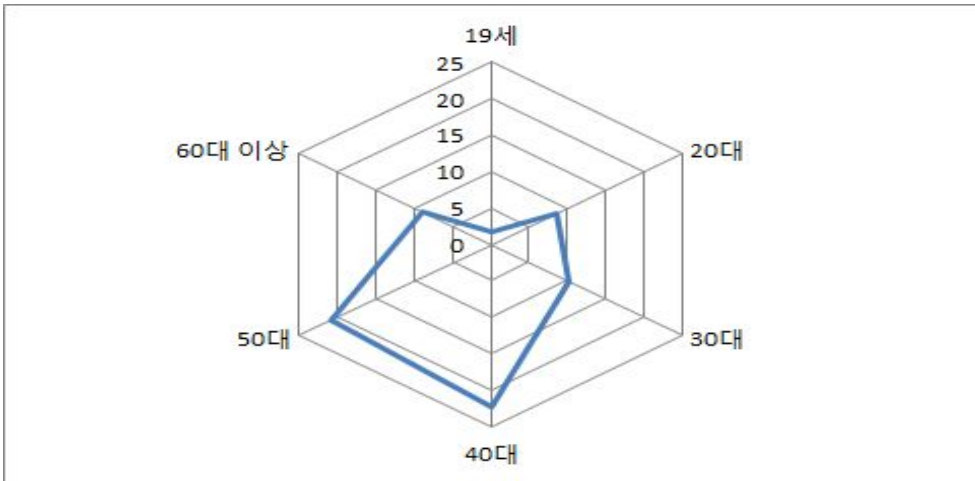
- 지난 5~6회 지방선거의 성별·연령별 투표율을 살펴보면, 19세, 20대 등 젊은 층으로 갈수록 투표율은 증가하고 30대를 기점으로 40~50대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음. 이러한 추이는 전국과 유사한 현상이나, 인천은 전국보다 감소세가 두드러짐. 성별·연령별 선거인의 분포를 보면, 특히 인천의 경우 40대와 50대의 선거인 분포율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 4050세대에 대한 투표율 제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V-15> 5~6회 지방선거의 성별/연령별 투표율 비교(전국/인천)

		제5회 지방선거(2010)		제6회 지방선거(2014)		증감율	
		인천	전국	인천	전국	인천	전국
19세	소계	45.6	47.4	52.5	52.2	15.1	10.1
	여성	41.8	43.1	55.8	52.6	33.5	22.0
	남성	49.0	51.2	49.6	51.9	1.2	1.4
20대	소계	40.8	41.5	46.9	48.3	15.0	16.4
	여성	40.3	39.8	48.3	48.7	19.9	22.4
	남성	40.2	42.2	46.0	48.2	14.4	14.2
30대	소계	43.0	46.0	44.0	47.5	2.3	3.3
	여성	46.6	49.5	47.5	50.5	1.9	2.0
	남성	40.0	43.1	40.4	44.6	1.0	3.5
40대	소계	50.6	55.0	48.2	53.3	-4.7	-3.1
	여성	51.2	55.9	49.2	54.4	-3.9	-2.7
	남성	50.1	54.2	47.2	52.3	-5.8	-3.5
50대	소계	59.8	64.1	59.5	63.2	-0.5	-1.4
	여성	59.2	63.4	58.8	62.5	-0.7	-1.4
	남성	60.4	64.9	60.1	63.7	-0.5	-1.8
60대 이상	소계	66.1	69.3	68.0	70.9	2.9	2.3
	여성	59.7	64.0	62.5	66.3	4.7	3.6
	남성	74.3	76.3	75.8	77.4	2.0	1.4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율 분석(2010), p46,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율분석 (2014), p91 재구성
 주 :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교분석을 위한 표본추출 투표율 분석임(전체 선거인의 10.4%)

<그림 V-7> 선거인의 연령별 분포(6회 지선, 인천시)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율 분석(2010), p2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율분석(2014), p117 재구성
주 :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교분석을 위한 표본추출 투표율 분석임(전체 선거인의 10.4%)

- 지방분권화가 확대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이에 의회에 진입하는 기술적인 대표성과 더불어 여성의원이 원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여성의원이 실질적으로 여성 의제를 다루고 여성의 지위 및 권익 향상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대리인이 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 또한 다수의 남성정치인이 선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주요한 의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성주류화 교육 및 제도적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2002년부터 정부가 추진해온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에 따라 95년 전국 평균 3.6%에 불과하던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2016년 12.6%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10%에 웃도는 수준에 불과함
- 인천시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기준 13.0%로 전국 평균보다는 높으나, 대구 및 울산과 함께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낮은 지역에 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V-16> 시도별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현황

		계	5급이상 공무원	6급이상 공무원	6급 공무원
인천	2012	31.8	11.3	22.2	27.4
	2013	32.4	12.0	24.3	29.9
	2014	33.6	12.5	26.8	33.1
	2015	33.9	12.4	28.3	35.0
	2016	34.9	13.0	30.2	37.3
전국(2016)		34.9	12.6	27.5	32.2
서울		37.9	20.8	28.6	31.1
부산		38.9	15.0	33.4	39.3
대구		32.4	12.8	25.1	29.7
광주		36.2	17.0	29.7	35.3
대전		34.1	15.0	28.2	33.6
울산		36.8	12.8	31.6	39.8

출처 : 행정안전부, 각 연도,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

주 1) 작성기준은 각 연도 12.31일 기준

2) 비율 : 전체공무원 대비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

- 중앙정부에서는 2018년을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계획 실행의 원년으로 삼고 연도별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국정과제 66)의 세부 목표로 ‘여성대표성 제고’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공표하였으며(2017.11.),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10.0%(17년 6.1%) 확대 및 공공기관, 교원, 군인, 경찰직에서의 여성고위직 목표치를 설정함
- 이와 더불어 제4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계획(2017~2021)을 발표하고 2021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여성공무원 비율을 16.4% 상승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인천시도 실질적인 행정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의 적극적인 실시로 여성공무원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

- 또한 각종위원회 위원의 성별 비율을 지속적으로 고려하여 위촉하고 참여율 제고 등의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여 정책결정과정에서 균형 있는 관점이 반영 되도록 노력해야 함
- 사회전반에서 나타나는 견고한 유리천장은 민간기업에서 더욱 그 심각성을 드러냄. 지역 성평등 지수의 의사결정 분야 중 ‘관리자 비율 성비’는 취업 남녀의 관리직 성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천시는 전국 평균이나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최근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27.8에서 2015년 32.0로 급상승하더니 2016년에는 다시 19.8로 하락하여 2014년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표 V-17> 지역 성평등 지수 중 관리자 비율 성비 변화 추이(인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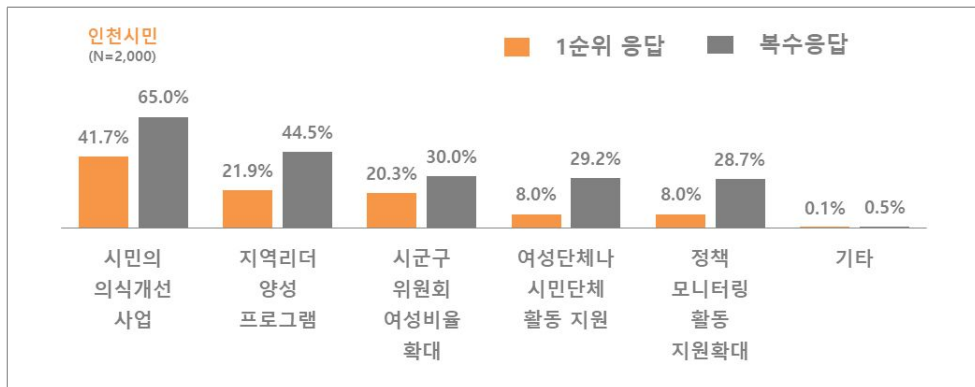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18.2	6	17.6	7	20.9	4	27.8	4	32.0	2	19.8	4

출처 : 주재선(2017), 2017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인천시 양성평등 실태조사』(2018)를 통해 인천시민은 지방자치, 사회활동 및 정치활동에 참여한 경험보다 향후 참여 의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지방의회, 시군구에서 주최하는 위원회, 공청회, 모니터링 활동 등 지방자치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여성은 6.1%, 남성은 7.0%로 남성이 다소 높았으나, 향후 참여 의향에 대한 질의에서는 남성 17.2%, 여성 19.4%로 여성이 더 높았음
- 시민단체활동,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여성은 29.4%, 남성은 27.6%였으나, 향후 참여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은 여성 44.4%, 남성 39.6%로 여성이 남성보다 4.8p높게 나타남

- 2,000명의 인천시민 중 정치 기부, 집회 및 시위, 선거운동, 정당활동 등 정치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여성은 8.9%, 남성 8.4%로 여성이 다소 높았으나, 향후 참여 의향에서는 여성 15.1%, 남성 15.2%로 유사하게 나타남
- 향후 5년간 누구나 평등한 정치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인천시에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알아본 결과, 1순위 응답으로 시민의 의식개선 사업(교육, 캠페인 등)이 41.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역리더 양성 프로그램 제공(21.9%), 시군구 위원회의 여성비율 확대(20.3%) 등의 순으로 높게 집계됨
- 복수응답 역시, 시민의 의식개선 사업(교육, 캠페인 등)을 65.0%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지역리더 양성 프로그램 제공(44.5%), 시군구 위원회의 여성비율 확대(30.0%) 등의 순으로 유사하게 응답됨

<그림 V-8> 향후 5년간 정치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



출처 : 인천여성가족재단(2018), 인천시 양성평등정책 실태조사

- 지방분권화 시대의 도래로 지역주민과의 거버넌스 구축과 소통이 지방자치의 핵심 키워드로 대두됨. 따라서 지역사회에 참여 욕구가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리더십 교육 및 지역인재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야 함

3영역

정책과제

3.1. 정치분야 여성대표성 제고

3.1.1. 동등한 정치 참여 지원

□ 목적

- 인천시민의 정치참여 의식 증진 및 참여의 기회 확대
- 정치에 대한 여성의 관심 유도 및 투표율 제고
- 실질적인 여성정치인으로서의 성장 지원 및 남녀 동수 참여 실현

□ 사업 내용

- 여성 정치 리더 발굴
 - 지역여성리더 교육 수료자, 여성기관 및 단체의 추천자 등 인력 풀을 구성
 - 여성정치인과의 멘토-멘티 연계
 - 주요 선거에서 여성가족의제 공동 발굴 및 각 후보에 제안
 - 한국여성의정 인천아카데미, 각 정당 인천시당 등 기존 인프라와의 연계 도모
- 유권자 특성에 맞는 정치의식 향상 프로그램 개발·운영
 - 인천시 성별, 연령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만족도 등 피드백을 통한 프로그램 수정 보완
 - 유권자들의 관심 유도 및 프로그램 참여율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인천여성가족재단)
- 협력부서 및 기관 : 유관기관, 각 정당 인천시당, 시민단체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여성정치 리더 발굴	검토	운영 계획	운영	운영	운영
② 유권자 맞춤형 정치의식 향상 프로그램 개발·운영	검토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속	지속

□ 추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3조(정치참여)

3.1.2. 성인지적 의정 활동 지원

□ 목적

- 인천시의원의 성인지적 관점 제고 및 의정활동의 성주류화 실현
- 여성의원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의 장 마련

□ 사업 내용

- 인천시의원 및 군구의원 성주류화 교육 실시
 - 성인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결산 교육 실시
 - 의원 성주류화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연구)
 - 의원 성주류화 교육 실시 계획 수립 및 실시
- 인천시의회 성평등 연구 모임 구성 및 지원
 - 인천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
 - 관심제고 및 성과 확산을 위한 포럼 등 개최
- 성인지적 관점의 의정모니터링 활동 지원
 - 의정활동 모니터링단 모집 및 구성
 - 성인지 관점의 의정모니터링을 위한 교육 실시

- 모니터링단 활동보고회 개최
- 인천시 및 군구 여성의원 연석회의 개최
 - 인천시 및 군구 여성의원 간 네트워크 교류, 공동의제 발굴 및 대응
 - 연 2회 연석회의 개최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의회사무처
- 협력부서 및 기관 : 인천시의회 및 군구의회, 여성정책과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의원 성주류화 교육	검토	프로그램 개발실시	확대	확대	확대
② 성평등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	검토	구성	지속	지속	지속
③ 성인지적 관점의 의정모니터링 활동 지원	검토	계획 수립	지속	지속	지속
④ 여성의원 연석회의	구성	개최	개최	개최	개최

□ 추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3조(정치참여)

3.2. 공공·행정분야 여성대표성 제고

3.2.1. 행정분야 여성의 의사결정권 강화

□ 목적

- 여성 관리직 공무원 임용 목표율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 차별 없는 성평등한 공직 문화 조성
- 각종위원회의 여성 참여 제고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여성대표성 증진

□ 사업 내용

-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 설정 및 달성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2018~2022)’을 참고하여 목표치 설정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2018~2022)]

	2017년 실적	2018년 목표	2022년 목표
5급이상 지방여성공무원	13.3%	13.9%	20.0%

출처 : 여성가족부(2017.11.),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 2017년 12월 기준, 인천시는 14.3% 달성(군구포함)
- 매년 자체평가 실시 및 차년도 계획과의 유연한 연동 계획 운영
 - 행정안전부는 전년도 목표달성 실적에 따라 매년 초 남은 연도에 대한 목표를 재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주요부서의 여성 임용 기회 확대
 - 기획, 예산, 인사, 감사 부서 및 실국 주무과 등 주요부서의 직급별 보직 현황 조사
 - 중장기 핵심부서 여성공무원 배치 계획 마련
- 각종위원회 여성 참여의 내실화
 - 위촉직 여성위원회 40%대 유지
 - 매년 각종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현황 비율 조사

- 인사관련 위원회에 여성 위촉직 비율 확대
- 여성위원회 실질적인 위원회 참석을 제고 및 의견제시 등 내실화 방안 마련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인사과, 여성정책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인천시 군구 인사과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 설정 및 달성	15.6% 달성	16.9% 달성	18.2% 달성	19.5% 달성	20.8% 달성
② 주요부서 여성 임용 기회 확대	현황조사 배치계획	지속	지속	지속	지속
③ 각종위원회 여성 참여의 내실화	40%유지	40%유지	40%유지	40%유지	40%유지

□ 추진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임용의 기준)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제22조(공직 참여)
- 「인천광역시 각종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 제4조(여성위원 위촉 비율), 제5조(전문여성인력 확보)
- 인천시 민선 7기 공약

3.2.2. 공공기관의 여성대표성 제고

□ 목적

- 공공기관에서 여성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공공기관의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율 제고

□ 사업 내용

-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확대
 -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확대 의제의 공론화
 -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임원 및 중간관리직의 현황 조사
 - 공공기관 인사제도의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확대 계획 수립
 - 관련 조례 개정
- 공공기관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및 개선계획 수립
 - 공공기관의 조례·규정 검토 및 개정
 - 법적 기준 반영 내용 등 검토
 - 공공기관 위원회 여성비율 조사
 - 여성비율 현황 파악 및 위촉직 위원 비율의 적정성 점검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재정관리담당관실
- 협력부서 및 기관 : 여성정책과, 인천시 공공기관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확대	검토	현황조사 계획수립	지속	지속	지속
② 공공기관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검토	제규정 검토	점검	점검	점검

□ 추진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임용의 기준)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3.3. 민간기업에서의 여성대표성 제고 기반 마련

3.3.1. 기업의 양성평등 경영 지원

□ 목적

- 기업의 성평등 경영 지원 및 차세대 여성 CEO 인재 육성

□ 사업 내용

- 민간기업 관리자의 양성평등 교육
 -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제’(공약사업)와 연동
 - 인증요건에 인사담당자 등 관리직의 양성평등 교육 이수 지표 포함
 - 민간기업 관리자의 양성평등 교육 매뉴얼 작성
- 여성 CEO 리더십 교육과정 운영
 - 리더십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특강 운영
 - 인천지역 전문직 여성 및 여성 CEO 리더십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산업진흥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일자리경제과, 여성정책과,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민간기업 관리자의 양성평등 교육	검토	매뉴얼 개발	교육실시	확대	확대
② 여성CEO리더십 교육과정 운영	검토	수요조사	실시	실시	실시

□ 추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3조(경제활동 참여)

3.3.2. 민간기업의 여성관리자 확대 여건 조성

□ 목적

- 민간기업의 여성인재를 확대할 수 있는 기업 환경 마련
- 민간기업의 여성관리자 비율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모색

□ 사업 내용

- 민간기업 여성관리자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수행
- 인센티브 등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제’(공약사업)지표에 포함
- 민간기업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의식 확산 캠페인 실시
 - 인천시 및 군구 취업박람회와 연동하여 실효성 제고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산업진흥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일자리경제과, 여성가족과,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민간기업 여성관리자 확대방안 연구 수행	검토	연구수행	-	-	-
② 인센티브 등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검토 및 협의	제도 마련	실시	확대	확대
③ 민간기업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의식 확산 캠페인 실시	검토	실시	실시	실시	실시

□ 추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3조(경제활동 참여)

3.4. 젠더리더십 역량 강화

3.4.1. 지역 여성정치 리더십 증진

□ 목적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 여성 정치인 양성을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

□ 사업 내용

- 여성정치 아카데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단계별 프로그램 개발/운영
- 여성정치인-아카데미 교육생간 네트워크 구축 : 포럼의 정례화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인천여성가족재단)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여성정치 아카데미 프로그램	검토	계획 수립	운영	운영	운영
② 여성정치인-아카데미 교육생간 네트워크 구축	검토	계획 수립	운영	운영	운영

□ 추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7조(여성인적자원의 개발), 제28조(여성인재의 관리·육성)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5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제16조(여성인재의 관리·육성)

3.4.2. 지역 여성인재 발굴 및 육성

□ 목적

- 지역의 여성인재를 발굴·육성함으로써 전문 인력으로의 성장 지원
- 발굴된 여성인재의 위원 추천 등 적극적인 활용 강화
- 마을 단위의 여성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발전 도모

□ 사업 내용

- 인천시 여성인재 발굴 및 운영의 내실화
 - 인천시 여성인재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가입 활성화
 - 분야별 DB관리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여성인재 정보 활용 방안 마련 : 위원회 등 여성인재 추천
- 인천시 젠더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 인천시 젠더전문가 양성과정 확대 운영
 - 설문조사 등 피드백을 통한 프로그램 보완
 -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연계, 정책모니터링 리더 연계
- 풀뿌리 마을 여성리더 양성과정 운영
 - 동네자치 활성화(혁신읍면동)'(공약사업)과 연계
 - 지역 간 협의체 구성·운영 및 거버넌스 구축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인천여성가족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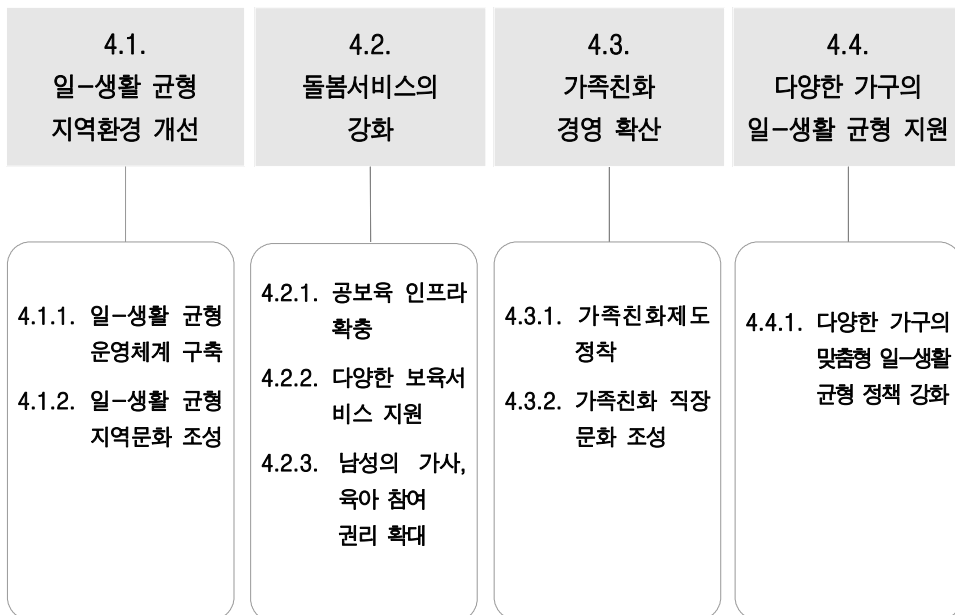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여성인재 발굴 및 운영	홍보,운영	지속	지속	지속	지속
② 젠더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운영	지속	지속	지속	지속
③ 풀뿌리 마을리더 양성과정 운영	검토	계획	지속	지속	지속

□ 추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8조(여성인재의 관리 육성)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립 및 관리)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5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제16조(여성인재의 관리·육성)

4. 일-생활 균형 사회 기반 조성



4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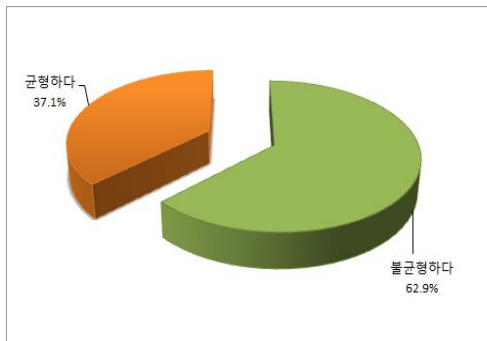
현황 및 수요

- 「남녀고용평등법」이 2007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남녀 모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로 확대되고, 같은 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되어 가족친화인증제가 도입되는 등 일-생활 균형과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여성가족부)의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영역의 추진 방향은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근로자의 모·부성권 보장’,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임
- 현재 가족친화인증제의 공공기관 의무화와 가족친화 지원센터의 운영 등 가족친화제도가 마련되었음. 인천시도 이러한 정책적 흐름과 같이하여 가족친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2017년 기준 전국의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총 2,802개이며, 이 중 인천시는 102개임. ‘인천시 여성가족국 2018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2018년 가족친화인증기업을 137개로 상향할 계획임. 한편, 인천시는 워킹맘-워킹대디가 행복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목표로 2017년 전국 최초로 ‘가족친화인증 준비기업군’을 지정·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조례 개정(2016.5), 금융혜택 MOU체결(2016.5) 등 참여 확산 지원기반을 마련하였음
- 가족친화제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 부족으로 인한 형식적인 운영과 중소기업의 낮은 인지도 등으로 확산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함. 이에 일-생활 균형 사회문화 안정적 정착과 확산 대책이 필요함
- 일-생활 균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양성평등 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인천시민 10명 중 6명은 ‘일·생활이 불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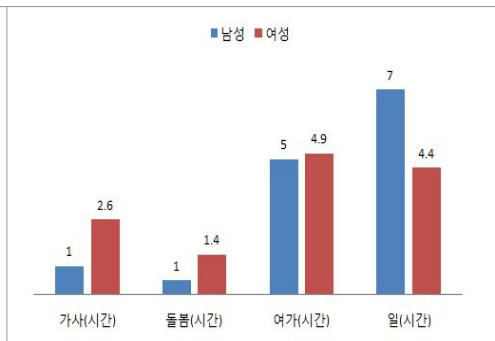
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한편 남성(69.8%)의 경우 여성(53.2%)보다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는데, 이는 문재인정부의 정책 기조와 동일하게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정책은 이제 여성의 이슈를 넘어서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시간인 가사, 돌봄, 여가, 일의 사용시간을 보면 성별에 따라 현격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가사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두 배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돌봄은 남성의 3배 정도 돌봄과 관련된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V-9> 일·생활 균형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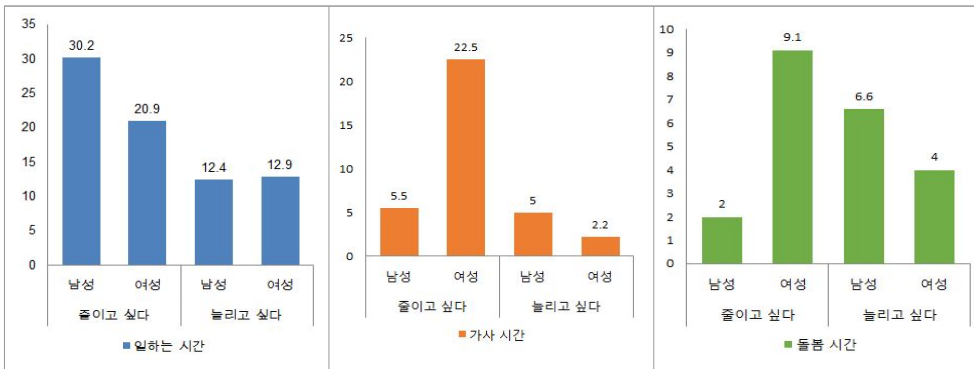
<그림 V-10> 일·생활 균형 관련 시간 사용



출처 : 인천여성가족재단(2018), 인천시 양성평등 실태조사

- 『인천시 양성평등 실태조사』(2018)에서 ‘생활 시간 조정 여부’에 대해 물은 결과 가사, 돌봄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줄이고 싶다’는 응답이 더 많았으며, 일의 경우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줄이고 싶다’는 응답이 더 많았음. 결론적으로 수치적 증거를 통해 여성은 가사와 돌봄을 줄이고 일을 하고 싶고, 남성은 일을 줄이고 돌봄에 참여를 좀 더 하고 싶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남녀 모두 여가시간을 늘리고 싶은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V-11> 일-생활 균형 관련 시간 조정에 대한 욕구(%)



출처 : 인천여성가족재단(2018), 인천시 양성평등 실태조사

주 : 적정하다, 무응답 제외

- 또한 가사와 자녀돌봄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분담의 만족도나 공평함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보였음. 가사일의 분담 정도에 대해 남성은 ‘만족한다’는 응답이 4점 만점에 3점이었고, 여성은 2.6점으로 나타남. 가사분담의 공평정도에 대해서는 남성은 2.9점, 여성은 2.4점으로 여성의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자녀양육 분담 정도와 관련된 만족도의 경우 남성은 ‘만족한다’는 응답이 4점 만점에 2.9점이었고, 여성은 2.5점으로 나타나 여성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공평정도는 남성은 2.8점, 여성은 2.4점으로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음

<표 V-18> 가족생활 분담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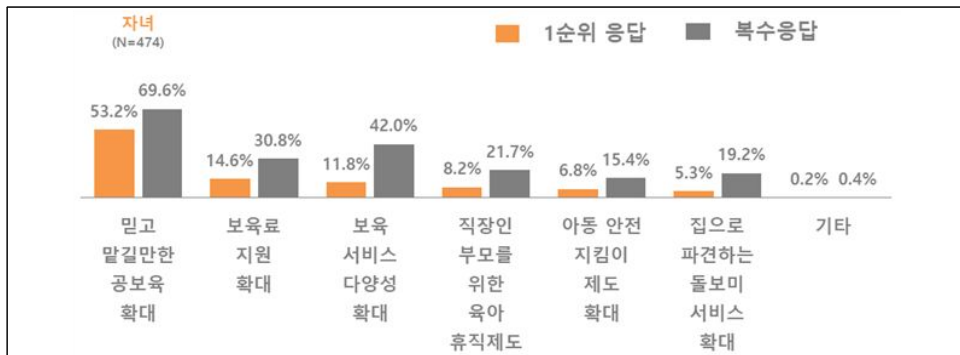
	구분	만족정도			공평정도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한다	4점	공평하지 않다	공평하다	4점
가사일 분담 정도	전체	25.3	74.7	2.8	34.7	65.3	2.7
	남성	10.2	89.8	3	17.6	82.4	2.9
	여성	39.6	60.4	2.6	50.9	49.1	2.4
자녀양육 분담정도	전체	33.3	66.7	2.7	43.2	56.8	2.6
	남성	17.8	82.2	2.9	26.3	73.7	2.8
	여성	45.5	54.5	2.5	56.7	43.3	2.4

출처 : 인천여성가족재단(2018), 인천시 양성평등 실태조사

- 한편 인천시의 2016년 가족분야 성평등 지수는 75.6으로 전국 평균(78.0)보다 2.4p 낮고 가족분야 1위 지역 점수보다(80.5)보다는 4.9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7개시도 중 12위로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
 -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가사노동시간 성비지표’는 24.4로 전국평균보다 1.6p 낮고 해당지표 1위인 시도보다 점수보다 7.7점 낮았음. ‘가족관계 만족도’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4.6p 높고 해당 지표 1위 점수보다 1.6p 낮아 크게 낮은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음. ‘육아휴직자 성비지표’는 78.5로 전국평균보다 14.2p 낮은 것으로 나타나 남성의 육아휴직에 활성화에 대한 정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여성의 일-생활 균형과 관련하여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기업현장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모성보호제도를 근로자들이 사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여성 근로자들은 임신, 출산, 돌봄의 사유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하게 됨
- 『인천광역시 제4차 중장기 보육계획』에 따르면 인천시의 보육공급 체계는 민간 의존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즉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 두 유형을 합치면 거의 90%에 육박하는 반면 인천시 국공립어린이집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 공보육 기반 조성을 위한 공공성의 강화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 4차 중장기 보육계획 연구의 심층면접에서 학부모들은 개인보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에 대해 더 신뢰가 간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취업모들은 국공립이나 직장 어린이집처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주변에 많지 않다는 애로점을 이야기 하며 확충을 요구하였음. 따라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모의 보육 수요에 대응하고 민간 의존적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중장기적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수요는 『인천시 양성평등 실태조사』(2018)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자녀돌봄 지원을 위한 향후 5년간 인천시에 가장 필요한 정책’물은 결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확대에 대한 요구’가 월등히 높았음. 한편 초저출산의 이유로 전체 어린이집의 수요는 줄어들고 있어 공보육기관을 무조건 늘리기 보다는 민간보육기관을 지원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함

<그림 V-12> 자녀돌봄 지원을 위한 향후 5년간 인천시에 가장 필요한 정책



출처 : 인천여성가족재단(2018), 인천시 양성평등 실태조사

- 『인천시 양성평등정책 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대표적인 일-가정 양립제도인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유연근무제도’를 인천 시민들이 근로하는 곳에서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60% 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법적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률이 높아 관련제도 이용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V-19> 직장에서 일-가정 양립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

구분	출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유연근무제
전체	58.2	62.3	66.5	66.4
남성	58.5	63.4	67	66.4
여성	57.8	60.7	65.8	66.4

출처 : 인천여성가족재단(2018), 인천시 양성평등 실태조사

- 일-가정 양립제도를 운영함에도 이용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묻은 결과 ‘눈치 등 직장분위기가 호의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주위에 별로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많았음. 이는 직장 내에 일-가정 양립제도를 이용하는 분위기 조성할 필요성이 다시 한 번 제기되는 결과임

<표 V-20> 일-가정 양립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

구분	승진 등 불이익이 예상되어서	눈치 등 직장 분위기가 호의적이지 않아서	주위에 별로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잘 몰라서	기타
전체	20.3	59.9	49.2	14.7	2.5
남성	13.8	56	50.9	18.1	0.9
여성	29.6	65.4	46.9	9.9	4.9

출처 : 인천여성가족재단(2018), 인천시 양성평등 실태조사

- 한편,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서는 충분한 휴가와, 야근 없는 직장문화가 조성되어야 함. 인천시민들의 경우 직장에서 ‘정시퇴근을 할 때 눈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53.9%, ‘연차를 쓰기 쉽다’는 53.5%로 여전히 50%가 조금 넘는 수준이며, ‘장시간 근로를 하지 않는다’는 50%에 못 미치는 44.8%에 머물렀음

<표 V-21> 휴가와 퇴근

	정시퇴근해도 눈치가 보이지 않음			장시간 근로를 하지 않음			연차를 쓰기 쉬움		
	부정	긍정	4점	부정	긍정	4점	부정	긍정	4점
전체	46.1	53.9	2.5	55.2	44.8	2.4	46.5	53.5	2.5
남성	45	55	2.5	55.4	44.6	2.4	44.7	55.3	2.5
여성	47.7	52.3	2.5	55	45	2.4	49.1	50.9	2.4

출처 : 인천여성가족재단(2018), 인천시 양성평등 실태조사

4영역

정책과제

4.1. 일-생활 균형 지역환경 개선

4.1.1. 일-생활 균형 운영체계 구축

□ 목적

- 기업, 가정,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일-생활 균형 정책 추진 기반 구축
- 일-생활 균형 정책 확산을 통한 기업과 사회, 지역사회가 동반 성장
- 지역 기업과 근로자 대상 일-생활 균형의 인식 확산
- 마을 단위에서의 일과 삶의 균형 활동 실현 및 이웃·세대 간 소통 증진

□ 사업 내용

- (가칭)인천시 일-생활 균형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 설립 타당성을 위한 기초 연구 실시
 - 지역의 기관 및 기업 간 네트워크 구성 : 정보 교류 및 협력체계 마련
 -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 개선 활동 및 캠페인 실시
 - 일-생활 균형의 민간 확산을 위한 기업 대상 컨설팅 및 교육 실시
 - : 인천시내 중소기업 우선 실시
- 일-생활 균형 추진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
 - 전문가, 시민,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 : 자녀 양육 노동자, 미혼 노동자, 가족 돌봄노동자 등 다양한 근로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구성
 - 정례화 된 포럼 개최 : 사례 및 성과 공유
- 가족친화마을 조성
 - 시범마을 지정 및 확산 : 운영 후 사례 연구

- 인천시 및 군·구 공무원의 일-생활 균형 환경 모니터링
 - 남녀 공무원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육아기 단축근로제 사용, 유연 근무제 등 일-생활 균형 환경 모니터링 및 평가
 - 군·구 단위에서 지역의 일-생활 균형 공모 사업 및 공모 결과 워크숍 개최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 총무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산업진흥과, 지역공동체과, 자치행정과, 인천여성가족재단, 건강가정지원센터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가칭)일-생활 균형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기초연구	논의	설립	운영	운영
② 일-생활 균형 추진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	준비	구축	운영	운영	운영
③ 가족친화 마을 조성	검토	시범운영	운영	운영	운영
④ 인천시 및 군·구 공무원의 일-생활 균형 환경 모니터링	검토	운영	운영	운영	운영

□ 추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6조(일·가정 양립 지원)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7조(성차별의 금지 및 성희롱 예방교육)

4.1.2. 일-생활 균형 지역문화 조성

□ 목적

- 건강가정지원센터-지역 기업(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인식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
-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여가 수요 충족 및 풍요로운 삶 지원
- 미래 세대인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평등한 돌봄참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성평등한 돌봄 문화 정착 및 확산

□ 사업 내용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일-생활 균형 관련기능 강화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일-생활균형 프로그램 개발
 - 찾아가는 직장 교육 운영 : 중소기업형 일-생활 균형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지역 기업(기관)의 MOU체결
-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 운영
 -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박물관 등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녁시간과 주말 프로그램 확대
 - 동아리 지원 및 야간 프로그램 추가 개설
 - ex> 시민, 직장인(젊은 층)을 위한 야간 인문학 교육, 영화 상영 등
- 아동 및 청소년의 성평등한 돌봄 참여 교육
 -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대규모 교육 보다는 소그룹 교육 지원
 - 대상별 맞춤형 교육이 진행 : 성인지적 관점에서 교육 실시
 - 초·중·고등학교 성평등한 돌봄참여 교육 매뉴얼 개발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 아동청소년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공동체과,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시 교육청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1	2022	2023
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일-생활균형 관련기능 강화	검토	계획 수립	운영	운영	운영
②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 운영	검토	계획 수립	운영	운영	운영
③ 아동 및 청소년의 성평등한 돌봄 참여 교육	검토	계획 수립	운영	운영	운영

□ 추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6조(일·가정 양립 지원)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7조(성차별의 금지 및 성희롱 예방교육)

4.2. 돌봄서비스의 강화

4.2.1. 공보육 인프라 확충

□ 목적

-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안심보육서비스 제공
- 신뢰할 수 있는 공보육 인프라 확충

□ 사업 내용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 2022년까지 175개소 확대(165개소(2018년) → 340개소(2022년))
 -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역에 균형 배치
 - 영아와 유아보육의 균형 배치
 -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연구 실시
- 인천형 어린이집 확대 및 내실화
 - 2022년까지 130개소 확대(50개소(2018년) → 180개소(2022년))
 - 인천형 어린이집 운영 매뉴얼 개발 및 배포
 - 모니터링 실시 및 교육 지원 : 운영 및 재무회계 교육
 - 인천형 어린이집의 상호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 2022년까지 76개소 확대(124개소(2018년) → 200개소(2022년))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출산보육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인천여성가족재단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165개소 (누적)	225개소	260개소	300개소	340개소
② 인천형 어린이집 확대	50개소 (누적)	120개소	140개소	160개소	180개소
③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124개소 (누적)	150개소	165개소	180개소	200개소

□ 추진 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3조(일·가정 양립 지원)
- 인천시 민선 7기 공약

4.2.2.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

□ 목적

- 아동 연령별,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
- 부모의 선택권 보장 및 양육 고충 경감

□ 사업 내용

- 온종일 돌봄교실 추진 : 시행 검토 및 시범 사업 추진
- 공동돌봄나눔터 확대 설치
 - 2022년까지 군구별 1개소 총 10개소 설치(18개소(2018년) → 28개소(2022년))
-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확대 및 내실화

-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 어린이집 친환경 무상급식 및 무상보육 실시
 - 3~5세 부모부담보육료 전액 지원(2019년 시행)
- 공공형 키즈카페 확충
 - 지역별 수요조사 실시 및 단계별 확충
 - 실내 공기질 관리시스템 구축
- 취업부모 육아네트워크 구축 지원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 출산보육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아동청소년과, 건강가정지원센터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온종일 돌봄교실 추진	검토	실시	실시	실시	실시
② 공동돌봄나눔터 확대 설치	18개소 (누적)	20개소	23개소	25개소	28개소
③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확대 및 내실화	검토	계획실시	확대	확대	확대
④ 어린이집 친환경 무상급식 및 무상보육 실시	검토	실시	지속	지속	지속
⑤ 공공형 키즈카페 확충	검토	조사 및 계획	확충	확충	확충
⑥ 취업부모육아네트워크 구축 지원	검토	실시	실시	실시	실시

□ 추진 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3조(일·가정 양립 지원)
- 인천시 민선 7기 공약

4.2.3. 남성의 가사, 육아 참여 권리 확대

□ 목적

- 남성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해 일-생활 균형의 문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아닌 부모로서 누려야 할 권리로 인식하고, 아버지의 참여를 적극 독려
- 공공시설에서 자녀의 돌봄을 위한 공간은 여성중심적임. 남성의 실질적인 돌봄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공간조성

□ 사업 내용

-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 － 남녀 육아휴직자 고충상담 지원 강화
 - － 육아휴직 후 복귀자 지원 강화
 - － 남성육아휴직자 사례 확산
- 남성의 가사, 육아 참여 능력 향상
 - － 남성의 가사, 육아 참여 능력 향상프로그램 개발 운영
 - － 남성의 가사, 육아 참여 확대 홍보 실시 : 캠페인, 정책 홍보주간 기획 등
- 공간적 남성 돌봄 참여여건 마련
 - － 공간적 남성 돌봄 참여여건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 공공시설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수유실의 공간분리, 남성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설치 등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인사과, 출산보육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산업진흥과,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산업진흥과, 시설계획과, 인천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과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검토	기획	실시	실시	실시
② 남성의 가사, 육아 참여능력 향상	검토	기획	실시	실시	실시
③ 공간적 남성 돌봄 참여여건 마련	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모니터링 시정요구	모니터링 시정요구	모니터링 시정요구

□ 추진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근로자의 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 등)
-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모·부성의 권리보장)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13조(일·가족양립지원, 제14조 모·부성의 권리보장)

4.3. 가족친화 경영 확산

4.3.1. 가족친화제도 정착

□ 목적

- 중소기업 중심의 인천형 가족친화 컨설팅을 추진하여 우리시의 맞춤형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 가족친화적 기업 만들기에 노력한 사례들을 발굴하고 시상하여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
- 중소기업 중심으로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대상의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민간영역의 관심 제고

□ 사업 내용

- 가족친화인증기관 및 기업 확대
 - 2022년까지 총 26개소 설치(107개소(2018년) → 133개소(2022년))
 - 중소기업대상 가족친화인증 준비기업군 지정 및 컨설팅
- 가족친화인증제도 홍보 강화
- 가족친화인증기업 대상 인센티브 개발
- 가족친화 직장 교육 실시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산업진흥과, 중소기업과, 인천여성가족재단(일가족양립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가족친화인증기관 및 기업 확대	107개소 (누적)	114개소	121개소	128개소	133개소
② 가족친화인증제도 홍보강화	검토	계획 수립	실시	실시	실시
③ 가족친화인증기업 대상 인센티브 개발	검토	인센티브 개발	실시	실시	실시
④ 가족친화 직장 교육 실시	검토	계획 수립	실시	실시	실시

□ 추진 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정책의 수립 등)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3조(일·가정 양립 지원)

4.3.2.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 목적

-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무환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를 시행하여 향후 일-생활 균형 근무환경 조성에 근거자료로 활용
- 근로시간의 단축과 시간제 근로제 활성화를 통한 돌봄, 여가 여건 마련
- 일-생활 균형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인 근로시간과 휴가사용과 관련된 캠페인 및 기업대상 포럼 실시

□ 사업 내용

- 일-생활균형 근무환경 실태조사
- 가족친화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실시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산업진흥과, 중소기업과, 인천여성가족재단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일-생활균형 근무환경 실태조사	검토	조사	-	-	-
② 가족친화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실시	준비	운영	운영	운영	운영

□ 추진 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정책의 수립 등)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3조(일·가정 양립 지원)

4.4. 다양한 가구의 일·생활 균형 지원

4.4.1. 다양한 가구의 맞춤형 일·생활 균형 정책 강화

□ 목적

- 다양한 가구의 일-생활 균형 요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의 안정화 추구

□ 사업 내용

- 장애아가정 일-생활 균형 지원
 - 장애아 돌보미 파견 서비스 지원 가정 확대
 - 가족관계를 위한 가족상담 등 지원
- 한부모가족 일-생활 균형 지원
 - 한부모가족 초기 상담 및 사례 관리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 교육 등 프로그램 지원
 - 다양한 정보제공 및 자조모임 운영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양육비 이행 지원 확대
 -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 다문화가족 일-생활 균형 지원
 - 다문화 자녀를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강화
 - 일하는 다문화 부모를 위한 한국어 직장교육 서비스 실시
- 가족돌봄가구 일-생활 균형 지원
 - 기업(관) 대상 가족돌봄 가구를 위한 휴직 및 휴가 제도 홍보 및 독려
 - 시립공공요양원 설립
- 비혼출산·양육자의 동등하게 대우받는 여건 확립
 - 일상 속 차별 사례 등을 관리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진행

- 1인 가구 일-생활 균형 지원
 - 직장 내 1인 가구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 지역 내 1인 가구 공동체 조성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보훈다문화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인천여성가족재단,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장애아가정 일-생활 균형 지원	검토	계획수립	실시	실시	실시
② 한부모가족 일-생활 균형 지원	검토	계획수립	실시	실시	실시
③ 다문화가족 일-생활 균형 지원	검토	계획수립	실시	실시	실시
④ 가족돌봄가구 일-생활 균형 지원	검토	계획수립	실시	실시	실시
⑤ 비혼출산·양육자의 동등하게 대우받는 여건확립	검토	계획수립	실시	실시	실시
⑥ 1인 가구 일-생활 균형 지원	검토	계획수립	실시	실시	실시

□ 추진 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3조(일·가족양립지원)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3장(한부모가족 복지사업)
-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5. 여성폭력 근절 및 여성 건강권 증진

5.1.

여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 5.1.1. 제도적 기반 마련
- 5.1.2. 폭력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 5.1.3. 수요자 맞춤형 여성폭력 예방교육
- 5.1.4. 인천형 여성안심마을 조성

5.2.

새로운 여성폭력 이슈에
대한 대응력 강화

- 5.2.1.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
- 5.2.2.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
- 5.2.3.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

5.3.

여성폭력피해 지원
서비스 강화

- 5.3.1. 피해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 5.3.2. 지원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지원기관 역량 강화

5.4.

폭력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5.4.1. 청소년대상 폭력가해 예방교육 및 성매매 근절활동 추진
- 5.4.2. 가정방문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폭력 대응 능력 강화
- 5.4.3. 여성장애인에 대한 생활 밀착형 지원 강화
- 5.4.4. 이주여성의 여성폭력 관련 정보 공유 강화

5.5.

여성건강권 증진
기반 강화

- 5.5.1. 제도적 기반 마련
- 5.5.2. 보건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 5.5.3. 정서적 지지기반 강화

5.6.

계층 간
건강형평성 향상

- 5.6.1. 청소년 건강 증진
- 5.6.2. 모성보호의 다각화
- 5.6.3. 성인여성 건강 증진
- 5.6.4.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5영역

현황 및 수요

-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는 일찍부터 여성폭력을 여성인권침해에 관한 중요 의제로 상정해 왔음.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제4차 인천여성정책 기본계획(2013~2017)”은 여성폭력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주요 정책으로 설정하고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그 성과가 크지 않음
- 기본계획에 따라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례를 정비하고 다양한 정책을 도입 하였으나, 여성 대상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회 안전에 대한 시민 신뢰도 역시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안전 분야에 대한 ‘인천시 2017년 성평등 지수’를 살펴보면 평균 점수 69.2로 전국 시·도 가운데 중하위권에 해당함. 특히, 안전 분야 세부 지표인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는 2013년(16위) 이후 점차 개선되어 7위까지 순위가 상승했지만,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의 남녀성비는 여전히 전국 하위권인 14위에 머무르고 있음

<표 V-22> 최근 3개년간 성폭력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인천시)

	2014	2015	2016
발생건수(건)	2,368	2,826	2,892
남자검거인원(명)	2,109	2,426	2,925
여자검거인원(명)	42	67	76

출처: 검찰청(2017), 범죄분석통계

<표 V-23> 사회안전에 대한 시민 인식도(인천시)

	2012			2014			2016		
	안전	보통	불안	안전	보통	불안	안전	보통	불안
남자(%)	8.9	32.1	59.0	12.9	32.7	54.3	11.4	26.2	62.4
여자(%)	4.9	25.1	70.0	6.3	25.3	68.5	6.2	20.3	73.6

출처: 통계청(2017), 사회조사

-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교육 및 인식개선 활동, 여성에게 안전한 환경의 조성,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내실 있는 보호·지원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함
 - 위의 삼각연대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여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함. 인천 특성에 맞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여성폭력 관련 자료를 생산하고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정례화해야 함
-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사회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차별적 의식이 지속되면서 여성대상 증오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권력형 성폭력 등 신종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또한, 인터넷과 디지털영상기기의 발달로 인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건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음. 이처럼 새롭게 나타나는 형태의 여성폭력은 현행 조례와 제도에서 충분히 규제하지 못하고 있어서 “인천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2018-2022)”을 통한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함
 -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여성폭력은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 외에도 가해 수법이 점차 교묘해 진다는 특징이 있어서 전문적 조치가 필요한 영역임. 따라서 신종 여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피해 양상을 분석하고 그 특수성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함. 또한, 피해자가 원하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성폭력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서 새로운 전략을 구상해야 함

<표 V-24> 최근 5개년간 디지털 성범죄 수사 및 검거 현황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사(건)	2,400	4,823	6,623	7,623	5,185
검거(건)	2,042	4,380	6,361	7,432	4,904

출처: 검찰청(2017),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 신종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공조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함. 따라서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내용 중 인천시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파악하고 업무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함
- 그간 개인 차원의 문제로 여겨지던 여성폭력의 심각성이 점차 고조되고, 폭력 양상이 다양해짐에 따라 여성폭력을 바라보는 시민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여성폭력 통계자료를 보면 시민의식 향상이 여성폭력 감소로 연계되지 않고 있어서 실효성 있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이 요구됨. 이와 함께 여성폭력을 야기하는 근본원인인 성차별적 사회문화 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서 여성폭력 감소라는 가시적 효과를 이끌어 내야 함
- 『인천시 양성평등 실태조사』(2018)의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6.5%가 여성에 대한 신체적 폭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부부폭력과 데이트폭력은 ‘용인될 수 없으며 어떤 경우라도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각 77.1%와 89.1%에 이름. 또한, 커뮤니티와 SNS에서의 여성 혐오 발언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여기고 있음

<표 V-25> 여성에 대한 신체적 폭력에 대한 생각

	구 분 (단위 : %)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대체로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여성에 대한 신체적 폭력의 심각성	전체	1.8	21.7	48.5	28.0
	남성	2.9	28.3	49.0	19.7
	여성	0.7	15.1	48.0	36.2
커뮤니티, SNS에서의 여성혐오 발언에 대한 생각	전체	1.9	20.5	46.3	31.4
	남성	2.7	26.1	46.1	25.0
	여성	1.0	14.9	46.4	37.7

출처: 인천여성가족재단(2018), 인천시 양성평등 실태조사

<표 V-26> 부부폭력 및 데이트폭력 처벌에 대한 생각

구 분 (단위 : %)	용인될 수 없으며, 어떤 경우라도 법에 따라 처벌	용인될 수는 없으나, 법에 의해서 처벌 사안 아니다	상황에 따라 용인 될 수 있다
부부폭력	77.1	13.5	9.5
데이트폭력	89.1	7.3	3.7

출처: 인천여성가족재단(2018), 인천시 양성평등 실태조사

- 대부분의 시민들이 여성폭력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만큼, 기존과 같이 폭력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신중 여성폭력 예방법, 폭력 발생 시 능동적인 대처 방안, 폭력체감도 향상 교육, 성차별적 의식 해소를 위한 성인지 통합교육 등 실용성을 강조하는 커리큘럼을 개발해야 함
- 또한,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여성폭력 지원 기관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성폭력 관련 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함

<표 V-27> 여성폭력 도움 기관 인지도

구 분 (단위 : %)	안다	들어는 보았다	모른다
여성긴급전화 1366	20.7	32.1	47.3
여성아동청소년 경찰지원센터 117	17.9	28.6	53.6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35.2	41.2	23.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6.6	31.3	52.2
해바라기 센터	12.1	21.4	66.6

출처: 인천여성가족재단(2018), 인천시 양성평등 실태조사

- 사이버 환경의 일상화로 청소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기도 하며, 성매매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폭력예방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지금까지의 폭력예방교육은 피해방지에 중점을 두었음. 그러나 인터넷과 친숙한 청소년 문화를 고려해서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가해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함
- 한편, 성매매에 유입되는 여성의 연령층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 청소년에게 성매매는 범죄라는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가출청소년이 성매매에 유입되지 않도록 다각도의 지원을 해야 함

○ 가정방문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여성장애인, 이주여성 등은 폭력피해에 노출되기 쉽지만, 시간적·경제적·지리적 여건 때문에 폭력예방교육에서 소외되고 있음. 여성폭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들에 대한 맞춤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함

- 가정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집주인의 관리감독을 받는 가정방문 노동자는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음. 지자체 차원에서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가정방문 노동자가 노동공간에서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교육시간을 내기 어려운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방문교육을 실시해서 폭력 대처능력을 향상시켜야 함
- 여성장애인은 이동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가정방문을 통한 교육 및 피해자 발굴이 필요함. 또한, 예방교육 대상을 장애인의 주변인으로 확대해서 장애인이 위협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현재 장애인 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없어서 집중적인 지원이 어려우므로 2022년 개소를 목표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 마련해야 함
- 인천 내 이주여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구체화 하여야 함. 상담 통역사 고용 등 이주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서비스를 강화하고, 자조모임 등을 통한 신속한 전달체계를 구축해서 폭력 발생 시 실질적인 도움을 강화해야 함

- 인천시는 2016년부터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목표로 ‘여성안심마을’을 조성 중에 있음. 이번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에서는 도시와 섬이 함께 있는 인천의 특성을 반영한 ‘인천형 여성안심마을’을 조성하고, 여성안전지표를 개발·관리해서 여성안전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함
 - 인천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도시형 안심마을모델과 도서형 안심마을모델로 이분화함
 - 인천시 지역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여성안전지표 개발 및 지속적인 지표관리 수행으로 촘촘한 여성안전망을 확보해야 함
- 인천시민은 여성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해 향후 5년간 인천시가 해야 할 정책(중복응답)에 대해 폭력예방교육 확대(57.4%), 폭력피해자 지원(48.5%), 상담소 지원 확대(34.0%) 순으로 응답하였음. 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사이의 협업을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해서 피해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함

<표 V-28> 여성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해 향후 5년간 인천시가 해야 할 정책(중복응답)

폭력예방 교육 확대	폭력피해자 지원	상담소 지원 확대	피해자 특성에 따른 지원	가해자 사후관리	기타	무응답
57.4	48.5	34.0	32.7	26.6	0.5	0.2

출처: 인천여성가족재단(2018), 인천시 양성평등 실태조사

- 현재는 예방교육기관, 폭력 상담소,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이 분절적으로 운영되어서 권리구제 절차상의 연속성이 떨어짐.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도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기관의 업무를 분담하고, 거점기관을 육성해서 각 지원기관 간 업무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민-관-경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정례화해서 업무 공조를 강화해야 함
- 소외지역으로 방문서비스 범위를 확대해서 여성폭력 피해자의 접근성을 제고함
- 조례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피해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지원 가능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함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의 업무 강도는 높은 반면 임금체계 등은 유사 기관에 비해 열악해서 이직이 잦다는 문제가 있음. 높은 이직률은 폭력 피해 지원업무의 연속성을 방해하므로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해서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해야 함
- 건강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이 도입된 것은 최근의 일임. 여성과 남성의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건강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 의료기관 접근성을 보장해서 여성건강의 실질적 증진을 도모해야 함
 - 여성건강 실태조사와 건강 관련 기초 자료 DB를 활용해서 여성과 남성의 건강 차이를 가시화하고, 여성의 건강특성이 반영된 종합계획을 수립함
- 현대사회의 고질병인 스트레스가 우울증과 자살률 증가로 이어지면서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중시되고 있음
 - 여성에 대한 정서적 지지를 위해서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여성정신건강 상담서비스를 강화해야 함
 - 여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치유를 위해서 여성폭력 상담기관과 연계한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종래의 여성건강 정책은 모성건강과 노년층에 집중되어 있어서 계층 간 건강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음. 인천시민의 건강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녀의 차이를 반영하는 동시에 여성집단 내에서의 건강 수준 차이를 고려한 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함
 - ‘성별·연령별 건강보험 보장률’을 보면 청년~중장년 여성(19-44세)의 보장률이 45.2%, 아동·청소년기 여성(6-18세)의 보장률이 47.6%로 모든 연령대 중에서 가장 낮음을 알 수 있음. 세대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여성에 대한 건강 요구도를 파악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표 V-29> 성별·연령별 건강보험 보장률(2012)

구분	전체(%)	남성(%)			여성(%)		
		건강보험 보장률	법정 본인부담률	비급여 본인부담률	건강보험 보장률	법정 본인부담률	비급여 본인부담률
0-5세	61.2	61.2	12.7	26.1	61.3	12.5	26.1
6-18세	51.3	53.9	21.5	24.6	47.6	24.3	28.1
19-44세	48.2	52.6	21.2	26.2	45.2	17.2	37.6
45-64세	56.6	59.3	17.4	23.2	53.8	18.3	27.9
65-74세	62.5	64.7	15.4	19.9	60.2	18.1	21.7
75-84세	63.1	63.8	15.5	20.7	62.4	19.2	18.4
85세 이상	63.8	62.5	18.4	19.2	64.6	21.2	14.2

출처: 보건복지부(2015),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 『인천시 양성평등 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외모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함. 청소년기의 여성은 과도한 외모 가꾸기로 인해 영양 불균형, 체력 저하, 불안감 증가 등 부정적인 건강 요인을 보이고 있음. 성 차별적 구조 속에서 발생한 외모 중심주의 사회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신체와 정신의 균형적인 발달이 가능하도록 외모 중심주의 의식 개선 교육이 필요함

<표 V-30> 연애에 있어 외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청소년)

	구 분 (단위 : %)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대체로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연애에 있어 여성의 외모는~	전체	15.0	23.4	43.8	17.8
	남학생	13.2	22.0	46.8	18.0
	여학생	16.8	24.8	40.8	17.6
연애에 있어 남성의 외모는~	전체	15.2	28.8	40.6	15.4
	남학생	12.4	26.8	44.4	16.4
	여학생	18.0	30.8	36.8	14.4

출처: 인천여성가족재단(2018), 인천시 양성평등 실태조사

- 가임기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서 피임에서의 성평등 인식 확산 운동을 전개함. 또한, 산모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검토하고, 산후 우울증 관리와 실내체육활동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
- 성인여성의 건강관리는 스트레스 관리와 질병예방에 중점을 두었음. 특히, 치매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서 치매예방센터 중점설립 방안을 검토해야 함
- 여성장애인, 이주여성, 도서지역 거주 여성은 본인이 처한 여건 때문에 보건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동편의 제공, 방문서비스 등 서비스 접근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감정노동자와 돌봄노동자의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단계별로 집중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함. 영세자영업자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대한 욕구가 높지만 1인 사업장이 대부분이어서 병원에 가기가 쉽지 않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세자영업자 밀집지역에 간이형 건강관리센터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5영역

정책과제

5.1. 여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5.1.1. 제도적 기반 마련

□ 목적

-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여성폭력 예방 실효성 향상
- 신종 여성폭력을 제도의 범위 안에 포섭함으로써 효과적인 대처방안 마련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 요구에 부응
- 여성폭력 양상에 대한 정확한 판단으로 여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적절한 대책 수립
- 여성폭력 관련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 강화

□ 사업 내용

-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례 제정
 - 중앙정부의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에 근거해서 인천시 「젠더폭력방지 기본 조례(가칭)」 제정 추진
 -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폭력 근절 종합대책’ 수립 근거 마련
 - 「젠더폭력방지 기본 조례(가칭)」의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에 피해자 자활 지원 강화, 인권 중심의 피해자 보호·지원 절차 방안 포함
- 여성폭력 실태조사 정례화
 - 매 3년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와 데이트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을 포함한 ‘인천시 여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 인천의 여성폭력 현황 및 추세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여성폭력 근절 대책의 문제점 및 장애요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효과적인 정책 수립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주요 정책 과제 제시
- 여성폭력 관련 예산의 안정적 확보
 - 향후 5년간 여성폭력 관련 예산을 5% 씩 증액함으로써 예산의 안정성 확보 및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일관되고 실질적인 지원 실시
 - 지역연대 활성화를 위한 비용을 충분히 확보하여 수요자 맞춤형 지원 확대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법무담당관, 예산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안전정책과, 인천시의회, 인천지방경찰청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젠더폭력방지 기본조례」(제정)	검토	조례제정 안 작성	조례 공포·시행	조례 시행	조례 시행
② 여성폭력 실태조사 정례화	검토	1차 실태조사	결과분석 정책수립	계획수립	2차 실태조사
③ 여성폭력 예산의 안정적 확보	검토	계획이행	계획이행	계획이행	이행점검 및 보완

□ 추진 근거

-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중(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5.1.2. 폭력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 목적

- 여성차별적 사회문화 의식 개선을 통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비난인식 극복
- 시민과 함께하는 캠페인 실시로 여성폭력에 대한 시민 체감도 향상 및 폭력 근절에 대한 공감대 확산
- 공익광고 송출을 통한 여성폭력 근절 의식 확산 및 여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호방안 홍보
- 여성중요현상이 심각한 온라인 게시판과 미디어 관리를 통해 여성을 범죄 대상으로 보는 시각 개선
- 여성에 대한 폭력을 허용하지 않는 ‘여성폭력 OUT! 인천’ 조성

□ 사업 내용

-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 － 정기적인 캠페인 실시 : “여성폭력은 사회적 문제이며 범죄”라는 의식 확산과 사회문화 정착
 - －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홍보자료 제작·배포 : 여성폭력 예방 방안,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여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 피해자 지원기관, 피해자 지원제도를 이용한 경험담, 실태조사 결과 등이 담긴 홍보자료(책자, 포스터, 광고, 애니메이션, 콩트 등의 형태)를 제작하여 시민의 방문이 잦은 주민자치센터나 다중이용시설에 배포하고, 시민에게 정기적으로 발송되는 뉴스레터 활용하는 등 홍보자료 제공
 - － 배너와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온라인 캠페인 : 시 홈페이지, 블로그와 트위터 등 SNS에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홍보란을 개설해서 폭력 관련 정보를 집약적으로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여성폭력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고취. 여성폭력 근절 배너를 제작해서 폭력지원 유관기관, 주민자치센터, 초·중·고등학교, 가족친화인증기업의 홈페이지에 탑재

- 인천 여성폭력 추방 주간 선포 : 현재 성폭력·가정폭력 추방 주간 행사를 여성폭력으로 확대해서 매년 11월 25일(국제 여성폭력 추방의 날)이 포함된 주를 ‘인천 여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선포하고,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진전, 여성인권 영화제, 여성폭력 근절 강연회와 토론회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진행해서 폭력 근절에 대한 시민의 관심 유도
- 시민과 함께 하는 ‘여성폭력 OUT! 인천’
 - 여성폭력 근절 캠페인에 시민을 적극적으로 동참시켜서 여성폭력에 대한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성차별적 인식 극복을 유도
 - 인천광역시청, 인천지방경찰청, 인천광역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및 관련 전문가가 포함된 ‘여성폭력 OUT!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연 1회 이상 폭력예방계획 수립-추진-모니터링 실시
 - 연간 100명 규모(각 구별 10명 이상 배정)로 ‘여성폭력 OUT! 서포터즈’를 운영해서 각 지역별 여성폭력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을 여성폭력 근절 젠더거버넌스에 포함해서 지역별로 특화된 폭력근절 정책 방안 마련
- 미디어를 활용한 여성폭력 근절 홍보
 - ‘여성폭력 OUT! 서포터즈’와 여성폭력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서 공익광고를 제작하고, 파급력이 높은 지역TV·라디오·신문 및 옥외 전광판 등에 여성폭력 근절 공익광고를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송출
 - ‘여성폭력 OUT! 서포터즈’가 지역 미디어에 나타난 여성폭력 사례를 모니터링해서 부적절 사례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고, 여성폭력 보도·홍보 가이드라인 작성·배포
 - 미디어 제작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성인지 교육을 실시해서 방송 콘텐츠에서의 성불평등 해소
 - 미디어 정책 결정 기구에 여성위원 40% 참여 보장(「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 공익광고 제작 단계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광고에서의 성차별 및 여성증오현상 개선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대변인, 여성복지관, 인천시 언론기관(방송사 및 신문사), 인천지방경찰청, 여성권익시설, 여성폭력 OUT! 서포터즈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검토	계획수립	계획이행	계획이행	계획이행
② 시민과 함께 하는 여성폭력 OUT! 인천	검토	계획수립 및 모집	이행점검 및 보완	계획이행	이행점검 및 보완
③ 여성폭력근절 미디어 홍보	검토	계획수립	계획이행	계획이행	계획재설정 및 이행

□ 추진 근거

-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중(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8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 「인천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제4조(시행 계획의 수립) 및 제8조(지역연대의 기능)

5.1.3. 수요자 맞춤형 여성폭력 예방교육

□ 목적

- 여성폭력 예방교육 거점기관 선정으로 폭력예방교육의 질 개선 및 폭력예방 강사와 폭력예방교육기관의 역량 강화 도모

- 폭력예방교육 대상 발굴 및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로 폭력예방교육의 효과성 증진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시민 접근성 강화
- 성인지 통합교육을 실시해서 여성폭력을 야기하는 성차별을 근본적으로 해소

□ 사업 내용

- 여성폭력 예방교육 추진체계 거점화
 - 3년 단위로 폭력예방교육 거점기관 선정 : 거점기관이 각 폭력예방교육 기관의 교육관련 사무를 감독함. 거점기관은 내실 있는 예방교육 실시를 목표로 폭력예방교육 기관별로 편차가 있는 폭력예방교육 내용과 강사 관리방법 등 체계화
 - 폭력예방교육 거점기관 선정을 위해서 2019년까지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인천 내 폭력예방교육 기관의 의사를 반영해서 거점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확정
 - 폭력예방교육 거점기관은 인천특성에 맞는 폭력예방강사 양성과정 및 보수교육과정 운영, 강사 관리,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 수행. 또한, 각 폭력예방교육 기관의 교육운영 사항과 교육추진실적 등 폭력예방교육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1년 주기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천시에 보고
-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폭력예방 교육 기회 및 접근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교육 실시
 - 안전취약지역 정보 등을 활용하여 우선 교육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여 방문 교육 실시
 - 주요대상 :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요 구성원(소상공인, 운송업계 종사자 등), 여성폭력 예방교육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취약계층(도서벽지, 농어촌 주민,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

■ 성인지 교육과의 통합

- 여성에 대한 폭력은 성차별적인 사회문화에서 기인하므로 효과적인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양성평등에 대한 시민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성인지 교육과의 통합 필요

※ 성인지 교육이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과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말함(「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 제1항)

- 현재,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성인지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서 법정교육인 폭력예방교육 시간 60분에 성인지 교육을 약 10분 정도 추가하는 형태로 통합교육 실시
- 폭력예방교육 거점기관은 성인지 교육 내용을 개발하고 수요자를 발굴하는 한편, 향후 교육시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조사·분석

■ 수요자 맞춤형 강좌 진행

- 생애주기에 따라 유아동·청소년·성인, 폭력취약계층인 여성장애인·이주여성·1인가구여성을 여성폭력 예방교육의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고 각 수요자별로 맞춤형 강좌 운영
-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재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신종 여성폭력의 개념 및 대처 방안, 음란물과 성매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건강한 데이트 방법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교육 진행
- 성인을 대상으로 성평등한 사회문화,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 직장내성희롱 예방, 부부 존중문화 확산 등 각 상황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운영
- 이 외에도 장애유형, 이민여부, 거주형태 등 시민 특성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 강좌 발굴 추진
- 아동·청소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종사자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대면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소규모 모임교육 확대
- 폭력예방교육의무 미부과 대상인 시민 대상 폭력예방교육을 확산하기 위해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인천 내에서 실시하는 취업 박람회에 여성폭력 예방교육 홍보·상담부스 설치 의무화

-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예비부부교실, 학부모교실, 지역 공동주택, 재가방문서비스 기관, 여성종사자가 집적된 소상공인 거리 등과 연계해서 정기적인 방문교육 실시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인천시 교육청,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 내 여성폭력 예방교육 관련기관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여성폭력 예방교육 추진 체계 거점화	검토	계획수립	계획점검 및 자문	계획이행	계획이행
② 찾아가는 여성폭력예방 교육 실시	검토	계획수립	계획이행	계획이행	계획이행
③ 성인지 교육과의 통합	검토	계획수립	계획이행	계획이행	계획이행
④ 수요자 맞춤형 강좌 진행	검토	계획수립	계획이행	계획이행	계획이행

□ 추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 교육),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1조(성인지 교육), 제18조(성폭력·가정 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 「인천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4조(시행 계획의 수립)
- 언론·미디어 종사자 및 공직서비스 전달자 대상 성인지교육 실시(국정과제)

5.1.4. 인천형 여성안심마을 조성

□ 목적

- 인천시 안전관리계획에 여성안전 관련 사항을 강화하여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기반 구축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시형 안심마을모델과 도서형 안심마을모델 운영으로 인천형 여성안심마을 조성

□ 사업 내용

- 안전관리계획에 여성안전 관련 사항 추가
 - － 매년 안전정책과에서 작성하는 “안전관리계획”에는 가정폭력·성폭력 관리 계획이 포함됨. 여성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전관리계획의 세부 내용에 여성폭력 관련 항목의 비중을 높게 설정하는 한편,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활용한 지역환경 개선사업, 여성에게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한 연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활성화 등의 사항 포함
- 인천형 여성안심마을 조성
 - － 매년 5개소씩 조성하여 2022년까지 총 20개소 조성
 - － 도시와 섬이 혼재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도시형 안심마을모델과 도서형 안심마을모델을 구분하고 각기 지역 환경에 맞는 세부사업 추진

- 도시형 안심마을모델 : 여성의 이용이 많은 장소를 대상으로 대한 불법 촬영장비 수시 점검 및 제거, 공단지역에 여성안심 셔틀버스 운영, 어둡고 으스스한 지역에 벽화·전시회 등을 조성하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 변화, 가로수 조정 시 안전시야 확보,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에 대한 방법 강화, 여성안전지도 제작·배포 등 도시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는 특성 반영
- 도서형 안심마을모델 : 지역이 넓고 1인 노인가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서 독거노인가구에 대한 112 핫라인 설치, 마을회관을 활용한 노인 안전교육 및 자조모임 활성화, 마을주민 상호간의 정기적 방문(안전마을 네트워크 구성), 가로등 설치 등의 내용 포함
- 무인안심택배함 확대 설치
 -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빌라, 다세대 주택의 대로변 구역에 집중 설치
 - 무인안심택배함 확대 계획 수립
 - 2021년까지 100개소 설치 완료로 목표로 매년 20개소씩 추가 설치
 - ※ 2018년 40개소 → 2021년 100개소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여성가족재단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안전관리계획에 여성안전 관련 사항 추가	검토	계획수립	계획이행	계획이행	계획이행
② 인천형 여성·아동 안심마을 조성	검토	5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
③ 무인안심택배함 확대 설치	검토	20개소 설치	20개소 설치	20개소 설치	20개소 설치

□ 추진 근거

- 국가성평등지수(여성가족부), 여성·아동안전지표(여성가족부)
- 가정폭력 현장대응률, 성폭력 미검률, 청소년보호지원률 등 각종 치안지표 개선(국정과제)

5.2. 새로운 여성폭력 이슈에 대한 대응력 강화

5.2.1.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

□ 목적

- 불법촬영장비 방법 강화 등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불법영상물 삭제 비용 보조 및 사후모니터링 서비스 제공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최소화 및 피해자 인권 보호
-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연구 지원으로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

□ 사업 내용

-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
 -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여성폭력 인식 개선 캠페인의 내용에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하여 새로운 여성폭력에 관한 사항 추가
 - 화장실·열차 등 다중이용시설에 불법촬영 경고문을 부착해서 시민경각심 고취
- 불법촬영장비 전문 탐지장비 임차
 -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내용 중 하나로 지자체와 경찰서가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장비 설치 여부를 정기 점검할 수 있도록 경찰서에 불법촬영장비 전문 탐지장비를 추가 보급할 것을 약속하고, 2018년 말까지 전국에 288대를 보급할 예정임. 추가 보급되는 장비로는 인천 내 다중이용시설 전부에 대한 불법촬영장비 설치 여부 점검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빈틈없는 점검을 위해서 시비로 불법촬영장비 전문 탐지장비를 임차(또는 구입)할 필요가 있음
- 여성안전지도에 불법촬영장비 설치 빈번 구역 표시
 - 도시형 안심마을모델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여성안전지도 제작 시 불법

- 촬영장비 설치가 빈번한 지역을 표시해서 여성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
- 또한, 불법촬영장비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된 업소를 여성폭력예방 홍보 블로그 및 SNS 등에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업주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불법촬영장비 설치여부를 자체점검할 수 있도록 함

-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

-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불법영상물 삭제 비용을 정부가 피해자 대신 우선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함. 정부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비용 지원이 필요한 경우 또는 피해자에 대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인천시에서 보조적으로 불법영상물 삭제 비용을 지급하고, 삭제요청일로부터 6개월 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불법영상물의 완전 삭제 지원

- 디지털 성범죄 관련 연구

- 디지털 성범죄는 정보통신기기의 활용으로 그 파급력이 매우 강력하지만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범죄여서 관련 연구가 거의 없음.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해서 범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인천지방경찰청, 여성권익시설, 인천여성가족재단, 여성폭력 OUT! 서포터즈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	검토	계획수립	계획이행	계획이행	계획이행
② 불법촬영장비 전문 탐지장비 임차	검토	계획수립	계획이행	계획이행	이행점검 및 보완
③ 여성안전지도에 불법촬영장비 설치 빈번 구역 표시	검토	계획수립	계획이행	계획이행	계획이행
④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	검토	계획수립	계획이행	계획이행	이행점검 및 보완
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연구	검토	계획수립	계획이행	계획이행	계획이행

□ 추진 근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자 지원 등)
-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정부)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8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 「인천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4조(시행 계획의 수립)

5.2.2.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

□ 목적

-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에 대한 개념과 범주를 주지시켜서 지인에 의한 여성 폭력 예방
- 예방교육과 캠페인 실시로 건전한 데이트 문화 형성
-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의 장기화·강력범죄화를 단절하기 위해 피해자 대처 방안 홍보 강화

□ 사업 내용

-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
 - －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여성폭력 인식 개선 캠페인의 내용에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추가
 - － 특히, 데이트를 시작하는 연령인 청소년과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데이트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서 건강한 데이트 문화 확산
- 초기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SMS 발송
 -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을 단절하기 위해서 주요 피해 대상군인 가정폭력 피해자와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SMS를 발송해서 폭력피해를 당했을 때의 대처방안과 폭력피해 지원 내용 안내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인천지방경찰청, 여성권익시설, 교육청, 인천 소재 대학교, 여성폭력 OUT! 서포터즈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스톱강·데이트폭력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	검토	계획수립	계획이행	계획이행	계획이행
② 초기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SMS 발송	검토	계획수립	계획이행	계획이행	이행점검 및 보완

□ 추진 근거

-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중(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5.2.3.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

□ 목적

- 공공부문의 성희롱 예방을 위해 교육을 확대하고 제도적 장치를 설정함으로써 양성평등한 조직 문화 확산

□ 사업 내용

-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강화
 - － 인천시와 각 자치구 공무원, 교육청 공무원과 교사 및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을 포함한 폭력예방 통합 교육 실시
 - －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설치 및 고충상담원 지정·운영
 - －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인천시 공공기관 성희롱예방 지침 및 성희롱 처리절차 지침 마련·배포 : 정부의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 지침」(여성부고시 제2008-2호)은 제정된 지 10년이 지나서 현재 인천의 현실에 다소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 따라서 인천의 상황에 맞는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성희롱예방 지침」

(가칭)과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성희롱 처리절차 지침」(가칭)을 마련
해서 공적 영역에서의 성희롱을 예방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교육협력담당관, 교육청,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 내 여성폭력 예방교육 관련기관(하모니 등)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강화	계속이행	계속이행	계속이행	계속이행	계속이행

□ 추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치조치)
-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여성가족부고시 제2008-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7조(성차별의 금지 및 성희롱 예방 교육)

5.3. 여성폭력피해 지원 서비스 강화

5.3.1. 피해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 목적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간 협업 강화로 폭력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피해 확산 방지
- 민-관-경 협의체 구성으로 효과적인 근절 정책 이행 점검 및 개선사항 도출
- 여성폭력 상담 내용에 신중 여성폭력을 포함하고, 상담 지역을 확대함으로써 내실 있는 상담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으로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접근성 제고
- 폭력피해 신고접수건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통한 잠재적 피해자 발굴 및 보호 강화
- 피해자 보호시설의 확충으로 피해자 지원 강화

□ 사업 내용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간 협업 강화
 - 폭력피해 지원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관들의 중첩된 업무를 조정하고 기관 역할 세분화
 - 촘촘한 협업시스템 매뉴얼을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업무 공조를 하고, 피해자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
 - 거점기관을 지정하고 담당 인력을 육성해서 기관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접수 시 피해자 특성에 맞게 각 기관의 업무 조정·연계
 - 연 1회 이상 포럼을 개최해서 협업시스템을 점검하고 차년도 사업에 개선

안 반영

- 민-관-경 협의체 정례화
 - 여성폭력 예방교육·피해자 상담 및 지원기관, 수사기관, 행정기관이 현장의 의견을 신속히 반영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긴밀히 협의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10~20명 수준의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민-관-경 협의체’를 정례화함.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분기별로 2회 이상의 모임 지원
 -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는 지역안전망 구축을 주요 사업으로 하며,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포함하지 않음
 - 내실 있는 “여성폭력근절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서 협의체 소속 위원 중 약간 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또는 지침 개정
- 상담·치료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제고
 - 현재 운영 중인 ‘도서지역 찾아가는 성폭력·가정폭력 무료이동상담소’의 상담 내용을 신종 여성폭력인 디지털 성범죄·스토킹·데이트폭력·권력형 성폭력으로 확대
 - ‘도서지역 찾아가는 성폭력·가정폭력 무료이동상담소’와 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서 도서지역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제공
 - 도서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방문 범위를 신종 성범죄 피해가 많은 다중 이용시설 등으로 확대해서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 2회 이상 폭력피해상담을 했으나 신고접수를 하지 않은 대상자를 별도로 관리하고, 이들에 대해 정기적인 방문 또는 전화면접 등을 강화해서 잠재적 피해자 발굴·보호조치 실시
 - 폭력피해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방문상담 및 치료·회복 서비스를 실시해서 긴급조치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 수행
-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
 -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을 위한 주거비 지원과 직업훈련 예산을 점검하고,

임대주택 지원 확대 등 지원비용 현실화를 위한 방안 마련

- 내실 있는 자립지원을 위해서 여성폭력 피해자의 특성별로 여성장애인,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 직업훈련기관, 여성친화기업, 사회적기업 또는 지자체의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 자립 후 3년간 추적관리해서 심리치료·재취업교육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 여성폭력 피해자의 일시보호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 증설(4개소 → 5개소)
 - 성매매피해 청소년 보호시설 1개소 신설(0개소 → 1개소)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법무담당관, 인천지방경찰청, 여성권익시설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간 협업 강화	검토	계획 수립 및 점검	계획이행	계획이행	계획이행
② 민-관-경 협의체 정례화	검토	계획수립	계획이행	계획이행	계획이행
③ 상담·치료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제고	검토	계획수립	계획이행	계획이행	계획이행
④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	검토	계획수립	계획이행	계획이행	계획이행
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검토	확충 계획	확충 지속	확충 지속	확충 지속

□ 추진 근거

-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중(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인천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4조(시행 계획의 수립), 제5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 인천시 민선 7기 공약

5.3.2. 지원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지원기관 역량 강화

□ 목적

-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로 피해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2차 피해 방지
- 피해지원기관 종사자의 역량 강화로 전문성 향상과 지원 서비스의 질 제고
- 피해지원기관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으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연속성 보장

□ 사업 내용

- 여성폭력피해 대응업무 종사자에 대한 성인권 및 여성폭력 대응 교육
 - － 여성폭력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 침해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 1회 이상의 성인권 교육 및 여성폭력 대응 실무 교육 실시
 - － 경찰, 사회복지사, 기관 종사자 등 대상별로 업무와 그에 따른 대응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서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기관 종사자의 역량 강화
 - － 여성폭력 지원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거점기관을 지정해서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연 1회 이상의 보수교육 실시. 매년 기관 연합 워크숍을 개최해서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 － 실질적인 교육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례 또는 지침에 연 1회 이상의 보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 신설

- 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
 - 여성폭력 지원기관 종사자의 임금체계를 점검해서 유사 기관과 비슷한 수준으로 향상시킬 있도록 재원 확보
 - 일몰시간 이후에 퇴근할 경우에는 택시비 등 귀가비용을 지원하거나 안전수호기사단과 연계해서 귀가길 안심서비스 제공
 - 종사자의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고, 연간 10일의 유급 안식휴가 부여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법무담당관, 인천지방경찰청, 여성권익시설, 인천여성가족재단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여성폭력피해 대응업무 종사자에 대한 성인권 및 실무교육	검토	수요조사 계획수립	계획이행	계획이행	계획이행
② 기관 종사자의 역량 강화	검토	수요조사 계획수립	계획이행	계획이행	계획이행
③ 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	검토	수요조사 계획수립	계획이행	계획이행	계획이행

□ 추진 근거

- 「젠더폭력방지법」 제정 중(문재인정부 공약 이행사항)

5.4. 폭력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5.4.1. 청소년대상 폭력가해 예방교육 및 성매매 근절활동 추진

□ 목적

- 건전한 데이트 교육 및 여성폭력 가해 예방교육 실시로 건전한 성문화 의식 확산
- 청소년 성매매 근절 활동 다각화로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

□ 사업 내용

- 건강한 데이트 교육 및 여성폭력 가해 예방교육 실시
 - －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한 데이트 교육 실시. 교육 내용에는 상대에 대한 확실한 의사표현, 데이트 폭력의 범위, 성적자기결정권, 안전한 피임, 왜곡된 성문화 개선 등이 포함되어야 함
 - － 인터넷 이용이 활발한 계층인 청소년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디지털 성범죄 등의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여성폭력 가해 예방교육을 집중 실시
 - － 가정에서도 성 관련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 등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 청소년 성매매 근절 활동 다각화
 - － 여성폭력 예방교육기관, 여성폭력피해 지원기관, 청소년상담소,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경찰청, 교육청을 연계해서 ‘청소년 성매매 예방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가출청소년이 많은 위기지역에서 현장상담 및 위기청소년 발굴
 - － 청소년 대상 성인권 교육 및 성매매예방교육 실시
 - －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을 공고히 하는 캠페인 실시

-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매매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매매 검색 금지 어플 개발·보급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아동청소년과, 여성정책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인천시 교육청, 인천지방경찰청, 청소년 상담기관, 여성폭력 지원 관련 기관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건강한 데이트 교육 및 여성폭력 가해 예방교육 실시	검토	계획수립/ 프로그램 개발	교육수행	교육수행	교육수행
② 청소년 성매매 근절 활동 다각화	검토	계획이행	계획이행	계획이행	계획이행

□ 추진 근거

- 「인천광역시 이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5.4.2. 가정방문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의 폭력 대응 능력 강화

□ 목적

- 가정방문 노동자와 서비스이용자에게 안전 수칙을 주지시켜 두려움 없는 근로환경 조성
-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방문교육을 실시해서 폭력 사각지대 해소

□ 사업 내용

- 가정방문 노동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 요양보호사, 가사도우미, 가스검침원, 렌탈기기관리 서비스종사자 등 고객의 가정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추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정방문 노동자 관리기관과 연계한 ‘근무환경에서의 폭력예방교육’ 추진
 - 가정방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도 계약 즉시 또는 첫 번째 서비스 이용일에 여성폭력과 관련한 안전수칙을 주지할 수 있는 리플렛을 제공하고, 여성폭력 방지를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도록 함
 - ※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민관기관에 점진적으로 확산 (2020년까지 민간기관 10개소와의 업무협약을 목표로 함)
 - 성 관련 문제를 야기한 서비스이용자를 별도로 관리해서 유사 사건이 3회 이상 지속되면 폭력예방기관에서 추적·관찰할 수 있도록 명단 공유
 - ※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력예방기관에 명단을 공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서약서에 포함해서 고객의 동의를 미리 얻음
- 영세자영업자 대상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폭력 노출 가능성이 높지만, 온라인교육이나 기관참여교육이 어려운 집단인 영세자영업자의 폭력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전통시장, 먹자골목 등 여성자영업자가 많은 지역의 상인회와 연계해서 방문교육 진행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 일자리경제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여성권익시설, 인천여성가족재단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가정방문 노동자의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	검토	계획수립	수요조사 계획점검	계획이행	계획이행
② 영세자영업자 대상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검토	계획수립	계획이행	계획이행	계획이행

5.4.3. 여성장애인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

□ 목적

- 폭력예방교육 대상을 장애인 가족과 장애인 지원 기관으로 확대해서 폭력에 대한 이해도 및 대처능력 향상
-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상담 및 방문서비스 강화로 숨겨진 여성폭력 피해자 발굴 및 지원
- 장애인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로 내실 있는 지원체계 구축

□ 사업 내용

- 장애특성을 반영한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 장애인 지원기관과 연계해서 장애유형과 특성을 반영한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폭력 가해예방·피해대처 방안에 대한 교육 실시
 - － 교육대상을 장애인, 장애인의 부모,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장애인기업으로 확대해서 교육효과를 높임
- 가정방문을 통한 피해자 발굴·관리
 - － 경찰, 장애인 지원기관과 연계한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잠재적 폭력피해자 발굴 및 폭력 발생 시 신속한 전달체계 구축
- 장애인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개소

- 폭력피해를 입은 여성장애인에 특화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2022년까지 장애인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 설립 추진

※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 2개소, 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없음
 ※ 현재(2018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1개소)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혼재되어 보호장구, 난간설치 등 장애인에 특화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장애인복지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인천시 교육청, 인천지방경찰청,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천여성가족재단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장애특성을 반영한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검토	계획수립	계획수립 및 점검	계획이행	계획이행
② 가정방문을 통한 피해자 발굴·관리	검토	계획수립	계획이행	계획이행	계획이행
③ 장애인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개소	검토	계획수립	계획점검	계획이행	계획이행

□ 추진 근거

- 「인천광역시 이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5.4.4. 이주여성의 여성폭력 관련 정보 공유 강화

□ 목적

- 이주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한 상담서비스로 숨겨진 여성폭력 피해자 발굴 및 지원
- 이주여성 자조모임 활성화로 폭력위기가정을 발굴하고 폭력 발생 시 신속한 전달체계 구축

□ 사업 내용

- 이주여성 폭력피해 보호시설 운영 및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아동의 일시보호, 상담, 심리치료, 의료비, 생계비, 출국지원 등 긴급 지원
- 이주여성 대상 폭력예방 전문강사·폭력 전문 상담사 양성 및 파견
 - 이주여성 일자리로 폭력예방 전문강사와 폭력 전문 상담사 양성
 - 이들을 도서지역으로 파견해서 한국어가 서툰 이주여성에게 모국어로 폭력예방교육 및 상담 실시
 - 인천여성긴급전화 1366에 수요가 많은 중국어와 베트남어 상담 통역사를 배치해서 통역서비스 강화

※ 현재(2018년)는 영어와 러시아어 서비스만 제공

- 폭력예방교육 대상 확대
 - 폭력예방교육 대상을 이주여성, 배우자 및 동거하는 가족으로 확대해서 폭력 없는 환경 조성
- 이주여성 자조모임 활성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이주여성 자조모임 형성을 적극 지원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정보 교류 및 폭력위기가정 발굴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 보훈다문화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인천지방경찰청, 여성긴급전화1366인천센터, 이주여성 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이주여성 폭력피해 보호시설 운영 및 지원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② 이주여성 대상 폭력예방 전문강사 폭력 전문 상담사 양성 및 파견	검토	계획수립	계획이행	계획이행	계획이행
③ 폭력예방교육 대상 확대	검토	계획수립	계획이행	계획이행	계획이행
④ 이주여성 자조모임 활성화	검토	계획수립	계획이행	계획이행	계획이행

□ 추진 근거

- 「인천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제4조(시행 계획의 수립)
-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5.5. 여성건강권 증진 기반 강화

5.5.1. 제도적 기반 마련

□ 목적

- 관련 조례의 정비와 계획 수립으로 여성건강권 향상 기반 마련
- 인천시 여성건강 현황과 시민 요구도 분석으로 건강 형평성 개선 정책 추진
- 인천형 여성건강지표 개발과 지속적인 지표관리를 통해 여성의 건강한 삶 보장
- 인천여성에 적합한 건강증진 정책 추진 기반 강화로 건강수명 연장

□ 사업 내용

- 여성건강 증진 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 정비
 - 여성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해서 “여성건강증진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 기존의 조례와 지침 등을 검토해서 성별 특성을 반영한 보건정책 추진 근거 마련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현 행	개 선 안
제2조 (기능) ①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추진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를 한다. 1~ 5.(생략) 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신 설>	제2조 (기능) ①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추진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를 한다. 1. ~ 5.(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위 제1항의 사항을 협의할 때 성별, 연령별, 장애유무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

현 행	개 선 안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노인건강 실태 조사 및 분석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노인건강 <u>성별</u> 실태 <u>조사</u> 및 분석
제5조(노인건강 증진 사업) 시장은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 2. (생략) 3. 금연, 절주, 걷기운동 등 <u>건강생활실천 사업</u>	제5조(노인건강 증진 사업) 시장은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 2. (생략) 3. 금연, 절주, 걷기운동 등 <u>성별 건강생활 실천 사업</u>

- 여성건강 실태조사 정례화 및 기초자료 DB구축
 - 매 3년마다 정신건강을 포함한 ‘여성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인천의 여성건강 현황 및 추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여성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 건강통계 및 관련 자료를 통합 관리하고 성인지적 분석을 실시해서 여성건강 증진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시민 수요도에 부합하는 정책 과제 제시
- 인천형 여성건강지표 개발·적용
 - 건강 전반에 대한 여성문제를 모니터링하고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천형 여성건강지표’ 개발
 - 인천형 여성건강지표는 건강에 대한 성별 격차와 여성집단 내에서의 건강수준 차이를 가시화할 수 있도록 인천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변동 추이, 일반적인 건강수준, 만성질환, 정신건강, 건강위험요인, 의료서비스 접근권 등의 내용을 포함
- 여성건강 관련 연구 지원
 - 건강에 대한 요구도·신체적 차이·발병 유형 등에 남녀 차이가 있지만, 현행의 건강정책 관련 연구는 남성 중심적이어서 여성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움. 따라서 건강 분야에서 여성주의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결과를 정책에 반영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건강증진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여성정책과, 인천시의회,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인천광역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인천광역시 자살예방센터, 인천시여성가족재단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여성건강 증진 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 정비	검토	조례제정 안 작성	조례 공포·시행	조례 시행	조례 시행
② 여성건강 실태조사 정례화 및 기초자료 DB 구축	검토	계획수립	1차 실태조사	DB 시범운영	2차 실태조사
③ 인천형 여성건강지표 개발·적용	검토	계획수립	계획이행	지표점검 및 보완	지표활용
④ 여성건강 관련 연구 지원	검토	계획수립	계획이행	계획이행	결과검토 및 재지원

□ 추진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1조(자살실태조사), 제12조(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 「인천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제6조(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5.5.2. 보건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 목적

-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역보건소, 사회복지관 등 인천 내 공익기관을 연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여성 보건의료의 사각지대 해소
- 공공보건의료기관 이용 활성화로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강화
- 생애주기별·성별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발굴로 건강인천 조성

□ 사업 내용

- 여성건강 네트워크 구축
 - 인천시 공공보건의료단,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역보건소, 청소년회관·여성회관·노인회관·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인천 내에 설립된 복지기관과 여성단체 및 여성건강 실무 종사자를 연계한 ‘여성건강 네트워크’ 구축
 - 여성건강 네트워크 회원 기관 사이의 업무를 분담해서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프로그램을 공유해서 기관 효율성 제고
 - 여성건강 네트워크 구성원의 모임을 정례화해서 건강관리와 관련한 주민의 의견을 실무에 반영하고, 여성주간에 건강증진행사 개최 등 공동사업 추진
 - 내실 있는 “여성건강증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여성건강 네트워크 구성원 중 약간 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사업담당자와 협의
- 지역 보건소를 활용한 건강 접근성 강화
 - 보건소는 지역주민이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기관임. 따라서 전파력이 강한 지역 보건소를 매개로 활용해서 다양한 체력증진 프로그램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보급
 - 시민이 지역 보건소를 야간이나 주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보건소의 운영시간 탄력조정을 점차 확대해 나감
 - 건강보험 보장률이 가장 낮은 집단인 6-44세 사이 여성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의 방문이 빈번한 쇼핑몰, 키즈카페,

문화센터 등에 정기적으로 이동식 건강상담센터 운영

-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업무 확대
 - 여성건강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업무에 ‘생애주기별, 성별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발굴’ 추가
 - 성평등한 건강관리와 진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업무내용에 추가.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은 폭력예방 교육기관 등 여성폭력 관련 기관과 협약하여 진행
 -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기능 확대 추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추진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건강증진과, 보건정책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법무담당관, 여성정책과, 인천시의회, 인천광역시 내 보건소,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건강가정지원센터, 인천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인천광역시 내 복지기관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여성건강 네트워크 구축	검토	계획수립	계획이행	계획이행	계획이행
② 지역 보건소를 활용한 건강 접근성 강화	검토	계획수립	계획이행	계획이행	계획이행
③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업무 확대	검토	계획수립	계획검토 및 자문	계획이행	계획이행 및 재단 설립 검토

□ 추진 근거

- 「공공보건의료법」 제4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제17조(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운영 등)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실태조사)
-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기능)
-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문재인정부 국정 과제)

5.5.3. 정서적 지지기반 강화

□ 목적

- 여성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자료의 지속적 보급으로 정서적 안정 지지
- 이동서비스 실시 및 폭력지원기관과의 연계로 잠재적 수요자의 적극 발굴·지원

□ 사업 내용

- 여성정신건강 증진 실천방법 보급 확대
 - 여성정신건강 증진 실천방법의 효과성을 검토해서 실천성 높은 프로그램 개발
 - 마음공감(정신건강신문)의 발간 횟수를 연 3회에서 연 5회로 늘리고, 공급처를 동주민센터, 지역 보건소, 여성 다중이용시설, 대학교 및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의 민간사업장으로 확대
 -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www.imhc.or.kr)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및 경찰청에 연동될 수 있도록 배너 제작·보급
- 여성정신건강 상담서비스 강화
 - 정신건강 분야 의료기관 이용을 꺼려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마음상담서비스’ 실시

- 상담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정기적으로 방문형 상담서비스를 실시해서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만성화 방지
- 노인 우울증 취약대상인 독거노인 가구에 대한 방문서비스 실시
- 자살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의 지속적 추적관리를 위해서 면접상담 및 방문상담 실시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
 -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
 - 2022년까지 2개소 신설 : 2018년 10개소 → 2022년 12개소
-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여성폭력 상담기관의 연계
 - 여성폭력 상담기관과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서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치료 실시
 - 피해자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건강증진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법무담당관, 여성정책과,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여성폭력 지원기관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여성정신건강 증진 실천방법 보급 확대	검토	계획수립	계획이행	계획이행	계획이행
② 여성정신건강 상담서비스 강화	검토	계획수립	계획이행	계획이행	계획이행
③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	검토	계획수립	계획이행	계획이행	계획이행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여성폭력 상담기관의 연계	검토	계획수립	계획이행	계획이행	계획이행

□ 추진 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1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7조(자살예방 상담·교육)
-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1조(자살 위험자 지원)

5.6. 계층 간 건강형평성 향상

5.6.1. 청소년 건강 증진

□ 목적

- 외모중심주의 의식 개선 교육으로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개선
- 뉴스포츠 프로그램 개발·보급으로 여학생의 체육활동 참여율 제고
- 성인지적 성교육 강화로 올바른 성의식과 건전한 성문화 정착
- 위생용품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사업 내용

- 외모 중심주의 의식 개선 교육
 - ‘외모 중심주의 의식 개선 교육’ 실시 : 외모를 곧 권력으로 인식하는 문화를 개선하고, 외모 중심주의를 형성하는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킴
 - 외모 중심주의 의식 개선은 성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로 작용하기 때문에 외모중심주의 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에 성인지 관점 포함
 - 교사에 의한 외모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 대상을 교사로 확대
 - 외모 중심주의 의식 개선 교육의 효과를 체험하기 위해서 교육 이수자를 외모 중심주의 의식 개선 캠페인 참가에 연계함
- 뉴스포츠 프로그램 개발·보급
 - 여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학생의 선호도가 높은 댄스나 뉴스포츠 형태의 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뉴스포츠 : 풋살, 넷볼 등 상호 역할을 나누어 공유할 수 있는 오락형태의 스포츠로 게임의 간이성과 규칙의 유연성이 특징임

- 학교 공간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체육활동이 실행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의 체육교사를 대상으로 뉴스포츠 홍보 강화
- 성인지적 성교육 강화
 - 청소년에 대한 물성적 성교육에서 벗어나 청소년을 성에 대한 욕구를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이러한 전제 하에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성적자기결정권, 건강한 성생활과 안전한 피임, 임신, 출산·양육을 비롯해서 데이트폭력 예방에 이르기까지 성인지적 관점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해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 도모
- 취약계층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 저소득가구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위생용품 구입비용 지원
 - 브랜드, 모델, 크기 등을 본인의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현물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지원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아동청소년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건강증진과, 체육진흥과, 출산보육과, 여성정책과, 인천시 교육청, 청소년 관련 기관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외모 중심주의 의식 개선 교육	검토	계획수립	계획이행	계획이행	계획이행
② 뉴스포츠 프로그램 개발·보급	검토	계획수립	계획이행	계획이행	계획이행
③ 성인지적 성교육 강화	검토	계획수립	계획이행	계획이행	계획이행
④ 취약계층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검토	계획수립	계획이행	계획이행	계획이행

□ 추진 근거

- 「학교보건법」 제9조의2(보건교육 등)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5.6.2. 모성보호의 다각화

□ 목적

- 안전한 피임 실천정보 제공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
- 난임부부 지원 확대로 출산율 향상 도모
- 산후 건강관리 방안 다양화로 여성의 건강 증진
- 청소년과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출산권 보장

□ 사업 내용

- 안전한 피임 실천정보 제공
 - － 피임기구 이용, 피임약 복용 안내, 피임방법 등의 정보 제공
 - － 피임은 남녀가 함께 해야 한다는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
- 난임부부 지원 확대
 - －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인공수정 지원 건수 및 지원 비용 확대

※ 지원건수 : 2017년 5,026건(체외수정 2,996건, 인공수정 2,030건) → 2022년 10,000건
(체외수정 4,000건, 인공수정 3,000건)

※ 지원비용 : 2017년 11,541백만원 (체외수정 9,600백만원, 인공수정 1,941백만원) → 2022년
20,000백만원(체외수정 16,000백만원, 인공수정 4,000백만원)

- － 자녀가 없는 부부에 한해 정관·난관 복원시술 비용 일부 보조

■ 산후 건강관리 강화

- 사설 산후조리원보다 비용이 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조성해서 출산의 공공성 강화. 건강취약계층인 저소득가정의 산모가 체계적인 산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가구 소득에 따라 입소비용 감면 또는 면제
- 산후 우울증은 산모와 신생아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신 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체계적인 관리 지원
- 출산 후에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육아와 함께 할 수 있는 실내운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 영국의 버기핏(buggyfit) : 영유아를 둔 여성이 공원이나 실내에서 유모차를 이용해서 운동을 할 수 있게 구성된 프로그램

■ 공공의료기관(인천의료원) 내 분만실 설치

- 산모들의 안정된 분만여건 조성을 위해서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에 분만실 설치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산모와 도서지역 거주 산모들의 우선 이용 지원

■ 청소년 및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비용 지원

-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미혼모보호시설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 등록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 비용 지원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출산보육과, 장애인복지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건강증진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천의료원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안전한 피임 실천정보 제공	검토	계획수립	계획이행	계획이행	계획이행
② 난임부부 지원 확대	검토	계획수립	계획이행	계획이행	계획이행
③ 산후 건강관리 강화	검토	계획수립	계획이행	계획이행	계획이행
④ 공공의료기관 내 분만실 설치	검토	계획수립	계획이행	계획이행	계획이행
⑤ 청소년 및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비용 지원	검토	계획이행	계획이행	계획이행	계획이행

□ 추진 근거

-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5.6.3. 성인여성 건강 증진

□ 목적

-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의 정신건강 증진
-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애주기별 건강 형평성 향상
- 치매예방센터 설립으로 전문적인 치매예방·관리 서비스 체계 구축

□ 사업 내용

- 스트레스 관리 강화
 - － 경력단절과 재진입, 자녀 및 조손 육아 등 연령대별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가 심화되어 우울증으로 발병하지 않도록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
 - － 지역 여성 동호회를 활성화해서 육아 공동체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또래

여성간 정서적 교류 도모

- 신체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서 낮 시간대(12시~14시) 동주민센터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료 일부 지원
- 연령대별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갱년기의 신체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건강관리 정보 제공
 - 비만·골다공증 등 건강 위협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동주민센터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료 일부 지원
 - 독거노인과 거동이 힘든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사회복지공무원 및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해서 수요자 발굴 강화
- ※ 관리대상가구 : 2017년 5,476가구 → 2022년 8,000가구
- 치매예방센터 설립·운영
 - 치매예방센터 설립은 국정과제임. 광역치매예방센터와 기초치매예방센터를 설립해서 지역주민의 치매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건강증진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여성정책과, 체육진흥과, 주민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스트레스 관리 강화	검토	계획수립	계획이행	계획이행	계획이행
② 연령별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검토	계획수립	계획이행	계획이행	계획이행
③ 치매예방센터 설립·운영	검토	계획수립	계획이행	계획이행	계획이행

□ 추진 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5.6.4.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목적

- 여성장애인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권 강화로 건강관리의 공백 해소
- 이주여성과 도서지역 거주 여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로 건강 형평성 향상
- 직업특성상 건강관리에 취약한 감정노동자, 돌봄노동자,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시해서 보건의료의 사각지대 해소

□ 사업 내용

- 여성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권 강화
 - 여성장애인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해서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이용 지원.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방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진료와 출산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에 특화된 거점병원 육성
- 이주여성과 도서지역 거주 여성의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확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인천여성긴급전화 1366 등에서 활동하는 통역사를 활용해서 통역서비스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수요가 많은 군·구에 이주여성을 활용한 통역사 배치
 - 다국어로 된 건강관리 책자를 제공하고, 건강검진 기간 등 특별히 알림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이주여성의 모국어로 SMS서비스 제공

- 섬 등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 감정노동자, 돌봄노동자, 영세자영업자의 건강관리 강화
 - 직무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스트레스 단계별로 집중 관리 프로그램 운영
 - 영세자영업자는 대부분 연령이 높고 한 직종에 오래 종사해서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지만, 병원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우기 쉽지 않음.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서 전통시장이나 먹자골목 등 영세자영업자 밀집지역에 간단한 물리치료가 가능한 ‘간이형 건강관리센터’ 상시 운영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장애인복지과, 건강증진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보건정책과, 체육진흥과, 주민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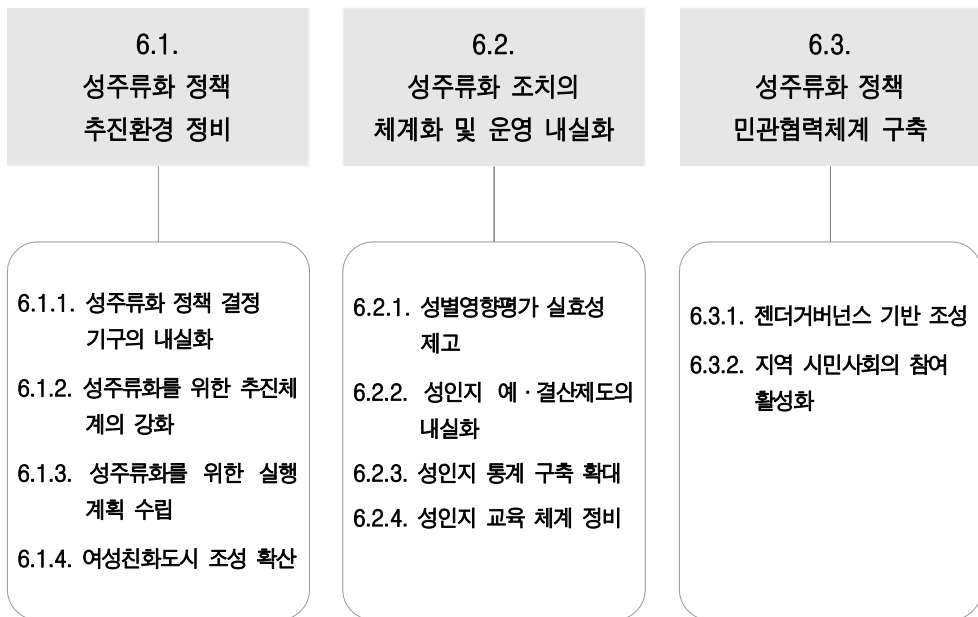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여성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권 강화	검토	계획수립	계획이행	계획이행	계획이행
② 이주여성, 도서지역 거주 여성의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확대	검토	계획수립	계획이행	계획이행	계획이행
③ 감정노동자, 돌봄노동자, 영세자영업자의 건강관리 강화	검토	계획수립	계획이행	계획이행	계획이행

□ 추진 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4조(정책개발)
-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6조(외국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제17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6. 성주류화 정책 추진 기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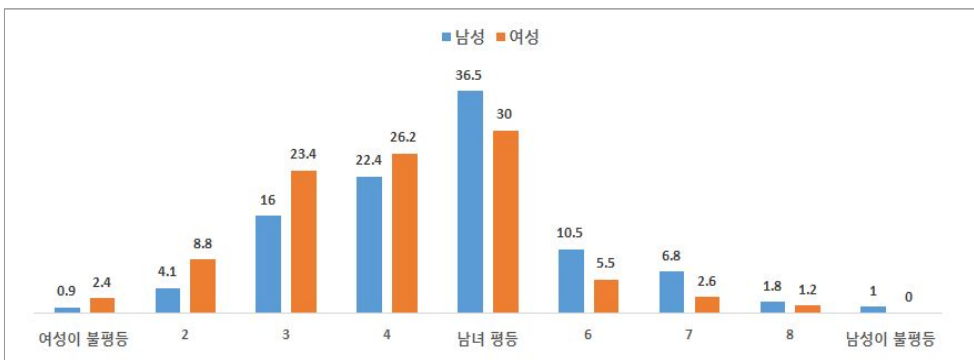


6영역

현황 및 수요

- 「여성발전기본법」을 전면개정한 「양성평등기본법」은 2015년 7월부터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존중하며 성차별적인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음.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는 상위 법인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6년 2월부터 전면 시행 중임
- 『인천시 양성평등 실태조사』(2018) 결과에 의하면, 설문에 응한 시민의 33.3%는 인천시의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52.1%는 여성이 불평등하다고 여기고 있었음. 이에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정비하고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인천시의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이 상이하였는데, 36.5%의 남성이 인천시가 성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여성의 응답률은 30.0%에 머물렀음. 또한 남녀 모두 ‘여성이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집계된 가운데, 남성은 그 비율이 43.4%인 것에 비해 여성은 60.8%로 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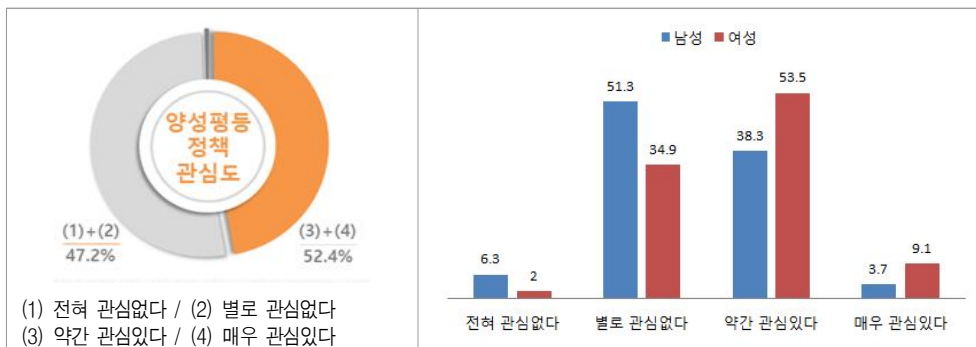
<그림 V-13> 인천시의 남성과 여성의 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출처 : 인천여성가족재단(2018), 인천시 양성평등 실태조사

- ‘양성평등 및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2.4%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성별로는 여성이 62.6%, 남성이 42%로 20.6%의 격차를 보여 여성이 남성보다 양성평등 및 여성정책에 대한 필요와 기대가 높음을 알 수 있음

<그림 V-14>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천시민의 관심도



출처 : 인천여성가족재단(2018), 인천시 양성평등 실태조사
 주 : 무응답 제외

- 현재 인천시 여성정책참여위원회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고, 양성평등 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취지에 부합하도록 「인천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를 개정하여 ‘성평등위원회(안)’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성별영향평가는 2012년 3월 「성별영향평가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대상과제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및 이행률이 저조한 실정임. 여성가족부는 평가지표를 수정하여 성별영향평가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제도의 추진방향 변화에 따라 인천시는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수를 감소하고, 정책 개선의견 수용률 및 정책개선 이행을 제고가 필요한 시점임

- 2013년 회계연도부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인 성인지 예산서 작성이 의무화되었음. 개정된 「성별영향평가법」에서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 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음
-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 결산을 통해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를 점검해야 함.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인천시의회 의원, 시군구 성인지 예·결산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이 필요함
- 「성별영향평가법」은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제3조 제2항). 인천시는 성인지 관점으로 정책의 수립·시행·평가 전 과정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젠더거버넌스 구성 및 지원을 위한 별도의 전담기구 신설이 필요함. 성불평등 및 성차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량과 역할이 필요하므로 인천시는 지역의 젠더 이슈에 관심이 있는 시민 및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적·제도적 지원을 해야 함
- 인천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성인지 교육의 대상이 확대되어야 함. 특히 시정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기관장 및 의회의원, 고위·관리 공무원 등에 대한 성인지 교육 이수 의무화가 필요함. 초기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되는 성평등 의식 및 태도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 교원, 어린이집 교사 및 돌봄 노동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이 이뤄져야 함. 또한 여성관련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보다 높은 성인지력이 요구됨

6영역

정책과제

6.1. 성주류화 정책 추진환경 정비

6.1.1. 성주류화 정책 결정기구의 내실화

□ 목적

- 성평등 정책 결정기구인 ‘성평등위원회(안)’운영 내실화 및 위상 제고
- 여성정책참여위원회의 명칭 변경으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정립
- 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으로 격상하여 성평등 정책의 책무성 강화
- 성평등위원회를 시장 직속기구로 운영하여 권한 강화
- 성평등위원회 위원의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 의무화

□ 사업 내용

- ‘성평등위원회’의 책무성 및 위상 제고
 - 여성정책참여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안)’으로 명칭 변경함
 - ‘성평등위원회(안)’은 위원장을 현재의 행정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격상
 - ‘성평등위원회(안)’의 공동위원장은 성인지 관점과 성평등 정책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한 정책기구의 위상을 강화함
 - 연도별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등의 추진실적을 ‘성평등위원회’에서 평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 성평등 정책 점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5조(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⑤ ‘시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서울특별시 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명시하여 성평등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음

- ‘성평등위원회’의 전문성 및 성인지 역량 강화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24조~제27조를 개정하여 ‘성평등위원회’의 전문성 및 성인지적 역량 강화를 위해 위원의 자격조건을 젠더전문가, 지역 여성단체 활동가 등으로 확대하고, 소속 위원의 성인지관점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정기적인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함
 - 연 1회 이상의 성인지 교육 의무화 방안을 도입함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인천여성가족재단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성평등위원회의 책무성 및 위상 제고	검토	추진	운영	운영	운영
② 성평등위원회의 전문성 및 성인지 역량 강화	검토	실시	실시	실시	실시

□ 추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양성평등위원회)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23조(여성정책참여위원회), 제24조(기능), 제25조(구성)

6.1.2. 성주류화를 위한 추진체계의 강화

□ 목적

- 성평등 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 실효성 있는 성평등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조직적 기반 구축

□ 사업 내용

- 성평등 정책 전문인력 및 젠더정책담당관 지정
 - 성평등 정책 전문인력은 기관의 시행계획의 수립·이행 및 추진실적의 점검 지원, 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주류화 조치의 추진 현황 관리, 성평등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안건 사전검토 등을 지원
-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신설
 - 인천시 성주류화 및 성평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전담부서인 가칭 ‘성평등정책팀(안)’을 시장 직속 기관으로 신설
 - 젠더전문가를 5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인 젠더정책담당관으로 임용하거나 전문직위제를 운영하여 성평등 정책 분야의 전문성 및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적인 기반을 구축

※ 2017년 신설된 서울특별시 젠더정책팀은 젠더전문가인 임기제공무원(5급)인 ‘젠더자문관’을 팀장으로 임용하여, 1명의 팀장과 2명의 팀원으로 구성함. 젠더정책팀은 젠더거버넌스 사업 등 시민이 참여하는 성주류화 정책을 지원하고 있음

- 인천여성가족재단의 기능 강화
 -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조직 개편 및 기능 재정비
 - 전문인력 확충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인천여성가족재단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성평등 정책 전문인력 및 젠더정책담당관 지정	검토	추진	운영	운영	운영
②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신설	검토	추진	운영	운영	운영
③ 인천여성가족재단 기능 강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추진	추진	추진

□ 추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3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3조(시장 등의 책무)

6.1.3. 성주류화를 위한 실행 계획 수립

□ 목적

- 성주류화 실행을 위한 계획 수립 및 평가체계 수립
- 모든 부서의 성주류화 추진을 위한 성인지 매뉴얼 개발

□ 사업 내용

- ‘인천시 성주류화 실행 매뉴얼(안)’개발
 - 모든 부서 정책을 성인지 관점으로 검토하는 ‘성인지 점검포인트(안)’시행
 - 모든 행정문서의 사전점검 항목에 성인지 관점 및 성별분리 통계 내용 추가

－ 시장 및 기초자치단체장,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의무화

- ※ 서울시는 서울시 각 부서의 실제 업무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고 점검하는 가이드라인 ‘내 손으로 만드는 성평등 서울을 위한 일곱 가지 수칙’을 제작·배포함
- ※ 서울시는 2016년부터 문서의 사전점검 항목에 ‘성별분리통계 실시 여부’ 항목을 추가하여 시행 중임
- ※ 인천시 부평구는 문서의 사전점검 항목에 ‘성인지 관점 여부’ 항목을 추가하여 시행 중임

■ 인천시 양성평등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 － 「인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40조 기금의 용도 내용 검토
- － 양성평등기금 등 성인지 기금 운용계획서에 대한 젠더전문가 검토 의무화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전 부서, 인천여성가족재단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인천시 성주류화 실행 매뉴얼(안) 개발	검토	수립	실시	실시	실시
② 인천시 양성평등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검토	시행	시행	시행	시행

□ 추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성주류화 조치), 제17조(성인지 통계), 제18조(성인지 교육)
- 「인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7조(성인지 통계 등), 제8조(성주류화 조치), 제11조(성인지 교육), 제41조(기금의 관리·운용)

6.1.4. 여성친화도시 조성 확산

□ 목적

-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정책 및 도시공간 정책 영역 등 지역정책의 전반에 여성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고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역 내 여성의 삶의 질 제고 및 행복한 공동체 구현

□ 사업 내용

- 여성친화도시 지정 기초자치단체 지원 확대
 - 현재 부평구, 연수구, 미추홀구 3개구 → 4개구 지정 확대 지원(동구)
- 여성친화도시 조성 확산을 위한 시-군구간 협력체계 구축
 - 인천시 전(全)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사업 발굴 및 우수사례 홍보 지원
 - 기초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을 위한 인센티브 및 재정적 지원
 - 인천형 여성친화도시 과제 발굴 및 지원방안 마련
 - 인천형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구성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인천시 기초자치단체, 인천여성가족재단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여성친화도시 지정 기초자치단체 지원 확대	계획수립	시행	시행	시행	시행
② 여성친화도시 조성 확산을 위한 시-군구간 협력체계 구축	계획수립	실시	실시	실시	실시

□ 추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여성친화도시)
- 「인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21조(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 인천시 민선 7기 공약

6.2. 성주류화 조치의 체계화 및 운영 내실화

6.2.1. 성별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 목적

- 성주류화 전략의 주요 실행도구인 성별영향평가의 효과성 제고
-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정책 개선 효과 점검
- 성별영향평가의 실행 주체의 역량 강화 도모
- 성주류화 도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원회의 내실화

□ 사업 내용

-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의 내실화
 - － 젠더전문가, 인천시의원, 시민단체 활동가 등 다양한 정책행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의 자격조건 및 기준을 확대·구성
 -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의 전문적인 역량 제고와 성인지력 향상을 위해 연 1회 이상의 성인지 교육 이수율 의무화
 - － 대상정책의 선정 및 정책개선 이행점검 등 실질적인 기능 수행
 - － 연 2회 이상 개최
- 성별영향평가의 효과적인 운영
 - － 대상과제수 감축 및 정책개선 수용율과 정책개선 이행을 제고를 통한 성별영향평가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 모색

※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수 현황

： 18,803(2013년) → 32,311(2015년) → 32,879(2017년)

※ 인천시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수 현황： 643(2013년) → 849(2015년) → 1,151(2017년)

- －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대상과제 확정

-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 과제담당자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교육 이수 의무화
- 지역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정례화 및 지원
-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확대
 - 매년 시민대상 대상과제 발굴 공모전 시행
 - 지역 대학과의 협업으로 성인지 관점 연구자 배출
 -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결과 공유 및 대시민 홍보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인천여성가족재단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의 내실화	검토	실시	실시	실시	실시
② 성별영향평가의 효과적인 운영	검토 및 수립	실시	실시	실시	실시
③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확대	검토	실시	실시	실시	실시

□ 추진 근거

-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13조의2(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5조(분석평가 대상), 제8조(분석평가서의 작성),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 등), 제12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3조(구성)

6.2.2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내실화

□ 목적

-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으로 연계하여 효과성 제고
- 성인지 예·결산 집행 실적 비교를 통한 정책의 책임성 점검

□ 사업 내용

- 성인지 예·결산의 실효성 제고
 - － 성별 수혜분석 및 성과지표의 산출 평가의 적절성 검토
 - － 성별 수혜분석, 성과목표의 산출에 대한 적절성 등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컨설팅을 인천시 포함 전 군구로 확대
 - －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성인지 예산 반영
 - － 성인지 예·결산 컨설턴트 역량 강화 교육 추진
-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내실화
 - － 성인지 예산 성과 목표와 성인지 결산 집행실적 비교
 - － 성인지 결산 컨설팅 실시 의무화
 - － 성인지 예·결산 모니터링 실시
 - － 주민참여예산제도와의 연계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예산담당관실
- 협력부서 및 기관 : 여성정책과, 인천여성가족재단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제고	검토	계획수립	실시	실시	실시
②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내실화	검토	계획수립	실시	실시	실시

□ 추진 근거

- 「국가재정법」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성인지 예산)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0조(성인지 예산)

6.2.3. 성인지 통계 구축 확대

□ 목적

- 성평등 정책의 기초자료 활용을 통한 근거기반 정책 구현
- 성별분리통계 구축을 통한 지역 성평등 지수 향상

□ 사업 내용

- 성인지 통계의 체계적 관리
 - － 시민들에게 다양한 유형의 성인지 통계 정보 제공 및 홍보
- 행정통계의 성별분리통계 실시
 - － 정책분야별 성별분리통계 의무화 및 강력한 추진체계 마련
 - － 인천시 전 부서에서 성별분리통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조례에 명시하거나 전 부서의 주요업무계획 또는 문서의 사전검토항목에 필수적으로 포함

※ 서울시는 모든 부서의 업무계획 사전 점검항목에 '성별분리통계 실시 여부'를 포함하였음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 정보화담당관실
- 협력부서 및 기관 : 전 부서, 인천여성가족재단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성인지 통계의 체계적 관리	검토	시행	시행	시행	시행
② 행정통계의 성별분리통계 실시	검토	시행	시행	시행	시행

□ 추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성인지 통계)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7조(성인지 통계 등)

6.2.4. 성인지 교육 체계 정비

□ 목적

- 성주류화 추진을 위한 전제 조건인 정책담당자의 성인지력 강화 필요
- 정책담당자의 성인지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성인지 교육 콘텐츠 기획·개발

□ 사업 내용

- 정책담당자의 성인지 교육 확대
 - － 기관장 및 고위·관리직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 의무화
 - － 공무원교육원 성인지 교육과정 개설
 - － 직급별, 분야별, 정책분야별 교육과정 개설 및 콘텐츠 개발
- 공무원 성인지 교육 내실화
 - － 연 1회 이상 성인지 교육 이수율 의무화
 - － 신규임용 공무원 교육 시 성인지 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이수하는 방안 추진
 - －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 : 직급별, 수준별, 정부기능분류체계(BRM) 정책

분야별 성인지 교육 과정 개설

- 성인지 교육 콘텐츠 기획·개발 : 성인지 역량 향상에 필요한 내용, 정책의 성별 관련성, 성인지 관점의 이해, 양성평등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의 이해, 양성평등 사회 및 문화의 이해 등
- 신규 공무원 교육(인재개발원)
- 일반 공무원 및 의회의원 교육(여성정책과)
-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해당기관 교육부서)
- 성주류화 추진 실무담당자에 대한 정기적인 워크숍 개최
- 정책담당자의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지원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인천시 인재개발원, 인천여성가족재단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정책담당자의 성인지 교육 확대	검토	실시	실시	실시	실시
② 공무원 성인지 교육 내실화	검토	실시	실시	실시	실시
③ 정책담당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검토	구성	지원	지원	지원

□ 추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 교육)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0조(성인지 교육)

6.3. 성주류화 정책 민관협력체계 구축

6.3.1. 젠더거버넌스 기반 조성

□ 목적

-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젠더거버넌스 구성
- 젠더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교육 지원 강화

□ 사업 내용

- 젠더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 성인지 관점을 가진 시민단체, 연구자 등 참여
 - 젠더거버넌스 활동 기반 마련
 - 기초자치단체 젠더거버넌스 구성 지원 : 평가지표 반영, 공모사업 운영 등 고려
- 젠더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 ‘젠더거버넌스 지원센터(안)’신설

※ 경기도는 2016년부터 경기가족연구원 내에 젠더거버넌스센터를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 중임
 ※ 서울시는 공모사업으로 풀뿌리여성조직 네트워크가 주체가 되어' 2017 시민참여 젠더거버넌스를 통한 시정 성인지성 강화기반 구축사업'을 진행중에 있음(2018년 연속사업)

- 젠더거버넌스 지원 및 교육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인천여성가족재단)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젠더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검토 및 수립	시행	시행	시행	시행
② 젠더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검토 및 수립	시행	시행	시행	시행

□ 추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적극적 조치)

6.3.2. 지역 시민사회의 참여 활성화

□ 목적

- 지역의 젠더 이슈 발굴을 위한 지역 시민단체의 역량 강화
- 성주류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추진

□ 사업 내용

- 민간 젠더전문가집단과 협력체계 구축
 - 지역의 젠더 이슈 및 주요 성평등 정책 수립 시 자문 요청
 - 연구자, 풀뿌리 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젠더전문가집단 의견 수렴
 - ‘젠더자문단(안)’ 구성 및 운영
- 지역 시민사회단체 성인지 교육 지원
 - 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모니터링단 교육
 -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연구 및 사업 진행
 - 도서지역에 찾아가는 성인지교육 실시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인천여성가족재단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민간 젠더전문가집단과 협력체계 구축	검토	계획수립	실시	실시	실시
② 지역 시민사회단체 성인지교육 지원	검토	계획수립	실시	실시	실시

□ 추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적극적 조치), 제51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52조(여성단체에 대한 지원)



VI. 과제별 추진체계



1영역

성평등 의식 및 문화의 확산

1-1.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1-1-1. 양성평등주간 행사의 다양화

1-1-1-① 여성상, 평등부부상, 다양한 가족상 등 시상 확대 여성정책과

1-1-1-② 양성평등 기념행사 전시, 기획 지원 여성정책과

1-1-2. 인천여성영화제 개최 지원

1-1-2-① 인천여성영화제에 대한 재정적 지원 여성정책과

1-1-2-② 인천여성영화제의 운영 지원 여성정책과

1-1-3. 성차별적 언어 및 표현 개선

1-1-3-① 성차별적 언어와 표현에 관한 매뉴얼 작성, 배포 여성정책과

1-1-3-② 성평등한 언어와 표현에 관한 캠페인 여성정책과
(인천여성가족재단)

1-1-3-③ 인천시 홍보물, 발간물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여성정책과

1-1-3-④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공익 광고 제작 및 방송 여성정책과
(인천여성가족재단)

1-1-4. 학교에서의 성평등 교육 강화

1-1-4-①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성평등 교육 확대 및 운영의 내실화 인천시교육청

1-1-4-② 교사의 성평등 교육 강화 인천시교육청

1-1-4-③ 학부모의 성평등 교육 및 지원 인천시교육청

1-1-4-④ 성평등 교육 내용의 연구와 강사 지원 인천시교육청

1-2. 지역대중매체, 디지털 공간에서의 성차별 개선

1-2-1. 지역신문, 방송, 소셜 미디어,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1-2-1-① 시민 모니터링단의 교육과 활동 지원 여성정책과
(인천여성가족재단)

1-2-1-② 전문가 모니터링단의 연구와 활동 지원 여성정책과
(인천여성가족재단)

1-2-1-③ 청소년 모니터링단의 교육과 활동 지원 여성정책과
(인천여성가족재단)

1-2-2. 정보화 교육과정에서의 성평등 교육 강화

- | | |
|--|---------|
| 1-2-2-① 성평등의 관점에서의 디지털 시민성 교육 실시 | 정보화담당관실 |
| 1-2-2-② 시민대상의 사이버 교육프로그램 '성평등과 디지털 시민성' 개설 | 인재개발원 |

1-3. 지역여성문화의 활성화

1-3-1. 지역여성사 발굴 및 확산

- | | |
|---|---------------------|
| 1-3-1-① 지역여성사 및 여성인물 발굴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수행 | 여성정책과
(인천여성가족재단) |
| 1-3-1-② 지역여성사, 여성인물사에 관한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여성정책과
(인천여성가족재단) |
| 1-3-1-③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과정에서의 여성사 교육 실시 | 관광진흥과 |

1-3-2. 지역여성문화 공간 조성

- | | |
|--|-------|
| 1-3-2-① (가칭)인천시 성평등 자료실 설립 및 운영의 타당성 연구 수행 | 여성정책과 |
| 1-3-2-② (가칭)인천시 성평등 자료실 설립 및 운영 | 여성정책과 |

1-3-3. 지역여성문화 예술인 지원

- | | |
|----------------------------------|-------|
| 1-3-3-① 인천의 여성문화예술인 실태 및 수요조사 실시 | 문화예술과 |
| 1-3-3-② 인천의 여성문화예술인 지원방안 마련 | 문화예술과 |

2영역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 보장

2-1. 고용 기회의 평등성 제고

2-1-1. 성별 직종분리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2-1-1-① 고용정책 및 일자리사업 담당자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 여성정책과

2-1-1-② 고용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확대 여성정책과

2-1-2.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여성의 역량 강화

2-1-2-① 남성 집중 직종 교육훈련과정에 여성의 참여율 제고 여성정책과

2-1-2-② 과학기술분야 여성 진출 활성화를 위한 이공계 여학생 역량 강화 지원 여성정책과

2-2. 고용현장의 성차별 개선

2-2-1. 고용 상 성차별 해소 추진기반 정비

2-2-1-①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및 확대 여성정책과

2-2-1-② 성인지적 인사고과 모델 개발 일자리경제과

2-2-1-③ 직장 내 성차별 실태 모니터링 및 개선 일자리경제과

2-2-1-④ 임금공시제를 통한 성별임금격차 완화기반 조성 일자리경제과

2-2-1-⑤ 공공부문 비정규직 여성의 정규직 단계적 전환 일자리경제과

2-2-2. 사회서비스 부문 여성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2-2-2-① 돌봄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지원 일자리경제과

2-2-2-② 감정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지원 일자리경제과

2-2-3. 직장 내 성희롱 근절

2-2-3-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실화 여성정책과

2-2-3-② 직장 내 성희롱 실태 점검 여성정책과

2-3.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반 조성

2-3-1.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유지 지원

2-3-1-①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및 사후관리	여성정책과
2-3-1-② 경력단절여성 예방 지원사업 내실화	여성정책과
2-3-1-③ 경력단절위기 여성근로자 상담서비스 확대	여성정책과

2-3-2. 취업지원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내실화

2-3-2-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충	여성정책과
2-3-2-②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여성정책과
2-3-2-③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능 강화 및 전문 역량제고 지원	여성정책과
2-3-2-④ 인력 및 기술 수요파악에 기초한 직업교육훈련 지원	여성정책과

2-3-3. 청년여성 고용정책 지원

2-3-3-① 청년여성 경력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창업지원과
2-3-3-② 인천지역 강소기업 청년여성 채용지원 사업 추진	창업지원과

2-4. 여성일자리 확대

2-4-1. 여성일자리 확충

2-4-1-① 공공형 여성일자리 창출	여성정책과 / 일자리경제과
2-4-1-② 여성 창업 지원 강화	창업지원과
2-4-1-③ 수요 맞춤형 지역공동체형 창업 활성화 지원	여성정책과

2-4-2.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 확대

2-4-2-① 인천지역 여성인력 수요조사 및 취업여성 근무환경 실태조사 수행	여성정책과
2-4-2-② 생애주기별 여성근로자 지원사업 개발 및 시행	여성정책과

3영역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기반 강화

3-1. 정치분야 여성대표성 제고

3-1-1. 동등한 정치 참여 지원

- | | |
|---------------------------------------|---------------------|
| 3-1-1-① 여성 정치 리더 발굴 | 여성정책과
(인천여성가족재단) |
| 3-1-1-② 유권자 특성에 맞는 정치의식 향상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여성정책과
(인천여성가족재단) |

3-1-2. 성인지적 의정 활동 지원

- | | |
|---------------------------------|-------|
| 3-1-2-① 인천시의원 및 군구의원 성주류화 교육 실시 | 의회사무처 |
| 3-1-2-② 인천시의회 성평등 연구 모임 구성 및 지원 | 의회사무처 |
| 3-1-2-③ 성인지적 관점의 의정모니터링 활동 지원 | 의회사무처 |
| 3-1-2-④ 인천시 및 군구 여성의원 연석회의 개최 | 의회사무처 |

3-2. 공공·행정분야 여성대표성 제고

3-2-1. 행정분야 여성의 의사결정권 강화

- | | |
|-----------------------------------|-------|
| 3-2-1-①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 설정 및 달성 | 인사과 |
| 3-2-1-② 주요부서의 여성 임용 기회 확대 | 인사과 |
| 3-2-1-③ 각종위원회 여성 참여의 내실화 | 여성정책과 |

3-2-2. 공공기관의 여성대표성 제고

- | | |
|--------------------------------------|----------|
| 3-2-2-①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확대 | 재정관리담당관실 |
| 3-2-2-② 공공기관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및 개선계획 수립 | 재정관리담당관실 |

3-3. 민간기업에서의 여성대표성 제고 기반 마련

3-3-1. 기업의 양성평등 경영 지원

- | | |
|----------------------------|-------|
| 3-3-1-① 민간기업 관리자의 양성평등 교육 | 산업진흥과 |
| 3-3-1-② 여성 CEO 리더십 교육과정 운영 | 산업진흥과 |

3-3-2. 민간기업의 여성관리자 확대 여건 조성

3-3-2-① 민간기업 여성관리자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수행	산업진흥과
3-3-2-② 인센티브 등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산업진흥과
3-3-2-③ 민간기업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의식 확산 캠페인 실시	산업진흥과

3-4. 젠더리더십 역량 강화

3-4-1. 지역 여성정치 리더십 증진

3-4-1-① 여성정치 아카데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여성정책과 (인천여성가족재단)
3-4-1-② 여성정치인-아카데미 교육생간 네트워크 구축	여성정책과 (인천여성가족재단)

3-4-2. 지역 여성인재 발굴 및 육성

3-4-2-① 인천시 여성인재 발굴 및 운영의 내실화	여성정책과
3-4-2-② 인천시 젠더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여성정책과
3-4-2-③ 풀뿌리 마을 여성리더 양성과정 운영	여성정책과

4영역

일-생활 균형 사회 기반 조성

4-1. 일-생활 균형 지역환경 개선

4-1-1. 일-생활 균형 운영체계 구축

4-1-1-① (가칭)인천시 일-생활 균형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여성정책과
4-1-1-② 일-생활 균형 추진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	여성정책과
4-1-1-③ 가족친화마을 조성	여성정책과
4-1-1-④ 인천시 및 군구 공무원의 일-생활 균형 환경 모니터링	총무과

4-1-2. 일-생활 균형 지역문화 조성

4-1-2-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일-생활 균형 관련기능 강화	여성정책과
4-1-2-②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 운영	여성정책과
4-1-2-③ 아동 및 청소년의 성평등한 돌봄 참여 교육	아동청소년과

4-2. 돌봄서비스의 강화

4-2-1. 공보육 인프라 확충

4-2-1-①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출산보육과
4-2-1-② 인천형 어린이집 확대 및 내실화	출산보육과
4-2-1-③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출산보육과

4-2-2.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

4-2-2-① 온종일 돌봄교실 추진	여성정책과
4-2-2-② 공동돌봄나눔터 확대 설치	여성정책과
4-2-2-③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확대 및 내실화	여성정책과
4-2-2-④ 어린이집 친환경 무상급식 및 무상보육 실시	출산보육과
4-2-2-⑤ 공공형 키즈카페 확충	여성정책과
4-2-2-⑥ 취업부모 육아네트워크 구축 지원	출산보육과

4-2-3. 남성의 가사, 육아 참여 권리 확대

4-2-3-①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	인사과
4-2-3-② 남성의 가사, 육아 참여 능력 향상	출산보육과
4-2-3-③ 공간적 남성 돌봄 참여여건 마련	출산보육과

4-3. 가족친화 경영 확산

4-3-1. 가족친화제도 정착

4-3-1-① 가족친화인증기관 및 기업 확대	여성정책과
4-3-1-② 가족친화인증제도 홍보 강화	여성정책과
4-3-1-③ 가족친화인증기업 대상 인센티브 개발	여성정책과
4-3-1-④ 가족친화 직장 교육 실시	여성정책과

4-3-2.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4-3-2-① 일-생활 균형 근무환경 실태조사	여성정책과
4-3-2-② 가족친화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실시	여성정책과

4-4. 다양한 가구의 일-생활 균형 지원

4-4-1. 다양한 가구의 맞춤형 일-생활 균형 정책 강화

4-4-1-① 장애아가정 일-생활 균형 지원	장애인복지과
4-4-1-② 한부모가족 일-생활 균형 지원	여성정책과
4-4-1-③ 다문화가족 일-생활 균형 지원	보훈다문화과
4-4-1-④ 가족돌봄가구 일-생활 균형 지원	여성정책과
4-4-1-⑤ 비혼출산 양육자의 동등하게 대우받는 여건 확립	여성정책과
4-4-1-⑥ 1인 가구 일-생활 균형 지원	여성정책과

5영역

여성폭력 근절 및 여성 건강권 증진

5-1. 여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5-1-1. 제도적 기반 마련

5-1-1-①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례 제정	여성정책과
5-1-1-② 여성폭력 실태조사 정례화	여성정책과
5-1-1-③ 여성폭력 관련 예산의 안정적 확보	여성정책과

5-1-2. 폭력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5-1-2-①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여성정책과
5-1-2-② 시민과 함께 하는 ‘여성폭력 OUT! 인천’	여성정책과
5-1-2-③ 미디어를 활용한 여성폭력 근절 홍보	여성정책과

5-1-3. 수요자 맞춤형 여성폭력 예방교육

5-1-3-① 여성폭력 예방교육 추진체계 거점화	여성정책과
5-1-3-②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여성정책과
5-1-3-③ 성인지 교육과의 통합	여성정책과
5-1-3-④ 수요자 맞춤형 강좌 진행	여성정책과

5-1-4. 인천형 여성안심마을 조성

5-1-4-① 안전관리계획에 여성안전 관련 사항 추가	여성정책과
5-1-4-② 인천형 여성안심마을 조성	여성정책과
5-1-4-③ 무인안심택배함 확대 설치	여성정책과

5-2. 새로운 여성폭력 이슈에 대한 대응력 강화

5-2-1.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

5-2-1-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	여성정책과
5-2-1-② 불법촬영장비 전문 탐지장비 임차	여성정책과

5-2-1-③ 여성안전지도에 불법촬영장비 설치 빈번 구역 표시	여성정책과
5-2-1-④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	여성정책과
5-2-1-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연구	여성정책과
5-2-2.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	
5-2-2-①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	여성정책과
5-2-2-② 초기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SMS 발송	여성정책과
5-2-3.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	
5-2-3-①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강화	여성정책과

5-3. 여성폭력피해 지원 서비스 강화

5-3-1. 피해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5-3-1-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간 협업 강화	여성정책과
5-3-1-② 민·관·경 협의체 정례화	여성정책과
5-3-1-③ 상담·치료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제고	여성정책과
5-3-1-④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	여성정책과
5-3-1-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여성정책과
5-3-2. 지원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지원기관 역량 강화	
5-3-2-① 여성폭력피해 대응업무 종사자에 대한 성인권 및 여성폭력 대응 교육	여성정책과
5-3-2-② 기관 종사자의 역량 강화	여성정책과
5-3-2-③ 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	여성정책과

5-4. 폭력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5-4-1. 청소년대상 폭력가해 예방교육 및 성매매 근절활동 추진	
5-4-1-① 건강한 데이트 교육 및 여성폭력 가해 예방교육 실시	아동청소년과
5-4-1-② 청소년 성매매 근절 활동 다각화	여성정책과

5-4-2. 가정방문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의 폭력 대응 능력 강화

- | | |
|-------------------------------------|--------|
| 5-4-2-① 가정방문 노동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 일자리경제과 |
| 5-4-2-② 영세자영업자 대상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여성정책과 |

5-4-3. 여성장애인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

- | | |
|---------------------------------------|--------|
| 5-4-3-① 장애특성을 반영한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장애인복지과 |
| 5-4-3-② 가정방문을 통한 피해자 발굴·관리 | 장애인복지과 |
| 5-4-3-③ 장애인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개소 | 장애인복지과 |

5-4-4. 이주여성의 여성폭력 관련 정보 공유 강화

- | | |
|---|--------|
| 5-4-4-① 이주여성 폭력피해 보호시설 운영 및 지원 | 여성정책과 |
| 5-4-4-② 이주여성 대상 폭력예방 전문강사·폭력 전문 상담사 양성 및 파견 | 여성정책과 |
| 5-4-4-③ 폭력예방교육 대상 확대 | 보훈다문화과 |
| 5-4-4-④ 이주여성 자조모임 활성화 | 보훈다문화과 |

5-5. 여성건강권 증진 기반 강화

5-5-1. 제도적 기반 마련

- | | |
|-----------------------------------|-------|
| 5-5-1-① 여성건강 증진 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 정비 | 건강증진과 |
| 5-5-1-② 여성건강 실태조사 정례화 및 기초자료 DB구축 | 건강증진과 |
| 5-5-1-③ 인천형 여성건강지표 개발·적용 | 건강증진과 |
| 5-5-1-④ 여성건강 관련 연구 지원 | 건강증진과 |

5-5-2. 보건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 | | |
|-------------------------------|-------|
| 5-5-2-① 여성건강 네트워크 구축 | 건강증진과 |
| 5-5-2-② 지역 보건소를 활용한 건강 접근성 강화 | 보건정책과 |
| 5-5-2-③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업무 확대 | 보건정책과 |

5-5-3. 정서적 지지기반 강화

- | | |
|------------------------------|-------|
| 5-5-3-① 여성정신건강 증진 실천방법 보급 확대 | 건강증진과 |
| 5-5-3-② 여성정신건강 상담서비스 강화 | 건강증진과 |
| 5-5-3-③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 | 건강증진과 |

5-5-3-④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여성폭력 상담기관의 연계 건강증진과

5-6. 계층 간 건강형평성 향상

5-6-1. 청소년 건강 증진

5-6-1-①	외모 중심주의 의식 개선 교육	아동청소년과
5-6-1-②	뉴스포츠 프로그램 개발·보급	아동청소년과
5-6-1-③	성인지적 성교육 강화	아동청소년과
5-6-1-④	취약계층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아동청소년과

5-6-2. 모성보호의 다각화

5-6-2-①	안전한 피임 실천정보 제공	출산보육과
5-6-2-②	난임부부 지원 확대	출산보육과
5-6-2-③	산후 건강관리 강화	출산보육과
5-6-2-④	공공의료기관(인천의료원) 내 분만실 설치	출산보육과
5-6-2-⑤	청소년 및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비용 지원	출산보육과/ 장애인복지과

5-6-3. 성인여성 건강 증진

5-6-3-①	스트레스 관리 강화	건강증진과
5-6-3-②	연령대별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건강증진과
5-6-3-③	치매예방센터 설립·운영	건강증진과

5-6-4.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5-6-4-①	여성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권 강화	장애인복지과
5-6-4-②	이주여성과 도서지역 거주 여성의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확대	건강증진과
5-6-4-③	감정노동자, 돌봄노동자, 영세자영업자의 건강관리 강화	건강증진과

6영역

성주류화 정책 추진 기반 강화

6-1. 성주류화 정책 추진환경 정비

6-1-1. 성주류화 정책 결정기구의 내실화

6-1-1-① 성평등위원회의 책무성 및 위상 제고 여성정책과

6-1-1-② 성평등위원회의 전문성 및 성인지 역량 강화 여성정책과

6-1-2. 성주류화를 위한 추진체계의 강화

6-1-2-① 성평등 정책 전문인력 및 젠더정책담당관 지정 여성정책과

6-1-2-②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신설 여성정책과

6-1-2-③ 인천여성가족재단의 기능 강화 여성정책과

6-1-3. 성주류화를 위한 실행 계획 수립

6-1-3-① 인천시 성주류화 실행 매뉴얼(안) 개발 여성정책과

6-1-3-② 인천시 양성평등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여성정책과

6-1-4. 여성친화도시 조성 확산

6-1-4-① 여성친화도시 지정 기초자치단체 지원 확대 여성정책과

6-1-4-② 여성친화도시 조성 확산을 위한 시-군구간 협력체계 구축 여성정책과

6-2. 성주류화 조치의 체계화 및 운영 내실화

6-2-1. 성별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6-2-1-①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의 내실화 여성정책과

6-2-1-② 성별영향평가의 효과적인 운영 여성정책과

6-2-1-③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확대 여성정책과

6-2-2.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내실화

6-2-2-① 성인지 예·결산의 실효성 제고 예산담당관실

6-2-2-②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내실화 예산담당관실

6-2-3. 성인지 통계 구축 확대

- | | |
|-------------------------|---------|
| 6-2-3-① 성인지 통계의 체계적 관리 | 여성정책과 |
| 6-2-3-② 행정통계의 성별분리통계 실시 | 정보화담당관실 |

6-2-4. 성인지 교육 체계 정비

- | | |
|--------------------------------|-------|
| 6-2-4-① 정책담당자의 성인지 교육 확대 | 여성정책과 |
| 6-2-4-② 공무원 성인지 교육 내실화 | 여성정책과 |
| 6-2-4-③ 정책담당자의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지원 | 여성정책과 |

6-3. 성주류화 정책 민관협력체계 구축

6-3-1. 젠더거버넌스 기반 조성

- | | |
|------------------------|---------------------|
| 6-3-1-① 젠더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 여성정책과
(인천여성가족재단) |
| 6-3-1-② 젠더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 여성정책과
(인천여성가족재단) |

6-3-2. 지역 시민사회의 참여 활성화

- | | |
|-----------------------------|---------------------|
| 6-3-2-① 민간 젠더전문가집단과 협력체계 구축 | 여성정책과 |
| 6-3-2-② 지역 시민사회단체 성인지 교육 지원 | 여성정책과
(인천여성가족재단) |

□ 참고문헌

- 검찰청(2017),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 검찰청(2017), 범죄분석통계.
- 보건복지부(2015),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 여성가족부(2015),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 여성가족부(2017),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 여성가족부(2016), 2016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분석 연구.
- 여성가족부(2017),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2018),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지침.
- 인천시 홈페이지, www.incheon.go.kr.
- 인천시(2015~2018), 여성가족국 주요업무계획.
- 인천여성가족재단(2018), 인천 성인지 통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info.nec.go.kr>.
- 통계청(2005~2015), 인구총조사.
- 통계청(2005~2017), 인구동향조사.
- 통계청(2017), 경제활동인구연보.
- 통계청(2017), 사회조사.
- 통계청(2017), 지역별 고용조사.
- 한국교육개발원(2017), 교육통계연보, 교육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 2016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7), 2017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 행정안전부(2012~2016),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
- 행정안전부(2013~2016), 행정자치통계연보.
- 행정안전부(2018), 주민등록 인구통계.

□ 부록

① 성인용

ID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은 인천시 출연 기관으로써 ‘평등하고 행복한 인천시’를 구현하기 위해 연구 및 정책개발, 교육,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여성정책 전문기관입니다.

본 설문지는 인천시민의 양성평등 인식, 실태 및 수요를 조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5조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조사원의 질문에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귀하가 응답하신 설문 결과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며, 연구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8. 4.



인천여성가족재단

응답자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응답자 연령	① 만19세 미만 (☞ 조사중단 : 죄송합니다. 귀하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19세 이상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세 이상
거주지역	인천시 _____ 구/군

I. 양성평등 인식 및 문화

1.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내가 남편보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남편은 기가 죽는다	①	②	③	④
2) 가정의 중요한 문제는 남편(아버지) 위주로 결정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3) 남성이 전업주부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①	②	③	④
4) 경제적인 가족부양 책임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크다	①	②	③	④
5) 엄마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직장을 다니지 않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6)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7) 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8) 결혼한 여성은 친정보다 시댁을 더 먼저 생각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9) 여성은 남성보다 직업의식이 낮다	①	②	③	④
10) 남성은 여성보다 더 책임있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11) 직원을 줄일 때에는 남성보다 여성을 먼저 해고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12) 남성이 업무 추진과 기획력이 여성보다 더 우수하다	①	②	③	④
13) 남녀 이성 관계에서 데이트는 남성이 주도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14) 여성이 욕설, 음담패설, 술 취한 모습은 보기에 좋지 않다	①	②	③	④
15) 요즘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더 문제이다	①	②	③	④

2. 귀하는 **현재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현재의 경제적 상황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한다 (직장, 학교 등)	①	②	③	④
3) 나는 가족관계나 가정생활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여가 혹은 문화생활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이웃, 친구 등 대인관계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지금 살고 있는 주거 환경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7) 나는 현재 전반적인 나의 삶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3. 귀하는 현재 한국사회와 인천시의 **남성과 여성 간의 평등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음					남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음			
	매우 불평등				남녀평등				매우 불평등
한국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인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귀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공간(자료실 및 도서관 등)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또한 인천시에 관련 시설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인천시에 생긴다면 향후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인지도		필요성			향후 이용의향		
	알거나 들어본 적 없다	알거나 들어본 적 있다	필요 하지 않다	필요하다	잘 모르겠다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용 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양성평등 문화확산 공간 (도서관, 자료실)	①	②	①	②	③	①	②	③

5. 인천시에 양성평등 문화 확산 공간(자료실 및 도서관 등의 형태)이 생긴다면, 귀하는 다음의 기능들이 어느 정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필요없다	별로 필요없다	대체로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평등과 관련된 전시 기능	①	②	③	④
2)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서관 기능	①	②	③	④
3) 정책 및 연구 자료를 접할 수 있는 전문 자료실 기능	①	②	③	④
4) 모임을 할 수 있는 세미나실 기능	①	②	③	④
5) 온라인을 통해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전자정보 기능	①	②	③	④
6) 특별한 사건을 기록한 기록보관의 기능	①	②	③	④

II. 경제활동

1. 귀하는 현재 직장이나 자기 사업체(점포나 가게) 등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 ① 예 (☑ 2번 취업자 질문으로) ② 아니오 (☑ 8번 비취업자 질문으로)

[취업자 및 근로활동자의 경우]

2. 현재 다니시는 직장에서 귀하의 “종사상의 지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 ① 상용 근로자 ② 임시 및 일용 근로자 ③ 고용주
④ 단독 자영업자 ⑤ 무급 가족종사자 ⑥ 기타 종사자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무시간의 1/30이상 종사하는 사람
기타 종사자 : 기타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

3. 현재 귀하가 일하고 계시는 “직장 유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① 공무원 (국·공립 교사 및 교수, 군인 포함) ② 공공기관(사립학교 교사 및 교수, 공기업 포함)
③ 정부투자 출연기관 ④ 대기업 (300인 이상)
⑤ 중소기업 (50~299인) ⑥ 소기업 (49인 이하)
⑦ 개인 사업체 ⑧ 기타 ()

4. 현재 귀하가 일하고 계시는 직장은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 ① 인천시 ② 서울시 ③ 경기도 ④ 기타 ()

5. 귀하는 다음 항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회사는 직원을 채용할 때 남성을 더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2) 우리 회사는 남성이 하는 업무와 여성이 하는 업무가 따로 있다	①	②	③	④
3) 우리 회사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직급이 같더라도 남자 직원의 급여가 여자 직원에 비해 높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4) 우리 회사에서 여성이 특정 직급 및 지위 이상으로 승진하는데 암묵적인 제한이 있다	①	②	③	④
5) 우리 회사는 외부에서 손님이 오거나 회의를 준비할 때 주로 여자직원이 다과를 준비한다	①	②	③	④
6) 우리 회사는 임신 출산을 하면 퇴사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다	①	②	③	④
7) 우리 회사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8) 우리 회사는 정시에 퇴근해도 눈치가 보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6. 귀하는 일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어느 정도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항 목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약간 어려움을 느낀다	매우 어려움을 느낀다
1) 낮은 임금	①	②	③	④
2) 근무시간 (장시간 근로)	①	②	③	④
3) 직장과 가정생활의 병행	①	②	③	④
4) 고용 불안정 (계약기간 등)	①	②	③	④
5) 승진 등 장래 직업전망	①	②	③	④
6) 성희롱 등 성차별적 관행	①	②	③	④
7) 출퇴근의 용이함 (교통, 거리 등)	①	②	③	④
8) 기타 (적어주십시오)				

제도 종류	운영 여부			이용의 편의성		
	한다	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모든 직원이 쉽게 이용한다	여성직원만 쉽게 이용한다 (☞ 7번-1)	모든 직원이 쉽게 이용하지 못한다 (☞ 7번-1)
1) 출산전후휴가	①	②	③	①	②	③
2) 육아휴가	①	②	③	①	②	③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②	③	①	②	③
4) 유연근무제	①	②	③	①	②	③

① 승진 등 불이익이 예상되어서 ② 눈치등 직장 분위기가 호의적이지 않아서
③ 주위에 별로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④ 잘 몰라서
⑤ 기타 ()

▶ 응답 후 10번으로 이동

① 일자리가 없어서 ② 나이가 많아서
③ 건강상의 이유로 ④ 가사, 육아 때문에
⑤ 노부모 부양 때문에 ⑥ 가족 내 환자/장애인 수발 때문에
⑦ 취업에 필요한 기술이나 경험이 없어서 ⑧ 내 수준에 맞는 일이 없어서
⑨ 일하고 싶지 않아서 ⑩ 일할 필요가 없어서
⑪ 학업 등 아직 일할 때가 아니어서 ⑫ 기타 ()

-

12. 인천시에 일-가정 양립지원센터가 생긴다면, 다음의 기능들이 어느 정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필요없다	별로 필요없다	대체로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직장 교육	①	②	③	④
2) 가족친화 경영 컨설팅 사업	①	②	③	④
3) 일-가정 양립 사례 발굴 및 확산 사업	①	②	③	④
4)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연구, 정책 개발	①	②	③	④
5) 직장맘, 직장대디를 위한 정보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	①	②	③	④

III. 지역사회 활동 및 사회관계

1. 다음 중 귀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가장 “의지”가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순위 () ● 2순위 ()

- ① 부모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형제자매
⑤ 그 외 친인척 ⑥ 친구/애인 ⑦ 동료/이웃 ⑧ 성직자
⑨ 자기 자신 ⑩ 기타() ⑪ 의지할 사람 없음

2. 귀하는 평소에 왕래하며 교류하는 “이웃”이 있습니까?

- ① 예 (☞ 2-1번으로) ② 아니요 (☞ 2-2번으로)

2-1. 주로 이웃과 어떠한 교류를 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 , , , ,)

- | | |
|----------------|------------------|
| ① 영유아 자녀 돌보기 | ② 자녀 등교 같이 하기 |
| ③ 방과 후 아동 돌보기 | ④ 택배, 우편물 수령 |
| ⑤ 음식 나누기 | ⑥ 생활정보 교류 |
| ⑦ 쇼핑, 시장 같이 가기 | ⑧ 오락, 취미활동 같이 하기 |
| ⑨ 대화나 담소 나누기 | ⑩ 기타 () |

2-2. 이웃과 교류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내가 너무 바빠서 | ② 이웃이 너무 바쁜 것 같아서 |
| ③ 이웃을 믿을 수 없어서 | ④ 이웃에게 신세지는 것이 싫어서 |
| ⑤ 교류할 기회가 없어서 | ⑥ 기타 () |

3. 귀하는 다음과 같은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또한 향후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역사회 활동 종류	참여 경험		향후 참여 의향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 지방자치 참여 활동 (지방의회, 시군구에서 주최하는 위원회, 공청회, 모니터링 활동)	①	②	①	②
2) 사회 활동 (시민단체 활동, 자원봉사 등)	①	②	①	②
3) 정치 활동 (정치 기부, 집회 및 시위, 선거운동, 정당활동 등)	①	②	①	②

4. 귀하는 누구나 평등한 정치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인천시가 향후 5년간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순위 () ● 2순위 ()

- | | |
|--------------------------|--------------------|
| ① 시군구 위원회의 여성비율 확대 | ② 지역리더 양성 프로그램 제공 |
| ③ 시민의 의식개선 사업(교육, 캠페인 등) | ④ 여성단체나 시민단체 활동 지원 |
| ⑤ 정책 모니터링 활동 지원 확대 | ⑥ 기타 () |

Ⅳ. 가사 · 가족 돌봄 및 시간 활용

[1~2] 현재 배우자가 있는 분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다음의 가사 일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가사 일	대체로 본인이	대체로 배우자가	본인과 배우자가 같이	친인척	도우미 등 제3자
1) 식사 준비	①	②	③	④	⑤
2) 설거지	①	②	③	④	⑤
3) 집안 청소	①	②	③	④	⑤
4) 쓰레기 버리기	①	②	③	④	⑤

2. 귀하는 다음 문항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배우자와의 가사일 분담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배우자와의 가사일 분담 정도가 공평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5] 현재 만12세(초등 6학년)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는 “자녀돌봄 분담”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녀돌봄 종류	대체로 본인이	대체로 배우자가	본인과 배우자가 같이	친인척	도우미 등 제3자
1) 밥 먹고 옷 입는 것 도와주기	①	②	③	④	⑤
2) 아플 때 돌봐주기, 병원 데려가기	①	②	③	④	⑤
3) 숙제나 공부 돌봐주기	①	②	③	④	⑤
4) 유치원, 학교 부모 참여 활동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5) 함께 놀아주기(실내 및 야외활동)	①	②	③	④	⑤

4. 귀하는 다음 문항에 대하여 어느 정도“동의”하십니까?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배우자와의 자녀돌봄 분담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배우자와의 자녀돌봄 분담 정도가 공평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귀하는 자녀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 인천시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순위 () ● 2순위 ()

- ① 믿고 맡길만한 공보육 확대(국공립 어린이집, 인천형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등)
 ② 보육서비스 다양성 확대(야간, 시간제, 24시간, 휴일보육 등)
 ③ 집으로 파견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④ 보육료 지원 확대
 ⑤ 아동안전지킴이 제도 확대
 ⑥ 직장인부모를 위한 육아휴직제도 확대
 ⑦ 기타 ()

[모든 응답자]

6. 가족돌봄과 관련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래 [보기]에서 골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a) 돌보는 사람	(b) 돌봄 비용 부담	(c) 돌보는 장소
자녀돌봄	1) 영아 (만 0~2세)			
	2) 유아 (만 3~5세)			
	3) 초등 저학년(1~3학년) 방과 후			
장애가족 돌봄	4) 장애 아동			
	5) 장애가 있는 성인			
	6) 치매 가족			
노인돌봄	7) 거동이 불편한 노인 (만 65세)			

[보기]

돌보는 사람 (a)	① 가족이 전적	② 가족이 주로 돌보고 외부인이 일부	③ 외부인이 주로 돌보고 가족이 조금	④ 외부인이 전적
돌봄 비용 (b)	① 가족이 전적	② 가족이 주로 부담하 고 정부가 일부	③ 정부가 주로 부담하고 가족이 일부	④ 정부가 전적
돌보는 장소 (c)	① 집에서 전적	② 집에서 주로 돌보고 외부기관에서 일부	③ 외부기관에서 주로 돌 보고 집에서 일부	④ 외부기관이 전적

7. 귀하는 평일(월~금) 하루 다음과 같은 일을 얼마나 하십니까? 또한 조정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조정하고 싶으십니까? (시간은 30분 단위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 3시간 30분 = 3.5)

	현재 사용하는 시간	조정 희망 사항		
		줄이고 싶다	적정하다	늘리고 싶다
1) 생리적 시간 (수면, 식사, 간식, 세면 등)	시간	①	②	③
2) 일하는 시간 (직장, 출퇴근, 일과 관련된 활동)	시간	①	②	③
3) 학습 및 자기 개발 시간 (강의, 등하교, 학원 수강 등)	시간	①	②	③
4) 가사 시간 (식사준비, 청소, 세탁 등)	시간	①	②	③
5) 돌봄시간 (자녀, 환자, 노인 등)	시간	①	②	③
6) 여가시간 (친구만나기, 독서, TV시청 등)	시간	①	②	③
7) 기타	시간			
계	24시간			

V. 인권 및 건강

1.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음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대체로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1) 여성에 대한 신체적 폭력	①	②	③	④
2) 커뮤니티, SNS에서의 여성 혐오 발언	①	②	③	④
3) 방송 및 일상에서의 여성외모 비하 표현	①	②	③	④

2. 귀하는 다음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용인될 수 없으며, 어떤 경우라도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	용인될 수는 없으나, 법에 의해서 처벌 사안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용인될 수 있다
1) 부부폭력 (배우자 사이에 일어나는 폭력 행위)	①	②	③
2) 데이트폭력 (연인 사이에 일어나는 폭력 행위)	①	②	③
3) 직장 내 성희롱 (직장에서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①	②	③
4) 성매매 (금전적 거래로 성을 파고 사는 행위)	①	②	③

3. 최근 권력관계에 의해 만들어진 성폭력 및 성희롱 행위를 폭로하고 이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는 운동(캠페인)인 '미투운동'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귀하는 미투 운동에 어느 정도 공감하십니까?

- ① 매우 공감한다 ② 약간 공감한다 ③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④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4. 내가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젠더폭력)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가해자에게 불쾌감을 표시한다 ② 증거자료를 확보해 신고한다 ③ 지인에게 알린다
④ 침묵한다 ⑤ 기타 ()

5. 귀하는 젠더폭력으로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다음의 기관들을 알고 있습니까?

기 관 명	안다	들어는 보았다	모른다
1) 여성긴급전화 1366	①	②	③
2) 여성·아동·청소년 경찰지원센터 117	①	②	③
3)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①	②	③
4) 이주여성 긴급 지원센터	①	②	③
5) 해바라기 아동센터	①	②	③

6. 귀하는 특정 성에 가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인 젠더폭력을 예방 및 해결을 위해 향후 5년간 인천시가 해야 할 중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대로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순위 () ● 2순위 ()

- ① 폭력예방 교육 확대
 ② 상담소 지원 확대
 ③ 폭력피해자 지원 (보호, 의료지원, 사후지원)
 ④ 피해자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서비스 제공 (데이트폭력, 아동 대상 등)
 ⑤ 가해자 사후관리
 ⑥ 기타 ()

7. 다음은 건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동일 연령대와 비교하여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 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현재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한 가지 이상의 만성병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현재 우울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8. 귀하는 다른 조건(성격, 능력, 재력 등)에 비해 남성과 여성의 외모가 비교하여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중요하 지 않다	별로 중요하 지 않다	대체로 중요하 다	매우 중요하 다
남성에게 외모는	1) 연애	①	②	③	④
	2) 결혼	①	②	③	④
	3) 취업	①	②	③	④
	4) 대인관계	①	②	③	④
여성에게 외모는	1) 연애	①	②	③	④
	2) 결혼	①	②	③	④
	3) 취업	①	②	③	④
	4) 대인관계	①	②	③	④

VI. 양성평등 정책

① 전혀 관심없다 ② 별로 관심없다 ③ 약간 관심있다 ④ 매우 관심있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인천은 양성평등한 도시이다	①	②	③	④
2) 인천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이다	①	②	③	④
3) 인천은 여성이 일하기 좋은 도시이다	①	②	③	④
4) 인천은 다문화, 한부모 등이 생활하기에 좋은 도시이다	①	②	③	④
5) 인천은 장애인, 노인 등이 생활하기에 좋은 도시이다	①	②	③	④
6) 인천은 여가·문화, 체육시설이 잘 갖추어진 도시이다	①	②	③	④
7) 인천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이다	①	②	③	④
8) 인천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이다	①	②	③	④
9) 인천은 사회참여나 정치참여가 활발한 도시이다	①	②	③	④
10) 인천은 살기 좋은 도시이다	①	②	③	④

① 남녀평등 의식 및 문화 분야 ② 여성의 사회 및 정치참여 분야
③ 일-가정 양립 분야 ④ 여성폭력 근절 및 인권보호 분야
⑤ 여성일자리 분야 ⑥ 여성의 건강 증진 분야
⑦ 자녀양육 및 보육 분야 ⑧ 기타 ()

① 남녀평등 의식 및 문화 분야 ② 여성의 사회 및 정치참여 분야
③ 일-가정 양립 분야 ④ 여성폭력 근절 및 인권보호 분야
⑤ 여성일자리 분야 ⑥ 여성의 건강 증진 분야
⑦ 자녀양육 및 보육 분야 ⑧ 기타 ()

응답자의 특성

SQ1. 귀하는 “가구주” 와 어떤 관계입니까?

- ① 가구주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 ⑤ 가구주의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시부모,장인장모)
 ⑦ 손자녀 및 그 배우자 ⑧ 조부모 ⑨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⑩ 기타 친인척 ⑪ 동거인(하숙인, 고용인 등) ⑫ 기타 ()

SQ2. 귀하는 “학력” 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전문대 졸업
 ④ 4년대 대학 졸업 ⑤ 대학원 재학 이상

SQ3. 귀하는 “결혼상태” 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미혼 ② 배우자 있음 (사실혼 포함)
 ③ 이혼, 별거 ④ 사별

SQ4. 귀하는 “주거 형태” 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아파트, 주상복합 ② 다세대 주택 (빌라, 연립) ③ 단독주택
 ④ 오피스텔, 원룸 ⑤ 기타 ()

SQ5. 귀 닥의 “월 평균 가구 소득” 은 얼마입니까?

(연금, 이자, 월급, 생활비 지원 등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 ① 100만원 이하 ② 100~199만원 ③ 200~299만원 ④ 300~399만원
 ⑤ 400~499만원 ⑥ 500~599만원 ⑦ 600~699만원 ⑧ 700만원 이상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처	
면접원 성명		면 접 일 시	월 일(시 분 ~ 시 분)
검증원 성명		검 증 일 시	월 일 시
검 증 결 과	① 상 ② 중 ② 하		

[2] 청소년용

ID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은 인천시 출연 기관으로써 ‘평등하고 행복한 인천시’를 구현하기 위해 연구 및 정책개발, 교육,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여성정책 전문기관입니다.

본 설문지는 인천시민의 양성평등 인식, 실태 및 수요를 조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5조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조사원의 질문에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귀하가 응답하신 설문 결과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며,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8. 4.

 인천여성가족재단

응답자 성별	① 남학생 ② 여학생
응답자 연령	만()년생
응답자 학년	① 중학교 2학년 미만 (☞ 조사중단 : 죄송합니다. 학생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중학교 3학년 ③ 고등학교 1학년 ④ 고등학교 2학년 ⑤ 고등학교 3학년
거주지역	인천시 구/군

I. 양성평등 인식 및 문화

1.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내가 남편보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남편은 기가 죽는다	①	②	③	④
2) 남성이 전업주부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①	②	③	④
3) 경제적인 가족부양 책임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크다	①	②	③	④
4) 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5) 남녀 이성 관계에서 데이트는 남성이 주도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6) 여성이 욕설, 음담패설, 술 취한 모습은 보기에 좋지 않다	①	②	③	④

2.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남자는 여자보다 수학과 과학을 더 잘한다	①	②	③	④
2) 여자는 남자보다 국어와 영어를 더 잘한다	①	②	③	④
3) 남자는 여자보다 운동을 더 잘한다	①	②	③	④
4) 여학생은 치마 교복을 입는 것이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5) 반장이나 학생회 간부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적합하다	①	②	③	④

3. 귀하는 현재 한국사회와 인천시의 남성과 여성 간의 평등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음				남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음						
	매우 불평등				▶	남녀평등				▶	매우 불평등
한국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인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지금으로부터 5년 후인 2022년에 한국사회와 인천시의 남성과 여성 간의 평등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음				남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음						
	매우 불평등				▶	남녀평등				▶	매우 불평등
한국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인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 귀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공간(자료실 및 도서관 등)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또한 인천시에 관련 시설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인천시에 생긴다면 향후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인지도		필요성			향후 이용의향		
	알거나 들어본 적 없다	알거나 들어본 적 있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잘 모르겠다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용 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양성평등 문화확산 공간 (도서관, 자료실)	①	②	①	②	③	①	②	③

6. 인천시에 양성평등 문화 확산 공간(자료실 및 도서관 등의 형태)이 생긴다면, 귀하는 다음의 기능들이 어느 정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필요없다	별로 필요없다	대체로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평등과 관련된 전시 기능	①	②	③	④
2)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서관 기능	①	②	③	④
3) 정책 및 연구 자료를 접할 수 있는 전문 자료실 기능	①	②	③	④
4) 모임을 할 수 있는 세미나실 기능	①	②	③	④
5) 온라인을 통해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전자정보 기능	①	②	③	④
6) 특별한 사건을 기록한 기록보관의 기능	①	②	③	④

II. 향후 직업과 일

1.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2) 여성은 남성보다 직업의식이 낮다	①	②	③	④
3) 남성은 여성보다 더 책임있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4) 직원을 줄일 때에는 남성보다 여성을 먼저 해고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직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다음 항목들이 남성 또는 여성에게 얼마나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남성에게 어울린다	여성에게 어울린다	남녀 간 차이가 없다
1) 공구, 기계를 다루는 일 ex> 엔지니어 등	①	②	③
2) 분석적인 사고, 활용을 요하는 일 ex>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①	②	③
3) 예술·문학·음악 작품을 창작하고 표현하는 일 ex>예술가, 화가 등	①	②	③
4) 다른 사람의 복지와 관련된 일 ex>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	①	②	③
5) 학생을 지도하는 일 ex> 유치원, 초중고 교사, 교수 등	①	②	③
6) 개인이나 조직을 위해 지도하는 일 ex>정치가 등	①	②	③
7) 가사 일과 관련된 일 ex> 요리사 등	①	②	③

III. 집안 일

1. 귀하는 지난 2주 동안 한번 이상 한 집안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① 상차리거나 치우기 | ② 설거지 |
| ③ 요리하기 | ④ 청소 |
| ⑤ 빨래하기 (널리, 건기, 개기 포함) | ⑥ 쓰레기 버리기 (분리수거, 음식물 등) |
| ⑦ 집안 수리 (전등 교체 등) | ⑧ 동생돌보기 |
| ⑨ 가족돌보기 (조부모, 환자, 장애가족) | ⑩ 기타 () |
| ⑪ 어떤 집안일도 한 적 없음 | |

IV. 인권 및 건강

1.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음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대체로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1) 여성에 대한 신체적 폭력	①	②	③	④
2) 커뮤니티, SNS에서의 여성 혐오 발언	①	②	③	④
3) 방송 및 일상에서의 여성외모 비하 표현	①	②	③	④

2. 귀하는 다음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용인될 수 없으며, 어떤 경우라도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	용인될 수는 없으나, 법에 의해서 처벌 사안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용인될 수 있다
1) 부부폭력 (배우자 사이에 일어나는 폭력 행위)	①	②	③
2) 데이트폭력 (연인 사이에 일어나는 폭력 행위)	①	②	③
3) 직장 내 성희롱 (직장에서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①	②	③
4) 성매매(금전적 거래로 성을 파고 사는 행위)	①	②	③

3.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1) 남성이 성적이 호기심을 보이는 것은 괜찮지만 여성은 좋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2) 남성의 성 충동은 생물학적인 것이어서 해소해야만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여성들만 조심하면 성폭력은 줄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최근 권력관계에 의해 만들어진 성폭력 및 성희롱 행위를 폭로하고 이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는 운동(캠페인)인 '미투운동'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은 미투 운동에 어느 정도 공감하십니까?

- ① 매우 공감한다 ② 약간 공감한다 ③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④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5. 내가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젠더폭력)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가해자에게 불쾌감을 표시한다 ② 증거자료를 확보해 신고한다 ③ 지인에게 알린다
④ 침묵한다 ⑤ 기타 ()

6. 학생은 다른 조건(성격·능력·재력 등)에 비해 남성과 여성의 외모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대체로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남성에게 외모는	1) 연애	①	②	③	④
	2) 결혼	①	②	③	④
	3) 취업	①	②	③	④
	4) 대인관계	①	②	③	④
여성에게 외모는	1) 연애	①	②	③	④
	2) 결혼	①	②	③	④
	3) 취업	①	②	③	④
	4) 대인관계	①	②	③	④

V. 학교생활

1. 귀하가 다니는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남자가... 여자가...”와 같은 표현을 자주 하십니까?

-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거의 하지 않는다 ③ 자주하는 편이다 ④ 매우 자주한다

2. 귀하는 지난 1년간 현재 다니는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2-1으로) ② 없다 (☞ 3번으로)

성교육 : 성적 욕망과 정체성은 생물학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라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임을 이해하도록 하며, 성에 대한 가치관, 이성 교제, 피임법, 생식기 건강, 불법적 성행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업

2-1. 지난 1년동안 학교에서 이루어진 성교육은 어떤 시간에 받았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

- ① 교과과정(보건, 체육, 사회과 등) ② 창의적 체험활동
③ 기타 ()

2-2. 지난 1년동안 학교에서 이루어진 성교육은 누가 하였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

- ① 보건선생님 ② 일반교과목 선생님
③ 담임선생님 ④ 기타 ()

2-3. 지난 1년동안 학교에서 이루어진 성교육은 유용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4. 귀하는 학교에서의 성 교육 필요성 및 확대(감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성		확대 (감소)		
	필요하다	필요없다	확대	감소	현상유지
성 교육	①	②	①	②	③

3. 귀하는 지난 1년간 현재 다니는 학교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3-1으로) ② 없다 (☞ 4번으로)

양성평등교육 : 가족, 학교, 직장, 일상생활 및 모든 인간관계에서 성별 고정관념과 성별로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성차별적 사회환경을 도모하는 내용을 포함한 교육 ex> 대중매체에서의 성별고정관념 문제, 여성의 가사, 양육 전담 문제, 직장 내 각종 성차별 등

3-1. 지난 1년 동안 학교에서 이루어진 양성평등 교육은 어떤 시간에 받았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

- ① 교과과정 (보건, 체육, 사회과 등) ② 창의적 체험활동
③ 기타 ()

3-2. 지난 1년 동안 학교에서 이루어진 양성평등 교육은 유용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3-3. 귀하는 양성평등 교육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대로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① 특강 형태 ② 가정통신문, 유인물
③ 참여 형태 (ex>캠페인, 글짓기) ④ 시청각 교재 활용
⑤ 생활체험형 불평등 사례 조사 ⑥ 기타 ()

3-4. 귀하는 학교에서의 양성평등교육 필요성 및 확대(감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성		확대 (감소)		
	필요하다	필요없다	확대	감소	현상유지
양성평등 교육	①	②	①	②	③

4. 귀하의 학교는 남녀공학입니까?

① 그렇다 (☞ 4-1번으로)

② 아니다 (☞ V. 양성평등정책'으로 이동)

4-1. 귀하의 학교에서 일어나는 복장 지도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여학생에게 더 엄격하다

② 남학생에게 더 엄격하다

③ 성별 차이가 없다

4-2. 귀하는 체육수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실력 차이가 나서 같이 하는 것이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2) 체육선생님은 선생님과 성별이 다른 학생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3) 다른 성의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신경쓰여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Ⅵ. 양성평등 정책

1. 귀하는 인천시의 “양성평등 및 여성·가족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십니까?

① 전혀 관심없다 ② 별로 관심없다 ③ 약간 관심있다 ④ 매우 관심있다

2. 귀하는 다음 항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인천은 양성평등한 도시이다	①	②	③	④
2) 인천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이다	①	②	③	④
3) 인천은 여성이 일하기 좋은 도시이다	①	②	③	④
4) 인천은 다문화, 한부모 등이 생활하기에 좋은 도시이다	①	②	③	④
5) 인천은 장애인, 노인 등이 생활하기에 좋은 도시이다	①	②	③	④
6) 인천은 여가·문화, 체육시설이 잘 갖추어진 도시이다	①	②	③	④
7) 인천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이다	①	②	③	④
8) 인천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이다	①	②	③	④
9) 인천은 사회참여나 정치참여가 활발한 도시이다	①	②	③	④
10) 인천은 살기 좋은 도시이다.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처	
면접원 성명		면 접 일 시	월 일(시 분 ~ 시 분)
검증원 성명		검 증 일 시	월 일 시
검 증 결 과	① 상 ② 중 ③ 하		

